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ISSN 2714-1187

2024년 1월 제9집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SSN 2714-1187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062-530-5218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E-mail familycommunity@naver.com

특별기고

- 005 민무숙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 039 김병인 |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 083 류명옥 |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 111 유해인 |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 137 황지현 |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 161 김주원·강의혁 |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민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 185 김관영·주승섭·엄윤정·류도향 |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 205 김나경·김경하·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제9집 / 2024년 1월 31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편집위원장 류도향

편집위원 김청우·김형주·박미선·신선헤·이현재·정미선·최대희·한우리·한익송

- 245 최마티·신지원 |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 271 김덕삼·이경자 |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 Issue

- 297 황민호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서평

- 305 한우리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 313 ■ 발간 및 투고 규정
- 317 ■ 논문 심사 규정
- 321 ■ 연구 윤리 규정
- 326 ■ 임원 명단

| 특별기고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20년 성과와 향후 방향

— 여교수 임용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

민무숙*

목 차

1. 서론	3. 정책 시행 20년의 정책 성과 평가
2. 양성평등 조치 정책의 배경과 변화	4.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서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수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1984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이후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노동 관련 분야에서 최초로 남녀평등의 문제가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남녀평등문제가 일반적인 사회의제로 정식 표면화된 것은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의제와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교육분야에서도 관련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9월 최초로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서 남녀평등교육 증진과 여성진출이 부진한 분야 등에 대한 제도와 정책 마련의 정부의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초중고 단계

*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1) 이 심의회는 제정시 상징적인 면이 컸고, 오랫동안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미흡하여 정부위원회 통폐합 논의 때마다 거론되어왔던 이력이 있다.

에서의 성평등 문제 제기와는 달리 대학단계의 성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 평등 고용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대학 내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여성 교수들의 수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보장을 받는 여교수의 저조한 비율과 총·학장 및 이사회 등 정책 결정집단에 여성이 극소수인 점이 문제시되어왔다. 1960년대부터 대학내 여성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벽이 있고, 특히 여성이면서 유색인종인 경우 유리천장 허들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Yunyu Xiao·Edward Pinkney·Tianzi Li1 & Paul S. F. Yip 2023). 1881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해온 전미대학여성협의체(AAUW: Amerc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의 경우 남녀 교직원 의 고용 문제 뿐 아니라 임금 격차와 성별 편견의 문제까지 다루면서 그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의 학생 및 교수집단의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가는 다음 <표 1>과 같다. 2022년 기준, 여학생은 이미 50%에 달하였으며, 석사과정은 55.8%, 박사과정은 44.3%이며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역시 40.8%에 달하여 학문 후속세대에서 남녀의 균형은 거의 절반에 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전임 여교수의 비율은 약 1/4인 26.1%에 머무르고 있어 대표성 지수면에서는 아직 낮은 수치이다. 또한 국공립(19.3%)과 사립대학(28.7%)간 차이도 볼 수 있는데 설립 유형별로 계열별 학생 수 차이

<표 1> 4년제 대학 여학생 및 여성 전임교수 비율(2022년 기준) 단위: %

	전체	국립대	사립대
여학생	49.8	43.5	51.7
석사과정 여학생	55.8	51.5	57.7
박사과정 여학생	43.3	35.5	48.1
여자박사학위취득자	40.8	33.4	44.8
전임여교수	26.1	19.3	28.7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외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까지 올라오기까지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대학교 진학률은 물론이고 석박사 취득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말~2000년 초부터 저조한 여성고학력자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아젠다 테이블위에 놓여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대학 교수임용시 성차별 해소와 여성교수 임용 확대 제도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대학을 둘러싼 구조개혁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근자의 상황에 미루어볼 때 본 정책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성교수 임용확대 정책, 즉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²⁾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초기 지향하였던 정책목표 달성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양성평등 조치 정책의 배경과 변화

1) 여교수 임용목표제의 배경과 목표

교육부는 대학 전임교수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여성인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에 ‘국공립대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공립대(일반대, 산업대, 교육대)의 여성 교수 비율은 9.4%에 불과하였다. 그마저도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가정대와 간호계를 제외하면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일반 고용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1987년 12월 제정)되어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으나 대학사회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기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아탑으로 남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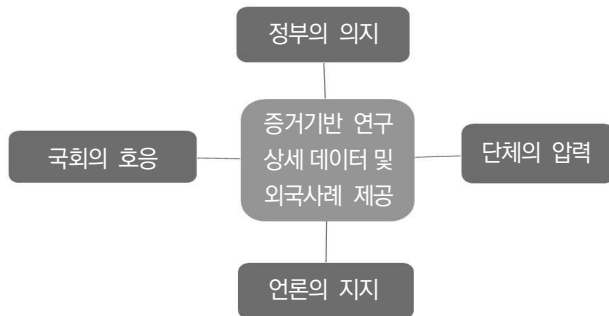
2) 본 정책은 초기에는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2년부터는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 사업으로 명명이 바뀌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의제화되고 정책화된 주요 동력을 두 가지 점에서 평가 가능하다.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정부2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정책 기획·조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사무국을 가진 여성 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정책추진체계를 변화 시킨 점이다. 이미 여성고용업무를 하고 있던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신설부서로서 각 부처의 여성정책 업무를 새로이 개발, 시행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역시 교육 분야에서 성평등의제를 발굴,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여성정책 담당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당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인적자원개발 개념이 국가정책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정책 아젠다로 인적자원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인적자원개발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 2001년 1월에 교육부총리 승격과 함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는 동시에 2002년 8월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 매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평가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독려하였다(임경수·이희수, 2015).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또한 교육 전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 하나의 결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안에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 파트도 삽입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여성인력의 활용을 중시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고급인적자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활용, 법제화한 것이 국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제도이다. 외국대학의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나아가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다(민무숙·정경아·남윤삼, 2001, 민무숙·박현미·허현란, 2001). 이후 2002년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결과는 대학의 남녀교수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여론화 작업은 이후 부처내 법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실제 법제화되고 제도로 마련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관련자들, 즉 공무원, 국회의원, 여성단체, 여교수단체 등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정책행위자들이 정책네트웍을 형성, 정책 수립과정에 힘을 합한 점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지 않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02년 2월), 부내 정책 토론회('02년 7월), 국립대 교무처장 협의회('02년 10월), 국립대 보직 여교수협의회('02년 11월) 등 여론 수렴을 위한 여러 논의와 단계를 거친 점은 이후 법안 심의를 대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인적자원개발계획 추진 실적 평가시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강일규, 2003). 나아가 교육 공무원법에 양성평등한 인사정책의 원칙을 담은 법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담은 평등개념을 정책 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김경희·신현옥, 2004). 이는 적극적 조치가 교육정책안에 제도화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정책의 제한점과는 별개로 20년이 지나 는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겠다.



[그림 1] 여교수 임용목표제 제도화 주요 요인

2) 정책 추진 경과

2003년 이후 교육부는 매해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를 평가하고 우수 2~3개 대학에 한해 여교수정원을 1~2명 따로 배정해주거나 5~8천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대학의 여교수비율 제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는 이러한 실질적 인센티브는 없고 대학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책의 취지와 보직

자들의 인식제고 및 제도 독려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4년부터 3개년씩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매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정책 수립 단계 (2000~2002)

대학내 남녀교수 불균형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여성교수 임용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이나 사실상 여성 고학력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과학분야 고학력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김명자, 1995, 모혜정, 1995). 더불어 박사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수의 성별 균형문제가 처음 조사된 것은 한국여성정책개발원 기본연구인 ‘대학의 남녀교수 불균형 현황과 개선방안’(민무숙 1998)이었다. 이 연구에서 계열별, 주요 학과별 여성 교수 분포 등에 자세한 통계분석과 함께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문제점과 외국대학의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당시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이라는 화두와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이와 함께 여성박사 인력의 증가 속도와 달리 저조한 활용 현황, 시간강사 등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임용과정의 성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는 연구들이 출현한 것도 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진미석, 2000, 진미석·임언·민무숙, 2001, 민무숙, 2002, 장미혜, 2003, 김정숙·김경근, 2003).³⁾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은 구체화된 법안과 제도화를 위하여 2001년 일련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게 되었다. 민무숙·정경아·남윤삼(2001)은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미국과 독일 대학들의 적극적 조치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법적인 검토 연구 (남윤삼, 2001, 민무숙·박현미·허현란, 2001)까지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연구들은 상세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적극적 조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외국 고등교육기관들의 구체적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2001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거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3) 비슷한 시기 제기된 과학분야 여성인력 활용 문제는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01~’05)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 진행되었는데 이 문서 안에 여성교수 확대 방안이 최초로 반영되었다. 2002년 2월 7일, 전년도에 실시한 정책연구에서 나온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제도화 방안과 구체적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많은 언론이 받아쫓으로써 여론이 크게 환기되었는데 이는 이후 주요 법안과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토론과 부내 논의를 거쳐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및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2002년 9월에 마련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다.

② 정책 제도화 단계 (2003~2006)

이 시기는 성차별적 교수 임용문제와 불균형적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여러 법안과 제도가 공식화되고, 정식 대학 평가사업이 시작되어 정책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기간이다.

2002년 9월에 마련한 정부 입법안은 2003년 7월 5일 최종 확정되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제11조 3항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은 향후 3개년간의 여성 교수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이 의무화(’03.10.)되었고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평가가 매해 이루어지고 있다.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동 법령에 따라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 제1단계 사업이 2004~2006년까지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평가대상은 일반대학 25개교와 공립대학인 인천대를 포함하여 총 26개 대학이었다. 현재는 2022~2024년까지 7단계 사업이 시행되는 중이다.

2003년 11월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03.11.4)을 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본 위원회의 주

4) 당시 교육부는 대학의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및 여성 교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연구(서민원, 『여성인력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2003)도 발주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대학평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요 기능은 각 대학이 제출한 적극적 조치 시행에 관한 추진실적을 대해 평가하고 우수대학을 심의하는 것이다. 교육부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20년간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온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각 대학이 제출하는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함께 우수대학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부진대학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대학에 대한 확인평가와 함께 부진대학 방문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오은진, 2019). 특히 동 위원회는 반드시 대학 총장과 본부 보직자 참석 하에 상호 의견교환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대학 의사결정자들의 인식개선과 학내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며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 말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03.12.18.)을 개정하여 대학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당해 대학에 여성 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긴 함). 이러한 인사 규정 개정의 배경은 당시 모든 대학의 인사위원회가 본부 보직자 중심이며, 그들 대부분이 남성 위주로 구성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거의 모든 대학이 인사위원회 법적 의무화 비율인 20%를 채우기 위하여 여성 보직자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외에 이 시기 가장 가시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는 2003년 6월에 국립대 교수정원 1,000명 증원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 교수 별도 정원이 배정된 것이었다. 교육부가 여교수 단독 배정 정원을 확보하고 각 대학에 배분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이후 국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배정 원칙은 여성 교수가 20% 이하인 학과·학부 등에서 별도 정원을 신청한 수용 인원범위 내에서 배정하되 대학의 규모를 반영한 구간별 상한선을 두었다(<표 2>, <표 3>).

〈표 2〉 국공립대 여성교수 신청 인원 및 배정 결과

대학 유형	일반대학교 (24개교)	교육대학교 (11개교)	방송통신대 (1개교)	산업대학교 (8개교)	전체
신청 인원	579명	3명	7명	25명	614명
최종 반영	180명	2명	2명	16명	200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4. 8.)

〈표 3〉 교수인원수에 따른 별도 정원 상한선

전체 교수인원	300명 미만	300~60 0명 미만	600~900 명 미만	900~1200명 미만	1200~1500 명 미만	1500명 이상
상한선	5명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4. 8.)

이러한 기준 하에 총 25개교에 200명의 여성 교수 정원을 배정하게 되었다. 여성 교수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사업 시행 1단계인 2004~2006년까지 총 3년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다. 특히 채용시 기존 여성 교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본 정책의 취지가 여교수 비율이 낮은 학과나 학부 비율 개선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최종적으로 서울대가 3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채용하였으며, 전남대가 20명(광주 17명+여수 3명), 강원대가 18명(춘천 12명+삼척 6명), 경북대가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대와 전북대, 충남대가 각기 15명을 채용하였고, 제주대가 12명을 채용하였다. 교대의 경우는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각기 1명씩, 방송통신대는 2명을 배정받고 채용하였다. 그 밖의 대학은 3~6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이중 순천대(5명)와 군산대(6명)는 정해진 기간 내에 1명씩을 채용하지 못하여 정원을 회수당하였고, 부경대, 서울산업대, 한경대는 채용한 여성 교수 1명이 의원면직함으로써 이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교육부 내부자료, 2006). 결과적으로 200명중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06년 8월까지 채용된 여성 교수는 총 195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정원 배정으로 전체 여교수 비율 증가가 이루어진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 교수 비율이 낮았던 이공계열에서 85명, 사회계열에서 50명의 여성교수가 신규 임용(김남희, 2006)됨으로써 계열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③ 정책 안정단계 (2007~2019)

양성평등조치 1단계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가 시작된 2007년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07.7.13.)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 개정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수립 시행 의무 대학이 기존의 국립 일반대학(25개교)에 한

정되던 것이 산업대학(5개교), 교육대학(10개교), 방송대학(1개교) 등 총 41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초기 일반대학 26개교만을 평가대상으로 한정했던 것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은 각기 이공계 중심, 교원양성 기능 중심, 성인 중심 방송통신교육 중심 등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평가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 대학에도 양성평등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하에 모든 대학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가대상 대학 수는 41개교로 증가하게 되었다. 산업대학은 공학계열이 많아 일반대학에 비하여 여성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교육대학과 방송대학은 공과대학이 없고, 인문사회 중심대학으로 애초에 여교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이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의 숫자나 교수 규모가 적어 전체 남녀교수 비율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동 기간 중 국공립대학의 법인화가 진행되어 2012년도부터 서울대, 인천대, 서울시립대가 각기 법인화와 지자체 지원·감독대상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가대상 대학 수는 38개교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대학교원 임용에서 교육부가 양성평등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의무규정이 신설(제11조의 5 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 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연구 형태로 발주하여 진행하였던 양성평등조치 관련 조사(여성교원비율, 여성교원신규채용 현황, 여성교원 보직임용, 대학내 위원회 여성교원 비율, 기타 양성평등 관련 정책 사항)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④ 정책 확대·변화 단계(2020~)

2020년 1월 9일에 매우 진전된 세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20.1.2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11조 5항 개정은 이미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⁵⁾된 것으로 그 전의 법률 조항에 비교해볼 때 보다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

5) 당시 법안 개정을 위하여 여러 논의와 수정과정을 거친 상세한 내용은 배유경(2020)을 참조할 것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즉,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설립·경영하고 있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1조 5항)는 규정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안 내용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다시 평가대상 학교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전체 평가 대상학교는 40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동 법 11조의5 3항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수립의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0년 7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 3항을 신설, 2030년까지 매년 전체 여교수 목표비율을 수립, 공표하게 되었다(<표 4>). 이는 최초로 정부 법률안에 목표치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표 4〉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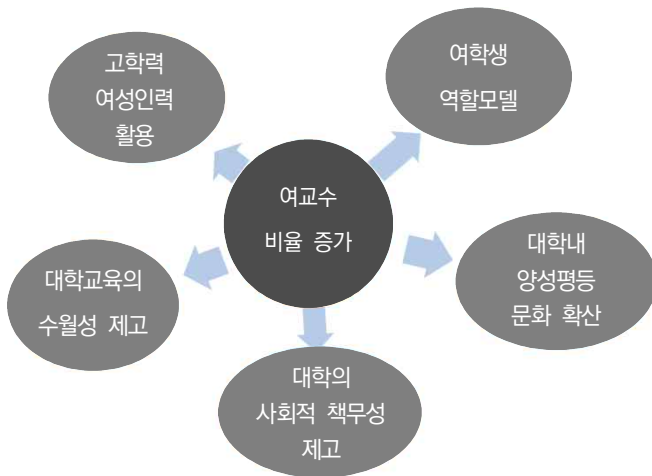
연도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 2020년도	17.5퍼센트
2. 2021년도	18.3퍼센트
3. 2022년도	19.1퍼센트
4. 2023년도	19.8퍼센트
5. 2024년도	20.6퍼센트
6. 2025년도	21.4퍼센트
7. 2026년도	22.2퍼센트
8. 2027년도	22.9퍼센트
9. 2028년도	23.6퍼센트
10. 2029년도	24.3퍼센트
11. 2030년도 이후	25.0퍼센트

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별표] <신설 2020. 7. 21.>

3. 정책 시행 20년의 정책 성과 평가⁶⁾

이 정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높임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혹은 기대효과는 [그림 2]와 같이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역량 있는 여성 고학력자의 사장 방지 ② 점증하고 있는 여학생 역할 모델의 필요성 ③ 대학내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실천 ④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⑤ 성별과 무관한 교수임용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민무숙, 2001).

첫번째와 두번째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양적 수치로 가늠할 수 있다.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정책의 방향에 따라 평가대상 국립대학들은 3년마다 목표비율을 정하고 매해 양성평등조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일부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대학내 여교수 비율 증가의 기대 효과

6) 이 장에서 인용된 모든 통계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및 신선미, 『국공립대학 양성평등실적 평가 및 지원사업』, 교육부 정책보고서, 2022에서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것임.

반면, 이러한 양적 변화 외에 이 정책의 근본적 목표나 기대효과라 할수 있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나 양성평등 이념과 문화의 정착,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에 대하여는 양적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단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대학의 변화를 정성적으로나마 진단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성적 진단은 본 정책의 미시적 목표인 남녀교수 비율의 균형점을 지향하는 차원을 넘어 성별 균형을 통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대학교육과 구성원, 조직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남녀교수 비율 불균형의 시정: 양적 성과

① 여성 전임교수 비율의 증가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와 이들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 소속된 전임교수는 2003년 49,563명에서 2022년에 73,905명으로 1.5배로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중 여성 전임교수는 7,289명에서 19,279명으로 2.6배 증가하여 전체 증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여성 전임교수 비율은 2003년에 14.7%에서 2022년에 26.1%로 11.4%p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체 학생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대생 비율과 비교할 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지도나 역할 모델로서의 절대적 수치 증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공립대의 경우 정책 시행 초기연도인 2003년도 9.4%였던 비율이 정원 200명 할당이 거의 끝난 2006년도에는 2.1%p 증가한 11.5%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전 2000~2003년 기간 통털어 증가 폭이 0.8%p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 폭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증가 폭은 다시 느려져 2015년도까지도 매 3년 기간 중 1%p 증가만을 보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즉 200명 정원 할당의 효과가 사업 1단계 기간까지는 분명히 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의 전임교수 여성 비율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2003년에 7.4%p (9.4%, 16.8%)였던 격차는 이후로도 계속 확대되어 2015년에 10.1%p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현재 다시 9.4%p로 벌어졌다. 이러한 설립 유형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공학계열 비율이 낮은 사립대의 특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여성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2000	45,574	6,181	13.6	13,369	1,154	8.6	32,205	5,027	15.6
2001	47,075	6,562	13.9	13,479	1,198	8.9	33,596	5,364	16.0
2002	48,121	6,899	14.3	13,728	1,260	9.2	34,393	5,639	16.4
2003	49,563	7,289	14.7	14,090	1,326	9.4	35,473	5,963	16.8
2006	56,420	9,448	16.7	15,909	1,831	11.5	40,511	7,617	18.8
2009	61,797	11,236	18.2	16,876	2,128	12.6	44,921	9,108	20.3
2012	69,162	13,935	20.1	18,614	2,523	13.6	50,524	11,411	22.6
2015	73,849	16,350	22.1	19,316	2,843	14.7	54,533	13,507	24.8
2018	74,277	17,395	23.4	19,775	3,225	16.3	54,502	14,170	26.0
2021	74,781	19,051	25.5	20,239	3,734	18.4	54,542	15,317	28.1
2022	73,905	19,279	26.1	20,446	3,937	19.3	53,459	15,342	28.7
2022-2003	24,342	11,990	11.4	6,356	2,611	9.8	17,986	9,37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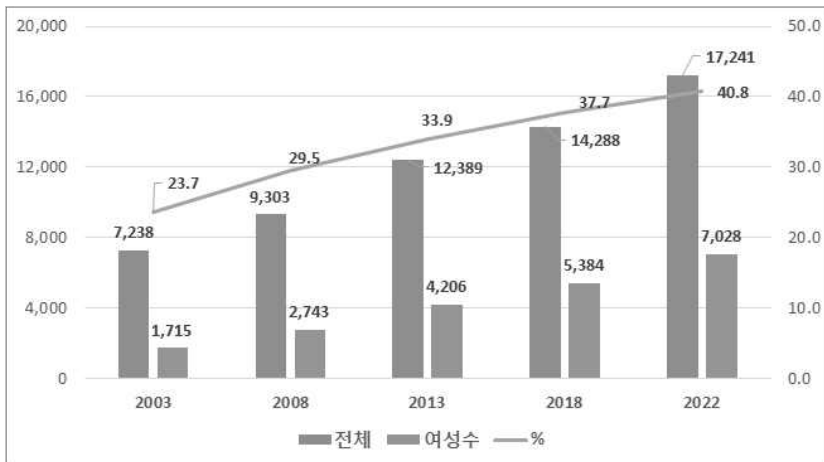
자료: 신선미(2022), 38면,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외

2022년 현재 기준 국공립대 여성비율은 19.3%로서 곧 20%를 상회할 것이고, 교육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5% 목표 비율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임교수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이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교수 후보군인 박사학위 취득자와 대조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고, 임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후에는 산학협력 교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 소지는 교수 자격의 필수조건이 되기 시작하였다. 후보 인력 공급 지표로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남녀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국내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학위자 수는 2003년 7,238명에서 2022년에 17,241명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 박사학위자 수는 동 기간 중 1,715명에서 약 4.1배 증가한 7,028명이 되었다. 비율로 보면 동 기간 동안 23.7%에서 40.8%로 17%p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체

적 볼 때 인력 공급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자 증가분 전체 10,003명 중 5,313명이 여성으로 절반을 넘는 것을 볼 때 향후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임교수 비율 26.1%와는 여전히 격차를 보여 신규 임용시 여성비율 확대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신선미(2022), 33면에서 재구성.

[그림 3]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여성 비율

② 계열별 여교수 비율 변화

전체 전임교수 중 여성비율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주의깊게 봐야 할 지표는 계열별 교수비율이다. 공급대비 임용비율의 적정성은 전체를 보기보다는 계열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 양성이 많이 이루어진 전공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 혹은 아직 공급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6>에서 보듯이 소속학과의 전공계열별 전임교수의 여성 비율은 2022년 현재 교육계가 43.8%로 가장 높고, 예체능계, 인문계, 의약학계가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계(24.7%)와 자연계(20.1%)가 각기 24.7%와 20.1%를 보여 상당한 정도로 약진했으나 공학계는 아직도 7.1%에 그치고 있다.

<표 7>에 나타나듯이 국내 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여성비율이 14.6%에 머물고 있어 공급파이프라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여성 교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계열은 교육계(20.4%p)이며, 인문계, 사회계, 의약학계의 전임교수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에 15-16%p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자연계와 공학계의 전임교수 여성 비율도 각각 5.5%p, 4.7%p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22년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6〉 전공계열별 전임교수의 여성 비율

단위: %

연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교육계	의약학계	예체능계
2003	20.6	9.4	14.6	2.3	23.4	17.9	31.5
2008	25.5	13.0	16.5	3.5	29.1	21.7	32.4
2013	29.4	16.8	17.0	4.4	35.0	26.5	33.0
2018	32.0	20.8	18.7	5.7	39.8	30.8	35.9
2022	36.1	24.7	20.1	7.1	43.8	34.1	36.8
2022-2003	15.5	15.4	5.5	4.7	20.4	16.2	5.3

자료: 신선미(2022), 44면.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여성 비율 역시 전공계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집중 계열인 교육계의 여성 비율이 74.0%로 가장 높고, 인문계, 예체능계, 의약학계도 여성이 50~60%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계는 절반에 못 미치는 44.8%이며, 자연계 역시 37.8%를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남성 집중 전공인 공학계는 14.6%에 머물고 있다.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박사학위 취득자의 여성 비율 변화를 보면, 사회계, 교육계, 의약학계, 예체능계에서 20~25%p 이상의 여성 비율 증가가 있었고, 자연계와 공학계의 여성 비율은 각기 7.3%p, 9.3%p의 증가에 그친 아쉬움을 보인다.

〈표 7〉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계열별 여성 비율

단위: %

연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교육계	의약학계	예체능계
2003	43.1	17.4	30.6	5.3	49.2	27.1	29.1
2008	45.0	25.5	36.0	9.1	62.0	31.6	37.3
2013	55.5	31.1	36.8	10.4	68.0	42.7	44.6
2018	57.1	38.3	35.9	13.3	73.1	49.2	53.2
2022	60.1	44.8	37.8	14.6	74.0	52.1	54.9
2022-2003	17.0	27.4	7.3	9.3	24.8	24.9	25.9

자료: 신선미(2022), 36면.

<표 6>과 <표 7>의 비교, 즉 박사학위 후보자 비율과 전임교수 여성 비율 단순 비교에 있어서 계열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인문계와 사회계는 각각 24%p, 20.1%p를 보여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나 예체능계와 의약학계, 자연계는 그 차이가 줄어 17.6~18.1%p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공학계는 7.5%p의 차이로 다른 계열에 비하여 공급과 수요간 격차가 가장 적은 전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학계열은 여성 인력 공급이 아직도 낮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계는 차이가 가장 높아 무려 30.2%p를 보이는데 이는 교육계 박사학위 취득 군에는 현직 교사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③ 직위별 전임교수의 여성 비율

직위별 전임교수의 여성 비율도 대학의 양성평등 수준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20년간 직위별 전임 여교수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여성이 대학교수로 진출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경력 기간 또한 짧은 것이 그 원인이다. 전체적으로 시니어 교수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적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순으로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에 임용된 교수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수의 여성 비율은 12.1%에서 18.5%로 6.4%p 증가했고, 부교수는 13.3%에서 31.5%로 18.2%p 증가하였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 증가 폭은 부교수에 비해 약간 더 커서 2003년(17.2%)과 2022년(36.0%) 사이에 18.8%p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증가폭은 2012년 이전과 달리 2013년부터 전

임강사 직위가 없어지고 초임 교수를 조교수로 임용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임강사가 있었던 시기에 전임강사의 여성 비율은 2003년에 25.3%였고 2012년에는 37.8%로 12.5p 증가하였다.

〈표 8〉 4년제 대학(대학원) 전임교수의 직위별 여성 비율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003	12.1	13.3	17.2	25.3	8.9	8.1	11.8	14.9	13.9	15.1	18.6	27.1
2008	12.7	16.3	23.4	33.9	12.7	9.4	12.2	21.1	14.4	17.6	24.4	34.9
2013	13.6	21.3	32.6	-	10.1	19.5	21.6	-	15.3	22.0	34.4	-
2018	15.8	26.7	35.8	-	13.1	20.6	25.8	-	17.2	28.6	37.4	-
2022	18.5	31.5	36.0	-	15.5	23.8	26.8	-	20.0	34.0	38.3	-
2022-2003	6.4	18.2	18.8	-	6.6	15.6	15.0	-	6.1	18.9	19.6	-

자료: 신선미(2022), 40~42면.

설립유형별 차이를 보면, 교수의 여성 비율도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연도별로 4~5%p 높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부교수의 여성 비율 역시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모든 연도별로 더 높는데 2013년에 2.5%p 차이를 보이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차이가 벌어져 2022년에는 10.2%p의 차이가 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 차이는 2008년에 4.0%p로 가장 적었으며 이후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벌어져 2022년에는 11.5%p의 차이까지 나타났다.

2) 여전히 미흡한 과제들: 질적 성과의 진단

여교수임용목표제라고 통칭되는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는 초기에는 남녀 교수 분포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표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나 차츰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 노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평가 지표상 배점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시적 노력을 진단해보기 위하여 여교수들의 학내 행정 참여도와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개선 및 관련 시책 등을 여러 연구 보고

서 및 기타 자료들을 통하여 리뷰해 본다.

① 의사결정기구 참여의 불균형 시정

양적 비율의 제고라는 정책의 근본적 목표는 단순히 그 양적 수치 증가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올드보이스 네트워크가 강한 대학 내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교수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학내 행정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 따라서 주요 보직과 주요 위원회 여성비율이 평가지표안에 포함되어있다.

의사결정 기구 중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12년 1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20.5%로 조사되었다. 법률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 여성 참여 20%를 반영하도록 한 의무규정의 영향을 받아 위원회 여성비율은 점차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2년도부터 이후 2021년도까지 대학 주요 보직의 여성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2016년도까지 10% 전후에 그쳤으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에도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6곳 중 총장은 93.2%, 여성은 6.8%에 불과하였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는 여성총장이 한명도 없었다. 2020년 처음으로 충남대에서 여성총장이 선출되었는데 임기 4년을 마친 2024년도부터는 다시 국립대학 중에는 한 명의 여성 총장도 없는 상태로 여전히 대학 내 유리천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주대는 2005년에 국공립대학 최초로 여성교수를 교무처장으로, 2018년에는 국공립대학 최초로 여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의 주요 보직 임명 관행을 크게 깨뜨린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상징적인 토론프로 그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다.

〈표 9〉 국립대 주요 보직 및 위원회 여성 비율 추이

단위: %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주요위원회	11.8	12.5	16.4	17.6	19.0	20.5
주요보직자	9.9	11.2	10.2	11.0	11.8	11.9

자료: 신선미(2022), 69~70면.

많은 대학의 경우 보직 관리규정 상 주요 보직에는 부교수 이상을 임명한다. 상대적으로 여성 시니어 교수들이 적은 대학들은 이러한 제한이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을 통해 직급에 상관없이 보직 제청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 사례도 있다(강원대).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거나 주요 보직 및 위원회 참여 비율을 규정이나 지침에 삽입하여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순천대, 충남대, 군산대 등). 특히 당장 실천이 어렵다는 제약이 있지만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는 사례(경북대, 제주대 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권고하는 대학내 양성평등위원회(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상당수가 인사위원회와 겸직)는 1년에 한 두번 모여 교육부에 제출하는 양성평등조치 실적보고서를 의결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대나 제주대의 경우는 일찍이 여교수회가 학내 정식 조직으로 예산도 배정되면서 학내 주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교수회가 친목 단체 수준에 머무는 대학들도 많다. 최근 한경대학교 여교수회는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논의과정을 거쳐 2023년도 말 교수회내 공식조직으로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어 향후 학내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학내 행정의 변화

본부 주요 보직과 주요 위원회의 참여가 학내 학사나 교무, 교원 복지 등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단지 국립대학의 양성평등조치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여교수연합회 세미나 발표문이나 대학 사례발표문,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교수회의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여교수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반 교원 인사행정의 변화이다. 가장 일찍 독보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곳은 서울대이다. 서울대는 매우 이른 시기인 2010년 국내 최초로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C, Stopping Tenure Clock)를 도입하였다(STC는 1971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처음 도입). 이는 출산한 여교수를 대상으로 교원 승진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시 여교수회의의 정책제안을 대학 본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즉 여교수들의 출산과 육아로 승

진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불이익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할 때 출산 시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출산일이 속한 학기나, 출산을 전후한 학기에는 책임 6시간의 강의시수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서울대학교 2010.5.14. 보도자료,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7633>).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로서 이후 많은 대학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출산시 학술지 논문 게재 1편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산대, 군산대, 강릉원주대),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교수업적 평가 유예(춘천교대)나 평균점수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가 이어졌다.

여교수의 모성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대학원생들에게도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원생 임·출산시 논문심사 기한 2년 연장 가능, 휴학기간 비산입(제주대, 춘천교대)등의 사례가 있다. 대학원생 육아지원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강원대, 춘천교대)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화는 대학별로 편차가 크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대학들도 여전히 많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인 여학생들의 역량개발 지원이나 기혼 대학원생 일·가정 양립 및 보육지원 등의 이슈가 대학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도 못하다. 여교수들의 네트워킹과 연대가 보다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교수들의 복지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③ 학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의 기여

소수자였던 여성교수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학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양성평등문화 구현이라는 추상적 목표나 기대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흐름과 함께 대학내에서도 증가하기 시작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근절문제는 학내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긍정적 평가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처리한 사건은 총 1,16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5

건, 2017년 368건, 2018년엔 551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신고인-피신고인의 관계유형은 학생-학생 간 유형이 61.8%로 가장 많고, 학생-교원 관계가 16.5%, 그 외 관계유형은 5%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인(피해자)은 91.9%가 여성이 차지하여 여전히 대학 내 젠더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가인원위원회, 2019).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7월) 전국 대학에서 1,20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동 기간 중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되기도 하였는데 대면 수업과 동아리 모임 등이 재개되면서 성범죄도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조사에서도 학생간 사건이 62%(74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도 27.5%(309건), 교직원도 9%(108건)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구성원간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

대학생들은 연 1회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평균 이수율 52.7%에 불과하다(교육부 2022.10.5 보도자료). 2022년도 인하대 성폭력 사건 이후 정부가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인 학교에 대하여는 대학평가시 감점이나 기관장 특별교육 등의 조치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한 이후 이수율은 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대학내 성범죄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원위원회 조사(2019)에 따르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절반이 넘는 약 55%가 2011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4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의 대학에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0.2%는 인권센터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반 학생상담센터내에 있는 것은 19.4%, 학내 행정기관내 17.3%, 별도 독립기구로 있는 곳이 7.6%이다. 문제는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인 53.8%에 불과하며, 직원 수는 평균 3.7명(정규직 2.5명)에 불과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처리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 조사

결과에서도 ‘과중한 업무’ 24.6% 외에 ‘전문 역량 부족’에 대한 응답이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2022년 3월부터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센터는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기능과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문화 조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22년에는 총 7개교에 5억(1개교 당 약 7천만원), 2003년에는 총 10개교에 8억을 지원(1개교 당 8천만원)함으로써 대학내 인권프로그램과 문화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 바 있다(교육부 2023년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사업 공고문)⁷⁾ 초기상담기구들이 인권센터로 확대·재편되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인권센터로의 전환 이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업무가 대외적으로 비가시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④ 학내 양성평등 관련 담론 확산 및 새로운 관점 투여

이처럼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기저에는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 문제나 성평등 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깔려있다. 현재 학생들이 받는 연 1회 2시간 폭력예방교육으로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나 문화적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양과정이나 전공과정 여러 교과에서 젠더문제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토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환경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대학내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혹은 개별 전공내 젠더문제를 포함하는 과목이 증가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세계관이나 관점만이 지배했던 학문적 세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교수자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안에 스며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양성평등 조치 노력이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교육과정안에 어느 정도 이러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전반

7) 아쉽게도 2024년 예산은 전액 삭감.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지역별로 부분적인 조사만 있는 정도이다(김민정 2020, 김수경 2016, 김지영·추주희·신지원 2023, 서울여성가족재단, 2018).

우선 서울지역 대학에 한정하여 성평등 관련 교과목을 조사한 서울여성가족재단(2018)보고서에 따르면 정규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평등 교과목은 대학 규모 및 대학 유형, 학제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4년제 일반대 중 대규모 대학과 일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과목이 교양 및 교과 전공과정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대학과 특수대학, 신학대학 등은 성평등 관련 교과목 개설이 매우 저조하였다. 교양과정에서는 성과 문학, 여성과 사회, 현대사회와 젠더, 성의 역사, 서양사 속의 젠더, 젠더와 법, 한국 여성사, 철학과 여성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 전공 관련 교과목들은 인문사회 및 사회계열에 편중되어 있고 공대, 자연계열 분야에서는 성평등 관련 강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문계열에서는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과 젠더, 여성과 문학 등이, 사회계열에서는 젠더사회학, 성의 사회학, 성과문화, 성과 정치, 기독교 윤리와 여성해방, 미디어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설된 과목들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전체 중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 조사 대학생 1,006명 중 13.3%(134명) 만이 교양과 또는 전공과 중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나머지 86.7%는 이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동 보고서, 87~96면).

이에담(2020)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내 ‘성’ 관련 전공·교양 수업 편성 및 개설 현황을 양적 분석한 바 있다.⁸⁾ 전국 대학 중 여성학 관련 전공 교과목은 평균 2.11개, 교양 교과목은 평균 2.94개 수업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 내 여학생 비율에 따라 여성학 관련 수업 개설 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남녀공학 대학보다는 여대에서 관련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된다고 분석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반면 여학생이 60~80%인 교육대학과 0~20%인 신학대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성’ 관련 강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교수의 비율과 강의 개설 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여성 교수의 절

8) 분석시 결혼, 연애, 여성이미지 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과목은 제외.

대적 숫자보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여성교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들의 학내 지위가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경·남궁명희(2009)은 일찍이 전북지역의 여성학 교양 강좌를 분석하고 90년대 이후 다수의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가 폐강되거나 축소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김지영·추주희·신지원(2023) 역시 지방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포함)에서 2019년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운영된 교양 교과목을 분석한 바 있다. 총 275개 교과목 중 젠더관련 교과목으로 17과목을 선정하여 강좌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여성’, ‘젠더’가 들어간 교과목은 9개 교과목 정도였으며, 성평등 및 페미니즘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교과목은 단 3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과목 수강 인원이 감소함을 지적하여 학내 성평등 담론의 기반이 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양성평등조치 노력이 보다 구체화된 교육과정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 개발이나 교수자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과학분야 여성연구자들에 의하여 촉발되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젠더혁신 연구는 여성 교수 및 연구자들의 증가가 학문의 접근방식이나 연구내용을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젠더혁신 연구는 과학, 공학, 정보통신, 의학 분야 등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젠더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거나 혹은 연구설계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전 과정에 젠더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관점과 연구방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성공법이 개정되었고, 연구재단 지침 중 모든 연구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고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젠더관점이 투영되기 전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산출되리라 기대한다.

9) 동 분야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참조.

4.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몇가지 제언

2003년부터 약 10년간 ‘여교수 임용목표제’라는 명명으로 이어진 본 정책은 2012년 이후 ‘국립대 양성평등조치’로 사업명이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정책의 그동안의 성과를 양적 지표변화를 살펴본 후 질적 측면의 성과를 거칠게나마 다루어보았다. 정책이 출발했을 당시에는 사회 전반의 여성고용문제나 교수임용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2020년 전후로 증가한 젠더 갈등과 정치계 여성 혐오 발언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 대학 당국의 경우 입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쟁 구도가 심해지고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성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뒷전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볼 때 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1) 증거기반 연구 강화

최초 이 정책의 제도화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증거기반 연구가 선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 입법을 진행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막연히 알고만 있던 교수 임용의 성차별 문제가 대학별, 계열별, 학과별 남녀교수 통계로 인하여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 박사가 많이 배출되어있던 인문분야에서도 여성 교수의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동의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양적 지표 변화에 대하여는 해마다 조사와 통계 정리가 잘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법 개정으로 이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조사를 좀 더 강화하여 정책목표나 정당성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는 학생과 교수의 성별 변화추세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로 인한 인식 변화나 멘토링 효과, 혹은 남녀교수의 인식 변화 등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강의 및 연구실적의 차이도 조사하여 남녀교수 비율의 변화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교수간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

라도 성과급 차이나 계약 유형의 차이로 인한 교수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alán-Muros, V., Bouckaert, M., Roser(2023) 도 지적한 것처럼 단지 남녀 교수간 실적에 대한 양적 데이터만을 주력한다면, 양육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 교수의 생애 초기 불리함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적인 조사, 예컨대 동료평가나 강의 평가, 혹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기여를 동시에 측정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수의 성별 균형의 변화가 대학 내 양성평등 인식이나 환경, 제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책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매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면 부가 조사 방식으로 해마다 주제를 달리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변화가 추적 가능하도록 시계열을 감안한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 대학의 최근 정책사례 연구 및 보급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대학내 현저히 낮은 여성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다.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성평등의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한 이래 최근에 들어서는 대학의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 증진의 일환으로 여성 교수 문제도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2003년도 여교수 임용목표제가 시행될 당시 기초연구로서 외국대학들의 사례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구체적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지는 못하였다.

최근 UNESCO 정책 브리프를 통하여 Galán-Muros, V., Bouckaert, M., Roser(2023)는 아카데미 포지션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할당제, 재정지원, 보조금이나 보육지원 같은 직접서비스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보 제공, 그리고 고등교육협의체와의 협업을 들면서 몇몇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할당제 등을 통한 규제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경우 2022년 성평등법에 의거 대학의 실행이사회에는 40%의 여성 비율을 의무화하였고,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내 모든 피고용인 대상 성평등 증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2000~2020년 간 고용인 전체로는 35~48%로 증가되었고, 정교수(full professor)의 비율은 동 기간 중 8%에서 25%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역시 2009년에 이사회 등에 동일한 규제를 도입한 이래 2014년에는 무려 50%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6년에는 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할당을 채웠다.

고정된 할당제가 아니더라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의 사례도 유의미하다. 일본 동경대학은 2021년 가을 액션플랜을 세우고 OECD 대학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여성교수 비율 16%를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2027년까지 400명의 여교수를 채용하여 전체 4,800명 중 1,200명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하였다. 동경대학의 목표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perople of diverse origin)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대학의 새로운 가치와 포용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Japan Times 2022.7).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학문계열에 한정하여 여성 제한 채용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의 경우 정보기술·공학계열 여교수 비율이 20년간 13~16%에 머물러 있고 개선되지 않자, 2016~2018년에 걸쳐 수학과와 화학계열 등 특정 학부에 한하여 한번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여성 한정 채용공고를 내었다. 그 결과 국내외 많은 지원자가 응모를 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자극을 받은 물리, 화학계열에서도 여교수 한정 채용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멜버른 대학 관련 분야의 여교수 비율은 적극적 조치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지만 호주의 법체계안에서 가능하였고, 학내 다양성 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 그러한 논란을 불식시킨 사례였다(Guillemine, M. Wong, E. & Such, G. 2022).

이러한 할당이나 제한 경쟁과 더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한 대학에 대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 역시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Galán-Muros, V., Bouckaert, M., Roser(2023) 보고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2017년에 5만 유로를 투자하여 대학들이 100명의 정년 보장 교수를 고용하도록 한 바 있다. 스웨덴 역시 2016 아카데미 젠더주류화(GMA:

Gender Mainstreaming in Academia) 계획을 통해 대학들이 성평등 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인도의 경우 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끊긴 여성과학자들의 펠로우십을 재정지원하여 지난 5년간 2,200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여교수 비율 확대 정책 혹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현 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도 이와 같은 외국의 최근 정책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조사, 연구하고 꾸준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잘 정리, 책자나 리플렛 형태로 대학 당국자들에게 널리 배포, 보급함으로써 국립대 양성평등조치 정책이 한국만의 예외적인 정책이 아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직접 규제가 어려운 사립대학에게는 이러한 구체적 사례나 정보 제공은 대학 자체적인 개선을 촉구할 뿐더러 국제적 추세에 걸맞는 대학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여성 교수 비율 증대 담론과 다양성 담론과의 결합

다양성과 포용성은 최근 각국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담론이다.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와 문화 정착은 각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로서 중시되었고,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인종, 성별, 장애여부, 종교, 성적 지향성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성의 추구는 성평등의 가치와 결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초기 의도한 바는 남성지배적인 교원 점유율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 교원 인사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내포하게 된다. 이 법안에서 ‘특정 성별’이라 지칭한 것은 결국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함의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학 평가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법안 개정은 다양성 정책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동안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평가 및 지원사업은 20년 동안 전체적인 평가목적이나 평가방식의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왔다.

개별 대학들이 3년마다 목표비율을 세우고, 매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대학을 선정하는 동시에 방문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양성평등 노력을 고취시키는 제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연말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와 우수대학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방향과 평가방식은 지속되어왔으나 법 개정 이후 2022년 대학평가시부터 기존의 지표가 새롭게 변경되었다.

기존의 평가 영역이 ‘여성 대표성’, ‘여성교수 위상도’였다면, 새롭게 변경된 영역은 ‘신임 교수 및 전임 교수의 성별 다양성 확보’,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다양성’으로 변경되었다. 즉, 신임 교수 뿐 아니라 전임 교수까지도 과소대표된 성별의 목표비율의 적정성과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부지표에는 ‘성별 다양성 제로 학부학과 감축 노력’ 등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여성 교수가 한 명도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남성 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부·학과의 경우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대학 내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자세한 지표는 신선미, 2022 참조). 이러한 지표변화는 남성 과다 계열이나 학과의 개선 뿐 아니라 여성 과다 계열이나 학과의 균형도 적정수준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학부·학과나 혹은 여성 지배적인 학부·학과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며, 이는 추후 직업에 대한 성별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장기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변화는 본 정책의 향후 방향에 큰 시사점을 함축한다. 즉 포용성 정책이 학사행정을 넘어서서 교직원 인사 정책과 조직문화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소수인종 학생의 입학정책에서부터 출발한 적극적 조치 정책이 그동안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교원의 다양성 정책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백인 여교수와 유색인종 남녀교수의 증가로 나타난 바 있다(Maher, Terrault, 2011, 배유경, 2020에서 재인용).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평가지표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남성 교수 중심의 성편향적 임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 이제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임용정책으로 정책의 축이 자연히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7단

계가 끝나는 2024년까지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향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집단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다양성의 외침이 여성 교수 비율 증대 정책과 경합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의 제도 발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일규, 『인적자원개발계획 추진실적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국가인권위원회,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019.
- 김경희·신현옥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4, 171~206면.
- 김남희,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발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보고서, 2006.
- 김명자, 『여성인력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정무장관(제2)실, 1995.
- 김민정,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내 ‘성(性)’ 강의 지형탐색, 『한국여성철학』 제33권, 한국여성철학회, 2020, 143~181면.
- 김수경,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교양교육연구』 제10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349~381면.
- 김정숙·김경근, 「교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박사들의 경험과 현상 타개 전략」,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3, 109~132면.
- 김지영·추주희·신지원, 「성평등 및 페미니즘 교육의 지방대 현실과 과제」, 한국여성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23, 3~33면.
- 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역사적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9, 151~193면.
- 남윤삼·현희,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여자교수 증가를 위한 입법사례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2001.
- 모혜정·이재경·임석재, 『여성공학교육 및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 1996.
- 민무숙, 『여교수 진출현황과 확대방안』, 전국여교수연합회 추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전국여교수연합회, 2001.
- _____, 「여자 박사의 노동시장내 지위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대응」, 『한국여성학』 제18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2, 173~201면.
- _____,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여성정책포럼』 2, 2003, 11~16면.
- 민무숙·박현미·허현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여자교수 증가를 위한 입법사례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2001.
- 민무숙·정경아·남윤삼,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교

- 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 2001.
- 민무숙·허현란, 『대학의 남녀교수 불균형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박남기·박효원, 「국립대학 여성교수 현황분석 및 비율 확대방안 탐색」, 『여성연구』 제100권 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161~189면.
- 배유경, 「대학의 다양성 정책과 여성교원 임용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6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20, 297~232면.
- 서민원, 『여성인력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2003.
-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학생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2018.
- 신선미, 『국립대학 양성평등실적 평가 및 지원사업』, 교육부 정책보고서, 2022.
- 오은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사업』, 교육부 정책보고서, 2015.
- 이예담,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 - 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발표집, 2020.
- 임경수·이희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체제적 평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133~162면.
- 장미혜, 「미취업 여자 박사의 경험과 좌절」, 『한국여성학』 제17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1, 157-177면.
- 진미석, 『여자박사 인력의 공급 및 활용실태』, 2001년도 한국여성학회·여성부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2001.
- 진미석·임언·민무숙, 『여성고급인적자원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200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2022.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AAUW), Fast Facts: Women working in Academia. <https://www.aauw.org/resources/article/fast-facts-academia/>
- Best Colleges, Womens Matters for Gender Equality, <https://www.bestcolleges.com/blog/women-gender-equality/>
- Galán-Muros, V.·Bouckaert, M.·Roser, J.,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cademia and Higher Education Management Position, UNESCO-IIESALC Policy Brief Series, March 2023.
- Guillemin, M.·Wong, E.·Such, G., How we boosted the number of female faculty members at our institution, Nature Career Guide, 07 September 2022.

Japan Times, University of Tokyo to double number of female professors by fiscal 2027, Japan Times, 2022.

Xiao, Y.·Pinkney E.·Li, T.·Yip, P. S. F.,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unveiling women's representation by gender and race in the higher education hierarchy,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2023.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2022.10.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서울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교수 지원 제도 강화', 2010.5.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나주 어향론(御鄉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김병인 **

목 차

1. 머리말	4. 혜종의 평가 내용과 특징
2. ‘나주 어향론’에 대한 인식과 추이	5. 맺음말
3. 혜종의 평가 유형과 맥락	

■ 국문초록

나주가 어향이라는 인식의 출발점은 혜종의 모후인 장화왕후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종대 피란과 목 설치, 팔관회 개최, 흥룡사와 혜종사 건립 이후 나주가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함으로써 ‘나주 어향론’을 강화시켜 왔다. 이는 혜종에 대한 기존의 낮은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어향의 근거가 되는 혜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종대 이후 변화상을 덧붙여 어향 나주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향 나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혜종의 국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 ‘나주 어향론’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종은 어렸을 적부터 군주의 품모가 있었고, 7세 때에 세자(정운)가 된 이후부터 예비국왕으로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었던 바, 후삼국전쟁의 과정에서 박술희와 함께 상당한 군공을 쌓은 까닭에 태조 왕건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태자 시절에 국가기무를 결재하였으며, 신하와 사신 접대에도 능숙하였다. 즉위한 다음에도 덕정을 쌓았으나, 왕규의 난을 겪은 다음에 의심이 많아져서 실정을 하다가 병에 걸려 재위 2년 5개월 만에 세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을 떠났다.

장화왕후가 왕건을 만나기 직전 용꿈을 꾸는 것은 신성가문 출신 왕건과 재지세력 오씨가문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씨가문의 딸이 신성가문의 자식을 잉태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였다. 태자 무는 ‘진용자’로서 ‘계통지탁’을 갖췄지만 다른 형제들과의 후계 구도가 복잡하였으므로, 태조의 명을 받은 박술희의 도움을 통해 후계자의 지위를 지켜냈다. 태조는 맏아들인 혜종이 왕위에 오를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왕위계승권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왕위계승권자로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자질을 더 키워나가게 했으며, 그를 지지할 후원세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최승로는 정종에서 광종으로 이어진 왕위계승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왕규의 난에 대한 혜종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 큰 도량 운운하다가, 시위군 보강과 장사 포상에 대해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비난하였다. 고려 후기 이제현은 당시 혜종이 왕규를 내치지 않은 것을 ‘소인을 멀리하지 못함’에 비교하여 경계했어야 할 일로 규정하였다. 때문에 혜종이 왕규의 난 이후 실정을 했다는 혜종 총서의 기록이나 최승로의 평가는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혜종에 대한 평가는 태몽에서부터 성장 과정, 태자 시절과 즉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된 ‘진용자’와 ‘계통지탁’을 갖춘 군주로서의 자질과 위상을 온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혜종은 숙종대 한 차례를 제외하고 고려시대 내내 태묘에 봉안되었다. 이는 태조-혜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왕실의 정통 계보가 후대까지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방증이다. 즉, 혜종의 군주로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나주 어향론’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혜종에 대한 온당치 못한 평가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고려, 혜종, 나주 어향론, 장화왕후, 흥룡사, 혜종사, 최승로, 이제현

1. 머리말

고려시대 나주오씨의 정치적 위상은 태조 왕건과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오다련의 딸인 장화왕후 오씨가 낳은 태자 무가 태조를 이어 즉위한 혜종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나주의 동루(東樓)에 대해서, “혜종이 왕위를 계승하여 백성과 사직을 잘 보존하여 창업에의 도움과 수성한 공이 있어 종묘에서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제사를 받드셨으며, 옛 고장을 돌보고 보호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¹⁾ 즉, 장화왕후의 아들 혜종이 고려 2대 국왕으로 즉위함으로써 나주는 어향(御鄉)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 나주에서 왕건·장화왕후·혜종·나주오씨 등을 중요한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²⁾

그렇다면 ‘나주=어향’이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호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³⁾ 나주지역에서 혜종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는 왕건이 장화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혜종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는 소위 ‘접주론(攝主論)’⁴⁾의 영향을 받은 까닭으로

- 1) 惠王丕承厥位，保有民社，有創業之助，有持守之功，血食大廟，爲百世不遷之室，乃眷戀舊邦而廟享焉(『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나주목, 누정, 동루).
- 2) 현재 나주시에서는 왕건과 장화왕후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완사전을 ‘한국을 대표하는 러브 스토리 무대’로 소개하고 있다(<https://www.naju.go.kr/tour/sights/culture>). 나주시의 캐릭터는 배돌이·버들남자·홍돌이인데, 여기에서 버들남자는 장화왕후 오씨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https://www.naju.go.kr/www/introduction/symbol/mark>). ‘2023 나주축제(10.20~10.29)’에서는 <왕건과 장화왕후>라는 뮤지컬 공연이 열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나주시에서 왕건과 장화왕후를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향과 관련된 나주의 위상에 관해서는 김당택의 「고려시대의 나주」(『나주목의 재조명』, 나주시·목포대학 박물관, 1990, 83~93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 3) 물론 ‘나주 어향론’은 장화왕후 오씨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태조의 왕비 장화왕후 오씨의 출신 지역이라는 배경만으로도 나주가 어향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나주지역에서 혜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따라서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를 중심으로 ‘나주 어향론’을 내세우는데 데에 주저하고 있으며, 태조의 나주대행도 설치나 현종의 나주 피난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나주 어향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太祖召幸之 以側微 不欲有娠 宣于寢席 后卽吸之 遂有娠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攝主(『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장화왕후 오씨).

보인다. 이에 나주가 어항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태조의 나주대행도 설치, 현종의 나주 피난과 팔관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⁵⁾ 이는 ‘나주=어항’의 등식을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를 증명하는 논리로는 합당치 않다. 이에 향후 ‘나주=어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명실공히 ‘어항’의 면모를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혜종은 고려 2대 국왕으로,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혜종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외가인 나주오씨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 요지는 혜종의 외가인 오씨가문인 ‘측미(側微)’하였기 때문에 왕건이 임신을 주저하였고 후일 왕위계승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주름살 임금[禰主]’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혜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으며, 왕규의 난 이후 실정을 하다가 무력하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혜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의미없는 군주’ 또는 ‘무능력한 국왕’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혜종에 대해서 ‘진용자(眞龍子)’로 여기거나, ‘계승지덕(繼統之德)’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는 기록이 많다. 그리고 외가가 ‘측미’한 태자 무[혜종]가 별다른 문제없이 고려 왕조의 두 번째 국왕으로 즉위하였다는 사실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혜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를 서술하게 된 배경이다.⁶⁾ 태조 왕건은 29명의 부인과의 사이에 2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나주오씨의 아들 태자 무가 국왕의 유명을 받들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혜종이 무능한 국왕’이라는 주장을 쉽게 수긍할 수 없게 만든다. 25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왕위 계승을 이룬 혜종을 ‘접주’라는 호사가의 뒷말 때문에 무능력한 군주로 치부하는

5) 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105면; 김당택, 위의 글, 93면; 김덕진, 『전라도의 탄생 1-생활의 터전』, 도서출판 선인, 2018, 67면; 정청주, 「나주는 전라도의 으뜸 고을」, 나주시·무등역사연구회, 『한국사 속의 나주』, 도서출판 선인, 2018, 52면; 홍영의, 「고려시대 지역성과 문화권 -12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1, 2014, 82~84면.

6) 혜종의 생애와 평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김명진의 「고려 혜종의 생애와 박술회」(『영남학』 65, 2018)를 참고하기 바란다.

것은 어딘지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혜종에 대해서는 왕위 승계와 군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었
는 평가만 있어야 하는게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인 측면
이 남아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그 배경, 그리고 흐름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혜종
에 대한 평가를 연대기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그렇게 나뉘게 된 배경을 찾아볼 것이다.
이로써 고려 혜종에 대한 사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제시해보
고자 한다. 그 결과 ‘나주 어향론’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나주 어향론’에 대한 인식과 추이

왕건은 918년 대신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주
지역을 중시하였다. 왕건은 즉위하던 해에 장화왕후가 낳은 아들 무(武)를 태
자로 삼으려 했으나, 반대파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왕건은 3
년 뒤에 최측근 신료 박술희의 도움을 받아 개경 출신 세력들을 제치고 무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태조가 서거하자, 태자 무는 고려의 제2대 국왕으로 즉위
했다. 나주오씨 장항왕후가 낳은 혜종이 국왕의 지위에 오르자, 나주는 어향
(御鄉)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⁷⁾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맞아 나주
로 피난하였던 것도 나주와 고려왕실 사이의 깊은 인연, 즉 어향인 점을 의식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

어향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에, 왕가(王家)의 본관(本貫)을 이르던 말. 선
대(先代) 황후의 외가 및 친가의 본관, 왕비의 외가 및 친가의 본관 등을 통
틀어 이르던 말”이다. 어향으로 지목된 곳으로는 전라도 나주목,⁹⁾ 경기도 인
천,¹⁰⁾ 전라도 완산부(完山府),¹¹⁾ 함경남도 덕원부(德源府),¹²⁾ 함흥(咸興)·

7) 김덕진, 앞의 책, 67면.

8) 변동명, 「고려시기의 나주 금성산신앙」, 『전남사학』 16, 2001, 46면.

9) 集父老 泣且謂曰 爾州御鄉 不可隨他郡降賊(『고려사』 권103, 열전16, 김경손전).

10) 高麗顯宗九年屬樹州 肅宗朝以仁睿王后李氏之鄉陞慶源郡 仁宗又以順德王后李氏之
鄉改知仁州事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王初卽位 以七代御鄉陞之 且賜州戶長紅袍(『신

영흥(永興)·문천(文川)·안변(安邊)¹³⁾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나주가 어향으로 불린 까닭은 ‘황후 친가의 본관’과 관련된다. 즉, 나주가 혜종의 어머니 장화왕후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향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주가 어향이라는 인식은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피보도록 하자.

나주를 어향으로 여긴 사례는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김경손은 고종 24년(1237)에 전라도지휘사가 되었다. 당시 초적 이연년 형제가 원율과 담양 등 여러 군 무뢰배를 불러 모아 해양 등 주현을 치며 내려오다 김경손이 나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나주성을 포위하였다. 적도들이 매우 많았는데 김경손이 성문에 올라가 그들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적이 비록 많지만 모두가 쫓신을 신은 촌민일 뿐이다.”라고 하며 즉시 별초로 삼을 만한 자를 뽑으니 30여 인이 되었다. 부로를 모아 눈물을 흘리고 또 일러 말하기를, “이 고을은 어향이니 다른 고을처럼 적에게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니 부로가 모두 땅에 엎드려 울었다. 김경손이 출전을 독려했으나 좌우에서 말하기를, “금일의 사세가 군사는 적고 적은 많으니 청컨대 주군의 군사를 기다렸다가 오면 싸우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김경손이 노하여 그들을 질책하고는 가두에서 금성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손수 잔을 두 번 올리면서 말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고 헌작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⁴⁾

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인천도호부, 건치연혁).

- 11) 太祖元年以 御卿陞完山留守府[『여지도서』 하, 補遺編(전라도, 완산지, 건치연혁)] 및 太祖以本府御卿選子弟入宿衛以寵異之[『여지도서』 하, 補遺編(전라도, 완산지, 고사, 풍패기문)].
- 12) 太宗十三年改宜川 世宗十九年改德源爲郡二十七年以穆翼度桓四聖御卿陞爲都護府(『여지도서』 하, 함경도, 함경남도 덕원부, 건치연혁).
- 13) 始以咸興永興文川安邊四邑我國寢廟所在……況我四邑御卿崇奉之地乎……蓋此德源一港欲許則御卿崇奉之地深有所未安不許則徒煩往復恐欠修好之誼(『同文彙考』 4, 附編, 通商1, 禮曹判書復答外務卿書).
- 14) 二十四年 爲全羅道指揮使 時草賊李延年兄弟 嘯聚原栗·潭陽諸郡無賴之徒 擊下海陽等州縣 聞慶孫入羅州 圍州城 賊徒甚盛 慶孫登城門 望之曰 賊雖衆 皆芒屨村民耳 卽募得可爲別抄者三十餘人 集父老 泣且謂曰 爾州御卿 不可隨他郡降賊 父老皆伏地泣 慶孫督出戰 左右曰 今日之事 兵少賊多 請待州郡兵至乃戰 慶孫怒叱之 於街頭 祭錦城山神 手奠二爵曰 戰勝 畢獻(『고려사』 권103, 열전16, 김경손전).

김경손이 이연년 형제의 반란군에게 위촉되어 있는 나주지역 부로들에게 ‘나주는 어향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고을처럼 이연년 형제의 반란군에게 쉽게 항복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이다. 김경손의 말을 듣고 나주지역 부로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올었다는 사실에서 그들도 자신의 고장이 어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향을 거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주저한 것으로 보아, 그 자부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김경손이 출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민을 질책하고나서 금성산신에게 제사지내고 승전을 다짐한 것으로 보아 나주 지역민에게 어향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금성산신의 효험이 더 강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¹⁵⁾ 금성산신앙은 나주지역의 호족이나 토착세력이 의지한 바 컸으므로 지역 부로와 별초를 동원하는데 금성산신의 가호에 의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김경손은 금성산신앙이 나주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심분 파악하고서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후 ‘나주 어향론’은 정도전(鄭道傳)에 의해 부각되었다. 그는 회진현으로 유배되어 가다가 나주에 도착하여 동루(東樓)에 올라 고려왕조와 나주의 밀접한 관계를 회고하였다.

나주가 주로 된 것은 국초였으며, 또 공로가 있었다. 우리 고려 태조가 삼한을 총합할 적에 군국이 차례로 평정되었는데, 오직 백제[후백제]만이 그 지방이 험원(險遠)하고 인마(人馬)가 강하며 양곡이 많은 것을 믿고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때에 나주 사람들은 역(逆)과 순(順)을 밝게 인식하고서 솔선하여 내부(內附)하였다. 태조가 백제를 취하는 데는 나주 사람들의 힘이 컸으므로 태조는 친히 이 고을에 남시어 목으로 승격시키고[按] 천복(天復) 계해년(903)에 고려 태조가 금성을 공격하니 금성 사람들은 온 성을 들어 항복했으므로 금성을 나주라고 고쳤다.

15) 나주 금성산에 친히 제사하지 않으면 그해에 반드시 질병이 있다 하여 추수한 뒤에 도내 백성들이 멀고 가까움 없이 모두 가서 제사하였는데 늙은이는 이끌고 어린이는 끌러가면서 길을 메웠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금성대왕으로 상징되는 나주 금성산이 국가의 치제 대상이면서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홍영의, 앞의 논문, 82면).

16) 변동명, 앞의 논문, 45면 및 68면.

목으로 승격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의 일이다], 남쪽 여러 고을을 통솔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개 포양(褒揚)하는 뜻에서였다. 그때 혜종은 몸소 갑주(甲冑)를 입고 태조를 전후 좌우에서 도왔다. 그래서 공로가 여러 아들 가운데서 가장 많았다[按] 금성의 싸움에서 혜왕이 태조를 따라 백제를 치는 데 분용하여 먼저 올라 공이 제일이었다.]. 대업을 정하고는 왕위를 이어받아 백성과 사직을 차지하였다. 창업을 도운 일과 지수(持守)의 공로로 태묘(太廟)에서 혈식(血食)을 받는 백세불천의 사당이 되었으나, 이것은 권련(眷戀)한 옛 고을에서 묘향(廟享)을 받게 된 것이다[按] 혜왕의 사당이 흥룡사(興龍寺)에 있어 그 고을 사람들이 제사 지냈다]. 현종이 남으로 순행하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흥복(興復)의 공훈을 이루게 되었다[현종 경술년(1010)에 거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거란의 군사가 물러가니 서울로 돌아와서 나주를 목으로 승격시켰다]. 그리하여 나주에 팔관례를 내렸는데, 서울의 의식과 비할 만하였다.¹⁷⁾

정도전은 고려왕조와 나주의 관계를 ‘후삼국 전쟁기 나주의 내부(內附) → 태자 무[혜종]의 금성 전투에서의 군공 → 목 승격(지시) → 혜종사 묘향 → 현종의 순행과 흥복의 공훈 → 목 승격 → 팔관회 개최’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기성으로 파악하였다. 정도전이 ‘나주=어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혜종사가 세워진 나주를 ‘태묘(太廟)에서 혈식(血食)을 받는 백세불천의 사당이 되고, 묘향(廟享)을 받게 된 고장’이라고 강조한 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개정에 버금가는 고장으로서 나주를 비정한 것은 ‘나주=어향’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羅爲州始自國初 且有功 我太祖一三韓 郡國次第平 惟時百濟 恃其險遠 人馬糧穀之強 且富 不卽歸命 羅人明識逆順 率先內附 太祖之取百齊 以羅人之力與有多焉 親駕是州 陞之爲牧 按天復癸亥 麗祖攻錦城 錦人舉城歸附 仍改錦城爲羅州 陞牧在顯宗時 以長南諸州 蓋所以褒之也 惠王躬擐甲冑以先後左右 功多子列 按錦城之役 惠王從太祖討百濟 奮勇先登 功爲第一 大業以定 丕承厥位 保有民社 有創業之助 有持守之功 血食大廟 爲百世不遷之室 乃眷戀舊邦而廟享焉 按惠王祠在興龍寺 州人祀之 顯王南巡至此 遂成興復之功 按顯王庚戌 避契丹南巡至州 契丹師退 乃還都 陞爲牧 賜州八關禮 以此本京(『삼봉집』 권3, 서, 登羅州東樓諭父老書). 같은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권35, 나주목, 누정)에도 실려 있다.

이후 ‘나주=어향’과 관련하여 홍릉사와 혜종사가 자주 거론되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태조 장화왕후 오씨의 조부는 부돈이요, 아버지는 다려군인데, 대대로 주의 목포에 살고 있었다. 다려군은 사간 연위의 딸 덕교를 아내로 맞아 장화왕후를 낳았다. 장화왕후가 일찍이 꿈을 꾸는데, 바다의 용이 품 안으로 들어왔다. 놀라 깨어 부모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얼마 안 되어 태조가 수군장군으로 나주에 와 진수할 때, 목포에 배를 정박시키고 물위를 바라보니 오색의 구름이 서려 있어서 태조가 그리로 가보니 장화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태조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는데 미천한 신분이라고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돛자리에 뿌렸는데 왕후가 곧 빨아들었다.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혜종이다. 얼굴에 자리 무늬가 있으므로 세상에서는 점주[주름살 임금]라 한다. 그 자리에 큰 절을 세워 홍릉사라 하고, 앞에 있는 샘을 완사천이라 하니, 속설에 오씨가 빨래하던 샘이라 한다.¹⁸⁾

라고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과 장화왕후의 만남 그리고 혜종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홍릉사는 혜종의 출생 이후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홍릉사는 건립 당시부터 큰절이었으므로, 국가에서 주지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이색의 시에 보이는 백운(白雲)이라는 승려가 홍릉사에 주석(主席)한 적이 있는데, “가지산의 사찰을 떠나자마자, 혜종의 사당을 또 받들게 되었다”는 시를 썼다.¹⁹⁾ 승 백운은 여러 사찰의 주지를 맡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사의 뒤를 이어 바로 홍릉사의 주지를 맡아 옮겼다. 이는 국가에서 주지를 파견하는 사찰에 홍릉사가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²⁰⁾

18) 高麗太祖莊和王后 吳氏祖富佗 父多憐君 世家州之木浦 多憐君娶沙干連位女德交 生后 后嘗夢浦龍來入腹中 驚覺以語父母 共異之 未幾 太祖以水軍將軍出鎮羅州 泊舟木浦 望見洲上有五色雲氣 至則后浣布 太祖召幸之 以側微不欲有娠 宣于寢席 后即吸之 遂有娠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褊主 於其地建大寺 曰興龍寺 前有泉名浣絲泉 諺云即吳氏浣布之泉(『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나주목, 불우, 홍릉사).

19) 纔離迦智寺 又奉惠宗祠(李穡, ‘得同甲白雲師持書來者云 今在羅州興龍寺’, 『牧隱詩稿』 권31).

20) 이병희, 「고려시기 나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고려 어향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홍릉사에는 혜종사(惠宗祠)가 있는데, 고을사람들이 이곳에서 혜종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²¹⁾ 홍릉사는 혜종의 출생과 관련하여 건립되었고, 그곳에 혜종의 제사를 지내는 혜종사를 세운 것으로 보아, 나주가 고려왕조의 어향으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無名氏]이 읊은 “양암(仰巖) 동쪽 용이 날던 땅, 바로 거기가 어진 왕비의 옛 집터로다. 구세(九世)의 장군이 묵던 곳이요, 삼한(三韓)의 태자가 환생한 집이라네.”라는 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²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윤소종(尹紹宗)의 ‘금성에서 혜왕 진영을 뵈옵고[謁惠王眞于錦城]’라는 시를 보면,²⁴⁾

철원에서 성업을 바야흐로 여니, 나주의 태자는 영특함이 있었네. 삼한을 하나로 통일하는 날, 혜종은 먼저 백제성에 오르도다. 금성산과 영산강은 왕이 되도록 기운을 북돋았고, 혜종사 사당에서는 백성들의 형편이 드러나네. 기원하건대 동정(東征)하는 군사를 돌보아, 거둬 만대에 태평을 열어 주소서.²⁵⁾

라고 하여, 혜종사는 왕건을 도와 삼한 통일에 큰 공을 세운 혜종을 위해 세운 사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소종의 또 다른 시에서, “금성산은 바다 남쪽에 있으니, 태사(太姒)의 고장으로 5백 년 이어왔네. 한 척의 배로 견왕(甄王)이 귀순한 길이요, 일만 깃발 현묘(顯廟: 현종)가 출사(出師)했던 곳이라

2023년 나주 영산강학술대회자료집, 2023, 166면.

- 21) 惠宗祠 在興龍寺中 州人至今祀之(『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나주목, 사묘).
- 22) 김덕진, 위의 책, 69면.
- 23) 仰巖東畔龍飛地 正是賢妃舊所居 九世將軍經宿處 三韓太子誕生間(『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불우, 홍릉사).
- 24) 윤소종은 공민왕 9년(1360) 성균시에 합격했다. 이색의 문인으로, 1365년 예부시에 응과 제1인으로 대책이 가장 뛰어나 춘추수찬을 배수받았다. 우왕 5년(1379) 전교시승, 전의부령, 예문응교 등을 지내고, 1381년 모친상으로 금주(錦州: 錦山)에서 복상을 마치는 동안 남방의 학자들이 많이 와서 수학하였다. 이 시는 아마 1381년 금주에서 상복(服喪)을 마치는 동안에 나주에 내려와 혜종사에 들러 지은 듯하다.
- 25) 鐵原方啓聖 錦里爲儲英 一統三韓日 先登百濟城 山河扶王氣 廟貌見民情 願相東征鉞 重開萬世平(『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사묘). 같은 내용의 시가 『동문선』(권10, 五言律詩)에도 실려있다.

네. 홍릉사 밖에는 서기(瑞氣)가 떠 있고, 개계원(開界院) 앞에는 흰 연기가 일어나네. 성조(聖祖: 태조)의 누선(樓船)을 여기에서 맞았으니, 동정(東征)하는 오늘날 생각 그지 없어라.” 하였다. ‘태사의 고장’에서 태사는 주나라 문왕의 왕비인데, 부인으로서 덕이 높았다고 한다. 나주 태생인 장화왕후를 일컬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를 어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김종직(金宗直)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김종직의 시에, “용손[왕건]이 당일에 군함을 대고서, 홀연히 아침엔 구름이 되고 저녁엔 비가 되는 선녀를 만났도다. 천년 전 박희부인[유방의 후궁으로서 5대 황제 전한문제의 생모]처럼 진실로 좋은 짝을 만나니, 지나는 사람들은 그곳을 완사천이라 하는구나.”, “비단 빨던 강가가 고려 태조 처가의 고향이요, 홍릉사 안에는 그 서광이 어리었도다. 지금도 부모들은 남긴 덕을 그리워하여, 피리 불고 북 치면서 추대왕[고려 혜종]을 즐겁게 하도다.”²⁶⁾

유방의 후궁으로 5대 황제 전한문제를 낳은 박희부인에 빗대어 장화왕후의 혜종 잉태와 홍릉사 사당에서 지역 부모의 혜종 제사를 노래하였다. 윤소종과 김종직은 혜종사와 관련된 시를 지어서 ‘왕건이 장화왕후를 통해 나주에서 잉태한 혜종’의 출생 과정을 신비롭게 설명했으며, 혜종의 군공과 군주로서의 지도력을 찬미하였다. 즉, ‘나주=어향’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한편 ‘나주 어향론’은 성종과 현종의 정책과 연관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고려 성종 2년(983) 나주는 12목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주가 새롭게 목이 된 것은 고려 왕실, 특별히 왕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나주는 군사활동을 벌였던 지역으로 왕건의 왕후 장화왕후의 고향이고 혜종의 외가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목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⁷⁾ 현종은 1018년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나

26) 龍孫當日艤戈船 忽夢朝雲暮雨仙 千載薄姬眞合轍 行人指點浣紗泉. 濯錦江邊舅氏鄉 興龍寺裏藹祥光 至今父老懷遺德 簫鼓歡娛皞大王(『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나주목, 제영).

27) 정청주, 앞의 글, 52면.

주는 전주와 함께 전라도의 으뜸 고을이 되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현종의 나주에 대한 특별한 우대는 홍릉사와 혜종사의 건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홍릉사는 혜종의 원찰이고, 혜종사는 혜종의 사당이다. 홍릉사와 혜종사의 건립은 고려 왕실의 지원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혜종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정종~광종대에 홍릉사와 혜종사가 건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나주를 중시하였던 현종이 홍릉사와 혜종사의 건립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후 나주의 지방세력은 혜종사에 혜종의 소상(塑像)과 진영(眞影)을 모셔놓고 혜종을 제사지냈다. 나주지역에서 혜종에 대한 제사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혜종의 소상과 진영은 세종 11년(1429)에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혜종에 대한 제사는 조선 중종(1506~1544)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나주의 지방세력은 홍릉사와 혜종사의 건립과 운영을 통하여, 나주가 고려 왕조의 어항이라는 자긍심을 가졌을 것이고, 나주가 어항으로 존중받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²⁸⁾

다만 이후 『여지도서』(나주목, 단묘)에는 “혜종사는 지금 못쓰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단계에서는 혜종사는 폐사되었으며, 지역민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는 『여지도서』 단계에서는 ‘고려=어항’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완산부와 덕원부는 『여지도서』에 ‘어항’으로 기록된 점과 구별된다. 또한 혜종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동루에 관한 기록도 『여지도서』에는 빠져 있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까지는 ‘나주=어항’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지만, 『여지도서』 제작 시기에 이르러서는 흐릿해진 것은 아닌가 추측해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나주가 어항이라는 인식의 출발점은 혜종의 모후인 장화왕후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종대 피란 이후 목 설치, 팔관회 개최, 홍릉사와 혜종사 건립 이후 나주가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함으로써 ‘나주=어항’이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각인시키려는 인상이 깊다. 이는 혜종에 대한 기존의 낮은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어항

28) 정청주, 위의 글, 58~59면.

29) 조선 후기에 편찬된 『나주군읍지』(1899)에도 혜종사에 대해서 “지금은 없다[今無]”고 전하고 있다(『나주군읍지』, 향교, 혜종사).

의 근거가 되는 혜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종대 이후 변화상을 덧붙여 어향 나주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향 나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혜종의 국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 ‘나주 어향론’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혜종의 평가 유형과 맥락

고려왕조의 두 번째 국왕 혜종에 대한 평가는 출생과 성장, 태자 시절과 즉위 과정, 재위 기간, 죽음과 사후 등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출생과 관련해서 왕건과 나주오씨[장화왕후]의 만남과 관련된 기록이 주목된다.

(장화)왕후가 일찍이 나루터의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놀라면서 깨어 부모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얼마 되지 않아 태조가 수군장군으로 나주에 출진하여 목포에 정박하였다. 태조가 강가를 바라보았더니 오색의 구름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곳에 이르니 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불러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였다. 측미하므로 임신시키지 않고자 하여 잠자리에 깐 돛자리에 (정액을) 뿌렸으나, 왕후가 바로 주어 담아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혜종이다. 혜종은 얼굴에 돛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세상에 서 이르기를 ‘주름살 임금[褊主]’이라 하였다.³⁰⁾

혜종의 출생과 관련하여 1)용 태몽, 2)모후의 오색운기(五色雲氣), 3)왕건과의 만남과 사랑, 4)‘측미(側微)’, 5)‘주름살 임금[褊主]’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0) 后嘗夢浦龍來入腹中 驚覺以語父母 共奇之 未幾 太祖以水軍將軍 出鎮羅州 泊舟木浦 望見川上 有五色雲氣 至則后浣布 太祖召幸之 以側微 不欲有娠 宣于寢席 后即吸之 遂有娠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褊主(『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장화왕후 오씨).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 A-1) 늘 잠자리에 물을 부어 두었으며 또 큰 병에 물을 담아두고 팔 씻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용의 아들이었다. 나이 7세에 태조가 혜종이 왕위를 이을만한 덕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 어머니의 존재가 미미하여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여 옷상자에 자황포를 담아 왕후에게 하사하였다. 왕후가 그것을 대광 박술희에게 보여주자 박술희가 태조의 뜻을 헤아려서 (그를) 세워 정운(正胤)으로 삼자고 요청하였다.³¹⁾
- 2) 아들 무를 책봉하여 정운(正胤)으로 삼았는데, 정운이란 곧 태자(太子)이다.³²⁾

라고 하여 1)물을 가까이 하는 ‘진용자(眞龍子)’, 2)어려서부터 계승지덕(繼統之德)을 갖추, 3)태조의 신임과 걱정, 4)대광 박술희의 지원, 5)정운의 지위 획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자 시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B-1) 태조 4년 세워서 정운을 삼고, 후백제를 칠 때 종군케 하였는데 용맹을 떨치며 선봉에 섰으므로 공을 제일로 삼았다.³³⁾
- 2) 왕이 친히 일모산성을 정벌하고, 정운 왕무를 보내어 북쪽 변경을 순시하게 하였다.³⁴⁾ 다시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³⁵⁾
- 3) 견훤이 요청하여 말하기를, “높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내투하였으니, 바라건대 그 위엄에 기대어 여적 아들을 베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처음에는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고자 하였으나 그의 간절한 요청을 가엾게 여겨 그의 의견을 따랐다. 먼저 정운 무와 장군 (박)술희를 보내어 보병과

31) 常以水灌寢席 又以大瓶貯水 洗臂不厭 眞龍子也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 恐母微不得嗣位 以故笥盛柘黃袍 賜后 后示大匡朴述熙 述熙揣知其意 請立爲正胤(『고려사』 권 88, 열전1, 후비1, 장화왕후 오씨).

32) 冊子武爲正胤 正胤卽太子(『고려사』 권1, 태조 1년 12월 辛酉).

33) 太祖四年 立爲正胤 從討百濟 奮勇先登 功爲第一(『고려사』 권2, 혜종 충서).

34) 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고려사』 권2, 태조 15년 秋7월 辛卯).

35) 復攻一牟山城 破之(『고려사』 권2, 태조 15년 11월).

- 기병 만 명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나아가게 하였다.³⁶⁾
- 4) 신라왕이 왕철 등과 함께 개경에 들어오자 왕은 의장을 갖추고 교외에 나가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태자[東宮]와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호위하여 들어오게 하고 유화궁에 묵도록 하였다.³⁷⁾
 - 5) 재신 염상, 왕규, 박수문 등이 곁에 모시고 앉아 있는데 왕이 말하기를, “..... 내가 병든 지 이미 20일이 지났지만 죽는 것을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안팎의 중요한 일 중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대들이 태자 무와 함께 결재한 뒤에 알리도록 하라.”고 하였다.³⁸⁾
 - 6) 혜종께서는 오랫동안 태자[東宮]로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위무하는 일을 처리하셨고, 스승을 존경하여 예우하고,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명성이 조야에 알려졌다.³⁹⁾

이상의 사료에서 정운[태자] 무의 활동 상황과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1)후백제와의 전투에 종군과 군공, 2)(충북 청원) 북쪽 변경 순시, 3)일리천(구미) 전투 참전,⁴⁰⁾ 4)개경을 방문한 신라왕 호위, 5)태조 와병 중 ‘내외기무(內外機務)’ 담당, 6)‘누경감무(累經監撫)’, 7)‘존경사부(尊禮師傅)’, 8)‘선접빈료(善接賓僚)’ 등이 그것이다.

한편 혜종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는,

- 36) 甄萱請曰 老臣遠涉滄波 來投聖化 願仗威靈 以誅賊子耳 王初欲待時而動 憐其固請 乃從之 先遣正胤武 將軍述希 領步騎一萬 趣天安府(『고려사』 권2, 태조 19년 夏6월).
- 37) 羅王與王鐵等入開京 王備儀仗 出郊迎勞 命東宮與諸宰 從衛而入 館於柳花宮(『고려사』 권2, 태조 18년 11월 癸卯).
- 38) 宰臣廉相王規朴守文等侍坐 王曰 予遘疾已歷二旬 視死如歸 有何憂也 內外機務 久不決者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고려사』 권2, 태조 26년 5월 丁酉).
- 39) 惠宗 久在東宮 累經監撫 尊禮師傅 善接賓僚(『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 40) 윤소중은 금성산을 노래하면서, “금성산은 바다 남쪽에 있으니, 태사의 고장으로 5백 년 이어왔네. 한 척의 배로 천왕이 귀순한 길ियो, 일만 깃발 현묘가 출사했던 곳이라네. 홍룡사 밖에는 서기가 떠 있고, 개계원 앞에는 흰 연기가 일어나네. 성조의 누선을 여기에서 맛았으니, 동정하는 오늘날 생각 그지 없어라[錦城山在海南邊 太姒家邦五百年 一葦甄王歸命路 萬旗顯廟誓師天 興龍寺外浮佳氣 開界院前生白煙 聖祖樓船迎此地 東征今日思悠然](『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산천)]”라면서 혜종의 출병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 C-1) 태조가 죽음에 임박해 (박술희에게) 군사와 나라일을 부탁하며 유언하기를, “경이 태자(무)를 받들어 세웠으니 잘 보좌하라”고 하였다. 박술희는 한결같이 유언대로 하였다.⁴¹⁾
- 2) 태조 26년 5월 병오 태조가 홍서하자, 유명을 받들어 즉위하였다.⁴²⁾
- 3) (혜종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⁴³⁾

라고 하여, 태조의 유명과 박술희의 도움을 받아 즉위한 사실과 당시의 혼연(欣然)한 민심을 전하고 있다.

혜종의 재위 시절 기록과 평가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모두 9건 전한다. 재위 기간이 2년 5개월로 짧기 때문에 관련 사료 또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재위 시절 활동을 통해 혜종에 대한 평가를 판단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사료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료를 통해 혜종의 재위 시절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1) 왕은 기개와 도량이 넓고 크며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는데, 왕규가 반역을 꾀한 뒤로부터 의심하고 꺼리는 일이 많아져 늘 감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게 하였다. 기쁨과 노여움이 일정치 않아[매우 변덕스러워] 여러 소인을 한꺼번에 등용하였으며, 將士에게 상을 내리는 데에 절제함이 없어서 안팎에서 탄식하고 원망하였다.⁴⁴⁾
- 2) 처음 즉위하셨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정종 형제를 참소하여 반역의 뜻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혜종은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로 대우함이 더욱 풍성하여 그 정종 형제를 대함이 처음과 같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 분의 큰 도량에

41) 太祖臨薨 托以軍國事曰 卿扶立太子 善輔佐 述熙一如遺命(『고려사』 권92, 열전5,朴述希).

42) 二十六年 五月 丙午 太祖薨 奉遺命卽位(『고려사』 권2, 혜종 충서).

43) 及初卽位 衆舉欣然(『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44) 王氣度恢弘 智勇絕倫 自王規謀逆之後 多所疑忌 常以甲士自衛 喜怒無常 群小並進 賞賜將士無節 內外嗟怨(『고려사』 권2, 혜종 충서).

감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덕정을 닦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목숨을 아껴 좌우 전후에 항상 감사들로 뒤따르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사람을 의심함이 너무 심하여 군주의 체통을 크게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상이 장사들에게 치우쳐 은택이 고르지 못하고, 그러므로 조정의 안팎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니 인심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즉위한 다음 해(필자주: 944)에 곧 불치의 병을 얻어 침상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이에 조신과 현사들은 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향리의 소인들이 항상 침실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 병이 더욱 위독해질수록 노여움이 날로 더해져서, 3년 동안 백성들은 그의 덕을 입지 못하였습니다.⁴⁵⁾

이는 성종대 최승로의 평가인데, 혜종이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으나, 왕규의 난을 전후하여 성품이 바뀐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최승로는,

당시 왕이 신하의 의견을 구하자, 최승로가 상서하여 이르기를, “신은 초야에서 낳고 자라서 성품이 우매하고 학문도 부족합니다. 다행히 밝은 시절을 만나 오래 동안 외람되게도 근시(近侍)의 직을 맡았고 대대로 특별한 영예를 입었습니다. 비록 뛰어난 계책으로 시절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오직 일편단심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당 현종의 개원(開元) 연간에 사신으로 있던 오궁(吳兢)은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지어 올려, 현종에게 태종의 정치를 본받아 힘써 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의 근본이 서로 비슷하고, 한 가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정치가 훌륭하여 모범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왕통을 물려주신 것은 곧 시조의 공이요, 여러 임금들이 왕위를 물려받아 수성(守成)한 것은 뒤 임금들의 덕입니다. 시조께서 나라를 세워 자손의 행복과 경사를 열어주셨는데, 뒤 임

45) 及初卽位 衆舉欣然 時有人譖定宗兄弟 謂有異圖 惠宗聞而不答 亦無所問 恩遇愈豐 待之如初 故人皆服其大度 旣而不修德政 過惜身命 左右前後 常以甲士相隨 蓋爲疑人太甚 大失爲君之體 加以偏賞將士 恩澤不均 故內外怨嗟 人心攜貳 又卽位踰年 便致沉痾 牀枕之間 淹延歲月 於是 朝臣賢士 不獲近前 鄉里小人 常居臥內 厥疾彌篤 嗔患日增 三年之間 民不見德(『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금들은 중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했으니 일면 부족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정치에 치란이 있었고, 일에 선악이 있었으며, 많은 경우 시작할 때와 같이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위태롭고 어지러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신(臣)이 알고 있는 바는 모두 저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조정에서 정치와 교화가 잘되었거나 잘못된 사적을 기록하여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조목별로 아뢰고자 합니다.⁴⁶⁾

라고 하여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등 성종 이전 다섯 국왕에 대한 평가를 상주하였다. 최승로의 평가는 대단히 직설적인 편이다. 각 국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두었기 때문이다.

- 태조: 다만 건국 초기로 태평을 이룬지 얼마 되지 않아 종묘사직이 아직 아름답게 높여지지 못하였고, 예악과 문물은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았으며, 백관의 품계와 격식과 중앙과 지방의 규정과 의례가 미처 갖춰지지 못하였습니다.⁴⁷⁾
- 혜종: 그러나 얼마 뒤 덕정(德政)을 닦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목숨을 아껴 좌우 전후에 항상 갑사(甲士)들로 뒤따르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사람을 의심함이 너무 심하여 군주의 체통을 크게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안팎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니 인심이 떠나게 되었습니다.⁴⁸⁾

46) 時王求言 承老上書曰 臣生長草野 性稟愚暗 且無學術 幸值明時 久叨近職 累竊殊榮 雖微長策 可以匡時 猶有片心 期於報國 竊見開元史臣吳兢撰進貞觀政要 欲勸玄宗勤修太宗之政 蓋以事體相近 不出一家而其政休明 可爲師範也 臣伏見太祖之創業垂統 所謂祖有功也 諸宗之嗣位守成 所謂宗有德也 祖既有國有家 以啓子孫之福慶 宗乃或興或廢 未免一時之過愆 所以然者 政有理荒 事有善惡 多不慎終如始 至於危亂 是誠可痛也 自我太祖開國以來 臣所及知者 皆誦在臣心 今謹錄五朝政化善惡之跡 可鑑可戒者 條奏以聞(『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47) 但以創業之初 致平日淺 宗廟社稷 且未光崇 禮樂文物 猶多闕乏 凡百官司之品式 及諸內外之規儀 未及修定 忽遺弓劍 蓋國人之不幸 寔天道之難諶 深可惜也(『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48) 旣而不修德政 過惜身命 左右前後 常以甲士相隨 蓋爲疑人太甚 大失爲君之體. 故內外怨嗟 人心攜貳(『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 정종: 그러나 도참(圖讖)을 그릇되게 믿게 되어 천도(遷都)를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천성이 굳세어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셨고, 급박하게 백성들을 징발하여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니, 비록 임금이 옳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⁴⁹⁾
- 광종: 그러나 정사에 태만하시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막혀서 통하지 않았고, 마시고 먹는 잔치가 길게 이어지고 끊이지 않았습니다.⁵⁰⁾
- 경종: 다시 정사에 태만하셨으며, 마침내 여색에 빠지게 되시고, 향악(鄉樂) 연주를 즐겨 관람하시다가 장기와 바둑으로 이어져 종일 두어도 싫증 내지 않으셨습니다.⁵¹⁾

최승로는 앞부분에서 해당 국왕의 치적과 장점을 소개한 다음, 뒷부분에서는 반드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지적해 두었다. 이에 최승로의 ‘오조정평(五朝政評)’을 통해 당시 국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혜종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에는 혜종의 성품을 바뀌게 한 왕규의 난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혜종 2년 왕규는 왕의 동생 왕요[정종]와 왕소[광종]가 모반한다고 참소하였으나 혜종은 무고임을 알고 은혜로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사천공봉 최지몽이 아뢰기를, “유성이 자미원을 침범하였으니 나라에 반드시 역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혜종은 왕규가 왕요와 왕소를 모해하려는 정조라고 판단하고 장공주(長公主)를 왕소에게 시집보내어 친족관계를 강화하니 왕규가 그 음모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왕규는 또한 광주원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일찍이 밤에 왕이 깊이 잠든 것을 엿보고 자신의 일당을 침소에 잠입시켜 대역죄를 행하려고 하였다. 혜종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주먹으로 쳐 죽인 후 좌우 시종

49) 及乎誤信圖讖, 決議遷都. 又天性剛毅, 固執不移, 暴徵作役, 勞動人夫, 雖上慮爲然, 乃群情不服(『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50) 怠於政事, 軍國要務, 壅塞不通, 酒食讌遊, 聯綿靡絕(『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51) 復倦于勤, 遂至色荒, 喜觀鄉樂, 繼以博奕, 終日無厭(『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들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따져 묻지 않았다. 하루는 혜종이 몸이 불편하여 신덕전에 있었는데 최지몽이 또 아뢰기를, “곧 장차 변란이 있을 것이니, 때를 보아 거처를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혜종이 몰래 중광전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왕규가 밤에 그 일당을 이끌고 벽을 뚫고 들어갔으나 침실이 이미 비어 있었다. 왕규가 최지몽을 보더니 칼을 빼어들고 옥을 하며 말하기를, “주상이 침소를 옮긴 것은 분명 네가 도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지몽이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 왕규가 이에 물러갔다. 혜종은 비록 왕규가 행한 바를 알고 있었으나, 또한 죄를 주지 않았다.⁵²⁾

위의 기록은 『고려사』 왕규전에 실린 내용이다. 이와 함께 왕식렴전에 실린 왕규의 두 번째 반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왕식렴은 삼중대광 왕평달의 아들이고, 태조의 사촌동생이다.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웠다. 처음에 군부서사가 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였다. 태조는 평양이 황폐하다고 여겨 백성을 옮겨 채웠고, 왕식렴에게 가서 진정시키게 하였으며, 또 안수진과 흥덕진 등에 성을 쌓게 하였다. 공이 있어 여러 번 옮겨 좌승이 되었다. 왕식렴은 오래도록 평양을 다스렸고, 항상 사직을 지켰으며, 영토를 개척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혜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왕규가 다른 뜻을 품었다. 정종이 몰래 왕식렴과 변란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왕규가 난을 일으키자, 왕식렴이 평양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 지켰으므로 왕규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왕규 등 300여 명을 처형하였다. 왕이 왕식렴에게 의지하고 신뢰함이 더욱 깊어져 조서를 내려 표창하였다.⁵³⁾

52) 惠宗二年 規譖王弟堯及昭有異圖 惠宗知其誣 恩遇愈厚 司天供奉崔知夢奏 流星犯紫微 國必有賊 惠宗意 規謀害堯昭之應 乃以長公主妻昭 用强其族 規不得行其謀 規又欲立廣州院君 嘗夜伺王睡熟 遣其黨潛入臥內 將行大逆 惠宗覺之 一拳斃之 令左右曳出 不復問 一日 惠宗違豫 在神德殿 知夢又奏 近將有變 宜以時移御 惠宗潛徙重光殿 規夜率其黨 穴壁而入 寢已空矣 規見知夢 拔劍罵之曰 上之移寢 必汝謀也 知夢竟無言 規乃退 惠宗雖知規所爲 亦不罪之(『고려사』 권127, 열전5, 王式廉).

53) 王式廉 三重大臣平達之子 太祖之從弟 爲人忠勇勤恪 初爲軍部書史 多所遷歷 太祖以平壤荒廢 徙民實之 命式廉往鎮之 又城安水興德等鎮 有功 累轉佐丞 式廉久鎮平壤 常

혜종 때부터 반란을 획책한 왕규가 정종대에 난을 일으켰으나 왕식렴에 의해서 제거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혜종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과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혜종의) 병이 더욱 위독해질수록 노여움이 날로 더해져서, 3년 동안 백성들은 그의 덕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혜종이 돌아가시는 날에 이르러 겨우 ‘뜻하지 않은 재난’을 면할 수 있었으니 가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⁵⁴⁾

여기에서는 혜종은 병이 위독하여 덕정을 베풀지 못하였는데, 그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면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혜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출생과정, 성장 과정, 태자 시절, 즉위 과정, 재위 시절, 사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혜종은 어렸을 적부터 군주의 풍모가 있었고, 7세 때에 세자[정운]가 된 이후부터 예비국왕으로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었던 바, 후삼국전쟁의 과정에서 박술희와 함께 상당한 군공을 쌓은 까닭에 태조 왕건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태자 시절에 국가기무를 결재하였으며, 신하와 사신 접대에도 능숙하였다. 즉위한 다음에도 덕정을 쌓았으나, 왕규의 난을 겪은 다음에 의심이 많아져서 실정을 하다가 병에 걸려 재위 2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혜종에 대한 평가는 당대의 것, 성종대 최승로의 것, 한참 후대 이제현의 것이 섞여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장화왕후 열전 내용과 최승로의 국왕 평가가 자세한 편이다. 열전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혜종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건장한 체구에 덕정을 펼친 2대 군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실정을 거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서사구

以衛社稷 拓封疆 爲己任 惠宗寢疾 王規有異志 定宗密與式廉謀應變 及規作亂 式廉自平壤 引兵入衛 規不敢動 於是 誅規等三百餘人 王倚賴益重 下詔褒獎(『고려사』 권92, 열전40, 반역전, 王規).

54) 又卽位踰年 便致沉痾 牀枕之間 淹延歲月 於是 朝臣賢士 不獲近前 鄉里小人 常居臥內 厥疾彌篤 嗔患日增 三年之間 民不見德 至于晏駕之日 粗得免其橫禍 可不痛哉(『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조는 이후 정종과 광종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결과에 맞춘 평가와 해석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덕정을 베풀던 혜종이 왕규의 난을 겪으면서 호위를 보장하고 주변 측근들을 등용한 점이 부정적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왕규의 난을 통해 최종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은 정종이며, 이후 곧바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광종이기 때문에, 왕규의 난으로 혜종이 급변했다는 것은 혜종에 대한 비판을 위함이 아니라 정종과 광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 장에서 혜종에 대한 평가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4. 혜종의 평가 내용과 특징

1) 혜종의 출생에 대한 평가

혜종의 출생에 있어서 왕건과 나주오씨[장화왕후]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에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어우러져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태몽을 통해 설명된다. 장화왕후가 왕건을 만나기 전부터 용꿈을 꾸는 것이다.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는 꿈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주지하고 있듯이, “고려의 선대는 기록이 빠져 있어서 자세하지 않다”라는 것이 『고려사』 편찬자의 인식이었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조의 군주로서 왕건의 집안을 신성가문화 해야만 했다.⁵⁶⁾

여기에 동원된 서사 방식 가운데 하나가 꿈 이야기이다. 『고려사』 ‘고려세계’에는 모두 네 가지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⁵⁷⁾ 첫째, 호경이 옛 부인을 잊지 못하여 밤마다 늘 ‘꿈같은’ 교접을 한 것, 둘째 보육이 곡령에 올라가 소변을

55) 高麗之先, 史闕未詳(『고려사』, 高麗世系).

56) 고려 왕실은 “우리 신성하신 태조에 미쳐서 天命에 응하였다. 여러 나라를 통일하여 빛을 거듭하고 경사를 포개었다. 용손이 계승하여 일어나서 큰 기업이 길이 성하였다”라고 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천명과 함께 용손이라는 신성성에서 구하였다(이정란, 「고려 왕가의 용손의식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55, 2014, 12면).

57) 고려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열규의 「고려사 세가에 나타난 ‘신성왕권’의 의식」(『진단학보』 40, 1975)과 허인옥의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사총』 56, 2003)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아 삼한의 산천이 은빛 바다로 변한 이야기, 셋째 보옥의 딸 진의의 동생이 꿈 속에 오관산 꼭대기에서 소변을 보아 천하에 흘러넘친 이야기, 넷째 세조가 꿈에서 미인[몽부인]을 만나 부인으로 삼겠다고 다짐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들 꿈 이야기는 5대조로부터 이어져 온 신이함으로 인해 삼한의 왕으로 태어날 왕건의 존재를 예견하고 신성화하기 위함이었다. 즉, 고려 왕실은 초월적 존재에의 가락을 통해 권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왕권의 절대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왕권의 절대성을 가장 손쉽게 보장하면서도 극대화하는 방법은 혈통의 유래를 신성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 왕실에서는 혼인담을 통해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의 신성성까지를 가미하였다.⁵⁸⁾ 이러한 맥락에서 장화왕후가 왕건을 만나기 직전 용꿈을 꾸는 것은 신성가문 출신 왕건과 재지세력 오씨가문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씨가문의 딸이 신성가문의 자식을 잉태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여겨진다.⁵⁹⁾

특히 장화왕후가 용꿈을 꾸었다는 사실 또한 『고려사』 ‘고려세계’에 등장하는 용 이야기 즉 ‘용손의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고려사』 ‘고려세계’에는 첫째, 작제건이 부친을 뵈러 상선을 타고 가다 만난 서해 용 이야기, 둘째 작제건과 서해 용녀와의 만남 이야기, 셋째 용녀가 송악에서 황룡으로 변한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당시 자신의 지위나 가문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용의 존재를 개입시키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이에 오다련의 딸이 태몽으로 용꿈을 꾸고, 오씨의 기운을 띠고 있다가 왕건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은 왕건 가문을 신성화 하는 그것과 일치한다. 이는 나주오씨 가문이 현실적으로 왕건의 가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혼인을 통해 이에 준하는 가문으로 격상되는 과정을 설명함과 다름없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갑자기 왕건이 임신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전까지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갑자기 ‘측미’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인데, 이는 전후 맥락으로 보아 어색한 부분이 많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주저된다. 우선 고려 초에 ‘측미(側微)’라는 표현이

58) 이정란, 위의 논문, 13~14면.

59) 이정란은 혜종의 사례에 비추어 고려 왕실의 용손의식이 고려 초부터 존재했다고 보았다(위의 논문, 17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조하기를, “개국을 도와 기이한 계락을 운용하고 세상을 뒤덮는 높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모토(茅土)를 나누어 주고 높은 관작으로 포상하는 것은 여러 대에 걸친 떳떳한 법이요, 영원토록 전해오는 큰 규범이다. 짐은 ‘미천한 출신[側微]’으로 재주와 식견이 용렬하나, 진실로 못 사람의 신망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으니, 포학한 임금을 폐하던 때에 나에게 충신의 절개를 다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포상을 시행하여 훈공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⁶⁰⁾

태조 왕건이 개국을 도와준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리는 조서에서, 자신을 ‘미천한 출신[側微]’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훈요 10조 서문에서 순임금이 나 한 고제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기자단평(起自單平)’했다고 말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신분이 낮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군주로서의 겸손함과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천명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측미’라는 표현만으로 나주오씨 가문이 왕건과 혼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천한 출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주오씨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태조의 둘째 왕후인 장화왕후 오씨는 다려군의 딸이다. 그리고 다려군의 아버지는 부돈(富屯)이다. ‘부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자’라는 것이다. 나주오씨의 선대는 중국에서 상인으로 흥기하여 해외무역상을 따라 신라로 건너왔다고 한다.⁶¹⁾ 이로 미루어, 부돈과 다려군으로 이어지는 나주오씨 가문은 해상무역에 종사하여 부자가 된 해상세력으로 생각된다.

오씨 집안은 나주[목포]에서 대대로 살았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에 “금강진은 일명 금천, 목포, 남포라고도 한다. 곧 광탄(廣灘)의 하류인데 주의 남쪽 11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대동지지』 나주조에서, “영산진은 고려시대에 남포진이라고 칭하였고, 제창진과 금강진은 함께 남쪽 10리

60) 詔曰 人臣 運佐時之奇略 樹蓋世之高勳者 錫之以分茅胙土 褒之以峻秩崇班 是百代之常典 千古之宏規也 朕出自側微 才識庸下 誠資群望 克踐洪基 當其廢暴主之時 竭忠臣之節者 宜行賞賚 以獎勳勞(『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8월).

61) 『증보문헌비고』 49, 帝系考 10, 씨족4, 오씨.

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당시 오씨 집안의 세거지인 목포는 비슷한 거리에 있는 영산포(나주시 영산동)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⁶²⁾

한편 오씨의 외할아버지인 연위(連位)가 ‘사간(沙干)’이었던 점에 비추어, 오씨와 비슷한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장화왕후의 부모는 모두 집안이 태조의 선대와 마찬가지로 해상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태조와 나주오씨 세력이 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양쪽 집안의 선대가 해상세력을 출신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³⁾ 나주의 오씨 세력이 왕건과 만나게 된 시기는 909~911년 무렵으로 짐작된다.⁶⁴⁾ 이때 태조에게 있어서 나주오씨와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태조는 나주오씨와의 결합을 계기로 점차 나주지역을 뛰어넘어 서남 해안지역의 유력한 호족세력들과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자신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⁶⁵⁾ 이런 까닭에 태조는 29명의 부인 중에서 단 3명만을 왕후로 책봉함에 있어서 나주오씨 가문의 장화왕후를 포함시켰던 것이다. 특히 장화왕후는 왕건이 궁예의 휘하에 있을 때에 맞아들인 왕비로, 태조 4년 이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왕비들과는 다르다.⁶⁶⁾ 이 점이 한편으로는 태조가 장화왕후의 소생을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태조 4년 이후 부인으로 들어온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발미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왕건이 나주오씨의 가문만을 따져서 ‘측미(側微)’

62) 김명진, 「태조왕건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32, 2008, 289면.

63) 강희웅도 “목포의 모계를 통한 태자 무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태조의 배경과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태조가 태자 무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은 새 왕조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일관성을 약속해주는 것이다”고 보았다(『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란의 신해석』, 『한국학보』 7, 1977, 68면).

64) 왕건이 나주를 처음 공략한 시기가 903년이었다. 『고려사』 혜종 세가에는 혜종이 912년에 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신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가 903년 이후부터 911년을 전후한 어느 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건은 909년에 해군대장군이라는 직책을 궁예로부터 임명받았으니 수군장군으로서 장화왕후와 만났다는 사실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로써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가 처음으로 만난 시점은 909년부터 911년까지로 압축할 수 있다.

65) 신호철, 「고려 건국기 서남해 지방세력의 동향」, 『역사와 담론』 58, 2011, 10~11면.

66) 김용호, 「고려 혜종대의 정국과 왕규의 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면.

하다고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이 ‘以側微不欲有娠’, ‘恐母微不得嗣位’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장화왕후와 관련하여 ‘측미(側微)’, ‘모미(母微)’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태조 스스로 자신을 ‘측미(側微)’한 존재로 인식한 사례도 있으므로 단순히 가문의 미미함을 뜻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려’와 ‘걱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다. 임신과 관련한 ‘측미(側微)’의 경우에는, 왕실 주변에서 향후 태어날 아이의 곁을 지켜줄 힘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태자 무의 왕위 계승을 반대했을 법한 세력으로는 태자 무의 외가를 천한 신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라 귀족세력일 가능성이 크다.⁶⁷⁾ 즉, 오다련이 후삼국 전쟁에서 특별한 공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외손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주변에서 이를 지지할 세력이 없음을 뜻한 것이다.

그리고 사위와 연관된 ‘모미(母微)’라는 표현은 왕자 무가 태자가 되려거나 혹은 되었을 때 모후의 힘만으로는 이를 이루거나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모미(母微)’하기 때문에 자황포를 담은 상자를 주어서 박술희의 지원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태조 왕건은 장화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이 있었지만, 주변의 반대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를 지켜낼 모후의 힘이 미미하다는 점을 의식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이에 두 가지 표현 모두 후일 혜종을 후계자로 삼기 위한 미연의 방어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혜종은 어렸을 때부터 ‘진용자(眞龍子)’로 인식되었다.

늘 물을 잠자리에 부어 두었으며 또 큰 병에 물을 담아두고 팔 씻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용의 아들[眞龍子]이었다. 나이 7세에 태조가 혜종이 왕위를 이을만한 덕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 어머니가 미천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여 짐짓 옷상자에 자황포를 담아 왕후에게 하사하였다. 왕후가 그것을 대광 박술희에게 보여주었고, 박술희가 태조의 뜻을 미루어 알고 태자를 세워 정윤으로 삼자고 요청하였다.⁶⁸⁾

67) 강희웅, 앞의 논문, 71면.

혜종은 태몽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도 ‘진용자’로 여겨졌다. 게다가 혜종은 7세 때 태조로부터 ‘계통지덕’을 인정받았다. 이는 앞서 태몽으로 용꿈을 꾸고 ‘오색운기’를 갖춘 나주오씨의 품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 태조의 25명 아들 가운데에서 태자 무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은 ‘용꿈’, ‘오색운기’, ‘계통지덕’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다만 ‘모후부득사위(母微不得嗣位)’라는 표현에서 ‘모미(母微)’가 핵심적인 요소인지, ‘不得嗣位’가 더 중요한 지점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색운기’에 쌓인 ‘진용자’로서 ‘계통지덕’을 갖췄는데, ‘不得嗣位’한다는 것은 ‘모미(母微)’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⁹⁾ ‘不得嗣位’는 복잡한 후계 구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즉, 태자 무는 ‘진용자’로서 ‘계통지덕’을 갖췄으므로, 모후의 ‘측미(側微)’로 인해 ‘不得嗣位’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후계 구도가 그만큼 복잡하며, 이를 극복할 힘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미미함을 도와주기 위해, 태조는 자황포를 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박술희의 도움을 얻어 태자 무는 정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⁷⁰⁾ 이는 ‘모미(母微)’라는 표현이 가문이나 신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환경

68) 常以水灌寢席 又以大瓶貯水 洗臂不厭 眞龍子也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 恐母微不得嗣位 以故笏盛枯黃袍 賜后 后示大匡朴述熙 述熙揣知其意 請立爲正胤(『고려사』 권 88, 열전1, 후비1, 장화왕후 오씨).

69) 백강령도 장화왕후와 관련된 ‘측미’라는 표현은 장화왕후의 결혼시기, 타 부인들과의 상대성, 다련군의 지위, 나주의 위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고려초 혜종과 정종의 왕위계승 -박술희와 왕규의 출신배경과 역할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1996, 89~90면).

70) 혜종과 박술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 김명진, 「고려 혜종의 생애와 박술희」, 『영남학』 65, 2018.
- 한정수, 「고려 초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실학』 62, 2017.
- 김용호, 「고려 혜종대의 정국과 왕규의 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백강령, 「고려초 혜종과 정종의 왕위계승」, 『진단학보』 82, 1996.
- 황선영, 「고려 혜종대의 정변과 정종의 왕위계승」, 『고려초기 광종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1988.
- 이종욱, 「고려초 940년대의 왕위계승전과 그 정치적 성격」,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1981.
- 강희웅, 「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란의 신해석」, 『한국학보』 7, 1977.
- 하현강, 「고려 혜종조의 정변」, 『사학연구』 20, 1968.

또는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혜종의 왕위계승권자로서의 평가

혜종은 912년에 태어났으므로, 그가 7세가 된 해는 918년(태조 1)이었다. 즉,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큰아들 무를 정운으로 책봉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가 7세가 되자, 태조가 다시 무를 태자로 책봉하려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 나주오씨 부인이 측미하여 책봉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큰 아들 무를 태자로 책봉하려 한 것은 그만큼 무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무를 태자로 세우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무는 3년이 지난 뒤인 태조 4년(921) 12월에 정운으로 책봉되었다.⁷¹⁾ 당시 무를 태자로 책봉하지 못한 까닭은 무의 태자 책봉에 극력 반대하는 세력이 보다 강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무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세력이 미약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무의 태자 책봉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박질영(朴質榮)·김행파(金行波)·박수경(朴守卿) 등 패서지역의 호족들이었다. 당시 패서지역 호족들은 서경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경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이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로써 패서지역 호족은 고려 왕조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태조는 자신의 큰아들 무의 태자 책봉을 추진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이에 태조는 낡은 상자에 왕위를 상징하는 자황포(柘黃袍)를 넣어서 장화왕후 오씨에 전달했고, 장화왕후 오씨는 그것을 박술희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받아 본 박술희가 태조의 진심을 파악하고 장자 무를 태자로 책봉할 것을 청한 것이다. 당시 무의 태자 책봉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었다. 무의 태자 책봉을 지지하는 세력이 미약하였고, 그 이유는 외면적으로는 무의 어머니 오씨가 ‘측미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혜종을 뒷받침할 군사력이나 측근세력과 같은 현실적인 능력이 미약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장화왕후 오씨의 가문은 무의 태

71) 冊子武爲正胤。正胤卽太子(『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12월 辛酉).

자 책봉을 충분히 후원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태조 왕건은 무를 도와줄 세력을 따로 선정하여 육성하였다. 그러한 세력으로 맨 먼저 뽑힌 인물이 박술희였다.

후일 박술희는 현종 18년(1027) 해종묘에 배향되었다.

태묘에 배알하고 선왕과 선후의 존호를 더 올려주었다. 배현경·홍유·복지겸·신승겸·유금필·최응을 태조묘에, 박술희와 김견술을 해종묘에, 왕식렴을 정종묘에, 유신성과 서필을 광종묘에, 최지몽과 박양유를 경종묘에, 최승로·최량·이지백·서희·이몽유를 성종묘에, 한언공·김승조·최숙을 목종묘에 배향하였고 유형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였다.⁷²⁾

박술희가 태조의 뜻을 받들어 장자 무를 태자로 책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가 무의 태자 책봉 이전부터 나주오씨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왕건에 의하여 매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술희와 나주오씨가 연결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즉,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서해안의 해상세력 출신으로서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양자의 출신지는 해성군과 나주이다. 이곳은 모두 해상활동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후백제와 태봉 및 고려 사이에서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박술희와 나주오씨 세력은 해상세력으로서의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그 근거지를 후백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결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양자의 협력관계는 박술희의 죽음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³⁾

그렇다면 태자 무는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해종은 “후백제를 칠 때 종군하여 용맹을 떨치며 선봉에 섰으므로 공이 제일로 되었다.”라고

72) 謁大廟 加上先王先后尊號 以褒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庚黔弼崔凝配享太祖 朴述希金堅術配惠宗 王式廉配定宗 劉新成徐弼配光宗 崔知夢朴良柔配景宗 崔承老崔亮李知白徐熙李夢游配成宗 韓彥恭金承祚崔肅配穆宗 赦流以下(『고려사』 권5, 현종 18년 4월 壬午).

73) 김당택도 왕건이 나주를 중시한 것은 해상세력과의 연대, 남중국 유학 이후 귀국한 선승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그 연원을 찾았다(앞의 글, 86~90면).

기록되었다.⁷⁴⁾ 고려가 918년에 건국되어 936년에 통일되었으니, 혜종의 나이 7세부터 24세까지에 해당한다. 고려가 후백제에 타격을 입힌 전투가 929~930년의 고창전투이므로, 이때 태자 무가 참전했다면 20세 전후에 해당한다. 혜종이 태자 시절 20세 전후에 후백제와의 전투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혜종의 휘를 ‘무(武)’라고 한 것에서 보이듯이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용맹하게 선봉에 서서 그 공이 일등으로 평가되었다.⁷⁵⁾ 실제 태자 무는 20세인 태조 15년(932) 북쪽 변경을 순시한 적이 있으며, 24세인 태조 19년(936)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박술희와 함께 출정하였다.

- E-1) 왕이 친히 일모산성을 정벌하고, 정윤 왕무를 보내 북쪽 변경을 순시하게 하였다.⁷⁶⁾ 다시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⁷⁷⁾
- 2) 견훤이 요청하여 말하기를, “높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내투(來投)하였으니, 바라건대 그 위엄에 기대어 역적 아들을 베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처음엔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고자 하였으나 그의 간절한 요청을 불쌍히 여겨 그의 의견을 따랐다. 먼저 정윤 왕무와 장군 박술희를 보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나아가게 하였다.⁷⁸⁾

태자 무는 태조 15년(932) 20세 때 태조가 정벌한 일모산성 일대를 순시하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일모산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도 태자 무가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태조 19년(936) 24세 때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측근 박술희와 함께 만 명의 군사

74) 從討百濟 奮勇先登 功爲第一(『고려사』 권2, 혜종 충서).

75) 한정수는 “혜종의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氣度恢弘 智勇絕倫’(『고려사』 권2, 혜종 2년 9월)이라는 사신의 평가는 상투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적어도 군주로서의 품성이나 자질 등은 모자람은 없었던 데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려조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실학』 62, 2017, 21면).

76) 秋七月 辛卯 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고려사』 권2, 태조 15년 7월 辛卯).

77) 復攻一牟山城 破之(『고려사』 권2, 태조 15년 11월).

78) 鄭荳請曰 老臣遠涉滄波 來投聖化 願仗威靈 以誅賊子耳 王初欲待時而動 憐其固請 乃從之 先遣正胤武 將軍述希 領步騎一萬 趣天安府(『고려사』 권2, 태조 19년 夏6월).

를 데리고 출정하였다. 이후 전투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태자 무의 군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태자 무의 군공 관련 내용은 1년 뒤 태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즉위의 정당화 하는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태자 무가 태조의 유명으로 즉위하였는데, 그 배경으로 태자 무의 군공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태자 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군공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자 무는 태조 말년에 국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재신 염상, 왕규, 박수문 등이 곁에 모시고 앉아 있는데 왕이 말하기를, “..... 내가 병든 지 이미 20일이 지났지만 죽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니 어찌 근심함이 있겠는가? 안팎의 중요한 일 중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대들이 태자 무와 함께 결재한 뒤에 알리도록 하라.”고 하였다.⁷⁹⁾

태자 무는 태조가 와병 중에 부왕의 명을 받아 ‘내외기무(內外機務)’를 맡아 처리하였다. 혜종이 태자시절부터 국정 수행능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최승로의 ‘오조정적평(五朝政績評)’에 잘 나타나 있다. 최승로는 혜종에 대해서,

혜종께서는 오랫동안 태자로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위무하는 일을 처리하셨고, 스승을 존경하여 예우하고,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명성이 조야에 알려져, 처음 즉위하셨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셨습니다.⁸⁰⁾

라는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혜종의 태자 시절 업적은 ‘누경감무(累經監撫)’라는 표현으로 압축되어 있다. “여러 차례 ‘감무’를 행했다”는 것이다. ‘감무’는 ‘감국무군(監國撫軍)’의 준말인데, “세자가 임금을 도와서 국사를 감독하고 군사를 위무하던 일. 곧 세자의 직무”를 말한다. ‘누경감무’는 “여러 차례

79) 宰臣廉相王規朴守文等侍坐 王曰 …… 予遘疾已歷二旬 視死如歸 有何憂也 …… 內外機務 久不決者 卿等並與太子武 裁決而後聞(『고려사』 권2, 태조 26년 5월 丁酉).

80) 惠宗 久在東宮 累經監撫 尊禮師傅 善接賓僚 由是 令名聞於朝野(『고려사』 권93, 열전 6, 崔承老).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위무하는 일을 처리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서 태조의 와병 기간 중 ‘재신들과 함께 국가 중대사를 결재한 일’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혜종은 태자 시절부터 군공이 뛰어났으며 국정 수행능력도 출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혜종은 태자 시절 ‘존예사부(尊禮師傅)’와 ‘선접빈료(善接賓僚)’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스승을 존경하여 예우하였으며, 빈객과 관리들을 잘 대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자 시절 업적으로 인해 “조야에 명성이 알려졌다”고 한다. 이 또한 혜종이 군주로서 성품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최승로의 평가에 따르면 혜종의 즉위는 그의 군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태조가 직접 겪고 경험하면서 쌓인 신뢰로부터 나온 것이다.

혜종은 태조의 장자로서 왕위에 올랐다.⁸¹⁾ 태조는 무가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위하자마자 다음 왕위 계승자로 책봉하고자 하였다.⁸²⁾ 이에 태조는 혜종에게 왕위계승권자로서 여러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먼저 혜종은 북쪽 변경을 살피거나 후백제 토벌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사적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태조 말년에는 재신들과 함께 국정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혜종이 이렇게 왕위계승권자로서 경험을 축적한 결과 그의 즉위는 “좋은 명성이 조야에 알려져서 여러 사람이 기뻐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태조는 혜종이 말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미천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잇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이는 혜종을 지지할 수 있는 외척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조는 혜종이 10세가 되던 해에 박술희에게 혜종을 정운으로 세우도록 요청하게 하고, 박술희에게 유명을 남겨 혜종을 끝까지 보필하게 하는 등 혜종의 지지세력을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이후 혜종은 박술희의 도움으로 나주세력, 충남 당진에 해당하는 혜성군세력, 광주세력, 진천세력, 청주세력, 경주세력 등 다양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⁸³⁾ 그 결과 태조의 유명을 받들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81) 惠宗 …… 太祖長子母曰莊和王后吳氏 …… 二十六年 五月 丙午 太祖薨 奉遺命卽位 (『고려사』 권2, 혜종 충서).

82) 年七歲 太祖知有繼統之德(『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장화왕후 오씨).

83) 한정수, 앞의 논문. 23~24면.

이상에서 확인했듯이 태조는 맏아들인 혜종이 왕위에 오를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왕위계승권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왕위계승권자로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자질을 더 갖추나가게 했고, 그를 지지할 세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태조가 말년에 남긴 훈요 3조에는 혜종에게 왕위를 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왕위계승의 원리가 반영되었고, 혜종 역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였던 것이다.⁸⁴⁾

3) 왕규의 난과 혜종의 치적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규의 난과 관련하여 혜종에 대한 평가가 차지하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자. 혜종에 대한 고려시대 또 다른 평가로는 이제현의 찬을 들 수 있다.

이제현이 찬하기를, “우부(羽父)가 환공(桓公)을 죽이라고 청한 것은 장차 태재(太宰)의 자리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은공(隱公)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또한 그를 징벌하지도 않았다가 끝내 위씨(僖氏)의 화를 입기에 이르렀다. 왕규(王規)가 왕의 두 아우를 참소한 것도 또한 우부와 같은 의도였다. 혜종은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가까이에 있게 하였으니, 소매 속에 칼날을 숨기고 벽을 넘어 온 자객의 음모를 면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겠다. 당시는 태조가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왕규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음이 이미 후한을 찬탈한 조비(曹丕)나 위나라를 찬탈한 사마염(司馬炎)과 같았는데 그를 내치거나 죽이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아아, 소인을 멀리 하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⁸⁵⁾

이제현은 고려 말에 활동한 정치인이며 학자인데, 혜종의 잘못을 비판하기

84) 오경석, 「고려전기 왕위계승 양상과 그 원리 - 훈요 3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9~10면.

85) 李齊賢贊曰 羽父請弑桓公 將以求太宰 隱公不聽 亦不討之 終致僖氏之禍 王規之譖兩王弟 亦羽父之意也 惠宗不致之罪 願使居左右 其免於袖刃壁人之謀 可謂幸也 時 去太祖棄代甫耳 規之不義 而得衆 已能如漢魏之曹馬耶 其未有以竄殛之 何也 嗚呼 小人之難遠也 如此 其可不戒哉(『고려사절요』 권2, 혜종 2년 9월).

보다는 “(왕규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가까이에 있게 한” 사실을 안타까워하였다. 앞서 살핀 최승로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평가라 할 수 있다. 최승로는 혜종이 왕규의 반란 조짐을 알고도 묵인한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큰 도량에 감복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혜종의 조치에 대해서는 “덕정을 닦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의 목숨을 아껴 좌우 전후에 항상 갑사들로 뒤따르게 하셨으니, 이는 대개 사람을 의심함이 너무 심하여 군주의 체통을 크게 잃으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승로의 혜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즉, 최승로는 정종에서 광종으로 이어진 왕위계승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⁸⁶⁾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왕규의 난 당시 혜종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큰 도량 운운하다가, 혜종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시위군 보강과 장사 포상에 대해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런데 최승로와 달리 이체현은 당시 혜종이 왕규를 내치지 않은 것을 ‘소인을 멀리하지 못함’에 비교하여 경계했어야 할 일로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혜종이 왕규의 난 이후 실정을 했다는 혜종 총서의 기록이나 최승로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⁸⁷⁾

이에 혜종에 대한 평가는 태몽에서부터 성장 과정, 태자 시절과 즉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된 ‘진용자’와 ‘계통지덕’을 갖춘 군주로서의 자질과 위상이 온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종 11년에 바쳐진 혜종 왕무의 찬가에서는,

정성(正聲) 소성지곡(紹聖之曲)

진실로 저 선왕(先王)께서는 항상 위풍당당하시어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시고 삼한(三韓)을 평정하셨네.
 높고 높구나. 크고 뚜렷하게 이룬 덕이여.

86) 강희웅도 “『고려사』에 기록된 유교사가들의 해석은 왕자 요(堯:정종)와 소(昭:광종)를 왕위 계승의 정통을 보호하고 외척의 발호에서 종사를 구출한 옹호자로 묘사했으며, 당시 내란의 모든 책임을 역적으로 규정한 왕규에게 씌우려 했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64면).

87) 이처럼 혜종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인 까닭은 당대에 혜종을 진용자로 추종했던 세력이 존재했던 반면, 그의 정통성을 폄훼하고자 했던 경쟁자도 존재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손이 제향을 올려 망극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네.

중성(中聲)

용기와 지혜가 뛰어나서 조종(祖宗)의 공을 도우셨도다.

굳은 깃발 밑에 삼한이 하나로 모였네.

길이 그 상서로움을 드러내어 여러 임금을 비추시네.

때 맞춰 엄숙하게 제사하니 효도하는 후손에게 경사 생기리라.⁸⁸⁾

라고 하여, 후삼국 통일에 공로를 추송하였다.⁸⁹⁾ 여기에서도 혜종이 후삼국 통일에 공헌하고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은 인정되고 있다.

945년 혜종은 비록 사후이기는 하지만 후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때 칙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친의 유언과 관리들의 추대와 요청으로 권지국사(權知國事)의 일을 맡은 것을 잘 알았다. 귀국에 경사가 거듭되고 마음으로 충효(忠孝)를 행하여 일찍부터 일을 잘 처리할 재능이 있다는 명성을 날렸으며, 선대의 위업을 이은 훌륭한 자손이라는 칭송이 현저하였다. 마땅히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여론에 깊이 부합하여, 부왕이 아들을 알아보는 선견지명을 보여주고 후손이 가문을 잘 이어나가는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여,⁹⁰⁾ 역시 혜종의 국왕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조서에서 “문무의 재능을 아울러 갖추었다.”고 한 데에서도,⁹¹⁾ 당시 국내의 평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혜종은 건국에 대한 공로로 태조와 같이 불천지주(不遷之主)로 인

88) 正聲紹聖之曲 諒彼先王 時惟桓桓 肆除兇殘 鼎定三韓 巍巍乎其 丕顯成德 子孫享之 欲報罔極 中聲 勇智傑然 翼扶祖功 虔麾之下 三韓率同 長發其祥 光于列聖 禮嚴以時 孝孫之慶(『고려사』 권70, 지24, 악1, 아악, 태묘 악장, 혜종 제2실).

89) 공민왕 12년에 만들어진 새 악장에서, “하늘이 우리나라를 만드셨으니 혹시라도 조 회하러 오지 않겠는가. 태조의 좌우에서 궁시(弓矢)를 경영하셨네. 종묘에서 덕을 살펴 보니 영령(英靈)께서는 위엄 있고 씩씩하시도다. 전쟁을 평정하고 태평을 여셨으니 영원히 황제의 성명(聖明)을 우리르네[天造我家 或不來庭 左右太祖 弓矢經營 觀德在廟 凜然英靈 濟屯開泰 永仰皇明](『고려사』 권70, 지24, 악1, 아악, 태묘 악장, 혜종 제2실).

90) 以先臣遺命, 及官吏推請, 權知國事, 具悉. 圭茅積慶, 忠孝因心, 早彰幹蠱之名, 顯著象賢之譽. 雅當嗣習, 深契物情, 見先臣知子之明, 成後嗣克家之美.(『고려사』 권2, 혜종 2년).

91) 文武兼全(『고려사』 권2, 혜종 2년).

식되고 있었다.⁹²⁾ 이에 인종 2년(1124) 4월에 혜종의 신주를 순릉(順陵)으로 옮기고 예종을 태묘에 모신 데 대하여, “혜종은 공적이 있는 분으로 철회하는 것이 부당한데도 철회하였으니 예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⁹³⁾ 이에 의종 때 또다시 불천지주로서 혜종의 신주도 부묘되었다.⁹⁴⁾ 또한 고종이 태묘의 혜종실에 올린 책문에는 “(혜종이) 몸소 갑옷을 두르시고 태조께서 왕업의 어려움을 이루도록 도우셨으며, 우러러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니 민심이 따라와 귀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⁹⁵⁾ 이처럼 혜종은 숙종대 한 차례를 제외하면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 태묘(太廟)에 봉안되었다.⁹⁶⁾ 이는 태조-혜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왕실의 정통 계보가 후대까지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⁹⁷⁾ 즉, 혜종의 군주로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나주 어항론’과 혜종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나주가 어항이라는 인식의 출발점은 혜종의 모후인 장화왕후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종대 피란 이후 목 설치, 팔관회 개최, 흥릉사와 혜종사 건립 이후 나주가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함으로써 ‘나주 어항론’을 강화시켜려 했다. 이는 혜종에 대한 기존의 낮은 평가와

92) 遷惠宗神主于順陵 附睿宗于大廟 時 人議曰 惠宗有功德於民 當爲不遷之主 遷之非禮也(『고려사절요』 권9, 인종 2년 4월).

93) 惠宗 有功德 不宜毀而毀之 皆非禮(『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인종 2년 7월).

94) 毅宗時 禘祫 太祖東向 惠文睿 並南向爲昭 顯順宣肅仁 並北向爲穆 四時臘享朔望寒食 並室內南向(『고려사』 권61, 지15, 예3, 길례대사, 제릉).

95) 第二惠宗室冊云 躬擐甲冑 助成王業之艱難 望極雲霄 率致民心之傾附(『고려사』 권22, 고종 2년 10월 乙未).

96) 김철웅,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국사관논총』 106, 2005.

97) 임지원, 「<나주 ‘어항(御鄕)’의 탄생과 혜종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토론문」, 『고려 어항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2023년 나주 영산강학술대회자료집, 2023, 82면.

무관하지 않다. 즉, 어향의 근거가 되는 혜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종대 이후 변화상을 덧붙여 어향 나주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향 나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혜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혜종의 국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로 ‘나주 어향론’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의 두 번째 국왕인 혜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출생과정, 성장과정, 태자 시절, 즉위 과정, 재위 시절, 사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혜종은 어렸을 적부터 군주의 품모가 있었고, 7세 때에 세자[정운]가 된 이후부터 예비국왕으로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었던 바, 후삼국전쟁의 과정에서 박술희와 함께 상당한 군공을 쌓은 까닭에 태조 왕건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태자 시절에 국가기무를 결재하였으며, 신하와 사신 접대에도 능숙하였다. 즉위한 다음에도 덕정을 쌓았으나, 왕규의 난을 겪은 다음에 의심이 많아져서 실정을 하다가 병에 걸려 재위 2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혜종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건장한 체구에 덕정을 펼친 2대 군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실정을 거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서사구조는 이후 정종과 광종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결과에 맞춘 평가와 해석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덕정을 베풀던 혜종이 왕규의 난을 겪으면서 호위를 보장하고 주변 측근들을 등용한 점이 부정적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왕규의 난을 통해 최종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은 정종이며, 이후 곧바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광종이기 때문에, 왕규의 난으로 혜종이 급변했다는 것은 혜종에 대한 비판을 위함이 아니라 정종과 광종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장화왕후가 왕건을 만나기 직전 용꿈을 꾸는 것은 신성가문 출신 왕건과 재지세력 오씨가문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씨가문의 딸이 신성가문의 자식을 잉태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였다. 임신과 관련한 ‘側微’의 경우에는, 왕실 주변에서 향후 태어날 아이의 겹을 지켜줄 힘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태자 무의 왕위 계승을 반대했을 법한 세력으로는 무의 외가를 천한 신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라 귀족세력일 가능성이 크

다. 즉, 오다련이 후삼국 전쟁에서 특별한 공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외손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주변에서 이를 지지할 세력이 없음을 뜻한 것이다. 그리고 사위와 연관된 ‘母微’라는 표현은 왕자 무가 태자가 되려거나 혹은 되었을 때 모후의 힘만으로는 이를 이루거나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母微’하기 때문에 자황포를 담은 상자를 주어서 박술희의 지원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태조 왕건은 장화왕 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이 있었지만, 주변의 반대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를 지켜낼 모후의 힘이 미미하다는 점을 의식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이에 두 가지 표현 모두 후일 혜종을 후계자로 삼기 위한 미연의 방어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자 무는 ‘진용자(眞龍子)’로서 ‘계통지덕(繼統之德)’을 갖췄으므로, 모후의 ‘側微’로 인해 ‘不得嗣位’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후계 구도가 그만큼 복잡하며, 이를 극복할 힘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미미함을 도와주기 위해, 태조는 자황포를 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박술희의 도움을 얻어 태자 무는 정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母微’라는 표현이 가문이나 신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환경 또는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태조는 만아들인 혜종이 왕위에 오를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왕위계승권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왕위계승권자로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자질을 더 갖추나가게 했고, 그를 지지할 세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태조가 말년에 남긴 훈요 3조에는 혜종에게 왕위를 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왕위계승의 원리가 반영되었고, 혜종 역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였다.

최승로는 정종에서 광종으로 이어진 왕위계승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혜종의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큰 도량 운운하다가, 시위군 보강과 장사 포상에 대해서는 체통을 잃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현은 당시 혜종이 왕규를 내치지 않은 것을 ‘소인을 멀리하지 못함’에 비교하여 경계했어야 할 일로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혜종이 왕규의 난 이후 실정을 했다는 혜종 총서의 기록이나 최승로의 평가는 그대로 수용하기

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혜종에 대한 평가는 태몽에서부터 성장 과정, 태자 시절과 즉위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된 ‘진용자’와 ‘계통지탁’을 갖춘 군주로서의 자질과 위상은 온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혜종은 숙종대 한 차례를 제외하면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 태묘에 봉안되었다. 이는 태조-혜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왕실의 정통 계보가 후대까지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즉, 혜종의 군주로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나주 어향론’은 나주가 혜종의 모친 장화왕후의 출생지라는 점에서 당연한 사실이지만, 혜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이를 내세우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 참고문헌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輿地圖書』, 『나주군읍지』, 1899.

2. 저서

김덕진, 『전라도의 탄생 1-생활의 터전』, 도서출판 선인, 2018.

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나주시·목포대학 박물관, 『나주목의 재조명』, 1990.

나주시·무등역사연구회, 『한국사 속의 나주』, 도서출판 선인, 2018.

3. 논문

강희웅, 「고려 혜종조 왕위계승란의 신해석」, 『한국학보』 제3권 2호, 일지사, 1977, 64·68·71면.

김당택, 「고려시대의 나주」, 『나주목의 재조명』, 나주시·목포대학 박물관 1990, 83~93면.

김명진, 「고려 혜종의 생애와 박솔희」, 『영남학』 제65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8.

김명진, 「태조왕건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 제32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8, 289면.

김열규, 「고려사 세가에 나타난 ‘신성왕권’의 의식」, 『진단학보』 제40권, 진단학회, 1975.

김용호, 「고려 혜종대의 정국과 왕규의 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면.

김철웅,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국사관논총』 제106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

백강령, 「고려초 혜종과 정종의 왕위계승 -박솔희와 왕규의 출신배경과 역할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82권, 진단학회, 1996, 89~90면.

변동명, 「고려시기의 나주 금성산신앙」, 『전남사학』 제16권, 전남사학회, 2001, 45~46면 및 68면.

신호철, 「고려 건국기 서남해 지방세력의 동향」, 『역사와 담론』 제58권, 호서사학회, 2011, 10~11면.

오경석, 「고려전기 왕위계승 양상과 그 원리 -훈요 3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2019, 9~10면.
- 이병희, 「고려시기 나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고려 어향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2023년 나주 영산강학술대회자료집, 2023, 166면.
- 이정란, 「고려 왕가의 용손의식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제55권, 고려사학회, 2014, 12~14면 및 17면.
- 이종욱, 「고려초 940년대의 왕위계승전과 그 정치적 성격」,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1981.
- 임지원, 「<나주 ‘어향(御鄉)’의 탄생과 혜종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토론문」, 『고려 어향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2023년 나주 영산강학술대회자료집, 2023, 82면.
- 하현강, 「고려 혜종조의 정변」, 『사학연구』 20,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 학교육연구소, 1968.
- 한정수, 「고려 초 왕규의 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실학』 제62권, 역사실학회, 2017, 21·23~24면.
- 허인욱,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 『사충』 제 56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3.
- 홍영의, 「고려시대 지역성과 문화권 -12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41권, 국민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82~84면.
- 황선영, 「고려 혜종대의 정변과 정종의 왕위계승」, 『고려초기 광종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1988.

| Abstract |

Re-evaluation of ‘Naju Eohyang Theory’ and King Hyejong of Goryeo

Kim, Byoungin

The starting point for recognizing Naju as a village of royal family is the fact that it is the hometown of Queen Janghwa, the mother of King Hyejong. However, there is a deep impression that they are trying to strongly imprint the perception of ‘Naju = Royal family village’ by additionally explaining that Naju was an important base where King Hyeonjong evacuated and designated as Mok. And also added that Naju is where Palgwanhoe was established and Temple Heungnyongsa and Temple Hyejongsa were built.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existing low evaluation of King Hyejong. That is, since the evaluation of King Hyejong, which is the basis of Eohyang (Hometown of Royal family) is not good, it seems that they are trying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Eohyang Naju by adding the changes after the reign of King Hyeonjong. Accordingly, in order to show the true character of Eohyang Naju, it is necessary to begin from a positive evaluation of King Hyejong. When Hyejong’s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as a king are proven, ‘Naju Eohyang Theory’ can gain momentum.

Hyejong had shown the appearance of a monarch since he was young, and when he became crown prince [Jeongyun] at the age of seven, he cultivated his qualities as a prospective king. He had a strong body, and accumulated considerable military achievements with Park Sul-hee during the War of the Later Three Kingdoms, which gained the trust of Taejo Wang Geon. In particular, during his time as a crown prince, he approved state affairs and was skilled in entertaining subjects and envoys. He continued to practice virtue after ascending to the throne, but after Wang Gyu’s Rebellion, he became suspicious and committed misdeeds, fell ill, and finally died in just two years and five months of reign.

Queen Janghwa’s dream of a dragon just before meeting Wang Geon symbolized the union of Wang Geon from the Shinseong family and Oh family from the province, but it was also a preparatory step for the Oh family’s daughter to conceive a child of the Shinseong family. Prince Mu was a ‘Jinyongja’ and possessed ‘Gyetongjiduk’,

but the succession structure with his other brothers was complicated, so he protected his position as a successor through the help of Park Sul-hee who received orders from King Taejo. Taejo judged that his eldest son, Hyejong had the qualifications to ascend to his throne, and decided on him as his successor. Afterwards, Taejo had Hyejong further develop the qualification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the heir to the throne, and created a force to support him, ensuring a stable succession.

Choi Seung-ro viewed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from King Jeongjong to Gwangjong as legitimate and mentioned Hyejong's initial actions that provided the opportunity as being magnanimous, but criticized the reinforcement of Shiwigun (Royal guard) and the rewards on the general as losing his dignity. However, Lee Jae-hyeon compared Hyejong's failure to dismiss Wang Gyu at the time to 'not being able to keep away from a small man' and defined it as something he should have been wary of. Therefore, it is problematic to accept the records of Hyejong Chongseo or Choi Seung-ro's assessment which Hyejong committed misdeeds after Wang Gyu's Rebellion.

In conclusion, his qualifications and status as a monarch shown as significant remarks such as 'Jinyongja' and 'Gyetongjiduk' presented from the conception dream to his growth process, time as a crown prince, and enthronement process should be accepted as proper in the evaluation of King Hyejong. Therefore, Hyejong was enshrined in Taemyo throughout the entire Goryeo Dynasty, except for one period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is means that the authentic genealogy of the Goryeo royal family, which runs from Taejo to Hyejong, was accepted without question by later generations.

Key Words: Goryeo Dynasty, King Hyejong, 'Naju = Royal family village', Queen Janghwa, Temple Heungnyongsa, Temple Hyejongsa, Choi Seung-ro, Lee Jae-hyeon

<曆中日記>를 통해 본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의미

류명옥*

목 차

1. 들어가며	3. 일상적 기록과 공동체로 확대된
2. <曆中日記>에 나타난 사대부의	가족 감성
일상과 정서	4. 나가며

■ 국문초록

사람의 다양한 일상과 감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기이다. 특히 18세기 사대부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자료로 『역중일기(曆中日記)』가 있다. 백불암 최홍원이 약 60년 동안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역중일기(曆中日記)』는 사대부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역중일기(曆中日記)』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백불암 최홍원은 딸과 아들에게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대부로서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 두 가지 역할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외가를 동일하게 인식함으로써 외가와 정서적 친밀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으며, 기록에 잘 등장하지 않는 여성 친척들, 여성 종에 대한 기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사대부이지만 지켜야 하는 의례를 상황에 맞게 변례(變禮)를 하는 모습에서 강인한 실천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역중일기(曆中日記)』에 나타나는 일상들은 모두 가족으로 엮여져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사대부의 가족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중일기(曆中日記)』에 나타나는 사대

*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한국학전공 강의초빙교수

부의 일상은 사대부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벗어나 한 인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백불암 최흥원이 지역 또는 사회 공동체로 확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밑바탕에는 바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으로 비 롯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과 감성을 통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백불암 최흥원은 공동체로 나아가서도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중일기(曆中日記)』는 어느 한 사대부의 공감과 감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면서 이를 통해 사대부의 인간적인 면모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일기, 『역중일기(曆中日記)』, 최흥원, 가족, 사대부, 일상, 감성, 소통

1. 들어가며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과 감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기이다. 일기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일기는 시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18세기 대구지역 사대부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자료가 있어 대구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1727년부터 1786년까지 약 60년 동안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역중일기(曆中日記)』는 한 개인의 일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18세기 대구지역의 한 면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역중일기』는 173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1737년까지는 일기를 매일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역중일기(曆中日記)』는 50여 년간의 일상을 보여주는 일기라 할 수 있다. 비록 처음부터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18세기 사대부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불암 최흥원의 『역중일기』에 대한 연구는 자료 소개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¹⁾ 『역중일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역중일기』 자료 소개와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일기자료 또는 사대부 일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사실 『역중일기』에 대한 연구보다 일기를 지은 백불암 최흥원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백불암 최흥원에 대한 연구는 2001년에 들어와서 삶과 학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백불암 최흥원이 기록한 『역중일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중일기』 자료는 2002년 慶州崔氏漆溪派宗中에서 4책으로 영인 및 출간하였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백불암 최흥원의 『역중일기』에 대한 연구는 자료 소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일기자료에 나타나는 상례와 제례, 혼인풍속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²⁾ 백불암 최흥원이 사대부라는 점에서 상례와 제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혼인풍속 역시 가문을 중요시하는 양반가에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례와 제례, 혼인풍속을 통해 백불암 최흥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중일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세세한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사·문화사적인 측면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상례와 제례, 혼인풍속 과정에서 당대 실질적 모습을 통해 고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처럼 『역중일기』에는 상례, 제례, 혼인풍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록의 중심에는 항상 가족이 등장한다. 부모와 자녀, 친척들과 문중 친인척들과의 관계에서 유교 의례와 풍속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역중일기』가 지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문 또는 문중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대부 집안의 당연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중일기』에서는 유교 의례와 풍속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사대부이면서 한 집안의 가장, 한

1) 오용원,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 선비의 일상」, 『대동한문화』 제45집, 대동한문화회, 2015, 73~74면.

2) 이육, 「최흥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 본 18세기 혼인풍속」, 『고문서연구』 제54호, 한국고문서학회, 2019.

가정의 아버지 또는 자식 등 집안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위치에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소회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대부의 감정과 소회가 『역중일기』에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와 규범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측면에서 18세기 사대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중일기』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있다.³⁾ 『역중일기』에 나타나는 부부, 아버지와 자녀, 부모, 형제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역중일기』 자료가 방대한 분량의 일기자료라는 점에서 가족관계별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관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역중일기』가 가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는 특징을 밝혀 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중일기』에 나타나는 가족들과의 관계 양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의미를 찾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역중일기』의 기존 연구를 보면, 방대한 분량의 일기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중일기』에 대한 초반의 연구들은 자료가 가지는 특징과 가치를 밝히고, 향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중일기』 연구를 한층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써,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역중일기』에 나타나는 가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백불암 최홍원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을 넘어 지역공동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과 가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나아가는 백불암 최홍원의 삶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 의례와 제도, 규범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고 소통하고자 했던 한 사대부 개인의 삶에 대해 살펴 보면서 백불암 최홍원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자 한다.

3) 김정운, 「18세기 대구 사대부의 일상을 통해 본 가족과 관계」, 『대구사학』 제147호, 대구사학회, 2022.

2. <曆中日記>에 나타난 사대부의 일상과 정서

1) 친밀한 감정 소통과 아버지 되기

백불암 최홍원은 『역중일기』에서 다양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친족 등 여러 가족들과 함께 겪었던 일상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클 것이다. 백불암 최홍원 역시 사대부이기에 자식에 대한 학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육하는 등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일기에 담겨 있다. 백불암 최홍원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일기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백불암 최홍원은 1705년 2월 15일 대구 원북리 외가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손명대(孫命大, 1675~1733)의 딸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며, 20년의 결혼 생활 후 36세가 되던 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불암 최홍원에게 당부하기를 재혼하여 자식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백불암 최홍원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웠다. 이처럼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백불암 최홍원에게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백불암 최홍원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딸과 아들에게 표현하는 감정들이 『역중일기』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내 없이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책임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맑고 때때로 우렛소리가 울렸다. 집안 소식을 알 수 없어 문득 재촉하여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인정 때문에 답답하다.⁴⁾

맑음. 갈 길이 급하여 발길을 돌려 별검 부자를 찾아보지 못하고, 다만 소식만 보내고 석전 집으로 돌아오니 심부름꾼이 당도하여 있었다. 어

4) 晴. 有時雷鳴. 庭音莫通 歸意便促 女兒泣挽 人情可悶. 『曆中日記』 1763년 5월 22일.

머니의 환후가 더침을 면했음을 알았으니 아주 천행이다. 천연두를 앓는 아이도 거의 딱지가 떨어져서 아랫마을에 나가 머문 지가 5일이 되었다고 한다. 내일 반드시 돌아가려고 하나 딸 아이가 또 흐느끼며 만류하니 가련하다. 군망 형제와 강백용 형에게 가서 사례하고, 하곡에서 돌아오는 길에 상주로 승중한 이(李)에게 들러 조문하고, 또 이백실을 방문하였다.⁵⁾

위의 일기 내용에서 백불암 최홍원은 결혼한 딸의 집에 오랜만에 방문하여 딸과 회포를 풀면서 돈독한 관계를 보여준다. 딸의 요청에 겨우 시간을 내어 방문한 백불암 최홍원은 딸의 집에 며칠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딸은 떠나는 아버지를 아쉬워하며 며칠 더 묵고 가기를 올면서 청하고 있다. 백불암 최홍원은 늙으신 어머니와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또 한편으로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불암 최홍원은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과 고민이 나타나고 있다. 백불암 최홍원은 결국 집이 걱정되면서도 딸을 위해 5일을 더 머물기로 한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사대부 남성들이 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역중일기』를 통해 사대부 남성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제도와 규범을 중요시하는 사대부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사대부 남성에게 대한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늙으신 어머니와 아파 누워있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시집가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어떤 때는 부모보다 또는 아들보다 딸을 더욱 애뜻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시집간 딸이지만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혼인의 여부를 떠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자식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5) 晴. 行急 不能轉尋別檢父子 只送訊 而還石田家 倂到矣. 伏承慈候免添 天幸天幸. 痘兒亦幾落痂 出處下村 已五日云. 明欲必歸 女兒又泣挽 可憐. 往謝君望兄弟. 姜百容兄. 自霞谷歸路 歷吊蘆□李哀承重. 又訪李伯實. 『曆中日記』 1763년 5월 27일.

그리고 백불암 최홍원의 딸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일기가 끝나는 기간 동안 딸에 대한 다양한 일상과 그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맑고 더웠다. 내 병은 위폐 증상이 며칠 전부터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듯하지만 본래부터 오락가락하던 터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딸아가 하루 세 차례 나와 살펴주니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딸아가 조섭함을 잃었으니 아주 절박한 마음이다.⁶⁾

맑음. 둘째 아우 집 종이 와서 셋째 아우의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딸아가 내가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지내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했다 하니, 차라리 듣고 싶지가 않다.⁷⁾

백불암 최홍원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을 때에도, 자신의 병에 대해 매일 기록을 남긴다. 복통을 호소하거나, 무릎이 아파서 절을 할 수 없었던 일상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백불암 최홍원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일기에 적고 있다. 위의 일기문을 보면,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딸이 하루 세 번 방문하여 보살펴주니 의지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 백불암 최홍원은 딸이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마음을 헤아려 딸에게 의지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백불암 최홍원이 병 때문에 혼자 산속에 들어가 지내는 것을 본 딸이 가련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와 딸의 다양한 일상의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차라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하여 자신을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아버지로서 정서를 통해 공감하고 있다. 백불암 최홍원의 딸과의 관계를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부녀간의 애정과 걱정, 근심의 감정이 일기자료 속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6) 晴熱. 身病痿廢之症. 自數日似有少動靜. 而本往復. 何可恃焉. 女息日三出診. 依懷良幸. 而渠之失調. 切迫切迫. 趙從來訪. 『曆中日記』 1766년 5월 19일.

7) 晴. 仲房奴來. 得叔房書. 女息以吾之離入山中蹢躅. 可憐云. 寧不欲聞. 『曆中日記』 1766년 7월 19일.

이처럼 백불암 최홍원은 딸에게만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도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 가문을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딸을 대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맑음. 사촌 통숙에게 앓은 아이를 데리고 계정에 들어가게 하였다. 늦게 일어나서 뒤따라 길을 나서 중심에 들어가서 입부 아우를 만나보고 계정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병은 특별히 크게 더해지지 않았으나 설사가 그치지 않으니 그 위중하고 걱정됨이 끝이 있겠는가. 해골과 같은 모습을 차마 보지를 못하였으니 어찌하고 어찌하겠는가.⁸⁾

맑음. 어머니의 환후가 더해지지 않았으니 천행이지만, 손자 상을 당한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드릴 수 없으니 불효됨을 용서받기가 어렵다. 오늘 아침에 아이 빈소에 초하루 전을 행하였다. 이는 곧 귀신으로 대하는 일이니 원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니, 어찌하고 어찌하겠는가.⁹⁾

위의 내용은 백불암 최홍원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부분의 일기자료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불암 최홍원 역시 일기의 내용을 보면 슬픔을 참아야 하는 아버지의 참담한 모습과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내는 아픔이 며칠 동안의 일기기록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날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백불암 최홍원은 매일 아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아들의 병에 쓸 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매일 기록하면서 아들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曆中日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백불암 최홍원이 쓴 일기 중에서 자신의 감정 또는 심회를 가장 절실하게 다루는 부분이

8) 晴. 使通從 孿病兒入溪. 而晚起追行入中心. 見立弟 還溪亭. 兒病別無大添. 而泄不止. 其危慮可涯. 髑髏狀. 終不忍見. 奈何奈何. 『曆中日記』 1763년 5월 30일.

9) 晴. 慈候無添. 天幸. 而疾. 懷無以慰解. 不孝難容. 今朝兒殯. 行朔奠. 此便待以神道. 痛冤欲死. 奈何奈何. 『曆中日記』 1763년 7월 1일.

바로 아들의 병간호와 죽음이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던 백불암 최홍원은 아들의 병이 차도가 보이지 않는 날에는 아주 짧은 사실 기록으로 일기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온갖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구구절절 기록하는 날도 있다. 아들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는 눈물 어린 호소의 감정들이 일기에 적혀 있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백불암 최홍원의 아들 병간호에 대한 기록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록이지만, 18세기 당시 사대부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약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록 자료가 된다. 백불암 최홍원은 약재 또는 의약에도 능통하였다고 한다. 백불암 최홍원이 친척·지인 간의 소규모 상부상조 단체에 가까운 약계(藥契)를 조직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¹⁰⁾

특히 인삼은 경북 지역 양반가에서 신뢰하는 약재였다. 백불암 최홍원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들에게 인삼을 먹이는 모습이 기록에 나타난다. 의료 인이나 다른 친척들과 갈등하면서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료 지식을 동원하여 아들에게 인삼을 먹이는 모습은 18세기 양반 사대부들의 의료 및 약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록 자료가 된다.

이처럼 백불암 최홍원은 딸과 아들에게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엄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애뜻한 감정이나 심정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슬픔과 기쁨, 안타까움의 감정은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역중일기』에 나타나는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사대부로서 슬픔을 참아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사대부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유희진,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경북 지역 양반가의 의료 생활」, 『역사와 세계』 63집, 효원사학회, 2023, 135~136면 참조.

2) 가족을 넘어선 인격적 관계 맺기

백불암 최흥원은 외가의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일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백불암 최흥원이 외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냈기 때문에 외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曆中日記』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외가이기 때문이다.

맑음. 어머니의 환후는 다행히 더해지지 않았다. 이 상사가 돌아갔는데, 단지 버선 한 짝과 돈 5전만 주었다. 금제 김씨 어른이 찾아왔다. 둘째 아우가 소 한 마리를 보내어 외가의 곤궁한 처지를 도와주었다.¹¹⁾

맑음. 둘째 아우를 외할머니의 기제사에 참석하고 아울러 신실 누이를 위로하도록 원복에 보냈다.¹²⁾

맑음. 어머니를 여원 사촌 남매가 모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거처가 조금 떨어져 있어 더욱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빈소를 만칠 집으로 옮겨왔다. 이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 오가며 위로하고 보살피기에 다소 편하고자 함이다.¹³⁾

구름이 조금 끼고 따뜻하였다. 오늘이 외할아버지의 기일인데 추념하는 마음이 배나 깊다. 상중의 여생이지만 최대한 제사에 참석하여 남은 슬픔을 펴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불효한 마음에 부끄럽고 죄를 지은 심정이다.¹⁴⁾

위의 내용은 백불암 최흥원의 형제가 자신의 외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
- 11) 晴. 慈候幸無添. 李上舍歸. 只給一襪五錢銅. 金堤金丈來訪. 仲弟以一牛. 送贈渭陽. 『曆中日記』 1744년 11월 19일.
- 12) 晴. 舍仲爲參外祖母忌祀. 兼慰申氏妹. 送院北. 『曆中日記』 1737년 2월 15일.
- 13) 晴. 哀從男妹. 俱是未成人. 居稍間. 益悲慘. 離殯萬哲家. 蓋取諸近. 往來慰恤稍便. 諸祖叔不計暑熱. 血誠治殯. 哀感刻骨. 因夕奠成服. 『曆中日記』 1737년 6월 25일.
- 14) 輕陰溫. 今日外祖考忌辰. 追思倍深. 草土餘生. 極欲進參祭祀. 以伸餘哀. 而病未遂. 誠不孝愧罪. 昨因末弟. 付助. 『曆中日記』 1768년 4월 6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외가의 곤궁한 처지에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외가에 대한 친밀감이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수시로 외가의 문안을 여쭙는 기록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이 외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백불암 최홍원은 『역중일기』에서 외가에 대한 기록이 주로 외조부모와 외숙 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사와 상례 등의 여러 의례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형제들과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중일기』 기록에 보면, 매번 외가의 의례에 참여하다가 한 번은 바쁜 집안일로 외가의 제사를 잊어버린 날이 있었다. 백불암 최홍원은 자신의 집안일 때문에 외숙부의 제사를 잊어버린 것을 알고 부끄럽고 민망해하는 모습이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백불암 최홍원은 외가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다른 사대부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가의 의례를 친가의 의례만큼 신경 쓰고 있으며, 평소에도 외가의 제사 때에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는 것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역중일기』에서 외가에 대한 기록이 많아 나타난다는 것을 보아도 백불암 최홍원이 외가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불암 최홍원이 이처럼 외가에 친밀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릴 때 외가에서 자란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 백불암 최홍원은 외조부의 제사 전날이 되면 어머니께서 매년 참석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는 어머니의 당부로 외가의 제사에 참여하였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외조부의 제사 때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한 것을 보면 단순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외가에 제물(祭物)을 보내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대부분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백불암 최홍원에게 외가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맑음. 중동의 천연두가 다소 진정되어 우선 나가 피할 뜻은 없었지만 앞으로 어머니의 염려가 그지없을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궤연에 곡을 하고 아뢰 다음 잠시 산소에 머물면서 형편을 살피기로 계책을 내었으

니, 정리상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을 차마 말할 수 없다.¹⁵⁾

흐리고 더웠다. 국로가 갑자기 와서 함께 잤는데, 지난해 이맘때 앓고 계신 어머니를 함께 모시던 일을 추모하며 생각하자니, 그 지극한 애통함을 어찌 말하겠는가.¹⁶⁾

백불암 최홍원은 『曆中日記』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대부 남성으로서 효의 실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나 다른 가족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주로 어머니의 병환의 차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일상을 기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머니의 근황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반드시 기록한다. 짧은 한 줄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일기기록을 통해 백불암 최홍원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일상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추모하는 등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백불암 최홍원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단순히 효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평범한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백불암 최홍원은 어머니를 통해 외가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어머니와 외가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이 결국 외가에 대한 애뜻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서적 친밀감이 외가 친족들 전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백불암 최홍원은 외조부모와 외숙내외 외에도 외가의 사촌들과 안부를 주고 받으며 친밀하게 지내고 있음을 『曆中日記』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백불암 최홍원의 외가와와의

15) 晴. 中洞稍間. 姑無出避之意. 而慈念將無不至. 不得已哭辭几筵. 暫留墓下. 爲觀勢計. 情理痛迫. 不忍勝言. 新反弟婦先出. 妻與女姑留家. 從妹不出. 可慮. 『曆中日記』 1737년 4월 11일.

16) 陰熱. 國老忽至. 與宿. 追思前年此時病患中同事事. 尤極痛何言. 『曆中日記』 1766년 7월 26일.

친밀함은 어머니를 통해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흐리고 가랑비가 내렸다. 밥을 먹은 뒤에 숙모님이 또 나오셨는데 병환이 줄어들 기미가 없으니, 몹시 애가 타고 눈물이 난다.¹⁷⁾

흐리다가 오시(11시~13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평안하시다는 편지를 받아보게 되어 비록 다행하나 숙모님의 병환 때문에 몹시 애가 타고 절박한 마음이다.¹⁸⁾

맑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다. 사일 일족 어른이 며느리의 병을 묻기 위하여 갑자기 왔고, 조군도 왔기에 모두 함께 잤다. 오늘이 막내 제수씨의 기일이어서 어제 닭 한 마리를 제사에 부조하였다.¹⁹⁾

맑고 바람이 불었다. 가묘에 참례를 지냈다. 오늘이 고모의 기일인데, 사촌 조카가 제사 의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필시 의례를 갖추지 못할 것이니 배나 슬프고 애통하다. 선친의 뜻을 본받아 매년 쌀 2말, 건어물, 돈 8전을 보내 부조하였다.²⁰⁾

백불암 최홍원의 일기기록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흔히 사대부 남성의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백불암 최홍원은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여성들과의 일상과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자세하게 일기에 적어놓았다.

위의 예문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이 가장 많이 기록한 여성이 어머니 다음

17) 陰細雨. 食後叔母又出來. 病患無減意. 煎泣煎泣. 午間. 東風並作. 仁發來現. 早稻移種事. 分付. 堂奴又自府中來謁. 聞夏澄上京. 『曆中日記』 1737년 5월 10일

18) 陰. 午間始雨. 得平書雖幸. 叔母病患. 煎迫. 智妙叔來訪. 訟事又見退云. 宜爲輕始者之悔也. 『曆中日記』 1737년 4월 27일

19) 晴風寒. 沙日族丈爲問子婦病. 忽至. 曹君又至. 皆與宿. 今日季嫂氏忌辰. 昨以一鷄助祭. 『曆中日記』 1769년 2월 17일

20) 晴風. 參于廟. 今日姑母氏忌日. 而以從侄君無知祭祀. 必不成爲倍. 可悲痛. 追體先志. 年年以米二斗乾魚錢八錢. 送助. 『曆中日記』 1769년 3월 15일

으로 숙모님이다. 숙모는 자신과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항상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숙모님이 전염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는, 매일 숙모님 병환의 차도를 기록하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애통하고 답답해하는 등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보여준다. 숙모님에 대한 남다른 관계를 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백불암 최흥원은 숙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위의 예문을 보면, 막내 제수씨의 기일이라서 닭을 보냈다가, 고모의 기일을 기억하여 제대로 제례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제물(祭物)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다양한 여성을 일기 속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비록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아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기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맑음. 어머니의 환후는 어제와 같으나 아내의 병이 가볍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²¹⁾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할머니 기제사를 초당 방에서 지냈다. 어머니의 환후는 다행히 더해지지 않았으나 집사람의 병은 지탱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너무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이다. 종일 비가 내렸다.²²⁾

맑음. 아내는 허 위에 검은 설태가 끼고 더욱 나빠져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유언을 하여 “아들을 위한 혼수용품을 절대로 초상에 쓰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또 “초상 중의 제전은 아주 검소하게 하여 종가의 형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초상 때 쓸 명주 비단과 장례 도구는 개천에 청하시고, 이후로도 서로 오가며 제가 살아 있을 때처럼 해주세요. 또한 혼인을 맺도록 도모하여 저와 다하지 못한 연을 이어가도록 해주세요.” 또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저의 노모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

21) 晴. 慈候如昨. 妻病非輕. 悶悶. 『曆中日記』 1740년 2월 28일

22) 自曉雨. 祖妣忌祀. 行於草堂房. 慈候幸無添. 而室病似難保. 悶迫悶迫. 終日雨. 『曆中日記』 1740년 3월 23일

었다.

이에 “모두 그대로 따르겠소. 마음을 평안히 하고 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소.”라고 대답하였다.

병든 아내가 내 말의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있다가 또 “아들은 맡길 데가 있다고 하지만 어린 딸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 어찌 합니까? 밀양에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내아이는 부녀의 받들기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괴롭습니다. 원컨대 고집부리지 마시고 다시 아내를 맞아들여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울러 두 어린이를 기르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내가 “뜻을 정한 지 벌써 오래되었고 또 어머니의 명도 이를 따르겠다 하셨으니, 이후로는 여러 말 마시오.”라고 대답하니, 마침내 그쳤다.²³⁾

백불암 최홍원의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기록이 일기의 앞부분에 나타난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며칠 간의 기록을 통해서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내는 재혼하여 아이들을 잘 키워줄 것을 요청하지만, 백불암 최홍원은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사대부 남성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백불암 최홍원은 가까운 여성 친척들에 대해서만 기록하지 않는다.

맑고 따뜻하였다. 분노 진육이 다른 데서 돈 20냥을 꾸어 보내왔고, 오늘 또 환곡 곁에 20섬을 바쳐서 혼수를 마련하는데 보탬이니, 충성스럽고 의롭지 않다면 이와같이 할 수 있겠는가! 가상하다.²⁴⁾

23) 晴. 慈候無添. 幸幸. 妻病舌上黑苔. 尤可危惡. 病人自分不起. 遺言. 爲子婚具. 切勿犯用初喪. 又云. 喪中祭奠. 極從儉. 毋傷宗家形勢. 又云. 如見父母兄弟. 所欲言甚多. 价川遠無以通. 竹西人不來見. 此爲冤結. 初喪時所用紬帛與葬具. 請于价川. 日後相從. 一與吾生時. 更圖結姻. 以續吾未盡之緣. 又言. 大貽不孝於兩邊. 偏親此尤恨結. 切望爲我不忘吾老母. 又言. 不幸死. 斂襲之具從儉而精潔. 余乃答曰. 盡從之. 須平心以俟命. 可也. 病人能知語意. 點頭. 俄而又言曰. 可謂有托. 穉女無依. 奈何. 送密陽耶. 男兒無婦女之捧. 多苦. 願勿偏執. 圖更娶. 以養親. 兼育兩穉. 余答曰. 定志已久. 且當慈命是從. 此後勿多言. 遂止. 『曆中日記』 1740년 3월 29일

맑음. 그저께 정월이 죽었다고 하니 너무나 참담하고 비통하였다. 이 계집종은 본성이 선량하고 온순하였으며 재사에 큰 공이 있었으니 더욱 가련하였다.²⁵⁾

위의 기록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의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종)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노비 진옥이 돈을 빌려와서 혼수를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주는 것을 보고 백불암 최홍원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인물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월이라는 여자 노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량하고 온순한 인물이라고 하여 노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노비에 대한 감정과 정서는 가족과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일기기록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은 사대부 남성이지만, 기록화되기 어려운 여성과 신분이 낮은 노비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사대부라는 존재보다는 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계화에서 벗어난 변례(變禮)와 실천 의지

사대부 집안에서는 여러 의례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난의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집안의 의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역중일기』에서 백불암 최홍원의 가족에게 삶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염병에 걸리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염병을 막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격리와 피난이다. 『曆中日記』에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상이 여러 번 나타난다.

1746년 1월부터 전염병이 시작되어 백불암 최홍원은 피난을 갔다가 다시

24) 晴溫. 府奴進郁轉貨錢二十兩. 今又以還租二十石. 送獻以助婚具之用. 非忠義. 能如是乎. 可尙. 『曆中日記』 1768년 4월 12일

25) 晴. 再昨丁月物故云. 慘切慘切. 此婢性良順. 齊舍大有功者. 尤可憐. 『曆中日記』 1770년 3월 17일

돌아왔지만, 또다시 전염병을 피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일기로 남긴 내용이 있다. 여러 곳을 피해 다니면서 백불암 최홍원의 동생과 딸, 손녀, 조카, 질녀 등이 전염병에 걸렸었고, 어린 아들인 용중(龍中)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처럼 『曆中日記』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전염병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상황과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대부에게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전염병으로 의례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의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의례를 축소하거나 변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사대부들은 의례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까지 해 오던 의례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曆中日記』에서 백불암 최홍원도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의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백불암 최홍원은 변례(變禮)를 통해 자신의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선택한다.

흐리다가 빛이 나다가 하였다. 사방 들판에 모내기를 하느라고 분주하였다. 앞으로 과연 시기를 놓친 한탄이 없을까 모르겠다. 숙모님이 제수씨와 함께 한꺼번에 피우소에서 돌아오셨는데, 병환이 모두 가볍지 않아서 몹시 염려스럽다. 오후에 또 소나기가 내렸다. 막내아우가 비를 무릅쓰고 산소 여막으로 갔다.²⁷⁾

맑음. 어머니를 여원 사촌 남매가 모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고 거처가 조금 떨어져 있어 더욱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빈소를 만철 집으로 옮겼다. 이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 오가며 위로하고 보살피기에 다소

26)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66~67면.

27) 乍陰乍陽. 四野移秧紛紛. 前頭果無失時之歎否. 叔母與弟婦 一時撤還 但病患俱不輕慮深慮深. 午後又驟雨. 末弟冒往山廬. 『曆中日記』 1737년 6월 16일.

편하고자 함이다. 여러 할아버지와 아재가 더위를 헤아리지 않고 진심 어린 정성으로 빈소 일을 보살펴주시니 슬픈 중에도 감동이 뻘에 사무친다.²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백불암 최홍원의 숙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였지만 전염병이 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장례 물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친척들이 장례 물품을 구해주고 빈소 일을 도와주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백불암 최홍원은 장례를 치른 후에 궤연(几筵)을 피우소로 옮겨 상식(上食)을 올리도록 하였다. 궤연은 혼백이나 신위를 모신 자리를 말하는데, 궤연을 숙모가 살던 집이 아니라 대피소였던 피우소로 옮겨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는 것은 집안 식구들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한 변례였다. 전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규범이나 규칙보다는 융통성 있는 상례를 치르는 방법을 백불암 최홍원은 선택하였다. 숙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상(大喪) 때에도 천연두가 심해 집 밖에서 의례를 행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曆中日記』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은 사대부이지만 지켜야 하는 의례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변례(變禮)하여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변례(變禮)를 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며, ‘시속(時俗)의 비아냥을 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불암선생문집』에 보면 상중(喪中)에 옮겨 다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아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최대한 의례를 행할 수 있는 변례(變禮)에 따르지만 자신만의 원칙과 도리에 어긋남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처럼 백불암 최홍원은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의례를 행할 수 있는 변례(變禮)를 생각하여 예의와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변례(變禮)를 행하면서도 시속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도 염

28) 晴. 哀從男妹 俱是未成人 居稍間 益悲慘 離殯萬哲家. 蓋取諸近 往來慰恤稍便 諸祖叔不計暑熱 血誠治殯 哀感刻骨. 因夕奠成服. 『曆中日記』 1737년 6월 25일.

29)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68면.

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曆中日記』의 기록에서 살펴볼 부분은 이러한 변례(變禮)를 행하는 경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예의와 도리에 어긋나는 의례를 행한다는 논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맑음. 밥을 일찍 먹고 다시 방상을 이용하여 산소 쓸 곳으로 올라갔다. 뭇자리가 아주 평온하였다. 오시(11시~13시)에 도르래를 이용하여 하관을 하였는데 각자의 소견을 고집하여 주장이 분분하였고, 도리어 제도를 잃었다며 비웃는 말까지 하였다. 오직 성년과 재안만이 어설뿐나마 관을 공경하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다. 겨우 평토를 한 뒤에 곧바로 정창백에게 신주를 쓰게 하고, 이어서 반혼하여 집에 당도하였다. 더욱 통곡하였다. 초우제를 지내고 나니 곧바로 닭이 울었다.³⁰⁾

흐림. 졸곡제를 지낸 뒤에 마침내 쌀밥과 장을 먹으라고 한 권유를 받아 아들인 일은 기력이 빠지거나 입맛을 잃어서가 아니라 단지 의례의 제도를 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는 요즈음 같이 상례가 크게 무너진 시대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지나친 예를 행하는 자들의 행동과 어찌 같겠는가.³¹⁾

백불암 최홍원의 상황에 맞는 변례(變禮)의 실천 의지는 일기자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일기자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관을 묻는 상황에서 관이 무거워 상두꾼들이 관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백불암 최홍원은 하관(下棺)을 할 때 상두꾼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 도르래를 이용한다. 사실 사대부 집안에서 어머니의 하관을 도르래와 같은 기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의 규범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일기자료에 보는 것처럼, 도르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도를 잃었다고 비웃

30) 晴. 早食. 更以方牀輦上. 穴極平穩. 午時以轆轤. 下棺. 各執所見. 立說紛紜. 反有嘲譏失制之語. 惟聖年載安. 粗知敬柩之意. 堊平土後. 卽要鄭昌伯題主. 因返魂到家. 尤極痛哭. 初虞. 須臾鷄鳴. 『曆中日記』 1766년 1월 12일

31) 陰. 卒哭後. 乃聽食稻及醬. 非爲氣藴味損也. 只從禮制而屬. 此喪禮大壞之日. 豈若過禮者之爲無愧哉. 法興李德吉曾聞有婚意於我. 今因來會葬事. 與嫂氏及思兒輩有發言. 聞之於我. 諸意可知. 『曆中日記』 1766년 1월 16일

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백불암 최홍원은 형식적인 겉치레의 예의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공경하고 추모하는 정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일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먹는 것도 의례와 제도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지나친 예를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백불암 최홍원의 변례(變禮)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실천 철학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백불암 최홍원은 자신의 가족 및 친족의 상례와 제례에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변례(變禮)에 따라 의례를 행한다. 가족과 가문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은 없다. 아버지의 대상(大喪)을 집 밖에서 치르는 것을 두고 효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하여 융통성 있는 변례(變禮)를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례(變禮)는 가족 및 친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변례(變禮)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의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백불암 최홍원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일이 많았다. 이웃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제향을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집안에 전염병이 전염되었다면 당연히 제사를 거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낼 형편이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을 하는 기록이 있다.³²⁾ 이러한 모습을 보아도 백불암 최홍원은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의례의 시행을 결정하려고 한다. 결국 백불암 최홍원이 보여주는 변례(變禮)는 의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의 강인한 실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9, 68~69면.

3. 일상적 기록과 공동체로 확대된 가족 감성

앞서 백불암 최홍원의 『曆中日記』를 통해 사대부의 일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曆中日記』가 50여 년의 일기자료라는 방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가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을 살펴보았다. 물론 본고에서 다루는 일상이 『曆中日記』의 특징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더 확대하여 가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사대부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삶과 외가, 가족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상, 위계를 벗어나 현실적인 변례(變禮)를 실천하는 일상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세 가지 일상의 공통점은 모두 가족 및 친족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 한 사대부의 가족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曆中日記』를 통해 사대부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사대부의 일상은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하는 아들에게 규범을 가르치면서 다소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상할 때는 자상하고, 엄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때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평범한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백불암 최홍원의 일상을 통해서 사대부이면서 한편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식이 죽었을 때 슬퍼해야 하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슬픔을 참는 백불암 최홍원의 모습은 단순히 ‘사대부’라는 이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曆中日記』를 통해서 백불암 최홍원이 어머니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曆中日記』라는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매정하고 무심한 아버지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曆中日記』라는 일기에는 자식의 아픔과 죽음 앞에서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매일 기록되어 있는 『曆中日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은 자식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자식을 교육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날도 있는 것처럼 『曆中日記』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일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한 인간의 표현하지 못한 이면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사대부라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감에 썩워진 모습 외에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한 인간으로서 부여된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갈등할 때, 비로소 사대부라는 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曆中日記』는 가족 또는 가문, 친족이라는 의미를 감정과 공감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불암 최흥원이 외가의 친척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외가의 제사에 제사용품을 보내주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는 일상을 보면 외가와 외가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대부들이 외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외가에서 자라고, 외가의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는 백불암 최흥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曆中日記』를 보면, 백불암 최흥원이 외가를 떠올리거나 외가 친척을 생각하는 경우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조부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년 제사에 참석하라고 당부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제물(祭物) 보내주는 것 역시 어머니의 영향력을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백불암 최흥원의 외가와 외가의 친밀한 감정의 공유는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전제로 한 감성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외가와 외가의 감정적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曆中日記』에서 일상적 삶을 규범적으로 의미화하는 대신 인간적인 시선과 안쓰러운 감정으로 인식하게 한다.³³⁾

33) 서정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 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회, 2020, 166~167면.

이러한 백불암 최홍원의 외가에 대한 인식은 규범이 아닌 친밀한 감성 공유를 통한 가족 간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친밀한 감성 공유는 외가와외의 관계에서 당위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성이 기반이 되어 외가 친척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불암 최홍원의 가족 및 친척들과의 감성의 친밀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공동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백불암 최홍원이 <洞約節目>을 만들어 향촌 사회를 운영해 온 것을 보면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맑음. 아침을 일찍 먹고 부인동에 갔다. 강회가 끝나고 선공계에 관한 일로 제안을 하니 동네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 주었다. 둘째 아우가 와서 그와 함께 강사에서 잤다.³⁴⁾

맑음. 날이 썰 무렵에 청사에서 예제를 지냈다. 둘째 아우의 ‘의로 흥기하고 힘써 권하자’는 말에 따라 조제고와 의고 절목 초안을 완성하였다.³⁵⁾

맑고 낮에 가랑비가 날렸다. 오늘 보름 참례를 또 빠뜨렸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 된 도리에 있어 온당한 것이겠는가. 순점이 와서 인사를 하였고, 성문을 집에 보냈다. 부인동 동약소 이정 박세룡이 진실하지 못하고 패악하여 교체시키고 이금세를 대신 뽑았다. 그리고 부인동 동약소를 손질하고 홀빈고를 설치하는 일을 분부하였다. 그러나 윗자리에 있으면서 내 언행을 바르게 하여 남을 인도하고 거느리지 못하니 어찌하고 어찌하겠는가.³⁶⁾

34) 晴. 早食往夫仁洞. 講罷. 以先公稷事發論. 洞人樂而從之. 仲弟至與宿講舍. 『曆中日記』 1753년 11월 9일

35) 晴. 質明行禰祀于廳事. 慈候如昨. 出見弟腫. 顯有向完意. 天幸天幸. 因仲弟義起力勸. 助庫義庫節目草成. 『曆中日記』 1760년 9월 6일

36) 晴. 細雨午飛. 今望參又闕焉. 此豈人理. 所可安者. 順占來現. 星文送于家. 洞約里正朴世龍. 以浮悖遞之. 李今世代差. 以洞約修檢與爲設恤貧庫事. 分付. 然上座. 無可正己導轡人. 奈何奈何. 『曆中日記』 1770년 윤 5월 15일

자시(23시~01시)경에 소나기가 내리고 아침이 됐다. 둘째 아우에게 또 편지가 왔고 겸하여 은어 세 마리를 보내왔다. 밤에 종지 할아버지와 신녕 할아버지, 사수 아재 및 부인동 동약소 이정 이금세, 오득재 등을 모아서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향약 규정을 고쳐 논을 사서 골고루 구제하는 일로 분부하였다. 모두 즐거워하는 뜻이 있었다.³⁷⁾

맑음. 아이 사진을 보내 어제 찾아와 준 것에 사례하였다. 사람들의 궁색함이 너무 심하니 출산한 손녀를 위하여 걱정인 데다, 괴로울 정도로 세금을 독촉하니 더욱 견디기가 어렵다.³⁸⁾

백불암 최흥원이 부인동에 향약을 시행한 이유는 그의 5대조 대암공이 그 전에 향약을 시행한 곳이며, 부인동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약을 시행한 자세한 기록은 『曆中日記』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³⁹⁾ 부인동 향약이 시행되는 과정과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 일상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당시 대구지역 향약의 운영과 관리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약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기록도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백불암 최흥원은 1755년 11월 9일의 기록에서 “얼마의 술과 음식이 있어 동네 사람 모두가 취하고 배부름을 얻어서 즐겨하니, 이것이 洞約을 함께 하는 효험”이라고 한 부분을 보아도 향촌 사회의 교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백불암 최흥원의 향약 시행의 기반에는 가족과 친족, 나아가 신분을 넘어서는 가족애와 인간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 남성으로서 향약을 시행하는 다양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曆中日記』의 기록을 통해서 백불암 최흥원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소통, 연대의 정

37) 子夜間驟雨朝晴. 自仲房又有書. 兼以三銀魚. 但渠泄後頭疼. 深慮. 夜會旨祖與新. 寧祖泗水叔及洞約里正. 李今世吳得才等. 以爲貧民無土者. 更立約買畜均濟事. 分付皆有樂意. 『曆中日記』 1770년 윤 5월 22일

38) 晴. 送思兒. 謝昨日來訪人. 窘束特甚. 爲産兒. 可悶. 催稅之困. 尤難堪. 『曆中日記』 1769년 4월 19일

39) 오용원,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대동한문학』 제45집, 대동한문학회, 2015, 86~87면.

서와 감정이 향약을 시행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홀빈고를 만들어 베푸는 것을 지역 사대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백불암 최흥원의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헌신은 바로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른 사대부 남성들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백불암 최흥원 역시 가난하게 살았다. 일기자료에 세금이 가중하여 힘들다는 기록은 당시 사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 역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었다. 단순히 상층과 하층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시혜를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소통, 위로와 격려에서 비롯되는 실천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백불암 최흥원의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공감과 소통, 연대의 감정과 정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백불암 최흥원이 지역 또는 사회 공동체로 확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밑바탕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족 그리고 친족으로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과 감성을 통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백불암 최흥원은 공동체로 나아가서도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질병을 대하는 자세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을 『曆中日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구지역 어느 한 사대부의 공감과 감성을 엿볼 수 있는 『曆中日記』는 사대부의 일상을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백불암 최흥원이 50여 년 간의 기록을 정리한 『역중일기』는 18세기 대구 지역 사대부의 일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면서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중일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백불암 최홍원이 가족을 중심으로 『역중일기』에서 표현하는 감정을 살펴보면 솔직하고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솔직한 감정과 감성의 표현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도나 규범 또는 객관적인 논란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역중일기』는 대구지역 사대부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감정과 공감 및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崔興遠, 『曆中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국역총서 33, 『曆中日記』 제1~7권, 2021.

김정운, 「18세기 대구 사대부의 일상을 통해 본 가족과 관계」, 『대구사학』 제147권, 대구사학회, 2022, 71~104면.

서정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 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권, 한국여성문학회, 2020, 166~167면.

오용원,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 선비의 일상」, 『대동한문학』 제45권, 대동한문학회, 2015, 71~100면.

유희진,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경북 지역 양반가의 의료 생활」, 『역사와 세계』 제63권, 효원사학회, 2023, 117~144면.

이 욱, 「최흥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제38권, 한국국학진흥원, 2019, 39~76면.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 본 18세기 혼인풍속」, 『고문서연구』 제54권, 한국고문서학회, 2019, 233~264면.

|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Daily Life and Family of Sadaebu's through <Yeokjungilgi>

Ryu, Myeongok

One of the things that allows you to take a closer look at a person's various daily lives and emotions is a diary. In particular, there is "Yeokjungilgi" as a diary material that allows you to look at the daily lives of the nobleman in the 18th century. Yeokjungilgi, written by Choi Heung-won of Baekbulam for about 60 years, is an important material in that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daily lives of the nobleman and the emotions and emotions they feel in their daily lives.

In particular, "Yeokjungilgi" is characterized by various family relationships. Baekbulam Choi Heung-won shows his daughter and son as a great father. The agony between the appearance of a nobleman and a father is evid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having to endure his father's sadness as a nobleman. By recognizing the mother and mother's mother's family in the same way, it shows the emotional intimacy with the mother. In addition, a strong will to practice can be found in making a ritual (變禮) that is a nobleman but must be observed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of private benefits.

As such, all the daily lives in "Yeokjungilgi" are characterized by being woven into a family, and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understand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noblemen. In this respect, the daily life of the noblemen in "Yeokjungilgi" should be understood in various ways from the social status of the noblemen and from a human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of family was formed first on the basis that Choi Heung-won of Baekbulam was recognized by expanding to a region or social communi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that originated from the family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through emotional empathy and emotion, Choi Heung-won of Baekbulam will be able to empathize and communicate with the community. Therefore, "Yeokjungilgi" is a record that provides a glimpse of the empathy and emotion of a nobleman, and through this, it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aspect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human aspect of the noblemen.

Key Words: Diary, Yeokjungilgi(曆中日記), Choi Heung-won, Family, nobleman, everyday life, sensitivity, communication

<황릉몽환기>에 나타난 여성 비애담의 특징과 그 의미

유해인*

목 차

-
1. 들어가며	4. 유교적 주체의 좌절과 여성인물의 관계
2. 여성인물의 특징	5. 나가며
3. 여성 비애담과 몽유자의 위상 변화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황릉몽환기>에서 여성인물의 비애담이 갖는 기능을 몽유자와 몽중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 비애담은 현부열녀로 칭송받는 여사(女師)의 삶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복록과 슬픔에 관한 것으로, 입몽의 계기였던 몽유자가 제기한 문제와 논점이 달라 서사적 단절을 초래했다. 그 결과 몽유자는 몽중 세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에서 관찰자로 위상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비애담은 다시 범인(凡人)인 몽유자와 성인(聖人)인 몽중인물 간의 이념적 결속을 매개해 몽유자의 위상을 참여자로 전환 시켰다. 이를 종합했을 때, <황릉몽환기>는 여성 중심적 서사가 아니라 몽유자 중심의 서사였고, 비애담은 천도(天道)에 대한 회의라는 불온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 장치였다.

주제어 : 황릉몽환기, 황릉묘, 이비, 여와전, 몽유록, 조선 후기

* 원광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황릉몽환기(黃陵夢還記)>는 조선 후기의 소설 작품으로, 5종의 국문필 사본과 1종의 한문필사본이 현전한다.¹⁾ 중국의 소상강(瀟湘江)을 유람하던 조선의 두 선비가 꿈에서 황릉묘를 방문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서사의 큰 줄기인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선비 계암과 경암은 소상강에서 이비(二妃)의 절사(節死)에 대한 문답을 나누다 이비의 황릉묘로 소환된다. 이들은 그곳에서 이비를 비롯한 역대 현부열녀(賢婦烈女)를 만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수난에 대해 듣는다. 그리고 황릉묘를 나와 돌아오는 길에 <유효공선행록>의 정씨(鄭氏)를 만난 직후 각몽한다. 이후 계암과 경암은 쓸쓸한 마음에 유람을 마감하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황릉몽환기>는 ‘입몽-몽중세계-각몽’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좌정(坐定)과 시연(詩宴)의 단락이 생략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틀은 몽유록 구조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²⁾ 그러나 몽유의 발단이 몽유자의 이비에

1) 현재까지 확인된 이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문필사본으로는 강진섭 소장의 <황릉묘몽유록>, 고려대 소장의 <황릉몽환기>, 단국대소장의 <계암경암전>, 성균관대 소장의 <황릉묘몽환기>와 <계암경암전>이 있다. 국문필사본 5종에 대한 연구는 지연숙(2000)에 의해 자세히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르면 고려대 소장본 <황릉몽환기>가 선본이다(지연숙, 「<황릉몽환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397면). 한문본은 정용수에 의해 소개되고 이후 국문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정용수, 「캘리포니아대학(U.C.Berkeley) 소장 한국 고소설 자료의 비판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14집, 2002; 정용수, 「<선유문답>과 조선 후기 사회적 담론」,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황릉몽환기>가 주로 한문으로 향유됐던 몽유록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국문본 이본에서 한문 번역투가 발견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한문본으로부터 국문본이 파생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문본의 경우, 5종에 달하는 국문필사본과 작품의 서두 및 결말이 상이하다. 또한 <황릉몽환기>와 명확한 연관 관계가 존재하는 <여와전>이 국문필사본으로만 현전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문본을 선본으로 보기엔 다소 문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전하는 이본 중 선본으로 여겨지는 고려대 소장 <황릉몽환기>를 중심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본인 성균관대 소장 <황릉묘몽환기>를 참고하겠다.

2) 일반적으로 몽유록은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의 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형식은 16세기 <원생몽유록>에서 마련됐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유형화된 서사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는 몽유록이 여럿 등장한다. 그중 ‘시연’ 대목이 완전하게 탈락되는 작품은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강도몽유록>, <부벽몽유록>, <황릉몽환기>에 국한된다. 이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됨에 따라, <황릉몽환기>는 여타의 몽유록과 다른 지점을 갖게 된다. 남성 중심으로 향유되던 몽유록에 여성인물이 중심인물로서 서사에 등장한 것이다. 더하여 여성인물이 몽중세계에서 펼친 이야기는 여성의 삶에 대한 비애이다. 이에 <황릉몽환기>에 대한 연구는 여성 중심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작품의 창작의도와 주제의식을 논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먼저 지연숙³⁾은 <황릉몽환기>가 성인(聖人)으로 추앙받으며 복록을 누렸다고 알려진 여성들을 몽중세계에 등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비애를 토로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논자에 따르면 이들의 비애는 범인(凡人)의 불행을 논점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유교적 이념을 실천했으나 복록을 누리지 못해 불행한 보통 사람에 집중하는데, 논자는 이를 곧 몽유자이자 작자로 봤다. <황릉몽환기>의 작자는 이들의 불행을 통해 복선화음의 허구성과 천도의 불확실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논자는 그것의 확인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여성인물의 불행이 불우한 작자를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봤다.

김정녀⁴⁾는 지연숙이 주장한 여성인물의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황릉몽환기>의 주제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논자는 몽중인물인 이비, 태사, 정씨가 비록 불행을 토로하기는 하나, 현실적인 복록보단 어진 행실과 효절로 후세의 모범이 될 것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이에 <황릉몽환기>는 이들을 통해 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이념의 실천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소설이라고 봤다. 더하여 <황릉몽환기>에 여성인물의 불행담이 삽입된 이유를 조선 후기에 몽유록의 향유층으로 편입된 여성 독자의 존재에서 찾았다. 새롭게 등장한 여성 독자층

는 여성 독자층의 기호를 감안해 삽입시가 배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전개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43~144면). 몽유록의 일반적 형식에 대해선 신재홍, 『한국 몽유 소설 연구』, 역락, 2012. 조선 후기 몽유록의 특징에 대해선 김정녀, 같은 글, 2002.

3) 지연숙, 같은 글, 2000; _____,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4) 김정녀, 같은 글, 2002; _____, 「여성 향유층의 존재와 조선후기 몽유록」, 『반교어문연구』 16, 반교어문학회, 2004.

의 서사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결과로 본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황릉몽환기>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장효현의 논의,⁵⁾ 이비 전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우쾌제의 논의⁶⁾를 넘어 작품 창작 및 향유의 제반 사항과 그것의 기능까지 상세하게 짚어내 작품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논자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인 몽중인물의 이야기가 갖는 기능에 대한 해석에 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여성인물의 비애가 토로된 몽중인물의 이야기가 불우한 한사(寒士)의 자기위로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몽유자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몽유자는 몽중인물에게 공감하지 못한다. 또 몽중인물의 비애는 본래 몽유자가 몽중인물에게 제기한 문제에서 다소 빗겨나 있다. 이에 여성인물의 비애담은 몽중세계의 전체 서사 맥락에서 단절적으로 보이게까지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 비애담은 여성 향유층의 등장애에 따른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며 그것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여성인물의 이야기 중 정씨 이야기에 착목한 반재유⁷⁾와 강우규⁸⁾의 논의가 제출됐다. 그러나 두 논의 모두 여성인물의 이야기가 갖는 여성 중심적 성격에만 집중하여, 몽유자의 문제를 소거해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 지연숙이 지적했듯 <황릉몽환기>는 몽유자 중심의 서사이다. 몽유자의 문제를 제거하고 여성 중심의 서사에만 집중한다면 작품의 한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서사적 단절을 초래한 여성인물의 비애담이 삽입된 이유

5) 장효현, 「<黃陵夢還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1995.5.28. 이는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140~154면에 수록되어 있다.

6) 우쾌제,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 1, 한국고소설학회, 1995; ____, 「<황릉몽환기> 연구」, 『어문학』 58, 한국어문학회, 1996.

7) 반재유, 「<황릉몽환기>의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정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8)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이원적 성격 고찰-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0, 중앙어문학회, 2014;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자기서사 글쓰기 교육방법의 고찰」, 『어문론집』 64, 중앙어문학회, 2015.

를 몽중인물과 몽유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비애담의 주체가 되는 여성인물의 특성을 살펴 여성인물과 비애담의 관계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후 비애담이 초래한 서사적 단절의 의미를 몽중세계에서의 몽유자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애담이 삽입된 의미를 통해 <황릉몽환기>의 주제의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여성인물의 특성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황릉몽환기>에서 몽중세계의 배경은 ‘황릉묘’이다.⁹⁾ 황릉묘는 천하의 음교(陰敎)를 관장하는 이비가 다스리는 곳이자 성인의 문하(門下)로, 역대의 현부열녀가 모이는 장소이다.¹⁰⁾ <황릉몽환기>의 몽중세계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모두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황릉묘에 속한 인물들이다. 순(舜) 임금의 후비(后妃)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주(周) 문왕(文王)의 비 태사(太姒), <유효공선행록>의 효문공 유연의 부인 정씨가 그러하다.

황릉묘 내에서도 이들은 매우 상징적인 성격을 가져 주목을 요한다. 먼저 순 임금의 두 비[二妃]와 태사는 『열녀전(列女傳)』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인물이다. 『열녀전』은 여훈서(女訓書)의 시초로, 당대 여성들의 필독서였다.¹¹⁾ 이비와 태사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응당 따라야 할 부덕(婦德)을 체현

9)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황릉묘상선궁(黃陵廟上仙宮)’이라고 할 수 있다.

10) <황릉몽환기>는 <여와전>의 서사 공간인 ‘황릉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이비가 계암의 문제 제기를 직언(直言)으로서 수용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를 언급하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 ‘황릉묘’라는 공간의 성격에 대해 선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릉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11) 유허(劉向, B.C.77~B.C.6)이 편찬한 『열녀전』은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전기집(傳記集)이자 여성 교육서이다. 고대의 여성 유형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여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5면). 『열녀전』은 동아시아 각국에 전래됐는데,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훈서인 『내훈(內訓)』과 『여범(女範)』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열녀전』의 수용에 대한 연구로는 우쾌제의 『열녀전의 한·일 전래와 그 수용양상 고찰』(1991)을 참고

한 존재로, 모든 여성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여사(女師)¹²⁾인 것이다. <황릉몽환기>에서는 정씨 역시 여사로서 칭해진다.

정씨는 조선 후기 향유된 국문장편소설 <유효공선행록>의 주인공이다.¹³⁾ 황릉묘 내에서 정씨의 위치는 <황릉몽환기>의 전작인 <여와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와전>에서 정씨는 문창성에 의해 조대가(曹大家, 즉 班昭)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된다. <여와전>은 황릉묘의 위치(位次)를 삼황(三皇), 오제(五帝), 삼왕(三王), 오패(五霸), 칠웅(七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조대가의 반열이란, 황릉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삼황의 자리에 놓임을 의미한다. 정씨는 문창성에 의해 <사씨남정기>의 사정옥과 함께 조대가의 반열에 올라가고, 정숙비로 봉해진다.¹⁴⁾ 이를 통해 <황릉몽환기>에서 정씨는 단순한 현숙한 여성을 넘어서, ‘여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황릉몽환기>가 네 명의 여사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여사됨’이 아니다. 여사됨, 다시 말해 여사다움이란 여훈서 및 여성을 겨냥한 당대의 독서물들이 적극 표장(表彰)하는 여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행실을 의미한다. 이비의 절의(節義), 태사의 문덕(文德)¹⁵⁾, 정씨의 효절(孝節)과 절의¹⁶⁾와 같은 행실 말이다. <황릉몽환기>는 이와 같은 행실이 아니라, 이들이 누린 ‘복록’과 ‘슬픔[憂]’에 주목한다.

- (1) “툰디인황의 무이화호든 죽히 의논터 못호오려니와 복희현원의 공덕과 소호데곡의 신기호시를 데요 | 겸호시니 기벽 후 웃듬 성인이

12) 女子의楷模. (『한어대사전』)

13) <황릉몽환기>에서 정씨의 정체는 <유효공선행록>의 여성주인공이라는 것은 지연숙(2001)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선 지연숙, 같은 글, 2001, 164~166면을 참조.

14) “드되여 네 스람을 공경호야 좌를 주고 크게 글장호고 네우호샤 드되여 정시 사시로 조대가의 좌의 두샤 정숙비를 봉호고 (···)” <여와전>, 한글박물관소장본, 28면. <여와전>의 위치 설정에 대해서는 지연숙(2001)의 정리를 참고했다.

15) 『열녀전』의 <주실삼모(周室三母)>에 따르면 여기서의 ‘문덕’은 머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네의로 군즈를 섬겨 간고험난의 믋음을 동호지야냐 효절을 세오고 절의로 죽어지거 군즈를 갑호니, 이 곳 대명홍티 연간의 승상 효문공 뉴연의 부인 정시오” <여와전>, 한글박물관소장본, 26면.

시어○ 낭랑이 곧이지디성으로 데요의 탄싱ㅎ신 배 되시니 궁턴고
통 만고의 다시 요지네 잇디 아니실 거시오 데요의 여턴여신ㅎ시므
로도 대순의 대성대효의 더으디 아니시거○ 낭랑이 순의 이비되시
니 범인은 써 혼디 성인지녀로 성인의 빅ㅎ시미 천고이전과 후만디
이릭의 업슬 빅어○ 성덕광희 뉴명만세ㅎ시니 크시다 성인의 복되
시미여” (고려대본, 8~9면)

(2) “경이 비록 딴의 복을 아나 경이 엇디 딴의 슬프를 알니요?” (고려대
본, 12면)

(3) “경이 딴을 복되다 하니 진짓 복인이 잇느니 셔녁츠례로 셋지 홍옥
교위좌는 곳 셔쥬 문왕비 스시니 왕비 톱임은 그 구고 | 요 문왕이
위슈남교의 빅하신 바로 무왕 주공갓튼 아들을 두어 셔쥬 팔빅년
괴업을 여러 자손이 계계승승ㅎ고 삼천 후궁과 일빅 즈식이 밋드려
송성이 주람의 나타나고 성덕이 후세에 더ㅎ니 딴의 세계는 오히려
테고적 갓ㅎ야 무위이화흠 갓고 주비의 시절은 비컨디 달이 보름을
만나고 날이 둥턴의 오름 갓토니 괴야 진짓 텃고만디의 무쌍ㅎ 복
덕이니라.” (고려대본, 17면)

<황릉몽환기>가 여성인물에게 주목하고 있는 바를 인용문 (1), (2), (3)
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인용문 (1)은 몽유의 발단을 만든 몽유자 계암이
이비의 행적을 말하는 부분이다. 계암은 이비에 대해 논함에 『열녀전』에서
말하는 이비의 부덕(婦德)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계암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비가 성인(聖人)의 딸이면서 성인의 부인이었기에 무궁한 복덕을 누
렸다는 사실이다.

계암이 이비의 복록에 주목하고 있음은 계암의 껀론에 대한 이비의 답변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2), (3)이 그것이다. 이비는 계암이
자신이 누린 복록에 주목했음을 파악하고 있고 직접 자신보다 더한 복록을
누린 자로 태사를 추천하기까지 한다. 이비 역시 태사의 행적을 논함에 그녀
의 부덕이 아닌, 팔백 년 왕조를 이끈 주나라 대종 문왕의 부인이자 주나라를
실질적으로 일으킨 무왕을 아들로 두어 누린 무쌍한 복덕을 칭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인용문 (2)에서 이비가 자신의 복덕에서 슬픔으로 화제

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황릉몽환기>의 몽중세계 이야기는 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비, 태사의 슬픔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된다. 이들이 토로한 슬픔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비는 시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시누이·시동생과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 이는 시댁과 남편 순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불화(不和)인데, 순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 그때마다 이비는 애간장을 태워야만 했다. 또한 아들 상균(商均)이 불초하여 어미가 된 자로서 불편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영광과 복록을 누린 여성을 상징하는 태사 역시 슬픔을 갖고 있었다. 남편인 문왕이 7년이나 유리성(瑠里城)에 유폐되어 각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아들 백읍고(伯邑考)를 참변으로 잃고 말았다. 또 다른 아들 관숙선(管叔鮮)과 채숙도(蔡叔度)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불충불효함에 어미로서의 잘못을 늘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이비와 태사가 토로한 슬픔은 부덕을 체현한 성인이라는 명성 아래 세간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부분이다. 『열녀전』을 위시한 여훈서에서 예찬하는 이비의 시부모 봉양과 남편 섬김, 태사의 집안 다스림과 자식 교육 뒤에는 이와 같은 비애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씨는 어떠한가. 몽중세계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정씨의 이야기는 이비, 태사의 이야기와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존재해 늘 문제적인 대목이다.¹⁸⁾ 그러나 정씨의 이야기에든 그가 생

17) 태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열녀전』의 <주실삼모>를 기반으로 한다. 태사는 문왕의 아내이자 무왕의 어머니로, 시할머니 태강(太姜), 시어머니 태임(太任)과 함께 ‘주실삼모(周室三母)’라고 불렸다. 덕이 있는 남편을 얻고, 위로는 훌륭한 시어머니에, 아래로는 뛰어난 아들을 10명이나 두었으니, 태사는 곧 무한한 복록을 누린 여성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황릉몽환기>는 세간에 잘 알려진 태사의 삶에서 복록이 아닌 비애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백읍고의 참변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기』 <주본기(周本紀)>의 기록과는 다른 것으로, 『십팔사략(十八史略)』이나 <봉신연의(封神演義)>의 이야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릉몽환기>에서 태사의 사적과 관련된 부분은 지연숙, 같은 글, 2001, 162~163면.

18) 황릉묘에서의 본 연회가 끝난 후 황릉묘 ‘바깥’에서 등장하는 정씨 이야기에 대해서 반재유는 몽중세계에서의 ‘좌정-토론-시연’이 재차 반복되고 있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이는 16세기 몽유록인 <안방몽유록(安憑夢遊錄)>을 비롯하여 18세기 작품인 <내성지(奈城誌)>와 <하생몽유록(何生夢遊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몽유록

전에 누렸다고 하는 복록과 숨겨진 비애가 존재한다. 다만 비애의 성격이 이비, 태사와는 다르기에 이에 대해선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황릉몽환기>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몽중인물 이비, 태사, 정씨는 모두 현부열녀로 칭송받는 여사이다. 이들의 삶은 여훈서를 중심으로 유통되며 여성들의 이념적 지침이 됐다. 즉 교과서적으로 굳어진 의심 받지 않는 인물들이란 것이다. 그러나 <황릉몽환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서사물과는 달리 이들의 여사 다움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들의 복록과 슬픔에 주목한다. 성인의 삶에서 복록과 슬픔은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이념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황릉몽환기>의 이비, 태사, 정씨는 성인이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됐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인물의 특성은 몽중세계의 지속에 위협을 가해 문제적이다. <황릉몽환기>는 여성인물에게 있어서 여사다움 이외의 것에 집중함에 따라 몽중인물과 몽유자와의 결속을 흔들리게 만든다. 이는 몽중세계 내에서 몽유자의 위상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상 변화의 중심에는 이비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시작되는 여성인물의 비애담이 놓여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논해 <황릉몽환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몽중세계를 유지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보겠다.

3. 여성 비애담과 몽유자의 위상 변화

<황릉몽환기>는 몽유자에 대한 인정 기술로 시작하여 몽유 체험 후 몽유자의 감정 변화에 대한 기술로 끝을 맺는, 몽유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서사이다.¹⁹⁾ 몽중세계에서도 몽유자는 서사를 추동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몽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비해 몽중세계에서 그의 위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 몽유자는 몽중인물과의 대화 도중 적극적인

의 번개된 서사구조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선 반재유, 같은 글, 2007, 354~359면.

19) 지연숙, 같은 글, 2001, 166면.

참여자에서 관찰자로 위상의 변화를 겪는데, 앞서 살핀 몽중인물의 비애담이 그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동해 주목을 요한다.

<황릉몽환기>의 몽유자는 영남(嶺南) 선비 경암과 호서(湖西) 선비 계암으로, 총 두 명이다.²⁰⁾ 경암과 계암은 명문가의 후예이나 속세에 뜻이 없어 숨어 사는 은사(隱士)이다. 서로 뜻이 맞아 지기(知己)가 된 두 사람은 중국 소상강으로 유람을 떠난다. 소상강의 운치에 마음이 동한 이들은 그 감상을 음악으로 표현해낸다. 경암은 옥소를 불고 계암은 거문고를 타는데, 계암은 소상강에서 절사한 이비에 관한 곡조를 연주한다. 경암은 계암의 연주를 듣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계암의 곡조에 이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경암이 이에 대해 묻자 계암은 평소 이비에 대해 품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비판의 요점은 이비의 과도한 눈물과 절사가 예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다.

이비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청의여동(青衣女童)을 시켜 이들을 황릉묘 상선궁으로 불러들이면서 몽중세계가 시작된다. 이때 몽중세계에서 몽유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어 주목된다. 이는 이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이 비록 진혹이 이시나 말세 희동의 혼낫 문사로 우리 즈미를 감히
 펴논혀여 스스로 덕스ㅣ로라 하니, 아디 못게라. 억만세의 니르히 일죽
 우리 즈미를 하죽히리 업거늘 경이 홀노 덕언하니 선악 간의 쏘흔 주견
 이 잇는디라. 스스로 니른 바 덕언을 다하라. 담이 쏘흔 상벌을 명백히
 하리라.” (고려대본, 7~8면)

위의 인용문에 이비가 경암과 계암을 황릉묘상선궁으로 불러들인 연유가

20) 김정녀(2004)는 몽유자가 두 명으로 설정돼있는 것을 <황릉몽환기>만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며, 몽유자는 두 명일지라도 몽중세계에서 실질적인 서사를 추동하고 작자의 우의(寓意)를 드러내는 인물은 계암이라고 했다. 나아가 또 다른 몽유자 경암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논했다. 논자에 따르면 경암은 계암의 대화 상대로, 서사의 구성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황릉몽환기>의 작가가 작품 형상화 방식에 고민했던 흔적으로, 주제 전달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이전 시기의 몽유록과 구분되는 조선 후기 몽유록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다. 김정녀, 같은 글, 2004, 186~187면.

드러나 있다. 이비는 자신의 행실을 비판한 계암에게 직언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몽유자 계암은 몽중세계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임하게 된다.²¹⁾ 이비의 행적을 꺾론함으로써 몽유의 발단을 스스로 만들고, 몽중세계에서는 직언을 통해 몽중인물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로서의 위상은 이비에 대한 직언이 끝나자마자 흔들린다.

이비는 계암의 직언을 수용한 후, “경이 비록 담의 복을 아나 경이 엇디 담의 슬픔을 알니오?”라고 말하며 갑작스레 화제를 전환한다. 이제 서사의 중점은 이비의 비례(非禮)가 아닌, 그들이 겪은 슬픔이 된다. 문제는 ‘슬픔’이라는 화제에 몽유자 계암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는 그들이 털어놓는 슬픔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이비가 토로하는 슬픔은 시댁 식구와의 불화, 아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수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수난은 『사기(史記)』, 『열녀전』 등과 달리, 순(舜)이 아닌 이비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더하여 서술된 수난담은 한탄 섞인 어조를 띠고 있다. 이비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을 토로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이야기 속에 계암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자연스레 계암은 몽중세계의 대화에서 참여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다. 이때부터 계암은 줄곧 관찰자로서 몽중세계에 임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의 비애담이 몽중인물을 중심으로만 공유됐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²⁾

-
- 21) 몽유록의 유형은 몽중세계에서 몽유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방관자 형, 참여자 형, 주인공 형으로 구분되는데, 참여자 형은 현실세계와 몽중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몽유자가 몽중세계에 개입하여 몽중인물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몽유자의 특성에 따른 몽유록의 유형에 대해선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512~517면을 참고. 그러나 <황릉몽환기>가 참여자 형 몽유록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몽유자의 위상변화에 있다.
- 22) 여기서 관찰자란, 몽유자의 유형 중 방관자 형과 같다. 방관자 형은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과 <금화사몽유록(金華寺夢遊錄)> 등이 해당하는데, 몽유자가 몽중사건에서 소외되고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소감이 일절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황릉몽환기>의 몽중세계에서 이비를 비롯한 역대 여사들이 자신의 비애를 토로할 때, 몽유자 계암은 여사들 간의 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방관자 형의 특징에 대해선 서대석, 같은 글, 1975, 513~514면.

언파의 팔죽춘산의 근심이 이러나고 은하일딕의 가을 물결이 유유히니
 오열흐를 씨앗지 못흐니 양비 쏘흔 척연휘누흐시니 좌우 현비숙완이
 다 감읍흐야 수운이 이러나니 반비의 긴 탄식은 ㄱ을 브름이 늦기고
 장강의 미목은 넷 한을 썩워시니 춘 눈이 연지산의 뿌리고 미신이 나부
 천의 도라온 듯 빅미용광이 영담흐를 어더시니 주비 다시 안식을 곳치
 고 정금 샤왈 (성균관대본, 40~41면)

이비는 자신이 겪은 슬픔을 말한 후 자신보다 더 많은 복록을 영위한 인물로 태사를 추천한다. 이에 대해 태사 역시 세속에선 모르는 비애를 털어놓는다. 위의 인용문에는 이비와 태사의 비애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담겨 있다. 황릉묘상선궁에서 이비를 모시는 반첩여[班姬], 장강(莊姜)을 비롯한 역대 현비숙완(賢妃淑婉)이 모두 이비, 태사의 이야기에 감읍했다. 비애담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대열에서 몽유자 계암의 모습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계암이 등장하는 것은 이비와 태사의 문답이 이어진 후다.

계암이 복슈 국공흐야 낭낭 문답을 즈시 들시미 홀연 회포ㅣ 동흐를
 흠디못흐야 탐하의 나아가 소릿를 가다듬아 굴오되, “신이 어엿비 녀이
 시를 입스와 죽기를 무릅써 흐 말숨을 알외오리니 형혀 용납흐시를 어
 드리잇가?(...)” (성균관대본, 42~43면)

위의 인용문이 계암이 재등장하는 대목이다. 바로 이 대목에 몽유자 계암의 위치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계암이 이비와 태사의 ‘문답’을 자세히 ‘듣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답 직후 감정이 요동해 죽음을 무릅쓰고 이비에게 질문을 청하며 대화를 주도하니, 몽중세계 내에서 계암의 위상은 이비, 태사의 문답 이전과 이후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의 위상 변화가 이비, 태사의 비애담이 아니라 그들의 ‘문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자.

“낭낭과 첩은 형혀 턴도의 어엿비 녀이를 입스와 오히려 두어가지 한이
 잇거니와 츠고로 널녀와 절뽀 앓가온 괴딜노 혼두 가지 슬픔 썬 아녀

흔두 가디 즐거움도 업슨지 만흐니 엇디 가련치 아니리오?” 상비 탄왈,
 “현비 말슴이 금옥궂도다. 연이나 기둥의 위로홀 밧자논 여진 형실과
 아름다운 효절이 표표히 나타나 천추의 청명이 찍지 아닐 즈는 쏘흔
 한이 업슬지라. 인싱일스논 성인도 면치 못흐시고 화복슈요논 불의 악
 인도 곱히오미 업스니 비록 혼 번 쇠옥낙화를 슬허흐나 일홈이 빛나고
 덕^하 후세의 스싱흔 즉 쏘흔 아름답지 아니라?” (성균관대본, 41~42면)

이비와 태사가 나눈 문답의 내용은 그들이 겪은 비애에 관한 것이 아니다. 태사는 몇 가지 근심은 있었으나 자신과 이비는 충분한 복록을 누렸음을 지적하며, 열녀 중에선 한 가지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이비의 답변의 초점은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현실보응의 관계에 맞춰지게 된다. 이비, 태사의 문답은 비애담과는 구분되는 화제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몽유자 계암이 이비와 태사가 문답 이전 비애담을 나눌 때까지의 상황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비애담은 이비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몽유자의 소외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을 고려해 보면, <황릉몽환기> 내에서 여성인물의 비애담은 서사적 단절을 야기하는 대목이 되어 문제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사적 단절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황릉몽환기>가 비애담을 삽입하고 있는 연유가 궁금해진다.

비애담이 초래한 서사적 단절은 몽유자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재차 위상을 변화하는 것으로 매꿔진다. 그리고 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비, 태사의 문답이다. 앞서 언급했듯 계암은 태사의 문제제기로 ‘여성인물이 겪은 삶의 비애’에서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현실보응의 관계’로 전환된 화제에 공감의 지점을 확보한다.

계암이 적극적인 참여자로의 위상을 회복한 후 이비에게 던진 첫 마디는 “성인도 각각 혼이 계시니 범부 속즈는 더욱 니르올 거시 업거니와”이다. 여기서 성인(聖人)은 이비를, 범부(凡夫)와 속자(俗子)는 계암 자신을 가리킨다. 계암은 성인과 범부에 대한 논의를 ‘한(恨)’이라는 소재로 매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성인의 한은 당연 이비와 태사가 겪은 비애를 의미한다. 그렇

다면 비애담은 성인과 범부를 연결하는 매개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성인과 범부의 이야기에 별도의 매개담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인인 몽중인물과 범인인 몽유자가 서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 나갈 만한 이념적 결속이 애초부터 약했던 것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몽유의 발단은 이비의 절사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마련됐다.²³⁾ 사실 이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몽유자가 몽중인물에게 주목해야 하는 바는 그들의 여사다움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 몽유자의 관심은 부덕이 아닌 그들이 누린 복록에 있었다. 이에 절사가 비례라는 문제는 고금(古今)의 예가 달라 발생한 사소한 오해로 쉽게 정리되어 버리고 만다. 몽중세계의 이야기가 지속될 구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삽입된 것이 바로 여성인물의 비애담이다. 비애담은 비록 서사적 단절을 초래하나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현실보응의 문제’로 전환되는 문답으로 이어지는 이념적 결속을 매개한다.

이제 이들의 문답이 어떻게 몽유자와의 이념적 결속을 이끌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태사는 이승에서 겪었던 고난을 상기하며, 본인과 달리 조금의 복록도 누리지 못한 효녀열부들의 존재를 떠올린다. 그런데 태사의 말에 대한 이비의 답변은 조금 이상하다. 이비는 효녀열부라면 한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화복수요(禍福壽夭)의 분명함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화복수요의 분명함이란 성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자 천도(天道)의 실현을 의미한다. 고난을 겪고 표장되지도 못한 효녀열부들에 대한

23) 지연숙(2001)은 계암의 이비에 대한 비판을 입몽의 계기이자 몽중세계의 중심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계암의 이비에 대한 비판, 즉 이비의 실례(失禮)에 대한 문제제기가 <황릉몽환기>만의 독창적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여와전>에 대한 비판적 감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색지연의>, <여와전>, <황릉몽환기> 간의 연작 관계를 강화하는 근거로 삼았다(지연숙, 같은 글, 2001, 16~21면). <황릉몽환기>가 <여와전>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두 작품의 관계 중심에 이비가 놓여 있다는 점은 지연숙(2001)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황릉몽환기>에서 이비의 절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황릉몽환기>의 몽중세계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비에 대한 계암의 문제제기는 입몽의 계기로서만 기능할 뿐, 몽중세계 내에서 몽유자와 몽중인물이 나눈 문답의 논제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선 입몽의 계기와 달라지는 몽중세계에서 펼쳐진 비애담을 서사적 단절 내지 결절로 인식한다.

태사의 고민을 이비는 천도의 실현에 맡겨버림으로써 낙관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계암은 이와 같은 이비의 대답 직후 등장한다.

“성인도 각각 혼이 계시니 범부 속으론 더욱 이를 거시 업거니다. 신의 원한은 고금의 방블흔 직 업스니 사칭의 난연흠과 진퇴의 구츄흐믈 거 세소공지도 명운의 괴박흠과 신체의 건둔흐믈 즈고의 잇디 아닐 비오 녕정고고흐고 우우낭낭햐 디희의 듯 업슨 비오 운니의 구슬 업슨 놓 이라. 선을 짝흐나 알니 업고 형을 닥그나 보리 업슨 바의 일흠은 날노 재미흐고 소해 스긋고 심신은 스스로 요요햐여 추설이 틱양의 빗김 곳 흐니 무어살 위로햐며 무어살 부쳐 슬고져 흐리잇고? 강호의 파탕햐여 산슈의 오유흠도 쏘흔 온전치 못흐고 티국안민도 괴필티 못흐니 아지 못게라. 이 몸이 어넉 썩히 말으며 이 한이 어넉 날의 플이리오?(...)”
(성균관대본, 43~45면)

위의 인용문은 계암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비 앞에 나아가 한 말이다. 계암은 태사가 지적한 이념적 실천에 힘썼으나 조금의 복록도 누리지 못한 효녀와 열부에게서 공감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운(時運)이 따르지 않는다는 원망의 기저에 천도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선을 짝흐나 알니 업고 형을 닥그나 보리 업슨’이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세 모순에 대한 자기 인식이 두드러지는 계암의 발언은 작품 서두에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진 그에 대한 인정기술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적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계암을 은자로 설명한다. 그리고 은자로서의 삶을 속세에 뜻이 없는 계암의 의식지향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그렸다.²⁴⁾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계암의 은자로서의 삶은 어쩔 수 없는

24) “디명 승명년간의 녕남 선빅 경암과 호서 선빅 계암은 세디명문이오 줌영거족이라. 일죽 성명을 금초고 낙낙흔 뜻이 고운야학 곳햐여 속절 없시 속세말속의 형홀 비 업슨 디라. 봉황의 상셔를 알월 곳이 업고 기린의 썩 아닌 바롭서 구체의 먹기를 탐햐야 엇디 문을 빗너디 아니햐며 회음의 부귀를 구햐여 유학의 평홀를 감심햐리오 문달을 계후의게 구치 아니코 부귀를 만승의게 비디 아니햐야 다만 냥인의 심담이 상도햐야 교계 빅년의 디나니 비록 세한의 사괴미 아니나 그옥이 지음의 신긋히미 잇는디라.”

선택이다. 계암은 시운의 이롭지 못함에 강한 원망을 품고 있는 불우지사(不遇之士)인 것이다. 서술자의 인정기술과 계암의 자기인식 사이에 이렇듯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²⁵⁾

이는 몽유자와 몽중인물 사이의 이념적 결속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절사의 비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비와 토론하면서 계암은 자신의 신세 모순을 드러낸 적이 없다. 이비의 절사에 대한 문제의식의 근간이 계암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성인의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졌던 가벼운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기한 문제가 성인의 행적을 폄론하는 예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금의 예는 다르다’라는 안이한 답변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었다. 계암은 몽중인물의 대화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주제로 진전된 때에야 몽중세계의 중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⁶⁾

그간 여성인물의 비애담은 <황릉몽환기>를 여성 중심적 서사로 평가하는 근거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와 같이 몽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인물의 비애담을 살피면 <황릉몽환기>는 몽중인물이 아닌 몽유자 중심

(고려대본, 1면)

- 25) 이에 대해 지연숙(2001)은 은자이길 자처하면서도 이비에게 신세 모순을 털어놓는 계암의 형상을 모순이라고 봤다. 그리고 몽유자가 대개 작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인물로 설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암의 모순적 진술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작자의 심리적 갈등을 읽어냈다. 즉 작자가 은자이길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은자로 살 수밖에 없는, 득의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소외와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몽유자 계암에게 전이돼 형상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 계암이 이비의 절사를 비례라고 비판했던 입몽 계기 역시 온전히 예(禮)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비의 복록에 대한 동경과 질시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지연숙, 같은 글, 2001, 168~169면). 몽유자와 몽중인물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판단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는 몽유자와 몽중인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입몽의 계기와 몽중서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
- 26) 이를 봤을 때, <황릉몽환기>는 주인공형 몽유록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형 몽유록은 몽유자가 몽중세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몽유자이자 주인공이 서술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와 서술자가 따로 있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황릉몽환기>는 후자에 속하는데, 어느 경우든 현실세계와 몽중세계가 밀착되어 있고 작품의 의미가 몽유자 및 몽유자의 행위에 집약되어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몽유록의 유형에 대해서는 서대석, 같은 글, 1975, 516~517면을 참조.

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여성 중심적 성격이 아닌 다른 지점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황릉몽환기>가 여성인물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곧 <황릉몽환기>의 주제의식과 관련되기에 중요하다. 장을 바꾸어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4. 유교적 주체의 좌절과 여성인물의 관계

<황릉몽환기>는 여성인물의 비애담을 통해 형성된 이념적 결속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간다. 비애담 이후 이어진 이비와 태사가 나눈 문답의 화제였던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현실보완’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제 다시 계암의 발언을 살펴보자.

“(…)인성이 혼변 나미 통효 두가지 다 엇지 못흐여도 혼 가지 논 일치 못흐오려든 신은 홀노 다 엇디 못흐고 구츰히 투싱흐니 엇지 원이 미치지 아니리잇고? 낭낭이 임의 텃하음교를 그음아샤 싱민을 제도흐시니 실노 신을 건져 탐하의 용납흐시면 세세싱싱의 슈은보덕흐리이다.” (성균관대본, 45-46면)

위의 인용문을 봤을 때 계암은 천도의 실현에 대한 이비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동감하지 않는다. 이에 자신의 신세 모순을 토로하고 자신을 신하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한다.²⁷⁾ 그런데 이비는 사후세계의 인물이다. 계암이 이비의 황릉묘상선공을 방문할 수 있었던 까닭은 ‘꿈’이라는 장치를 통했기 때문이다. 이비의 탐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암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곧 성인의 문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행실과 덕행이 후세에 오래도록 남는 길이기도 하다. 계암은 유교 윤리의 작동 원리인 천도의 실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윤리를 실

27) 몽유록에서 몽중인물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정 역시 <황릉몽환기>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녀, 같은 글, 2002, 140면). 이러한 지점은 <황릉몽환기>가 주인공형 몽유록으로 몽유자 계암 중심의 서사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천한 인물이라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자리에 남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인 천도의 실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고 말이다.

이비는 계암의 청을 거절한다. 계암에게 적덕행인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돌려보낸다. 계암은 눈물을 흘리며 황릉묘상선궁을 떠나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정씨를 만난다. 정씨는 떠나는 계암을 붙잡고 자신의 복록과 비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씨의 이야기는 <황릉몽환기>가 문제로 삼고 있는 측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중요하다.

“(...)후리의 으자 우성이 현달하야 텃즈고 고하고 도취물ㄱ의 우리 부부의 효절을 기록하야 비를 세엿거늘, 후세 사름이 목숨을 앓기고 일흠을 천히 녀여 첩이 니고ㅣ 되어 슈월암의 오년을 머ძ러 무즈러진 머리와 흰 옷 스스로 뉴가의 도라와 뉴군의 견집된 거동을 보고 사다 하니, 엇디 괴괴티 아니며 뉴공은 효의군즈ㅣ라. 엇디 가엄의 소초를 보고 날을 다시 용납하며 것츨 거집하야 궤도와 권변를 쫓 사름이리오? 세속이 치치하야 그릇트 하물 낙스로 아나, 첩과 뉴군은 임의 효절노 몸을 믱츠시니, 엇디 구차히 헛 일흠을 비러 세인을 속이미 통헌티 아니리오?(...)” (고려대본, 20-21면)

위의 인용문을 통해 정씨의 슬픔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정씨는 이비와 태사와 같이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여러 고난들을 슬픔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정씨의 슬픔은 자신의 행실이 후세에 잘못 알려진 사실에서 오고 있다. 잘못 알려진 행실이란 정씨가 비구니가 된 사실을 말한다.

“첩은 덕명 성화년간 승상 덩관의 천금 소교ㅣ요 효문공 뉴연의 부인이라. 심규의 양성하야 편사흔 덕 머무디 아녀시디 시운이 불니하야 만상 풍파를 경녕하고 도취 적소의셔 뉴공이 원스하니 첩이 복으를 나하 비즈 난향을 맞기고 닉슈즈스흔디라.(...)” (고려대본, 20면)

위의 인용문은 정씨가 직접 말하는 왜곡되지 않은 삶이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유효공이 숨을 거두었을 때, 복중의 태아 때문에 바로 따라 죽지는 못했다. 그러나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시비에게 맡긴 후 물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원작 <유효공선행록>과 다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의 삶은 <황릉몽환기>에서 부정하는 정씨의 삶과 같다. 유효공에게 버려졌을 때 정씨는 비구니가 되어 수월암에 의탁했고 5년 후 유효공의 부름에 의해 다시 유씨 가문으로 복귀한다. 이때 정씨는 비구니가 된 자신은 이미 더러워진 몸이라며 유씨 가문으로의 복귀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정씨는 결국 유씨 가문으로 귀환했고, 소위 행복해 보일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런데 <황릉몽환기>의 정씨는 <유효공선행록>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황릉몽환기>의 정씨가 <유효공선행록>에서 보이는 왜곡된(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씨는 자신의 삶이 잘못 전해진 이유를 세속이 이를 ‘낙사(樂事)’로 여겨서라고 한다. 이때 세속이 좋다고 여기는 바는 정씨의 유씨 가문으로의 복귀와 그에 따른 복록의 영위를 의미한다. <황릉몽환기>에서 정씨가 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세계에서 복록을 누린 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씨가 그러한 삶을 ‘고난’ 혹은 ‘슬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황릉몽환기>에서 정씨가 통한해 하는 바는 복록을 영위하지 못함이 아니라, 비구니가 되어 자신의 몇몇한 행실을 더럽힌 후 세 사람들의 왜곡에 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정씨는 화복수요에 상관없이 적덕행인에 힘쓰라는 이비의 전언을 그대로 실행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씨에 대해 계암은 “부인이 평칭 흥수의 하점 되물 쇼칭이 쏘흔 고이히 녀이옵더니 과연 여츠흔 곡절이 잇도소이다.”라며 동조한다. 그리고 갑작스레 몽중세계가 끝이 난다. 이비의 거절에 눈물을 흘렸던 계암은 정씨를 통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일까? 이는 각몽 후 계암과 경암의 감정 상태와 함께 생각되어야 한다.

언미흘의 누상의셔 진주발을 일시의 지우니 그 소리 청연흔디라. 놀나 켜치니 낭인이 주효를 비겨 잠간 조으라시니 은하는 경경흐고 효월은 상오니 희여시니 심사 | 즈뭇 처창흐여 몽스를 서로 니르미 괴이코 황홀흐야 다시 물식관경의 뜻지 업서 적막히 칙를 보아 홀홀이 도라 오니 임의 초동쇼한지절이라. 쇠흔 국화는 괴로이 주인을 기다렸고 황낙흔 묵엽은 뽕 사름이 업서시니 처초흔 물식과 닝담한 경개 근심을 더욱

돕는 듯 흐더라. (고려대본, 22면)

위의 인용문이 <황릉몽환기>의 마지막이다. 각몽 이후 계암과 정암 둘 사이에 씁쓸함이 감도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만약 두 몽유자가 정씨의 의견에 동조했다면 천도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각몽 이후 분위기 역시 절의가 넘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씁쓸함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다.²⁸⁾ 더욱이 이들은 각몽 이후 ‘근심’을 품었다고 한다. 이들은 왜 근심하는가.

각몽 이후의 분위기와 몽유자가 품게 된 근심은 이들이 몽중체험을 통해 평소 품고 있었던 이념적 삶의 근거인 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에 그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각몽 직전에 만난 정씨는 계암에게 이념적 지표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계암은 왜 정씨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황릉몽환기>의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황릉몽환기>가 굳이 여성인물을 통해 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정씨는 계암이 이비에게 실망한 직후 만난 인물이다. 더하여 계암에게 실망을 안긴 이비의 대답, 즉 천도의 실현을 믿고 적덕행인에 힘쓰라는 이비의 전언을 그대로 따른 인물이다. 정씨는 복록을 누린 적 없는 현세에서의 삶을 스

28) 이는 지연숙(2001) 역시 지적한 바다. 지연숙(2001)은 각몽 후 쓸쓸한 서사의 분위기를 지적하며, <황릉몽환기>를 “계암이라는 몽유자를 내세워 작자가 세상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 후, 강고한 현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맺는 작품”(같은 글, 2001, 171면)이라고 했다. 이는 본고의 견해와 같다. 그러나 지연숙(2001)은 계암이 확인한 현실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까닭을 몽중세계에서 만난 이비, 태사, 정씨를 통해 세상에서 자신만이 불우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결론적으로 “<황릉몽환기>를 불우한 혹은 자신이 불우하다고 믿고 있는 선비의 자기 위안을 위한 작품”(같은 글, 2001, 172면)이라고 정의했다. 여성인물의 비애담에서 위로의 기능을 읽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성균관대소장 <경암계암전>의 필사기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곧 인물의 행위 및 작자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더하여 <황릉몽환기>의 몽유자 계암은 몽중의 여성 인물들이 토로한 비애 자체가 아닌 유교적 이념의 실천과 현실보응의 문제에 공감했다. 이에 본고는 <황릉몽환기>를 불우한사의 자기 위안을 위한 작품이 아닌, 불우한사의 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읽는다.

스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씨라는 인물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자.²⁹⁾

정씨는 이비·태사와 같이 여사로서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여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비와 태사는 태생부터 고귀했다. 반면 정씨는 유교적 이념을 철저히 수행하여 여사의 자리에 오른 ‘노력형’ 여사이다. 그녀는 반가(班家)의 여성으로서 이비와 태사보다 강도 높은 수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비와 태사처럼 자신의 수난을 비애로서 토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세에서의 수난을 이념의 실천이니 정당한 것이라고 긍정한다.

정씨의 삶은 적덕행인을 실천해도 아무런 보답을 얻지 못한 계암의 삶과 유사하다. 계암의 입장에서 정씨는 누구보다도 보답 없는 이념적 삶에 대해 의문을 품을만한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계암에게 실망을 안긴 이비의 전언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계암의 이비에 대한 실망은 정씨에게 그대로 전이된다. 이때 정씨에게 느낀 실망감은 이비에게서 느낀 것보다 심화된 감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념의 실천으로 누구보다 고된 삶을 산 정씨의 삶에 대한 긍정은 계암의 문제제기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암의 실망감은 정씨라는 인물을 통해 극대화된다. 그런데 계암과 같은 불우지사가 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몽유록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의식이다. <원생몽유록>과 <금생이문록> 등에서도 몽유자는 천도에 회의를 품는다. 이때 이들이 만나는 인물은 유교적 삶을 실천했으나 현세에서 고통을 받고 사라진 ‘의인(義人)’들이다. 두 작품 속 의인들은 모두 역사적 인물로, 같은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자로서 몽유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다.³⁰⁾

- 29) 정씨에 대해 지연숙(2001)은 복선화음의 허구성과 천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봤고(같은 글, 2001, 171면), 김정녀(2002)는 이비가 계암에게 당부한 적덕행인에 대한 말을 보완하고 부연하는 인물이라고 봤다(같은 글, 2002, 142면). 정씨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건 강우규(2014)이다. 논자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비구니가 되고, 지아비 유효공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정씨의 행위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일단을 지닌 것이라고 보고, <황릉몽환기>에서 정씨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근거로 정씨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의식을 경계한 인물로 봤다(강우규, 같은 글, 2014).
- 30) <원생몽유록>과 <금생이문록>의 몽유자와 몽중세계 간에 대한 논의는 조현우, 『고

그러나 <황릉몽환기>에서 계암이 만나는 의인들, 즉 이비와 태사, 정씨는 계암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유교적 가치를 실천한 의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토로한 것은 남성인 계암이 공감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비애이기 때문이다. 이에 계암은 몽중세계의 문답에서 자주 소외됐다.

이러한 소외는 <황릉몽환기>라는 서사적 구조가 가지는 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계암이 몽중세계에서 만난 의인들의 문답이 계암이 애초에 이들을 만나게 된 문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몽중세계의 여성인물들이 토로해내는 수난은 계암의 질문에서 빗겨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결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사적 결절을 감수하며 몽중세계에 여성인물을 등장시켜 천도에 대한 회의라는 다소 진부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황릉몽환기>의 구조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사’로 설정된 <황릉몽환기>의 여성인물은 여타 몽유록에서 대상으로 삼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의인과는 또 다른 상징을 내포한다. 여사들의 수난에 대한 토로는 몽유자의 소외를 발생시켰지만, 천도에 대한 회의를 보다 강렬하게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비와 태사는 ‘의심받지 않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열녀전』, 『소학』, 『여사서』 등을 통해 전달되며 살아있는 유교적 인물의 표본으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됐다. 그런데 <황릉몽환기>는 의심되지 않는 이들의 삶에 ‘비애’를 언급하여 틈을 냈다. <황릉몽환기>가 만들어낸 틈은 이들의 이념적 삶이 그동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이들의 비애가 토로된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고난에 대한 정씨의 부정은 <황릉몽환기>의 문제제기를 표류하게 만든다. <황릉몽환기>는 ‘천도에 대한 회의’를 누구보다 강하게 느꼈을 여사들을 통해 제기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황릉몽환기>의 문제는 계암이 이념적 지표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정씨처럼 계암 역시 당위적으로 여겨지는 유교적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암은 적선과 덕행을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는 유교적 주체로서의 삶을 고수한다. 그러한 삶에 좌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서사의 허구성과 유가적 사유』, 보고서,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하고 말이다.

이처럼 <황릉몽환기>가 그린 불우지사와 여사의 만남은 ‘천도에 대한 회의’라는 불운한 문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 장치였다. <황릉몽환기>는 서사적 결절을 감내하면서도 이들의 만남을 그려내지만, 이를 통해 이념적 지표 혹은 삶의 대안을 얻어내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이에 <황릉몽환기>는 유교적 주체의 좌절을 그린 자조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5. 나가며

지금까지 <황릉몽환기>의 주제 의식을 몽유자와 몽중세계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봤다. <황릉몽환기>의 몽중세계는 매끄럽지 않은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몽중세계의 인물과 몽유자 간의 공감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그러나 몽유자는 인물과의 공감대를 찾아내 화제를 전환함으로써 몽중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황릉몽환기>는 몽중인물이 아닌, 몽유자가 중심인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황릉몽환기>가 지닌 여성 의식과 함께 해석될 수 있다.

<황릉몽환기>가 여사에 주목한 것은 불우지사, 즉 유교적 주체의 좌절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해 낸 서사 장치였다. 여성의 비애를 그렸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 여성에 대한 연민 혹은 공감으로 환치될 수는 없다. <황릉몽환기>의 주 관심은 어디까지나 몽유자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황릉몽환기>가 몽유자가 겪는 유교적 주체로서의 좌절을 그려내기 위해 서사적인 무리를 감내하면서도 여성을 서사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전기에 활발히 창작됐던 전기소설이 유교적 주체의 방향을 그려내기 위해 여성인물을 대상화했던 서사 전통과 이어지며, 작가의 결핍이 투영되어 유교 이데올로기가 내파(內破)돼 버리는 조선 후기 하층여성 을 대상화하는 한문소설의 서사 문법과 이어진다. <황릉몽환기>는 당대 작가들이 여성인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란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황릉몽환기>, 고려대본.

<황릉묘몽환기>, 성균관대본.

<여와전>, 한글박물관소장본.

강우규, 「<황릉몽환기>의 이원적 성격 고찰-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60권, 중앙어문학회, 2014.

_____, 「<황릉몽환기>의 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자기서사 글쓰기 교육방법의 고찰」, 『어문론집』 제64권, 중앙어문학회, 2015.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전개 양상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여성 향유층의 존재와 조선후기 몽유록」, 『반교어문연구』 제16권, 반교어문학회, 2004.

반재유, 「<황릉몽환기>의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정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6권, 열상고전연구회, 2007.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제3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신재홍, 『한국 몽유 소설 연구』, 역락, 2012.

우쾌제, 「열녀전의 한·일 전래와 그 수용양상 고찰」, 『어문연구』 제21권, 언문연구학회, 1991.

_____, 「이비전설의 소설적 수용 고찰」, 『고소설연구』 제1권, 한국고소설학회, 1995.

_____, 「<황릉몽환기> 연구」, 『어문학』 제58권, 한국어문학회, 1996.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열녀전』, 글항아리, 2013.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2.

정용수, 「캘리포니아대학(U.C.Berkeley) 소장 한국 고소설 자료의 비판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4권, 2002.

_____, 「<선유문답>과 조선후기 사회적 담론」, 『고소설연구』 제25권, 한국고소설학회, 2008.

조현우, 『고전서사의 허구성과 유가적 사유』, 보고사, 2007.

지연숙, 「<황릉몽환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18권, 한국고전문화회, 2000.

- _____,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서, 2003.
- _____,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릉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6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Female Biaedam in *Hwangreungmonghwagi*

Yoo, Haein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of the female character's biaedam in *Hwangreungmonghwagi*,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eamer and the in-dream character. Biaedam (sad story) was about the fortune and sadness which were not highlighted in the life of Yeosa praised as a virtuous woman, and different issues and arguments raised by the dreamer, who triggered a dream, resulted in a narrative disconnect. Consequently, the status of the dreamer shifted from an active participant to an observer in the dream world. Biaedam, however, mediated the ideological bond between the dreamer as a commoner and the in-dream character as a saint, and shifted the status of the dreamer back into a participant. In conclusion, *Hwangreungmonghwagi* was not a woman-centered narrative but a dreamer-centered narrative, and biaodam served as a narrative device to maximize the unsettling awareness of skepticism against the way of the heaven.

Key Words: Hwangreungmonghwangi, Huangling Miao, Er Fei, Biaedam (sad story), Yeowachon, Mongyurok, the late Chosun Dynasty

<홍계월전>의 가족각본, 수용과 위배

황지현*

목 차

1. 서론	3. 가족각본으로 본 홍계월의 삶
2. <홍계월전>의 가족서사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 주인공의 경계를 넘나든 삶을 그린 조선 후기 영웅소설 <홍계월전>을 “가족각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독해한다. 가족각본은 젠더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기대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고정적인 인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서 정상가족 신화를 지탱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상이한 역할들을 넘나들면서 홍계월이 경험하는 질곡을 통해 일상 속에서 비가시화되기 쉬운 가족각본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홍계월전>은 “각본 없는 가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계월전>의 가족각본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의 젠더 중심 관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예각화한 접근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가족의 탄생을 중심으로 <홍계월전>의 가족서사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원 가족, 입양 가족, 혼인으로 인한 가족이라는 총 3번의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진다. 각 경우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다양한 인식과 목적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홍계월에게 어떤 가족각본이 주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홍계월은 견고한 가족각본의 경계를 오가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가족각본이 지닌 모순을 노출시켰다. 물론 그의 행적이 온전히 저항적인 것은 아니며 가족각본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억지로나마 그것을 이행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각본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홍계월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여

* 성균관대학교 강사

성영웅들의 결말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조선 후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 여성영웅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족각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홍계월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추후 여성영웅소설군의 가족각본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가족, 젠더, 가족각본, 고전소설, 여성영웅소설

1. 서론

한국이 2002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후 매년 최저 출생률 기록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해체를 넘어 소위 ‘국가적 재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도도 감수할 법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전히 상당히 좁은 법과 제도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동성혼의 합법화나 포괄적인 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에서 ‘가족’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도 정상 가족의 신화는 여전히 재난보다 더 급선무로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각본』의 저자 김지혜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기대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고정적인 인식을 “가족각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¹⁾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해체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명절마다 재현되는 며느리의 제사 노동, 일상적인 가사노동 분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분법적인 성역할 관념에 기초한 가족각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우리는 딸이나 아들로, 결혼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 며느리, 사위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에 암묵적으로 부과되는 다양한 육체적·감정적인 노동을 수행한다. 마치 극에서 배역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언행이 결정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

1) 김지혜, 『가족각본』, 창비, 2023.

을 고려하면, 가족각본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경직된 정상 가족 신화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어진 각본에 따라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만족한다면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때이다. 평소에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던 가족각본의 존재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동안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영웅소설이자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경계를 넘나든 삶을 그린 <홍계월전>을 가족각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독해하려는 시도이다. <홍계월전>은 조선 후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웅소설로 여성 인물이 전장에 나아가 압도적인 무공을 세우고 배우자가 될 남성 인물보다 걸출한 재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이후 여성이 처할 수밖에 없는 열세(劣勢)를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 한편 여성임을 밝힌 이후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천자와 대신들의 청에 따라 대원수로 출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사에서는 <홍계월전>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주체적인 여성상 제시 및 젠더 평등의 관점 제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의 서사가 가부장제에 여전히 포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홍계월이 다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³⁾

2) 이 글은 <홍계월전>의 이본 가운데 한중연 45장본을 대상으로 한다. 3차, 4차 군담이 있는 단국대 103장본과 달리 한중연 45장본은 1차와 2차 군담으로 작품이 종결된다. 단국대 103장본이 보다 이른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3차, 4차 군담에서 홍계월보다는 여보국의 무훈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는 한중연 45장본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화논총』 51, 한국문화회, 2009; 정준식, 「<홍계월전> 원전 탐색 :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어문학』 137, 한국어문화회, 2017.

3)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정규식,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우위 의식」, 『동남어문논집』 13, 동남어문학회, 2001;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우리말글』 22, 우리말글학회, 2001;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

실제로 이 작품은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인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되었다기 보다는 통속적인 대중 오락물의 성격이 짙다.⁴⁾ 하지만 딸과 아들, 형제와 부인, 자식과 며느리라는 상이한 역할들을 넘나들면서 홍계월이 경험하는 질곡을 통해 일상 속에서 비가시화 되기 쉬운 가족각본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홍계월전>은 “각본 없는 가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⁵⁾ 그렇다면 왜 ‘가족’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홍계월전>에 대한 연구는 젠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의식에 직접적으로 주목한 경우⁶⁾는 물론 여화위남(女化爲男) 모티프⁷⁾, 타자와의 관계⁸⁾, 공간⁹⁾ 등에 초점화한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어문학회, 2007;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조광국, 「고전소설교육에서 새롭게 읽는 재미: 홍계월의 양성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윤정안, 「<홍계월전>의 정의와 정의 실현 방식의 의미」,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김창현, 「한국 여성 영웅 서사의 미학적 특징에 대한 일고찰: 여성 영웅의 임무와 그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88,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 4) 홍계월이 남장을 하고 못 남성을 압도하는 재주를 가감 없이 발휘하는 한편 여성임을 밝힌 후에도 대원수로 출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젠더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혼인을 통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부인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신기하지만 위협하지 않은 이야기’로 독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불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10면 참조.
- 5) 김지혜는 성별 구분을 바탕으로 설계된 가족 제도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제도가 만드는 계층적 불평등까지도 은폐한다고 지적하면서 각본 없는 가족에 대한 모색을 제안하였다. 김지혜, 앞의 책, 188~189면 참조.
- 6)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우리말 글』 22, 우리말글학회, 2001;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 7)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있으나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의 폭력성 및 그와 홍계월의 길항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묶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것은 사회적 성역할로서 입신양명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약이 컸던 시대적 상황에서 그러한 경계를 넘나든 주인공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주효한 접근이다. 하지만 사회적 성역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홍계월전>이 다른 여성영웅소설들과 달리 정체를 밝힌 후에도 천자와 대신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대원수로 출정하는데 반해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가족에 초점화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당 서사는 홍계월의 사회적 지위가 천자라는 절대적 권위자의 승인하에 확보될 수 있지만, 가족각본은 오히려 그보다 더 견고하고 완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제는 공고한 이분법적인 성역할 관념을 바탕으로 가족 질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홍계월전>의 가족각본을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의 젠더 중심 관점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예각화한 접근이다. 가족각본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라는 개념만으로 접근하였을 때 딸이자 부인, 며느리 나아가서는 시모로서의 역할에 부과되는 역할에 따른 복잡한 양상을 세밀하게 조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가족각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홍계월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홍계월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지만 추후 여성영웅소설군의 가족각본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2. <홍계월전>의 가족서사

홍계월에게 주어진 가족각본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홍계월전>의 가족서

-
- 8)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조민경, 「갈등 양상을 통해 본 <홍계월전>의 지향 가치 :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18,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5.
 - 9)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사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주인공 홍계월을 둘러싼 ‘가족의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총 3번 등장한다. 그의 출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주어진 혈연 가족, 우연히 만나 자신을 구조한 여공과의 입양 가족,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 각 단계마다 가족을 묶어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탄생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홍무와 양씨에게 자신들의 핏줄인 자식을 낳는 것은 큰 과제였다. 이들은 명문거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40살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면서 무후(無後)를 근심해왔다. 그러던 중 양씨가 자신을 상제의 시녀이며 죄를 지어 인간세계로 내려졌다고 소개하는 선녀를 만나는 태몽을 꾸 후 자식을 낳게 된다. 귀한 만득자(晩得子)라는 설정은 영웅소설을 비롯하여 주인공의 탄생에 흥미를 더하는 상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늦게나마 자식을 얻기를 바랐던 간절함은 계월과 부모 간에 강렬한 애착과 결속력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홍무와 양씨는 자식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기에 광도사를 초청하여 관상을 보도록 한다. 도사의 대답은 “길한 상”이라는 것이었지만 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여 13년을 떨어져 지낼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은 말에 근심에 휩싸인다. 홍무와 양씨가 도사의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다면, 이들은 그간의 양육 방식을 고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할 시간 동안의 딸의 삶을 위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무와 양씨가 딸 계월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부모였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이들이 계월에게 남복(男服)을 입히고 글을 가르친 것은 어디까지나 광도사의 예언에 대한 방비책이었을 뿐 아들의 입신양명을 통한 가문의 영달이 목표였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의 사대부 가문 여식에게 제공되지 않는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홍계월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¹⁰⁾

10) 이에 대해 김정녀는 “계월의 부모는 여성인 계월이 복색을 남자로 바꾸고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타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유경은 “홍계월과 방관주의 경우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이분법적인 양육의 틀에 갇히지 않고 젠더 역할의 절대성에서 벗어나 유년기부터 젠더가 유동적인 상태로 자라게 됨으로써 선택과 변화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녀,

<홍계월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탄생은 여공에 의한 입양 가족 구성이다.¹¹⁾ 여공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보국이라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우연히 지나다가 강물에 떠내려 온 계월을 구조하게 된다. 당시 계월은 5살이었으나 여공은 한눈에 비범한 품성을 알아보고 곧장 집으로 데려와 보국과 함께 친자식같이 기른다. 여공의 부인 위씨 또한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계월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보국은 계월을 반겨 친동기같이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술자는 여공이 홍계월을 집에 데려온 후 아이가 범상치 않으니 잘 길러서 훗날 영화를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공의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아 어린 계월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권을 승계할 장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집안의 자식을 훗날 입신양명하면 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정성들여 기른다는 설정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많은 고전소설에서 이복형제는 물론 심지어는 동복형제들 사이에서도 유산 상속 및 가권 승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공의 가족들이 홍계월을 섣뎡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불확실한 부귀영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여공이 홍계월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때 여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강물 너머로 들려오던 슬픈 울음 소리였다. 게다가 기절했던 아이를 구호해 정신을 차리게 하자 간절하게 어미를 찾으면서 울부짖는다. 계월과 또래인 자식을 둔 여공에게 오갈 데 없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으며 우는 모습은 깊은 연민을 자아냈을 것이다. 여공이 계월의 본적을 물어 양반임을 짐작하는 한편 훗날 영화를 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이후이다. 따라서 계월이 여공 가족에 편입되는 것은 양육에 따른

앞의 글, 113면; 이유경, 앞의 글, 46면.

- 11) 홍계월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씨 가문의 일원이 된 것은 아니며 과거 급제시에도 “홍평국”이라고 하여 홍씨 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공 가족으로의 편입을 “입양 가족”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여공 부부가 5살인 홍계월을 가족의 울타리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친자식처럼 길렀으며, 보국을 제치고 장원급제하였을 때도 차등 없이 기뻐했다는 점, 홍계월 또한 자신이 친자식처럼 여겨졌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입양 가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훗날의 보상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¹²⁾

여공과 위씨가 보국과 계월을 차등 없이 대한 점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온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친자식인 보국이 부장원으로, 계월이 장원으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할 뿐 장원이나 부장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계월의 부모를 지우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계월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자 하늘이 도우면 나중에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니 서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훗날 계월이 부모를 찾아 함께 기뻐해줄 뿐 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계월의 입장에서 여공과 그의 가족이 제공한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홍무와 양씨가 계월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냈다고 하나 그 기간은 5년이며 계월의 기억이 희미할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가족에 대한 추억은 3년이 채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반해 여공 가족에 편입되어 일상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충분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던 2년, 보국과 형제로서 곽도사에게 수학하며 성장하였을 16살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계월에게 여공 가족은 정서적인 유대감 및 물질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였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여공 가족과 홍계월이 만든 새로운 ‘가족’은 여공과 위씨 부인의 부모를 잃고 기댈 곳이 없던 어린 아이를 향한 인간적 연민, 자식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욕망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 대한 홍계월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의 탄생을 보자. 여성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계월이 스스로 정체를 밝히자 천자는 홍계월과 여보국의 혼인을 주선한다. 이로 인해 이전에 부모와 자식으로서 맺었던 여공 부부와의 인연은 구고와 며

12) 비록 작중 계월과 끊임없이 비교되며 상대적으로 절하되는 보국이지만 그 또한 기남자로 제시된다. 여공이 계월의 비범함을 보고 훗날의 영화를 기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외아들로 일찍이 재주를 드러낸 보국에 대한 기대감은 남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계월의 등장과 무관하게 보국을 곽도사에게 보내 수학하게 하였을 것인데, 만약 계월이 범상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굳이 두 아이를 모두 도사에게 맡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계월의 인물됨에 대한 여공의 판단은 계월을 거두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입양한 자식인 계월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느리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우애 깊은 형제로 자란 여보국과는 부부 관계로 재설정된다. 그동안 여공 가족과 홍계월이 혈연 가족과 다름없이 친밀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국과의 혼인을 통해 계월은 여공, 위씨, 여보국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된다. 그런데 홍계월에게 생득권처럼 주어졌던 친부모와의 가족, 저항감 없이 수용된 입양 가족과 달리 혼인으로 재탄생한 가족은 성립 과정에서부터 여러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전의 두 사례에서 홍계월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편입되는 것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혈연 가족과 입양 가족 모두 계월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가족의 탄생에서 득실을 따지는 계월의 내면은 복잡하다.

홍계월의 의사 반영 여부가 이러한 내면의 혼란과 거부감을 유발한 것은 아니다. 앞의 두 경우 모두 계월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혈연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여공이 자신의 가족에 편입시킬 때도 계월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세 번째 가족의 탄생은 형식적으로나마 계월이 동의 또는 수궁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¹³⁾ 문제는 혼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이 계월에게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그 변화의 내용이 달갑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이라는 정체를 밝힌 이후 공적 영역에서의 배제와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은 실상 구분되는 것이지만 계월의 입장에서는 여성임을 밝히자마자 혼담이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련의 상실감은 “남자가 되지 못한 한(恨)”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홍계월이 <방한림전>이나 <옥주호연>, <이학사전>의 주인공들처럼 어려서부터 의식적으로 여도(女道)를 폐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주변의 제재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공고히 해 나간 경우와 달리 계월은 살아오면서 삶의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혼인

13) 홍계월이 공식적으로 수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혼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성취한 것과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비로소 여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된다.¹⁴⁾ 더군다나 그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성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인을 받아들인 결정에는 그것이 부모와 천자의 명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조상의 제사를 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결말부에서 계월의 둘째 아들이 초왕이 된 홍무의 뒤를 이을 태자가 되었다는 서술을 고려하면 세 번째 가족의 탄생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한편,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인 동시에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 부분인 환경이며 체계이다.¹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월은 여러 가족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을 제공받아 독자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홍계월 본인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각본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다.

3. 가족각본으로 본 홍계월의 삶

1) 딸이자 아들

40살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던 홍무와 양씨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핏줄이 없는 것을 한스러워 하였다. 하지만 정작 자식을 낳고 보니 아들이 아닌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늦게 낳아 처음이자 마

14) 어린 시절부터 여도를 폐한 인물들과 달리 홍계월이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에는功名심이나 기질의 문제와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정안은 계월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계월이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하려는 이유가 일차적으로 익숙함에 있다는 것이다. 윤정안, 앞의 글, 271면 참조.

15) 김익균, 『가족관계학』, 교육과학사, 2008, 11면 참조.

지막 자식이 될 듯한 존재가 아들인 경우와 달리 딸이라면 단순히 자신의 핏줄을 잇는 것을 넘어 조상의 제사를 맡기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딸이 재주가 뛰어나고 비범하다면, 계월이 남자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홍무의 탄식은 자연스러운 법하다.

부모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일상적인 공경과 봉양, 입신양명을 통한 가문의 창달, 후사를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딸에게는 혼인 전에는 일상적인 공경과 봉양을, 출가해서는 시부모를 잘 봉양함으로써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딸로 태어난 이상 홍무와 양씨는 계월에게 입신양명과 조선향화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이들이 홍계월에게 남복을 입히고 여자의 행실을 일절 가르치지 않으면서 글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예언에 대한 방비책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계월에게 아들과 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를 요구하거나 아들을 대신하기를 바랐다고 볼 단서는 없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곡절 끝에 성장한 계월과 재회한 후에도 딸이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재회는 상당히 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대원수로서 군을 통솔하던 홍계월은 적과 내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심문하다가 그들이 헤어진 부모임을 알게 된다. 이때 계월은 무장을 한 채 군졸들을 거느리고 장대에 높이 앉아 서안을 치며 호령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이후 계월은 그동안의 일들을 밝히면서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지내다가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하였음을 말한다. 물론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 경황이 없었을 수 있지만 홍무와 양씨는 돌아와서도 계월이 남장을 하고서 남자가 가득한 군중을 휘저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거나 정체를 밝히고 규중에 처하라는 조언을 하지도 않는다. 계월이 여자임을 밝히고 여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은 천자가 보낸 어의의 진맥 후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고서 비로소 이루어지며, 홍무와 양씨는 이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심지어 계월이 여복으로 갈아입고 눈물을 흘리자 이들은 그 심정을 위로할 뿐 어떤 조언이나 질책을 했다는 언급은 없다.

어린 시절에는 액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으나, 재회 후 홍

무와 양씨의 태도는 해명이 필요하다. 세월이 아들로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라면 왜 홍무와 양씨는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아들로 호명되는 딸이 처한 기이한 상황에 위화감을 느끼고 제지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처음 남장을 한 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만약 홍무와 양씨가 도사에게 딸의 관상을 묻지 않았다면 세월이 남장을 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부모와 이별하고 여공에게 구조되었다고 한들 아들로 길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홍무가 딸의 관상을 알고자 한 이유는 세월의 명이 짧을까봐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존재이다. 딸에 대한 양육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유일한 자식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을 고려하면 홍계월은 부모에게 ‘유일한 자식’이자 ‘딸’ 가운데서 후자보다 전자로서 더 크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딸과 아들의 역할을 구분하는 선이 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았던 것이다. 딸이기 이전에 유일한 자식으로 홍계월을 바라본 부모의 인식은 그에게 요구되는 가족각본에서 딸과 아들을 넘나드는 것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월경(越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다면 홍계월은 딸과 아들이 혼재된 자신의 가족각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친부모와 이별하기 이전인 5살까지의 삶에서 홍계월은 남장은 하였으되 이를 제지하는 부모나 유모와 마찰을 겪은 <방한림전>의 방관주, <이학사전>의 이현경 등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그에게 남복을 입고 글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이로서 어떤 위화감 자체를 인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공에게 구조된 후에는 확고하게 아들의 역할을 부여받아 입신양명으로 부모와 문호를 빛내리라는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딸에 대한 가족각본은 더욱 멀어졌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상소문에서는 규중의 행실로는 부모의 유골도 찾지 못할 것이기에 남복을 입고 세상을 속였다고 하였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였다면 찾아서 봉양을 하는 것이 옳고 이미 죽었다면 유골을 안장하고 제사

를 모셔야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제약이 많은 여성에게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활동 가능한 영역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계월이 처한 상황에서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시간 동안 계월의 선택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혼담을 수용하는 것 또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월이 홍무와 양씨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홍씨 가문의 후사를 잇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여성과 혼인한들 재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⁶⁾ 하지만 여보국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그 가운데 한명으로 홍무의 후사를 잇게 하면 조선향화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혼인을 승낙하는 과정에서 계월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족각본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딸 또는 아들’ 혹은 ‘딸이면서 아들’로서 경계를 짓지 않고 홍계월을 양육한 결과 홍무와 양씨는 두 가족각본이 혼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아들’ 홍평국을 잘 낳은 공으로 각각 위국공과 정렬부인의 직첩을 받았다가 결말부에서는 초왕과 왕비에 봉해졌다.¹⁷⁾ 그리고 계월의 둘째 아들은 훗날 초국 태자가 되었다.¹⁸⁾ 홍계월은 홍무와 양씨의 딸로 태어났으나 임신양명으로 부모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주었으며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부여되던 가족각본을 부족함 없이 수행하였다. 홍계월의 사회 진출이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두 번째 출정에서 공을 세워 홍무가 초왕에 봉해진 것과 둘째 아들로 후사를 잇게 한 것은 모두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6) <방한립전>에서 방관주와 영혜빙은 전혀 다른 핏줄인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후사를 잇고 있다.

17) 홍무와 양씨가 각각 위국공과 정렬부인의 직첩을 받은 것은 아직 홍계월의 정체가 탄로나기 이전이다. 따라서 천자는 홍무와 양씨가 아들을 잘 두었다며 그 공을 치하한 바 있다.

18) 아들이 없는 경우 외손봉사를 통해 조선향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홍계월의 둘째 아들이 직접 홍무의 후계자로서 가권과 지위를 온전히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록 홍계월이 딸로 태어났으나 홍무의 후사를 이었다는 점에서 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직된 가족각본에서 벗어난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 아데에서 며느리로, 형제에서 아내로

다음으로 큰 변화를 겪은 여공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홍계월의 가족각본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공은 계월을 자식처럼 기르던 중 친아들인 보국이 7살이 되자 계월과 함께 광도사에게 보내서 16살이 될 때까지 수학하게 한 바 있다. 원래 여공은 계월에게 아들로써 기대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었다. 작중 존재감이 적으나 여공의 부인 위씨 또한 기대치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공의 바람대로 계월은 아직 정체가 발각되기 전 홍평국으로서 큰 공을 세워 여공과 위씨에게 각각 제후, 공렬부인의 직첩을 받게 한다. 천자가 첫 번째 전장에서 계월이 세운 무훈과 미담을 고려하여 여공 집안도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물론 친자식인 보국도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나 그 하나만으로는 대원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계월이 가져다 준 만큼의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비록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이기는 하나 계월이 두 번째로 출정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여공이 오왕에 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월은 자신을 아들로 맞아 훗날을 기약하며 훌륭한 선생을 가려 맡기고 잘 길러낸 여공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들로써의 가족각본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한편 계월은 5살에 보국과 처음 만나 형제로써 광도사에게서 동문수학하며 성장하였다. 그 기간 동안 둘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보국이 처음부터 계월을 친동기처럼 여길 정도로 호의적이었다는 서술을 감안하면 돈독한 형제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아들이었던 보국에게 동갑이자 일상을 함께하는 계월은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광도사에게 맡겨져서 수년 동안의 수련을 거치는데, 이때 비록 보국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계월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훗날 과거에 급제하고 출정하여 군중에서도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실상 보국과 계월은 혼인 전부터 이미 서로에게 평생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형제로써 선의의 경쟁자이자 지지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문제는 계월이 여성임이 밝혀지고 보국과의 혼사가 추진되면서 아데에서

며느리로, 형제에서 부인으로 바뀐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계월이 혼인으로 인해 겪은 변화는 활동 영역의 제약, 여공 가족과의 관계 재설정이다. 전장과 조정을 중형무진하며 명성을 얻던 그가 규중에서 무료하게 소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공 가족과의 관계 재설정은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온다. 딸과 아들의 경계를 오갈 수 있었던 원가족의 경우와 달리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관계에서 홍계월은 가족각본과 충돌하는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게 된다.

작중 계월이 “남자가 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는 첫 번째 장면은 천자에게 여보국과의 혼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직후이다. 계월이 보국의 부인으로서 그 아래에 처하는 것에 굴욕감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그의 부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부하로 부릴 수 없음을 알았다.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견고한 가족각본을 다시 쓰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혼인을 앞두고 군례를 행하겠다는 굳이 보국의 심사를 자극한 것은 계월이 보국을 업신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이 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그에 따를 각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장면 또한 보국과 관련이 있는데, 영춘의 죽음으로 인해 보국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계월은 보국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인의 행실로는 가장에게 직접적으로 태도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결국 가족각본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계월은 가족각본을 관계에서 철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동공격의 형태로 대응한다. 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좌절감을 느끼지언정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전자와 유사한 태도 할 수 있다.¹⁹⁾ 이로 보면 계월은 부인에게 요구되는 가족각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좌절감을

19) 물론 홍계월이 영춘을 죽인 행위가 부인에게 주어지는 가족각본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각본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군벌에 의거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계월이 의식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조정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한편 여보국이 홍계월의 행위에 대해 부인의 덕목을 어겼다고 분개한 것은 이를 명백한 가족각본의 위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홍계월과 여보국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느끼면서도 가족각본에 내재한 부조리의 본질이나 변화의 여지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혼인 이후 계월이 가족각본을 충실하게 수행했는가 하는 점은 더 살 펴볼 일이다. 분량 제한으로 일상적인 장면이 섬세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단 편소설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가 부인이자 며느리로서 여씨 가문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국과 사 이가 떨어진 후 규중에서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을 두며 소일했다는 단 편적 서술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업무 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한 여성에게 부인이자 며느리로서 부과되는 업무의 양은 결코 적지 않았다. 조석감지(朝夕甘旨)하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이 급제하여 공무를 행하는 동안 계절에 맞는 조복(朝服)을 준비해야 한다. 여 보국이 외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월은 유일한 며느리로서 “봉제사 접빈 객(奉祭祀 接賓客)”으로 바쁜 나날을 보낼 법 하지만 혼인 이후에도 계월이 여공(女功)에 임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혼인 이후 부인이자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가족각본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보국의 애첩 영춘을 교만하다는 이유로 처형해버린 사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집 안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부인이자 며느리로서의 덕목을 정면으 로 위배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위화감은 이전에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여공 가족에 편입되었을 때는 감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각본의 위배와 그로 인한 긴장감이 직접 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보국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전장에서 못 남성들의 정점에 섰던 계월에게는 기남자로 평가되는 보국 또한 인정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보국이 부인의 도리를

20) 해당 행위는 홍계월의 행보에 여성주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가장과 처첩 관계가 지닌 불합리성을 폭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나 제도 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상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인식 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지하, 「18·1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 교」,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33면 참조.

다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 그리고 그에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계월은 혼자 시간을 보내며 보국을 한심하게 생각할지언정 그를 찾아가 따지고 굴복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는 상황이 다르다. 계월은 부인이라는 가족각본에 매이지 않는 대원수로 다시 출정하자 보국을 공공연하게 조롱하는 등 가정 내에서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계월이 완력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보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등이 직접적 충돌이자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았던 것은 어디까지나 부인으로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한계를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여공과 보국의 입장은 어떻게. 영춘을 살해한 일로 보국이 분개하자 여공은 그를 잘 타이르는 한편 계월을 훈계하지 않음으로써 계월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될 법한 태도를 취한다.²¹⁾ 어린 시절 구조하여 장성하도록 양육하면서 가족으로 여겼던 점을 고려하면 계월과 여공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점이 여공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은 일견 자연스럽다.

하지만 계월을 대하는 여공의 태도는 공감적 이해와 유대감만으로는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 또한 존재한다. 만약 여공이 정말 계월을 자식으로 친밀하게 여겼다면 보국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둘 사이를 적절히 중재할 방안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보국과 마찬가지로 계월도 자신의 자식처럼 느끼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을 둘의 관계를 감안하면 혼인 초기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은 이상 부모로서 개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타의 고전소설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 관계에 부모가 개입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계월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직접 양육했다는 점에서 개입이 더욱 수월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공은 보국을 조용히 만류하는 가운데 천자가 중매한 여자를 꺼린다면 해로움이 있을 것이

21) 이에 대해서 김정녀는 여공이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계월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계월을 양육한 양부의 입장에서 며느리이기 이전에 자식으로 여겼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윤정안은 황제와 여공의 허락을 통해 계월이 아내라는 성역할 외에 남성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정녀, 앞의 글, 127면; 윤정안, 앞의 글, 274면.

라고 경계한다. 이전에는 자식이었고 이제는 며느리인 계월을 어렵게 여기는 태도가 이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계월을 어려워하는 여공의 모습은 두 번째 출정 이후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계월은 여복(女服) 위에 조복(朝服)을 걸친 채로 시부인 여공을 만나 인사한다. 여공은 계월에게 존경하는 뜻으로 일어나 그를 맞으며 자리를 정할 때는 서로 마주 앉는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때 자리는 곧 위계를 나타낸다.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데 시부가 일어나서 맞이하고 마주 앉는 것은 일반적인 예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공은 계월에게는 시부이며 여씨 집안의 가부장이다. 그에게는 올바른 제가를 통해 집안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역할로서의 가족각본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공은 그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때 계월도 내심으로는 여공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계월의 전후 행동을 보면 과연 그가 여공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부인이자 며느리로서 편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정말 불편해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공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을 다시 보면, 귀가하여 여복으로 이미 갈아입은 이상 그 위에 조복을 다시 걸쳐 입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계월은 굳이 조복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시부가 마주 앉으라고 할 때 며느리로서의 예를 다하겠다는 사양하고 말석에 앉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계월의 태도는 자신의 위신과 대외적인 입지를 여씨 가문 구성원들에게 전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국의 반발을 가족각본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간 연구에서는 여보국과의 갈등에 대해서 그의 자존심이나 권위 의식, 이분법적 젠더 관념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계월을 꺼리는 보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보국의 태도를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견고한 가족각본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상 속에 깊이 스며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보국과 계월의 갈등은 형제로 우애 깊던 상대방에게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숙한 사람’이 되는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한 것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각본을 때때로 위배하는, 그리고 애초에 잠재적으로 위배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계월의 존재는 보국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각본

을 수행하는 데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모에게 아들이자 흥평국의 형제로서 가족각본을 수행하던 보국은 혼인으로 인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된다. 가장이 된 이상 ‘못난 가장’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보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각본을 충실하게 이행하려 한다. 위계적인 가부장제에서 가장인 보국은 엄연히 정실 부인과 첩을 비롯한 가내인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는다. 누군가 임의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은 집안의 중대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는 한편 그 사실을 공표하여 가내인들이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혼인 직후에 계월이 영춘을 처형해버린 사건으로 인해 보국은 자연스럽게 가족각본을 위배하게 되어버렸다.²²⁾ 영춘의 잘못이 곧 제가(齊家) 실패라는 보국의 책임으로 귀결될 소지는 있으나 혼인 직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 보국은 아직 제가를 그르치기도 전이었다. 한편 처형이 이미 일어난 이후에는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국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계월이 가족각본에 매어 보국에게 직접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수동공격의 형태를 띠었던 반면 보국은 외적인 요소로 인해 가족각본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계월을 향한 보국의 열등감 또한 가족각본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보국이 한명의 인간으로서 자신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에게 열등감을 느낀 것이라면 곽도사에게 수학하던 시절 및 과거 급제에서부터 열등감을 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보국은 어떤 열등감도 보이지 않았다. 우월한 계월의 능력과 지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자신의 부인이 되었을 때부터이다. 가장이 가내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가족각본은 보국 개인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당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견고한 이념이자 실체였다. 보국에게 계월의 언행은 물론 우월성 자체가 자신의 가족각본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계월을 견제하고 제어하

22) 혼인을 앞두고 홍계월이 군례를 행한 사건에 대해서 보국이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갈등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소 곤욕을 치렀지만 보국은 혼인 첫날밤 계월과 동침하였고 원앙과 비취의 즐거움이 지극했다고 서술된다.

려한 보국의 태도는 주어진 가족각본을 이행하려는 관성을 통해 온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가족각본의 경직성과 폐해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가족각본을 통해 <홍계월전>을 살펴보았다. 홍계월은 견고한 가족각본의 경계를 오가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가족각본이 지닌 모순을 노출시켰다. 물론 그의 행적이 온전히 저항적인 것은 아니며 가족각본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억지로나마 그것을 이행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각본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홍계월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의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홍계월은 가족각본을 다시 쓰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선 여씨 가문 내에서 계월의 입지는 일반적인 부인이자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을 자식으로서 양육하고 며느리로 맞이한 여공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계월을 어렵게 대하고 있으며, 충돌하던 보국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예로써 자신을 섬기는 계월의 태도에 기뻐하면서도 두려하며 마음을 놓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부인이자 며느리로서 타 가문의 일원이 된 여성은 매사에 조심스럽다. 일상적인 예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국문장편소설에는 남성의 가문에 편입되는 여성인물들의 고단함과 조심스러움이 잘 드러난다. 그에 반해 부인을 자신의 집안으로 맞은 남성과 그의 가족들은 크게 거리낄 것이 없을뿐더러 신인(新人)이 우리 가문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곤 한다. 이때 부인이자 며느리의 언행은 모두 찰시(察視)와 규시(窺視)의 대상이 된다. 홍계월도 혼인 초기에 부인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으나 여기에 온전히 응하지 않고 여전히 경계를 오갔다. 어린 시절 딸과 이들의 경계를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여공, 보국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인이자 며느리의 가족각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역할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영웅이면서 여성인 홍계월은 남성영웅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노정과는 전혀 다른 길과 고민이 부여되었다. 도술을 연마하고 천문을 읽는 능력을 갖추어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기이한 행적을 남겼지만, 계월의 모든 시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원가족과 이별하였을지언정 곧바로 새로운 가족에 편입되었으며, 그 끝에 원가족의 승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비록 곡절을 겪었으나 보국, 여공을 위시한 여씨 집안에서 부인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관계 양상이 재조정되었다는 점에서 가족각본 다시 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여성영웅들의 결말에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 여성영웅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족각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인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3권, 한국언어문학회, 2007, 179~196면.
- 김익균, 『가족관계학』, 교육과학사, 2008.
-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 제35권, 한국고소설학회, 2013, 105~137면.
- 김지혜, 『가족각본』, 창비, 2023.
-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70권, 한민족어문학회, 2015, 235~266면.
- 윤정안, 「<홍계월전>의 정의와 정의 실현 방식의 의미」, 『고소설연구』 제48권, 한국고소설학회, 2019, 279~305면.
-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43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35~63면.
- 이지하, 「18·1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연구』 제31권,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4면.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301~338면.
- 정준식, 「<홍계월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기반」,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51~74면.
- _____, 「<홍계월전> 원전 탐색 : 단국대 103장본 계열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37권, 한국어문학회, 2017, 323~347면.
- 조은희,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우리말 글』 제22권, 우리말글학회, 2001, 195~218면.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융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제30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07~244면.

| Abstract |

The Family Transcript of “*hong-kye-wŏl-chŏn*”, Acceptance and Violation

Hwang, Jihyun

This article reads “*hong-kye-wŏl-chŏn*”, a hero novel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depicts a female protagonist's life crossing the boundaries, through the concept of “family script”. Family script refers to a fixed perception of being expected to play different roles depending on gender and performing them, and it supports the myth of a normal family in Korean society to this day. In that the reality of family script, which is prone to visualization in everyday life, is revealed through the song experienced by Hong Kyewŏl while crossing different roles in the family, “*hong-kye-wŏl-chŏn*” has great implications even today when it is necessary to seek “a family without a script”. The work of analyzing the family script of “*hong-kye-wŏl-chŏn*” is not a departure from the existing gender-centered perspective, but a more acute approach to it.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the family history of “*hong-kye-wŏl-chŏn*”, focusing on the birth of a family. In this work, a total of three “births of a family” are made: the original family, the adopted family, and the family due to marriage. In each case, it was confirmed that the various perceptions and purposes of the people involved were intersecting. Next, in Chapter 3, it was reviewed which family script was given to Hong Kyewŏl. Hong Kyewŏl created cracks as he crossed the boundaries of a solid family script, and sometimes exposed the contradictions of the family script. Of course, her actions were not completely resistant, and she was dissatisfied with the family script, but she was forced to do so.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give meaning to Hong Kyewŏl's life in that it was possible to detect the reality of the family script. Although you may feel sorry for the ending of female heroins who had no choice but to return to the home,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can understand the family script, which is firmly influential to this day through the lives of female heroes who gained popular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is article, discussions were limited to “*hong-kye-wŏl-chŏn*”, but an expansive discussion on the family script of the female hero novels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Key Words: Family, gender, family script, classic novels, female hero novels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에 나타난 모성 윤리와 돌봄의 보편화 가능성*

김주원·강의혁**

목 차

1. 들어가며	3. 모성 윤리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장
2.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모성 윤리의 가능성	4. 모성의 확장으로서의 환경 윤리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산드라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를 모성과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글이다. 근대 체제 성립 이후 모성과 돌봄을 둘러싼 담론은 여성의 삶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의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공고히 유지하여 왔다. 스테인그래버는 초기의 페미니즘에서 벗어나야 될 여성의 굴레로 간주되어 온 모성과 돌봄에 대한 발본적인 사유를 제시한다. 스테인그래버는 모성을 타자성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돌봄을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보편적 경험으로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몸과 자연의 이분법을 해체하며 새로운 생태적 사유의 장을 연다.

주제어 : 모성, 돌봄, 상호 의존성, 생태, 몸의 회고록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6770)

** 김주원(제1저자),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
강의혁(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1. 들어가며

생태학자이자 작가인 산드라 스테인그래버(Sandra Steingraber)의 『믿음을 갖기: 한 생태학자의 모성으로의 여정』(Having Faith: An Ecologist's Journey to Motherhood)은 여성 과학자이기도 한 작가가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후 그것을 임신 경험과 함께 엮어내어 기록한 회고록(memoir)이다. 이 책의 부제에 포함된 “Journey to Motherhood”라는 말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작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해 열 달의 시간을 보내고 출산 후 모유 수유의 과정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책의 구성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머니됨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에게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여성의 몸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애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태아를 둘러싼 환경적 위협을 탐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스테인그래버는 서문에서 임신을 하고 나서야 자신의 몸이 아기의 주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밝힌다(ix). 환경운동가로서 글쓰기를 해왔던 그녀는 임신한 여성으로서 엄마의 몸에 거주하는 아이가 오염 물질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경험은 그녀에게서 모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모성과 자연과 환경을 염려하는 환경주의의 결합은 이 책의 에코페미니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실제로 감독이자 작가, 그리고 에코페미니스트인 하이드 허트너(Heidi Hutner)는 스테인그래버의 책을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명한다(43). 암 환자이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엄마로서 허트너에게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주의적, 여성주의적, 그리고 어머니됨의 의식”(ecological, feminist, and mothering awareness)을 지니는 것이다(38). 실제로 엄마인 스테인그래버와 허트너가 모성을 환경과 연결시키는 것에 더해서 에코페미니즘은 이론적으로도 모성의 이미지를 환경주의와 연결시킨다. 린 스티어니(Lynn M. Stearny)에 의하면, 에코페미니즘은 “우리의 음식, 물, 그리고 공기의 제공자인 자연인 ‘엄마’ 지구”를 우

리가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145). 물론 에코페미니즘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때 가지는 위험성은 크다. 아기와 어머니 관계에서의 돌봄 윤리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코페미니즘이 돌봄 윤리를 모성의 전형적인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것은 자칫 이상화된 모성의 이미지를 여성들 스스로 재생산해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Stearny 145-46; Alaimo 104; Murphy 2023, 112-113).¹⁾

또한 모성에 기반하여 돌봄의 가치를 이상화하는 것은 자칫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만 지워왔던 가부장제적인 규범으로의 순응이 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돌봄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김영아 183; Held 156). 예컨대 김영아는 이 불평등한 관계의 전형적인 예시로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모성에 기반한 돌봄을 “가치 있는 새로운 실천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171-180; 183).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온 모성의 돌봄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가정과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이를 통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려는 ‘불평등의 기획’으로서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기존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성과 돌봄의 개념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를 해방시킴으로써 모성이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불평등의 근원으로서의 근대적 체제에 발본적으로 저항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성이나 돌봄을 정의하는 종래의 방식과 결별하고, 그동안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차별적·편협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모성과 돌봄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윤리와 정치를 재정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돌봄을 새롭게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1) 에코페미니즘이 자연의 실체성을 긍정하고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소위 ‘본질주의’(essentialism)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런 본질주의와 여성성(femininity)에 대한 강조가 어우러질 때 자칫하면 근대적 남성/여성, 이성/감성, 문명/자연의 이분법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튼(Timothy Morton)이 강조하는 것처럼 에코페미니즘은 하나의 철학적 도그마(dogma)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특히 해체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이런 철학적 난관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Timothy Morton, *Ecology Without Nature* (Cambridge: Harvard UP, 2009), 161~64면 참조.

있다. 강혜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모성연구에 이미 틀 지워져 있는 모성을 ‘해체’하고 ‘개념을 바꾸는’ 일을 통해 모성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6).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기존의 여성 학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성의 가치를 추론해 왔는지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통찰을 통해 스테인그래버의 『믿음을 갖기』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스테인그래버는 그녀의 글에서 모성을 원동력으로 하여 돌봄의 가치를 확장하여 자신의 아기뿐만 아니라 환경을 소유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는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를 통해 모성 윤리를 확장할 수 있다는 사라 러딕(Sara Ruddick)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확장된 모성 윤리가 전 지구적 환경 윤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모성 윤리의 가능성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가부장제 하에서 제도화된 모성을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한 에이드리안 리치(Adrian Rich)는 모성이라는 제도에 구축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전형” 때문에 괴로웠음을 고백한다(2). 제도화된 모성 개념이 억압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리치에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자본주의적 모성 개념은 많은 경우 어머니로부터 그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의 체제에서 ‘모성’은 단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상화된 감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어머니를 가두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한 사람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하나의 공통된 ‘윤리적’ 표지로 묶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모성을 모든 어머니들 혹은 잠재적 어머니인 여성들이 지닌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여기는 관점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감정을 자연스럽지 않으며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 스스로가 정형화된 어머니의 역할과 태도, 사고방식에 갇히도록 만든다. 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모성 담론’이라는 판옵티콘(panopticon)을 통해 근대 체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성 개인을 주조해 내고 이를 통해 체제의 안정화와 영속화를

피하는 것이다.²⁾ 지배담론으로서의 ‘모성’이 사회적으로 유통·순환되면서 경험으로서의 모성이 지닌 실제적이고 다양한 측면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것’(unsayable)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체제 친화적인 모성 담론만이 ‘말할 수 있는 것’(sayable)으로서 어머니의 행동과 사고를 규정하게 된다. 스티어니는 실제적인 어머니됨의 경험에 비하면 제도화된 모성의 이미지는 축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147),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어머니 역할에 있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인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지적한다(155).

그렇다면 제도적 모성의 한계를 타파하고 실제적인 모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작업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모성을 폐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가장 현실적인 삶의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제도적 모성 하에 억압받으면서도 실제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스스로의 다양한 목소리가 우선 들려야 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모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제도화된 모성의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하며 본질주의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자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 역할의 실천에 있어서 잠재된 모성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강혜경 82). 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여성이 대부분 담당해 왔던 어머니 역할이 지닌 모성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은 모성을 여성적 윤리로 인정하는 한편, 모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리치 역시 모성을 여성적 삶의 실재로 끌어안고 재정의하려고 시도한다. 리치는 자신의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모성에 관해 인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녀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성의 굴레’를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머니됨에 대해 자신의 목소

2) 푸코(Michel Foucault)는 근대 체제의 한 특징으로 감시(surveillance)를 통한 개인-시민의 생산을 논의하면서 벤담(Jeremy Bentham)의 판옵티콘 개념처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역할을 근대 담론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담론적 감시는 개인의 “영혼”을 통제하고 길들임(discipline)으로써 그 체제가 바라는 방식의 개인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Books, 1995), 195~228면 참조.

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든 인간의 숙명이라고 부르든,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이미 내 자신의 일부로서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끔 만들었고,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이라기보다 헤매임, 침체, 그리고 정신적인 죽음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하도록 만들었다.³⁾

And yet, somehow, something, call it Nature or that affirming fatalism of the human creature, makes me aware of the inevitable as already part of me, not to be contended against so much as brought to bear as an additional weapon against drift, stagnation and spiritual death. (Rich 8)

어머니가 되는 것을 “내 자신의 일부로서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도화된 모성의 이미지가 여성인 자신의 삶을 억압할지라도, 내 삶의 부분을 차지하는 ‘어머니됨’이 내 여성성의 일부라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나 자신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리치는 어머니됨 자체와 싸우기보다는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외면하고자 했던 영역을 마주 대하면서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를 발화하는 경험을 하며, 이는 자신 안에 얹혀있는 금기와 오해들을 풀어내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xiv). 김영아는 제도화된 주류담론으로서의 모성과 실제 경험으로서의 모성의 복합적인 관계를 풀어내고자 하는 리치의 시도가 “모성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었음을 인정한다(174).

리치와 마찬가지로 사라 러딕도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통해 모성이 지닌 가치와 잠재성에 주목한다. 러딕은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에서 “모성적 활동 그 자체가 어머니에게 사유하도록 요구”하며, 이 사유함(thoughtfulness)으로부터 “어머니가 개발하는 지적인 능력, 판단, 형이상적

3) 에이드리언 리치 지음, 김인성 옮김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평민사, 2018) 29면.

태도, 그리고 가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69). 따라서 러딕이 말하는 “모성적 사유”는 모성을 분명하게 정의하(articulate)고 더 나아가 이로 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딕의 “모성적 사유”는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말하기를 통해 모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이는 더 나아가 모성의 의미를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러딕은 대부분 어머니의 역할을 여성이 맡아왔다는 사실을 긍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으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요컨대 러딕은 모성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를 어머니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러딕의 주장은 자칫 오해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딕의 핵심은 모성에서 여성의 출산과 자녀의 돌봄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러딕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영역이지만,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은 성별이나 나이의 구분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듯 여성적 가치로 여겨지는 모성을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누구나가 지닐 수 있는 가치로 확장하려는 러딕의 시도는 실제적 모성이 지닌 가치의 잠재성이 보편적인 윤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모성 윤리를 보편화시키는 작업은 자칫 모성 논의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젠더의 차이를 통해 모성의 모습을 다양화하려는 시도와 대립되는 것일 수 있지만, 보편화 작업을 통해 추론해 낸 모성윤리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러딕이 모성적 사유를 확장하는 시도를 통해 평화의 정치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성적 사유’를 보편적인 윤리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돌봄 이론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헬드(Virginia Held)는 『돌봄 윤리: 개인적, 정치적, 지구적』(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에서 돌봄 제공자와 의존인 사이에 존재하는 돌봄 윤리를 개인적, 정치적, 그리고 지구적 맥락으로 확장시켜 돌봄 관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왔던 돌봄 개념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돌봄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 토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헬드는 러딕의 “모성적 사유”를 돌봄 윤리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26). 헬드

는 러디가 말하는 “활동으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수행하는 돌봄 실천이 주류 도덕 담론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27). 돌봄 윤리가 모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헬드의 주장과 같이 모성과 돌봄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민음을 갖기』를 분석하는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모성 윤리를 돌봄 윤리와 연계하는 동시에 모성의 확장이 어떻게 생태주의와 엮어지는 지를 살핀다. 모성, 돌봄, 생태라는 삼각축을 바탕으로 스테인그래버의 『민음을 갖기』를 읽는 작업은 어떻게 모성과 돌봄이 보편적 윤리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학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모성 윤리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장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상적인 개인 경험에서 이뤄진다고 여겨져 왔기에 이와 관련된 주류 담론은 끊임 없이 ‘개인적’ 또는 ‘사적’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정의하여 왔다. 특히나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특별히 여성의 생물학적 몸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주류 담론의 여성성 규정에 있어서 특권화된 경험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요컨대 임신과 출산은 ‘본질적으로’ 여성적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이 여성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위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어머니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민음을 갖기』에서도 스테인그래버는 예비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독성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생태학적 조사”(ix)를 시작한다. 그녀가 착수한 일은 먼저 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직접 조사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이 주제에 대한 책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만 했다. 나는 점이 있는 물고기를 보면 아기에게 모반이 생긴다거나 외발인 남자와 마주침이 절름발이를 만든다는 오래된 어머니들의 미신

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나를 미신을 믿게 만들었다. [...]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들을 외면하고 싶은 나의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은 그것들을 탐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 나는 어머니들과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찾고 있는 임신한 생물학자이다. [...] 나는 파괴된 삶과 지난 전투에 대해 알고 싶다.

Sitting at my desk, I have to take a deep breath before opening the books on this topic. I am not a believer in maternal impression - the old mystical idea that seeing a spotted fish will cause my baby to have birthmarks or that unhappy encounters with one-legged men will make for lameness. Nonetheless, pregnancy has made me superstitious. [...] But more powerful than my desire to turn away from these images is the need to explore them. [...] I am a pregnant biologist searching for the voices of mothers and scientist. [...] I want to know about the lives blasted and the battles fought. (38-39)

1950년대 임신부의 입덧 진정제로 처방되던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을 살피려던 작가는 그 끔찍한 결과들을 살피보기 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한 두 가지의 상반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외면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탐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첫 번째는 기형아의 사진을 보지 않음으로써 미신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위협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함으로써 그녀가 무엇으로부터 아기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들의 미신”은 건강하고 흠 없는 ‘정상’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주어진 역할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이를 낳고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모든 어머니의 숙명이기 때문에(Stearney 147),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동이 혹여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담론적 감시와 검열은 기형아에 대한 공포를 여성 주체들에게 심어준다. 스테인그래버 역시 그러한 공포가 주는 미신적 불안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렇듯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미신은 아기의 안위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인 것처럼 작동한다. 임신부는 태아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더 건강한 의식주를 선택해야 하며, 안전한 소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런 담론적 통제는 임신부의 자기검열이 태아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오로지 여성만을 아기의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자로 규정한다. 스테인그래버는 온갖 금기에 둘러싸인 임신부의 현실에 비해, 임신에 가해지는 환경 위협에 대해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다(107-108). 돌봄의 책임을 어머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작동방식은 기존의 도덕 이론이 돌봄이 필요한 관계를 사적 영역에 머물게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김영아에 의하면, 돌봄 이론은 주류 도덕 이론의 맹점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즉, 서구 백인 남성을 모델로 하는 주류 도덕 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결정에 과도한 무게를 실음으로써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외면하고,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대상과 계층을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문제를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여기도록 했다는 것이다(165). 엄연히 공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사회가 외면하는 동안 여성들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결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임신이 여전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더라도 “공적 결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라는 스테인그래버의 단호한 말(108)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정치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녀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주류 담론으로는 그 의미 파악조차 불가능한 문제들과 대면하여 이를 침묵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공론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스테인그래버는 작가로서 “그것을 다룰 언어를 발견”(108)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테인그래버는 “임신한 생태학자”, 즉 과학자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낸다. 그녀의 글쓰기에는 그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습득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녀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그녀의

몸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임신부에게는 터부시되는 이야기들을 추적하여 서술하고, 동시에 “암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상을 드러낸다(ix). 스테인그래버는 유해한 환경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써 자신의 몸을 통해 이야기를 해왔던 작가이다. 그녀의 첫 번째 저서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 한 과학자의 암과 환경에 관한 개인적인 조사』(Living Downstream: A Scientist's Personal Investigation of Cancer and the Environment)는 스무 살에 방광암에 걸렸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과 환경의 연관성을 추적한 저서이다. 그녀는 이 책에서도 경험을 반영한 “개인적인 목소리를 작가, 동기부여자, 그리고 교사로서 유리하게 사용한다”(Bryson 173). 스테인그래버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1980년대 후반, 여성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과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하는 여성 암 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과학자로서 그리고 암 환자로서 두 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Mitra 46). 그리고 『믿음을 갖기』에서는 ‘임신한 여성’으로서 엄마의 몸에 거주하는 아기가 오염 물질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임신한 자신’의 몸을 통해 오염된 환경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병원 중심의 출산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생태학자로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과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 서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임신부들이 겪었던 재난에 대해 조사를 하던 그녀는 “나는 아는 것(knowledge)과 행동하는 것(action) 사이 어디에 위치하고 싶은 것일까? 나의 신성한 의무는 무엇일까?”(55)라고 말하면서, 삶과 지식, 개인성과 공공성,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해체하며, 어머니이자 과학자로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때 과학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과학 지식과 데이터를 조사하는 능력은 스테인그래버의 회고록의 장르적 변주에 기여한다. 스테이시 앨리모(Stacy Alaimo)는 “사적인 자아-성찰의 장소였던 ‘수기’(journal) 장르”를 통해 정치적 의제를 체현하는 작가들의 글쓰기를 “몸의 회고록”(material memoirs)⁴⁾이라는 장르로 명명한다(87). 앨리모에 의하면, “몸의 회고록”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하는데 (87), 이는 회고록 자아의 “물질적”(material), “횡단-신체적”(trans-corporeal), “창발적”(emergent)⁵⁾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종 전문화된 과학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87).

다이앤 프리드먼(Diane P. Freedman)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생태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믿음을 갖기』를 “모성 회고록”(maternal memoir)이자 “생태-회고록”(eco-memoir)으로 부른다(47). 프리드먼은 이러한 회고록의 특징을 성찰적인 회고록의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궁의 생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인의 내부로 시선을 돌린다고 설명한다(47). 일반적인 회고록이 저자의 정신적 성장이나 도덕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 ‘생태-회고록’은 자궁에서 시작된 생태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이라는 경험 안에서 “스테인그래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하면서도, 이 장르를 아기의 환경을 염려하는 부모 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환경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Freedman 49). 스테인그래버는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침묵 대신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253) 기존의 회고록 장르 글쓰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개인적 경험과 서술을 통해서 공공의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모성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4) ‘material memoirs’는 직역하면 물질적 회고록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장르의 작가들이 주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을 기록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어 번역서에서 몸의 회고록이라 번역한 것을 그대로 표기했다. 스테이시 앨리모, 윤준·김종갑 옮김.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 정의』(그린비, 2018) 209-275면 참조.

5) 앨리모는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 정의』(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에서 “인간의 몸과 비인간 자연 간의 상호연결, 상호교환, 그리고 이동을 탐구한다.”(2) “물질적”(material), “횡단-신체적”(trans-corporeal), “창발적”(emergent)이라는 용어는 앨리모가 인간의 몸과 자연을 가로지르는 물질의 작용 능력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향한 모성이 공동체의 연대를 이끌고 정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성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어머니와 아기가 맺고 있는 관계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 여성의 자궁이 태아의 거주지가 된다는 작가의 깨달음은 한 여성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임신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한 여성이 자신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타자와 자신의 몸을 공유하는 경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여성의 부풀어오르는 몸 안에서 형상이 드러나며 계속 성장하는 태아, 질로부터 나오는 아기, 모유를 빠는 아기,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몸을 먹이는 어머니는 극적인 방식으로 자아와 타아의 융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자아의 소멸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더 무미건조하게 말하자면, 출산의 극적인 친밀감은 특별하게 의존하는 한 사람과의 부드러우면서도 생명을 형성시켜 주는 결속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러딕 301-302)

러딕은 모성의 역할에 대해서 출산의 경험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활동인 돌봄을 분리하면서도 출산 그 자체가 지닌 “상호 의존적 창조행위”에서 돌봄 활동에서의 “‘발달’과 ‘양육’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구체화”시킨다(331). 러딕은 한 몸을 공유하는 어머니와 태아의 “형이상학적인 분리 속에서의 신체적 결합”을 “자아와 타아의 혼용”으로 설명한다(330). 어머니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취약한 존재를 돌보면서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하는 행위”를 수행하며, 아기는 돌봄을 받으며 “단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산은 자아와 타자 간의 “상호 의존적” 성격을 보여준다. 인간 존재가 상호 의존성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돌봄 윤리가 기존의 도덕 이론을 반박하는 지점에 힘을 보탠다. 헬드에 의하면, “칸트와 공리주의 도덕이론은 주로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여겨지는 행위자의 합리적 결정에 주목”하는 반면, 돌봄 윤리는 “개인을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한다(156). 임신과 출산이 인간의 상호 의존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성으로부터 출발한 돌봄 윤리도 역시 인간 특성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장 보여주는 예시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에서 아기는 특히나 돌봄을 요구하는 취약한 존재이다. 러딕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한 “보존(presevation), 성장(growth), 사회적 적응 능력(social acceptability)”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존애(preservation love)와 양육(nurturance), 그리고 훈육(training)”의 세 가지 활동을 하도록 부과받는다(60). 이 중 『믿음을 갖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 해당하는 “보존애”이다. 가장 일차적인 돌봄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머니가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활동은 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존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실천적인 행위이다. 젓먹이 아기를 가장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스테인그래버가 엄마의 모유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역설하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부에 젓먹이 아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기의 유일무이한 생태학적 위치를 강조한다(251). 이 예시는 젓먹이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기가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보살핌의 필요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개인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돌봄 윤리가 실천되어야 함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기까지 이른다.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POP,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제재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 UN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게 된 그녀가 연설의 시작에 자신의 모유가 든 젓병을 회의장에 돌리는 일화는 엄마로서 오염된 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정치적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그녀는 회의장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인간의 음식”일 수도 있는 모유를 직접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262). 임신과 출산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있듯이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스테인그래버는 자신의 모유를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개인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방식을 아주 명확한 일화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성의

“보존애”는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 사회,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돌봄 윤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4. 모성의 확장으로서의 환경 윤리

피셔와 트론토(Fisher and Tronto)는 다음과 같이 돌봄의 개념을 넓은 범주로 정의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돌봄이 우리가 가능한 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 지속시키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종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세상에는 우리 몸, 우리 자신, 환경이 포함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물로 엮으려고 한다.

On the most general level, we suggest that caring be viewed as a *species activity that includes everything that we do to maintain, continue, and repair our “world” so that we can live in it as well as possible*. That world includes our bodies, our selves, and our environment, all of which we seek to interweave in a complex, life-sustaining web. (원문 이탤릭체 40)

비록 피셔와 트론토가 정의하는 돌봄은 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논의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정의는 돌봄이 지구를 위한 활동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즉, 돌봄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things)과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Fisher and Tronto 40)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의 범위가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돌봄은 인간의 몸, 자아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것이다.

피셔와 트론토의 돌봄 정의를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윤리에 적용시키는 것은 각 개인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

을 인간과 자연에까지 확장하는 작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스테인그래버는 인간의 몸과 환경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타파하고자 한다 (Kroll-Smith and Lancaster 210). “계몽주의 이래로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여긴 근대 백인남성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계”를 와해시켰기 때문에(마리아 미스 273), 이러한 관계를 재인식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스테인그래버가 인간의 몸과 환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독성 화학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은 몸과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극적으로 나타낸다(Alaimo 104).

양수 검사에 관한 서술에서 스테인그래버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을 몸을 통해 인식하고 실체화하는데, 그녀가 자신의 양수를 관찰하는 방식은 다시 눈에 보이는 몸의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을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라. 아기의 오줌이 되기 전에, 양수는 물이다. 내가 물을 마시면, 그것은 혈장이 되고, 이는 양막 주머니로 퍼져나가며 아기를 둘러싼다. 그리고 아기 또한 그 물을 마신다. 그리고 그전에 물은 무엇이였을까? 식수가 되기 이전에, 양수는 저수지를 채우고 있는 개울과 강이다. 그것은 우물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이다. 그리고 개울과 강과 지하수이기 이전에, 양수는 비이다. 내가 나의 양수가 든 시험관을 손에 쥐고 있었을 때, 나는 빗방울로 가득 찬 시험관을 쥐고 있는 것이다. 양수는 또한 내가 아침으로 먹은 오렌지 주스이고, 시리얼에 부은 우유이고, 차에 섞은 꿀이다. 그것은 시금치 잎의 초록색 세포와 사과와 축축한 과육에도 들어 있다. 그것은 달걀노른자이다. 내가 양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오렌지 과수원에 떨어지는 비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멜론 밭, 축축한 땅 속의 감자, 초원의 풀에 있는 서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소와 닭의 혈액이 이 시험관에 들어 있다. 벌과 벌새가 모은 과즙이 들어 있다. 벌새의 알에 들어 있는 그 무엇이든지 내 자궁 속에도 들어 있다. 세상의 물에 들어 있는 무엇이든지 여기 내 안에도 있다.

Drink plenty of water. Before it is baby pee, amniotic fluid is water. I drink water, and it becomes blood plasma, which suffuses through the amniotic

sac and surrounds the baby - who also drinks it. And what is it before that? Before it is drinking water, amniotic fluid is the creeks and rivers that fill reservoirs. It is the underground water that fills wells. And before it is creeks and rivers and groundwater, amniotic fluid is rain. When I hold in my hands a tube of my own amniotic fluid, I am holding a tube full of raindrops. Amniotic fluid is also the juice of oranges that I had for breakfast, and the milk that I poured over my cereal, and the honey I stirred into my tea. It is inside the green cells of spinach leaves and the damp flesh of apples. It is the yolk of an egg. When I look at amniotic fluid, I am looking at rain falling on orange groves. I am looking at melon fields, potatoes in wet earth, frost on pasture grasses. The blood of cows and chickens is in this tube. The nectar gathered by bees and hummingbirds is in this tube. Whatever is inside hummingbird eggs is also inside my womb. Whatever is in the world's water is here in my hands. (66-67)

그녀의 몸에서 채취한 양수는 “연한 황금색”을 띤 채 두 개의 시험관에 담겨 있으며, 그것을 본 그녀는 양수를 “호박 보석”에 비유한다(65). 자신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난 노란색 액체를 보면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을 물질들에 대해서 상상한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의사의 말을 시작으로 그녀가 마시는 물은 그녀의 몸에 흡수되고, 생리적인 활동을 통해 양수로 만들어지며, 양수는 다시 태아의 몸속을 흐르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순환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물이 몸속에서 순환하는 과정으로부터 그 물이 외부의 환경에서 어떠한 순환을 거쳤을지 상상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양수는 “강”, “빗물”, “오렌지 주스”, “우유”, “꿀”, “시금치”, “사과”, “달걀”, “소와 닭의 피”, 그리고 “별과 별새가 모은 과즙”과 같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물질로 변모하며, 이러한 서술은 몸 안으로 향해있던 시선을 몸 외부로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리나(Ma Lina)는 작가가 “자연을 인간의 몸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몸을 ‘자연화’(naturalization)시킨다”라고 말한다(185). 작가의 상상력과 서술이 효과적으로 몸을 “자연화”함으로써, 체내에 있는 물질인 양

수와 외부 환경에 있는 물질의 연계가 발생한다. 인간의 몸과 자연의 동일한 속성을 포착한 그녀의 통찰력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과 자연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그녀가 예시로 든 “강”과 “빗물”은 인간의 주거지를 둘러싼 식수와 공기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하며, “오렌지 주스”, “우유”, “꿀”, “시금치”, “사과”, “달걀”은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 임신한 여성의 몸에서 출발한 그녀의 글쓰기는 이제 임신부와 아기의 건강을 염려하는 범위를 벗어나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독성 물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낸다.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몸도 오염된다.

현대 사회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은 인간 생활 어디에나 만연해있기 때문에 (Murphy 2017, 163), 안전한 소비를 지향하는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독성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테인그래버는 몇 가지의 선택의 예시를 통해서 안전한 소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식수의 선택이다. 임신기간 동안 그녀는 살충제 성분으로 인해 오염된 거주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섭취하는 대신 생수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이는 단지 덜 오염된 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수를 섭취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안도감”은 단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다(100). 수도물에 함유된 오염 물질은 섭취하는 것 이외에도 호흡을 통해서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외부 활동 중에는 더 오염된 식수의 섭취를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음식 소비의 선택이다. 스테인그래버가 강의를 위해 방문했던 알래스카는 청정한 지역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북반구에서 난분해성 유기 오염물이 모이는 “최종 저장소”가 된다(137). 알래스카의 식당에서 그녀가 마주한 음식 선택지는 그 지역에서 잡은 신선한 연어 - 아마도 고농축의 오염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 와 통조림 토마토소스가 뿌려진 스파게티였다. 다른 지역에서 온 대체 식품이 풍부하지 않은 알래스카에서 제한된 선택지를 마주한 그녀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가 오염된다면 그 어떤 것도 지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곳 이외의 다른 세계는 없다”라고

단호히 말한다(147).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방식을 묘사하는 스테인그래버의 “제유법의 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갖는 결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Murphy 2017, 165). 머피는 임신부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는 “기껏해야 여성들을 제한적인 선택을 하는 위치에 놓고, 최악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상정한다고 말한다(166). 아기를 보호할 책임을 어머니들의 선택에 맡기는 현실에서 애초에 안전한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오염 물질이 만연한 자연과 인간이 상호 간에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미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스테인그래버는 오염된 환경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환경 윤리를 제시하면서, 그녀 자신은 “회고록”이라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Mitra 47).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동”(actions)을 촉구하는 스테인그래버의 환경 윤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구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전 지구적인 보편적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돌봄과 환경 윤리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환경 문제로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돌봄 윤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윤리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앨리슨(Elizabeth Allison)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의 돌봄 윤리에서 그들 사회에 내재된 기본적인 가정들을 끌어낸다. 그들은 비인간 자연물의 존재가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인간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 사회에서는 “관계를 강조한다: 페미니스트 돌봄 윤리처럼, 이러한 공동체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첫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다음으로는 그들의 주변 환경으로 확장해 나간다.” (Allison 157) 이 예시에서도 역시 인간과 비인간 자연에서의 경계는 돌봄이라는 영역 안에서 허물어진다. 주변 환경으로 확장되는 돌봄 관계는 결국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자연에 대한 돌봄이 결국 인간에 대한 돌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5. 나가며

스테인그래버는 모성에서 출발하는 돌봄 윤리를 개인적/공적, 인간/환경을 구분 짓는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확장시켜 나간다. 모성에 관한 어머니들의 목소리는 가부장제도가 전유하던 제도적 모성을 해체하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모성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러딕은 모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평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윤리로 확장시키고자 사유(thinking)했다. 모성 윤리는 아이의 돌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어머니들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모성 연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어머니들의 활동에서 모성 윤리의 확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지, 특별히 어머니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를 먹이고 지키고 간호할 때 요구되는 자신의 사랑만큼 세계를 보호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사실을 어머니가 증언한다면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러딕 148)

러딕의 확언처럼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에 대해 물론 누군가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외면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것에서부터 치명적으로 유해한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생명체는 없다는 점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당면한 과제이다. 이를 환경에 그 누구보다도 취약한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머니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봄 책임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모성은 그 책임의 크기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모성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 유독 물질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려는 어머니 주체의 말하기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다. “자신의 생명을 자녀의 생명 및 지구의 생명과 연결시키는”(반다나 시바 30) 어머니들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 결국 인간의 환경을 지키는 일임을 자각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스테인그래버 역시 어머니로서 아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과학

자로서 독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작가로서 회고록을 통해 환경을 돌보아야 한다는 환경 윤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는 것이 그 모든 책임을 개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돌봄 이론이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지구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 집단 간의 연대를 통해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환경을 위한 돌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이 실천되어야 하는지는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인류가 이러한 돌봄 윤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경, 「여성주의 윤리 시각에서 본 여성의 모성」, 『여성학논집』 제25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81~116면.
- 김영아, 「돌봄 위기와 모성 윤리의 가능성」, 『안과 밖: 영미문화연구』 제54권, 영미문학연구회, 2023, 152~183면.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지음,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0.
- 사라 러디 지음, 이해정 옮김,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Alaimo, Stacy,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Bloomington: Indiana UP, 2010.
- Allison, Elizabeth, "Toward a Feminist Care Ethics for Climate Change,"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33.2, 2017, pp.152-158.
- Bryson, Michael A., "Science and Autobiography in Sandra Steingraber's 'Living Downstream'," *Women's Studies Quarterly* 29-1/2, 2001, pp.170-182.
- Fisher, Berenice·Joan Tronto,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ed. E. K. Abel and M. Nelson, Albany: SUNY Press, 1990, pp.35-62.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1995.
- Freedman, Diane P., "Maternal Memoir as Eco-memoir,"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15.2, 2008, pp.47-58.
- Held, Virginia,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Oxford: Oxford UP, 2006.
- Hutner, Heidi, "The Birth of an Eco-Mom: Cancer, Feminism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the Motherhood Initiative* 2.1, 2011, pp.37-51.
- Kroll-Smith, Steve·Lancaster, Worth, "Bodies, Environments, and a New Style of Reasoning,"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4, 2002, pp.203-212.
- Ma, Lina, "Dwelling and Growing in Toxin: Trans-coporeality and Its Ethics in Sandra Steingraber's *Having Faith*,"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7.2, 2023, pp.175-199.

- Mitra, Maureen Nandini, "Conversation: Sandra Steingraber," *Earth Island Journal* 27.4, 2013, pp.46-47.
- Morton, Timothy, *Ecology Without Nature: Rethinking Environmental Aesthe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Murphy, Mollie K., "The Limitations of (Privileged) Maternal Appeals: Sandra Steingraber's Constructions of Mothering in a Toxic Environment," *Refiguring Motherhood Beyond Biology*, edited by Valerie Renegar and Kirsti Cole, E-book, Routledge, 2023, pp.108-119.
- Murphy, Mollie K., "What's in the World Is in the Womb: Converging Environmental and Reproductive Justice through Synecdoche,"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40.2, 2017, pp.155-171.

| Abstract |

The Ethics of Motherhood and the Possibility for the Universal Care

Kim, Juwon · Kang, Euihuack

This paper analyses Sandra Steingraber's *Having Faith: An Ecologist's Journey to Motherhood* by mobilizing two key words: motherhood and care. Traditional discourses surrounding motherhood and care have constantly played crucial role in defining femininity as confined within the private arena. Especially discourses on women's bodily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delivery, and nurturing have been maintaining and perpetuating the asymmetrical power relations between man and woman, reason and emotion, and civilization and nature. This paper argues that Steingraber radically departs from these traditional discourses; instead, she re-interprets motherhood as the fundamental experience of the other, and care as the universal experience of the human beings' inter-dependency. In doing so, Steingraber opens up a possibility for a new thinking by deconstructing the dichotomy of (individual) body and nature.

Key Words: Motherhood, Care, Inter-dependency, Material-Memoir, Ecology

한국 성인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김란영·주승섭·엄윤정·류도향**

목 차

1. 서론	4. 고찰
2. 연구 방법	5. 결론
3. 연구 결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를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25-55세 성인 1,27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면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만 19세 이후 법적 부부 외의 가족 형태를 경험했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은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직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 등 8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이중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 ‘낙인 경험 없음’, 한 가지 이상 경험했을 경우 ‘낙인 경험 있음’으로 분류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과 나쁨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은 56.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만 19세 이후 가장 많이 경험한 가족 형태 세 가지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2022년 기본연구활동지원비(ARDD001Z-2022-000897)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김란영(제1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수료
주승섭(제2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수료
엄윤정(제3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과정
류도향(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1인 가구, 동거, 한부모 가족이었다. 가장 만연했던 낙인 경험은 ‘가족 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다’였다. 또한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을 경험한 참여자는 경험이 없는 참여자에 비해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를 1.47배(95% CI: 1.07-2.02) 더 보고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과 낙인을 제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주제어: 가족 형태, 정상가족, 차별, 가족 차별, 주관적 건강상태

1. 서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현상은 가족의 규모는 축소하고, 1인가구가 만연해지는 것이다(홍승아 외, 2017). 한국사회 역시 동거, 비혼, 비친족 가구, 비혼 출산, 자발적 한부모,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예컨대, 1인가구는 2021년 한국사회 전체 가구의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a).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인 비친족 가구는 47만 가구를 돌파했고, 2021년 한국사회 전체 가구의 2.2%를 구성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에 더불어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22년에 대한민국의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참여자의 65.2%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4.7%였다.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2b).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반드시 가족이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20). 실제 가족 현실과 괴리

된 채 가족을 협소하게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나 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 2007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했으나(법무부, 2007), 일부 보수 정치세력의 반대가 있자 차별금지 항목에서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삭제했다(통합입법예고센터, 2007). 해당 차별금지법 입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시민사회 및 여러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2023년 12월,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요원한 상태이다. 급변하는 현실에 비해 지체된 사회정책은 가족 형태나 상황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낙인(Stigma)을 사회에서 기대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으로 인해 거부당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Goffman, 2009). 낙인은 개인이 어떤 특성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그 차이에 꼬리표를 붙이고, 고정관념을 부여하고, 거부하는 사회적 통제와 차별의 형태로 작용하며(Link & Phelan, 2001), 구조적, 개인 간, 개인 내 수준에 존재한다(Hatzenbuehler, 2016). 낙인은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도 오명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명예 낙인(Courtesy stigma)”이라고 한다(Goffman, 2009).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로 이러한 낙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은 정신질환을 유발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치료 계획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근거 없이 정신질환이 전염된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Corrigan & Miller, 2004). 사람들은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까지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Goffman, 2009).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가족의 명예 낙인을 “가족 낙인(Family stigma)”이라고 한다(Larson & Corrigan, 2008; Park & Park, 2014). 가족 낙인은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나, 일반 사회의 규범과 현저하게 다른 특이한 가족 특성을 갖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Park & Park, 2014).

낙인의 문제는 특정 범주의 구성원이 특정 규범을 옹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깔려 있을 때 발생한다(Goffman, 2009). 이러한 낙인의 문제는 정상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할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정상가족이란, 초혼 부부와 생물학적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Canetto, 1996). 근대 산업사회에서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모델은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의 규범을 전제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가족으로 정식화되었다(기든스, 서튼, 2018; 벡-게른스하임, 2005). 이러한 가족 개념은 동거, 사실혼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소외시킨다.

가족에 대한 낙인의 경험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고한 한국사회에서도 만연하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한 공간에 거주하며 일정 기간 함께 생계활동을 해 온 동거인이더라도, 법률에서 제정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직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제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면회나 의료정보 제공, 의료 결정권이나 대리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사회건강연구소, 2019). 또한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도 박탈당한다(송효진 외, 2020). 이 밖에도 현재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제도적 낙인과 차별은 가족이라는 용어가 주요하게 언급되는 240여개의 법률 조항과 연관된 주거, 토지, 세금, 결혼, 출산, 양육, 상속, 재난안전, 보험, 사회보장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낙인은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Hatzenbuehler et al., 2013). 가족 형태나 구성원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 경험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 Park, 2014). 예컨대, 스페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 장애를 진단받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낙인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나쁜 정신건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었다(Trigueros et al., 2022). 또한 호주에서 부모가 동성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낙인을 경험했을 경우, 그 부모의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일반인구 집단의 아이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ouch et al., 2014).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했다(신자현 외, 2022).

기존 연구들은 가족 형태나 구성원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 경험이 주관적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다(Kim et al., 2016; Song et al., 2018; 김유균 외, 2015). 발달장애 또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128명의 부모 건강을 확인한 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부모는 높은 수준의 낙인을 경험했고 그 낙인의 정도가 높을수록 10년 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Song et al., 2018). 한국의 경우, 결혼 이민자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Kim et al., 2016; 김유균 외, 2015). 한국 한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한부모로서 경험한 차별이 주관적 건강상태 악화와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김지혜, 2019; 이해정 & 송다영, 2019).

그러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 행해진 바 없다. 또한 지금까지 이뤄진 가족 형태나 상황에 따른 낙인 연구들은 다양한 낙인 경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성인 이후로 경험한 가족 형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낙인 경험의 분포를 파악한 후, 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20년에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했다. 이 자료는 한국사회의 가족 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가족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집되었다. 한국 께럽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55세의 성인 여성과 남성 3,055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하였다.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제외했다.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만 경험한 참여자(N=901),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에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와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에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N=860), 교란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참여자(N=16).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1,278명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며,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1040198-220523-HR-057-01).

2) 연구 도구

① 독립변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가족 형태는 “다음 중 만 19세 이후 경험한 적이 있는 가족 형태를 모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으로 질문했고,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1인가구; 이성/동성파트너와의 비혼 동거;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공동체 가구’와 같은 답변을 중복으로 택할 수 있었다.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만 경험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형태를 경험한 적 있는 참여자들에게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에 대해 물었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은 “귀하의 가족 형태(1인가구/한부모/재혼/입양/동거/공동체 등)를 이유로, 직장생활이나 지역사회(이웃) 생활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이 제시됐다. (1) 가족 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다; (2) 모임 가입이나 참여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3) 육아나 간병에 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소외감이 들었다; (4)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5)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다; (6) 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한 적이 있다; (7)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한 적이 있다; (8) 직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8가지의 낙인 경험 중 한가지라도 경험했을 경우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있음’으로 분류하고,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

었을 경우 ‘없음’으로 분류했다. 또한 낙인 경험의 개수에 따라 0개, 1개, 2개, 3개 이상으로 분류했다.

②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특히 사망률을 예측하는 변수라고 알려져 있다(Idle & Benyamini, 1997).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라는 5점 척도로 답할 수 있었다. 응답의 1), 2)는 ‘나쁘다’로, 3), 4), 5)는 ‘좋다’로 분류되었다.

③ 교란변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근로형태, 월평균 소득이 교란변수로 통제되었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25-29세, 30-39세, 40-49세, 50-55세로 분류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구분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학생·가정주부·무직으로 분류했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599만원, 600-799만원, 8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경험한 한국 성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를 파악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는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교란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STATA/MP 16.0(StataCorp, College Station, TX)을 이용하여 수행했다.

3. 연구 결과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낙인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분포이다. 연구 참여자 1,278명 중 여성은 39.6%, 남성은 60.4%였다. 연구 참여자의 51.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40-49세가 3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이 60.6%로 가장 많았고, 근로 형태는 정규직이 62.8%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대체로 200-599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56.2%가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이 있었다. 낙인 경험은 여성(60.5%), 근로형태가 비정규직(70.2%), 월평균 소득이 0-19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경우(69.6%) 높게 보고되었다. 고졸 이하인 경우(27.3%), 무급 가족종사자일 경우(66.7%), 월평균소득이 0-199만원으로 낮은 경우(32.1%)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빴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N=1,278)

	분포 N (%)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N (%)	P-value ^a	낙인 경험 N (%)	P-value ^a
전체	1,278 (100.0)	219 (17.1)		718 (56.2)	
성별			0.422		0.012
여성	506 (39.6)	92 (18.2)		306 (60.5)	
남성	772 (60.4)	127 (16.5)		412 (53.4)	
거주지역			0.061		0.237
수도권	663 (51.9)	101 (15.2)		362 (54.6)	
비수도권	615 (48.1)	118 (19.2)		356 (57.9)	
나이			0.853		0.842
25-29	209 (16.4)	39 (18.7)		115 (55.0)	
30-39	401 (31.4)	64 (16.0)		226 (56.4)	

	분포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낙인 경험	
	N (%)	N (%)	P-value ^a	N (%)	P-value ^a
40-49	425 (33.3)	73 (17.2)		245 (57.7)	
50-55	243 (19.0)	43 (17.7)		132 (54.3)	
최종학력			<0.001		0.344
고졸 이하	150 (11.7)	41 (27.3)		81 (54.0)	
2-3년제 대학 재학· 중퇴·졸업	182 (14.2)	37 (20.3)		113 (62.1)	
4년제 대학 재학· 중퇴·졸업	775 (60.6)	128 (16.5)		432 (55.7)	
대학원 재학 이상	171 (13.4)	13 (7.6)		92 (53.8)	
근로형태			<0.001		0.001
정규직	803 (62.8)	108 (13.5)		429 (53.4)	
비정규직	104 (8.1)	34 (32.7)		73 (70.2)	
자영업	135 (10.6)	29 (21.5)		91 (67.4)	
무급가족종사자	3 (0.2)	2 (66.7)		2 (66.7)	
학생/가정주부/무직	233 (18.2)	46 (19.7)		123 (52.8)	
월평균 소득			<0.001		0.001
0-199	112 (8.8)	36 (32.1)		78 (69.6)	
200-399	406 (31.8)	88 (21.7)		230 (56.7)	
400-599	408 (31.9)	57 (14.0)		240 (58.8)	
600-799	196 (15.3)	25 (12.8)		89 (45.4)	
800이상	156 (12.2)	13 (8.3)		81 (51.9)	

^a 주요 변수에 따른 낙인 경험, 나쁜 주관적 건강 수준의 유병률을 비교한 카이제곱 검정의 p-value.

2)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족 형태와 그에 따른 낙인 경험 요인 분포

<표 2>는 연구 참여자들이 만 19세 이후 경험한 적 있는 가족 형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1인 가구, 동거, 한부모 가족, 공동체가구,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순으로 가족 형태를 경험했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이 만 19세 이후 경험한 적 있는 가족 형태 (중복응답) (N=1,278)

가족 형태	N (%)
1인 가구	979 (76.6)
이성/동성 파트너와의 동거	460 (36.0)
한부모 가족(예: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240 (18.8)
공동체 가구(예: 친구/지인과의 셰어하우스 거주 등)	153 (12.0)
재혼 가족	71 (5.6)
조손 가족(예: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30 (2.3)
다문화 가족(예: 법적 배우자가 외국인)	25 (2.0)

<표 3>은 연구 참여자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요인에 대한 분포이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718명 중, ‘가족 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67.3%였다.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다’던 참여자는 56.3%였다. ‘육아나 간병에 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소외감이 들었’던 참여자는 55.8%였고, ‘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한 적이 있’는 참여자는 52.5%였다.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참여자는 49.9%, ‘직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었던 참여자는 47.6%였다.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한 적이 있’거나 ‘모임 가입이나 참여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 참여자는 각각 47.2%, 36.2%였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요인 분포 (중복응답)

가족 상황에 따른 낙인을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 (N=718)	
낙인 경험 요인	N (%)
가족 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다	483 (67.3)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다	404 (56.3)
육아나 간병에 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소외감이 들었다	401 (55.8)
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한 적이 있다	377 (52.5)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358 (49.9)
직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	342 (47.6)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한 적이 있다	339 (47.2)
모임 가입이나 참여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260 (36.2)

3)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표 4>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같은 교란변수를 보정한 이후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에 비하여 낙인 경험이 있을 경우,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를 1.47배 더 많이 보고했다(95% CI: 1.07-2.02). 또한 낙인 경험 개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낙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참여자에 비해 낙인 경험 개수가 3개 이상인 참여자가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를 1.62배 더 많이 보고했다(95% CI: 1.13-2.30).

〈표 4〉 연구 참여자의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
(N=1,278)

낙인 경험	Total N (%)	빈도 N (%)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aOR ^a	(95% CI)
없음	560 (43.8)	75 (13.4)	1	reference
있음	718 (56.2)	114 (20.1)	1.47*	(1.07, 2.02)
낙인 경험 개수				
0	560 (43.8)	75 (13.4)	1	reference
1	167 (13.1)	28 (16.8)	1.18	(0.72, 1.94)
2	113 (8.8)	22 (19.5)	1.53	(0.88, 2.66)
3개 이상	438 (34.3)	94 (21.5)	1.62**	(1.13, 2.30)

*: $p < 0.05$, **: $p < 0.01$

^a성별, 지역,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소득수준을 통제함

4. 고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후 법적 부부 이외의 가족 형태를 경험한 한국 성인 1,278명 중 56.2%가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 경험의 개수는 1, 2개보다 3개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가 만 19세 이후 경험한 가족 형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 동거, 한부모 가족 형태였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을 경험한 718명의 연

구 참여자 중, 가장 높은 응답의 낙인 경험은 ‘가족 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었다(67.3%)’였다. 그 다음은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다(56.3%)’였다. 그 외에도 ‘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한 적이 있다’와 같이 주거권 박탈과 관련된 응답이 52.5%, ‘직장에 지원할 자격이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한 적이 있다’와 같이 노동권에서 제외되었다는 응답이 각 47.6%, 47.2%였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와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과 더불어,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언어폭력 피해 응답은 49.9%였다. 이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한국사회에서 연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가족 형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괄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이 없는 참여자에 비하여 낙인 경험이 있을 경우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부모 가족 같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낙인 경험과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확인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m et al., 2016; Song et al., 2018; 김유균 외, 2015; 김지혜, 2019; 이해정 & 송다영, 2019).

낙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낙인은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는 외부 사건(폭력, 피해)이자 내부 반응(거부 예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Hatzenbuehler et al., 2013; Link & Phelan, 2006). 낙인에 의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는 폭력을 당하거나, 주거와 노동과 같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상황에서 배제되거나, 관계를 거부당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낙인 찍힌 이들은 낙인을 내면화 하여 미래에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차별과 거부에 의해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을 은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Hatzenbuehler et al., 2013).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했을 때,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을 통해 코티솔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교감신경계 항진이 나타나고, 이러한 생리적 반응이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등 만성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

을 준다(Hatzenbuehler et al., 2013; McEwen, 1998). 또한, 차별 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 위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손인서 & 김승섭, 2015). 위 경로는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Chen & Yang, 2014).

낙인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이 완충 역할을 하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낙인은 건강상의 이점을 위한 기회와 자원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Hatzenbuehler et al., 2013; Link & Phelan, 2001, 2006). 사회경제적 지위는 질병 및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ink & Phelan, 1995). 지식, 돈, 권력, 명성, 사회적 연결과 같은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어서 위험을 피하기 쉽다(Link & Phelan, 1995). 그러나 낙인 찍힌 집단은 소득, 교육, 주거, 의료와 같은 삶의 기회와 보호요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ink & Phelan, 2001). 이는 잠재적으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Link & Phelan, 2006). 즉, 낙인은 위험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보호 요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건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Link & Phelan, 2006).

또한, 본 연구는 낙인 경험의 개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에서 용량-반응 관계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낙인 경험의 개수가 1개보다 2개일 경우, 2개일 경우보다 3개 이상일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효과 크기가 컸다. 또한, 낙인 경험의 개수가 1개나 2개일 경우보다 3개일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라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함께 발생할 경우, 그 요인들끼리 상호작용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낙인 경험의 개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에서, 낙인 경험 개수가 1개와 2개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낙인 경험 개수가 1개, 2개, 3개 이상인 경우의 효과 크기에 대한 신뢰구간이 겹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 낙인의 영향을 설명하는 탐색적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가족 낙인이 개인의 특성에 의해 부여된 낙인과 유사하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Park & Park, 2014). 가족 낙인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나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과 현저하게 다른 가족 특성을 갖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Park & Park, 2014). 이러한 가족 낙인은 혼인, 혈연, 입양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법 제3조 1항(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2020)을 유지하며 가족 관계를 한정하여 정의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건강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대한 낙인 경험이 한국 성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형태에 대한 낙인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으로써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가족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영국의 시빌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스웨덴 동거법(Sambo, samman boende), 독일의 생활동반자법(Lebenspartnerschaften)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78곳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5년 도쿄 시부유구의 파트너십 증명제도가 있다. 우리사회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주거 지원책에서 배제되어 주거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파악했다. 그렇기에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이전에 낙인을 경험하였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립할 수 없다. 이러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위 연관성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표본은 무작위로 수집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연구 결과를 한국 인구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상가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반대의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차 데이터는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만 경험한 응답자에게는 독립변수인 가족형태로 인한 낙인 경험을 질문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상가족으로 규정될 수 있는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람들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경험한 참여자를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본 연구는 본인을 넘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낙인 경험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는 가족과 관련된 명예 낙인, 즉 가족 낙인의 건강 결과의 탐색적 연구가 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이 만 19세 이후 경험한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두 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한 낙인 경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과 차별을 줄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런 개입과 대응은 단순히 가족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형태의 가족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 복지 모델을 다양한 가족구조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모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공적 과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낙인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가족구성권연구소,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19.
- 공선영·박건·정진주, 『의료현장에서의 보호자 개념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회건강연구소, 2019.
- 기든스, 앤서니·서튼, 필립,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옮김,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18(원서출판 2017).
- 김유균·손인서·김승섭,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21~452면.
- 김지혜, 「여성 한부모의 지역사회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9, 487~513면.
-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7.
- 백 게른스하임, 엘리자베트 지음,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2005(원서출판 2000).
- 손인서·김승섭,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제35권 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6~57면.
- 송효진·선보영·최진희·성경,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신자현·심재환·전하민,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제2권 4호, 63~90면.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건강가족기본법 총칙 제3조 제1항 ({2020. 5. 19.} 법률 제17280호로 개정된 것), 2020.
- 이혜정·송다영,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65권, 43~65면.
-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2021.
- 통계청a,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
- 통계청b,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2022.
- 통합입법예고센터, 차별금지법안(제178002호), 20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0.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옥·김수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Canetto, S. S., 「What is a normal family? Common assumptions and current evidenc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7(1), 1996, pp.31-46.
- Chen, D.·Yang, T. -C., 「The pathways from perceived discrimination to self-rated health: an investigation of the roles of distrust, social capital, and health behaviors」, 『Social Science & Medicine』 104, 2014, pp.64-73.
- Corrigan, P. W.·F. E. Miller, 「Shame, blame, and contamination: A review of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on family members」, 『Journal of Mental Health』 13(6), 2004, pp.537-548.
- Crouch, S. R.·Waters E., McNair R., Power J.·Davils E, 「Parent-reported measures of child health and wellbeing in same-sex parent families: a cross-sectional survey」, 『BMC Public Health』 14(1), 2014, p.635.
- Goffman, E.,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Simon and schuster』, (Original publication 1963).
- Hatzenbuehler, M. L, 「Structural stigma: Research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71(8), 2016, pp.742-751.
- Atzenbuehler, M. L., Phelan, J. C., & Link, B. G, 「Stigma as a fundamental cause of population health inequa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5), 2013, pp.813-821.
- Idler, E.L.·Benyamini, Y.,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 review of twenty-seven community stud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1), pp.21-37, 1997.
- Kim, Y.·Son, I.·Wie, D.·Muntaner, C.·Kim, H.·Kim, S. -S., 「Don't ask for fair treatment? A gender analysis of ethnic discrimination, response to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5(1), 2016, pp.1-9.
- Larson, J. E.·Corrigan, P., 「The stigma of families with mental illness」, 『Academic Psychiatry』 32(2), 2008, pp.87-91.
- Link, B. G.·Phelan, J.,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disea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 pp.80-94.
- Link, B. G.·Phelan, J. C.,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 27(1), 2001, pp.363-385.
- _____, 「Stigma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 『The Lancet』 367(9509), 2006, pp.528-529.
- McEwen, B. S., 『Stress, adaptation, and disease: Allostasis and allostatic loa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40(1), 1998, pp.33-44.
- Park, S.·Park, K. S., 「Family Stigma: A Concept Analysis」, 『Asian Nursing Research』 8(3), 2014, pp.165-171.
- Song, J.·M. R. Mailick.·Greenberg, J. S., 「Health of parent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or mental health problems: Impacts of stigma」, 『Social Science & Medicine』 217, 2018, pp.152-158.
- Trigueros, R.·Navarro, N.·Mercader, I.·Aguiliar-Parra, J.·Lopez-Liria, R.·Rocamora-Pérez, P., 「Self-Stigma, Mental Health and Healthy Habits in Parent of Children with Severe Mental Disorder」,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5, 2022, pp.227-235.

|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Family Stigma and Self-rated Health among South Korean Adults

Kim, Ranyeong · Choo, Sungsub · Eom, Yun-Jung · Ryu, Dohyang

This study assessed the distribution of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and examine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adults aged 25-55 in South Korea. After age 19, they experienced family structures other than legally married couples. Also,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tigma experiences based on family structure and self-rated health. We analyzed a nationwide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of 1,278 Korean adults. Stigma experience based on family structure was measured with 8 items, such as 'I heard disparaging or bad about my family,' and 'I was qualified to apply for a job, but I gave up.' If the participants never experienced stigma, they were classified as 'never experienced,' and if they experienced more than one type of stigma, they were classified as 'experienced.' Self-rated health is classified as 'good' and 'poor'.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and self-rated health. As a result of this study, 56.2% experienced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Participants' three most common family structures after age 19 were single-person households, cohabitation, and single-parent families. Among the types of stigma experiences, the most prevalent type of stigma was 'I tend to be careful not to hide or reveal the family situation.'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were 1.47 times (95% Confidence Intervals: 1.07-2.02) more likely to have poor self-rated health than those who never experienced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Considering the results,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reduce stigma based on family structure and remove family stigma.

Key Words: Family stigma, Family structure, Social norms, Self-rated health, South Korea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한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을 중심으로 —

김나경·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정종민**

목 차

1. 머리말	3.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2. 포토보이스 연구: <사진으로 말해요> 활동	경험과 의미
	4. 논의 및 시사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고려인 아동의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장소, 관계, 활동 등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 6명을 중심으로 <사진으로 말해요> 활동을 통해 각자가 선호하는 장소, 사람, 활동 및 물건 등을 담은 사진을 찍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고려인 아동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생활은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의 특별함’, ‘나만의 장소, 나만의 활동’, ‘목표를 향해 도전’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학교생활은 ‘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친구와 선생님과의 소통’, ‘학교 가기 좋은 날’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지역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3-1266-01)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김나경(제1저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임연구원

김경학(교신저자),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강영신(공동저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수정(공동저자),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선봉규(공동저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종민(공동저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사회 생활은 ‘즐거움이 가득한 동네’, ‘웃음이 피어나는 정다운 만남’, ‘새롭고 신기한 체험’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고려인 아동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안녕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소통 방식과 상호 교류를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아동의 교육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려인 아동, 일상생활, 포토보이스, 경험과 의미

1. 서론

아동¹⁾의 일상생활은 안정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나타나며,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의미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들의 주체성과 사회적 구조의 영향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틀이 될 수 있다.³⁾

Bronfenbrenner & Morris(2007)의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
- 1)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의 개인’으로서 아동을 정의하였다. 이는 출신국, 체류자격 등을 넘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 2) Guo, K., & Dalli, C., “Belonging as a force of agency: An exploration of immigrant children’s everyday life in early childhood settings,” *Global Studies of Childhood*, 6(3), 2016, 254-267; Sekaran, V. C., Bailey, A., Kamath, V. G., Ashok, L., & Kamath, A., ““This is the place where I can be alone, no tension:” Photovoice evidence for adolescent perceptions of their microsyste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2020, 102021.
 - 3) 강선경·최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2021, 313-345면; 김상우,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문화와 사회』 1(1), 2006, 91-122면; 장원순, 「사회문화교육방법으로서의 ‘일상생활 분석」, 『사회과 교육』 43(4), 2004, 167-187면.

이 속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발달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⁴⁾ 일상생활 내에서 이러한 근접작용(proximal process)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할 때 아동은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능력을 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⁵⁾ 아동의 일상생활이 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에 걸쳐 나타남을 고려할 때,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안정된 근접작용은 아동의 안녕감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점에서 아동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고려인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과는 다른 일상생활을 경험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인 아동은 거주국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동시에 출신국의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사회적응 과정이 일반아동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언어적 제약 및 문화적 차이, 제도적 차이 등은 이들의 사회적응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⁷⁾ 그러므로 고려인 아동의 사회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에 걸쳐 이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기준, 국내 거주 고려인⁸⁾은 111,4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4)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 2007.

5) Merçon Vargas, E. A., Lima, R. F. F., Rosa, E. M., & Tudge, J., "Processing proximal processes: What Bronfenbrenner meant, what he didn't mean, and what he should have meant,"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2020, 321-334.

6) 이미라,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과 정서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2009, 41-57면; 이영아·김지연, 「공공공간에서 노숙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2016, 17-29면; 최혜선·한세영,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탐색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2020, 79-98면.

7) 홍정만·장은영,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 양상: 충남 A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4), 2022, 111-138면.

8) 고려인은 러시아어로 '카레이스키'라고 하며, 주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한

있다.⁹⁾ 고려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근거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정의되며, 체류자격 특성상 가족 재결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을 초청하거나 함께 거주할 수 있다.¹⁰⁾ 더욱이 2019년 7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주 역사가 길었던 고려인 후손인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가족과 헤어져 출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려인 아동에 관한 성장발달과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려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인 가정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동법 제10조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고려인 아동은 출신국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 입국 아동’의 지위를 갖는다. 중도 입국 아동은 문화적 차이, 언어적 제약, 가족의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인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1990년 초반부터 한국으로의 귀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안산, 경기, 김해, 그리고 광주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임채완·선봉규·박경환·전형권·이장섭·허성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 서울: 북코리아, 20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3.09.)에 따라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비자 소지자를 중심으로 111,470명이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0,706명, 러시아 34,220명, 카자흐스탄 19,614명, 키르기즈스탄 3,732명, 우크라이나 3,500명, 타지키스탄 461명, 투르크메니스탄 448명 등의 순이다. 그 외 체류자격 및 기타 국가는 포함하지 않아 이보다 더 많은 고려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 10) 김나경·선봉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 2018, 23-65면.
- 11) 강성식,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동포 범위 변경」, 『재외동포신문』 2019.7.19.일자.
- 12) 남부현·김지나,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5(1), 2017, 63-90면; 이남주·김민,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2017, 141-170면; 전경숙,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연구논총』 19(1), 2017,

이 연구들은 고려인 아동이 부모의 동반 자녀임과 동시에 중도 입국 아동이며, 다문화 학생임과 동시에 외국국적동포라는 신분의 중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됨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려인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제도적 한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적응 과정 및 주체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³⁾ 이는 고려인 아동이 갖는 중층성과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의 한계와도 관련될 수 있는데, 기존 고려인 아동을 비롯해 재외동포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민족이라는 혈연적·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관점, 거주국의 소수자로 범주화하는 소수자 패러다임, 아동의 적응 및 성장발달을 부모 집단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가족주의적 관점 등이었다.¹⁴⁾ 이러한 관점들은 고려인 아동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능동적·전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간과하게 한다.

고려인 아동은 가정, 학교생활을 넘어 고려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함으로써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시도해나가기도 하며, 방문 또는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출신국과 조국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¹⁵⁾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해가고 있기도 하다.¹⁶⁾ 이처럼 고려인 아동은 가정·학교·지역사회, 그리고 더

441-473면; 조은희·오성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3(5), 2017, 449-516면; 최경란·홍지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2018, 347-374면.

- 13) 권혜진, 「한국 거주 고려인 아동의 디아스포라 장소 경험과 의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2022, 101-119면; 정종민·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김나경, 「팬데믹 상황에서 광주 이주배경 고려인 아동의 정동적 연결성」, 『다문화와 평화』 16(2), 2022, 56-79면.
- 14) 이상자·최서리, 「국내 외국적 아동정책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안: 이분법적 담론과 부모 지위 종속의 한계」, 『현대사회와다문화』 11(3), 2021, 1-37면;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안·정호원·성일광,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15) 김경학,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조국적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24(2), 2018, 61-103면.
- 16) 권혜진, 「고려인 아동의 공간 획득과 장소성 탐색」, 『인문사회21』 14(3), 2023, 17-28면.

나아가 출신국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방식과 전략으로 유연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¹⁷⁾ 그러므로 고려인 아동의 적응 과정을 하나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일상생활의 한 측면만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적이다.¹⁸⁾ 또한, 일상생활 내에서 나타나는 장소, 관계, 활동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지를 상호교차하여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¹⁹⁾

한편,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려인 아동의 시각에서 이들의 표현방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이 유효하다.²⁰⁾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반 참여

17) Orellana, M. F., "The work kids do: Mexic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 childr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s and schools in California," *Harvard educational review*, 71(3), 2001, 366-390.

18) 이현·곽주연(2019)은 기존 연구들이 다문화 아동을 주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하며, 비주류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이지연·그레이스 정(2019)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한 결과, '긍정(optimal) 적응' 유형, '중간 취약(moderately vulnerable) 적응' 유형, '잠재적 유연적응(pseudo resilient)' 유형 등 3가지 적응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긍정 적응 유형'이 연구대상의 6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이 다양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현·곽주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과 성장: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2019, 151-177면; 이지연·그레이스 정,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유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2019, 85-114면.

19) Koller, D., & Farley, M., "Examining elements of children's place attachment," *Children's Geographies*, 17(4), 2019, 491-500; Lögdberg, U., Nilsson, B., & Kostenius, C., "Young migrants' experiences and conditions for health: A photovoice study," *SAGE Open*, 10(2), 2020, 2158244020920665; Marcu, S., "Emotions on the move: belonging, sense of place and feelings identities among young Romanian immigrants in Spai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2012, 207-223; Roman, M., Roşca, V. I., Cimpoeru, S., Prada, E. M., & Manafi, I.,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Youth Migration Narratives in a Photovoice. *Societies*, 13(9), 2023, 198.

20) Butschi, C., & Hedderich, I., "How to involve young children in a photovoice project. Experiences and results," In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22(1), 2021, January;

형 연구 방법론(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인 포토보이스는 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당사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photo)을 통해 자신의 시각과 입장을 표현하고, 평소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목소리(voice)를 낼 수 있게 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²¹⁾ 또한, 연구 참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이자 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기 옹호를 돕기 위한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정책결정자들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²²⁾ 이를 통해, 연구와 실천의 틈을 줄이고, 취약계층 당사자를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역사회에 중요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 보건학, 교육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³⁾

최근에는 이주 연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⁴⁾ 이 연구들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관점과

Goodman, A., Snyder, M., & Wilson, K., "Exploring Indigenous youth perspectives of mobi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A Photovoice approach," *The Canadian Geographer*, 62(3), 2018, 314-325.

- 21) Wang, C., & Burris, M. A.,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1997, 369-387.
- 22) Latz, A. O.,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exhibition*. Taylor & Francis, 2017.
- 23) 송아영,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의 사회복지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54, 2017, 411-452면; 유승현,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구방법 및 전략으로서의 포토보이스」,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1), 2015, 77-87면; 허원빈·정하은,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보건사회연구』 39(4), 2019, 320-355면.
- 24) 김묘경·하진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일상적 삶과 미래의 바람에 관한 포토보이스」, 『한국이민학』 10(1), 2023, 47-73면; 박은혜·심혜선·마덕마,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3(2), 2018, 283-313면; 이현·곽주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과 성장: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2019, 151-177면; 김경오·한준영, 「Exploring Physical Activity Promotion Plan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a Socio-ecological Model: A Mixed Method Inquiry」,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적응 또는 통합의 현황과 어려움을 밝혔다. 이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출신국, 연령, 체류자격, 거주 기간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 및 해석의 차이가 있는 점, 분석 결과가 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 가정, 학교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점, 전시회 또는 설명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로의 소통과 환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를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에 걸쳐 총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차원별 장소, 관계, 활동 등의 맥락이 어떻게 교차하며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포토보이스 연구: 〈사진으로 말해요〉 활동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아동으로 총 6명이다.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배후지인 월곡동, 산정동 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고려인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고려인을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고려인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지역으로의 고려인 유입이 급증하였으며, 집거지가 형성됨에 따라 ‘고려인마을’로 불리기 시작하였다.²⁵⁾ 2022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3,684명이다.²⁶⁾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2023)에 따르면, 고려인아동 중 초등학생은 452명, 중학생은

구』 19(11), 2019, 715-743면.; Yi, J. H., Kim, K. H., & Ra, M. Y., “Lived Experiences and Visual Expressions from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during their Early Adjustment: Using the Photovoice Methodology,” 한국아동복지학, (45), 2014, 103-130.
2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엔터, 2019.
2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172명, 고등학생은 88명으로 초등학생이 월등히 많다.²⁷⁾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참여자의 출신국, 가족구성원,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생활 중에서 고려인 아동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접점과 이에 따른 적응 양상의 차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G 교회와 G 교회 산하 고려인 지원센터²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나이	학년	출신국	거주기간	가족
A	여	11살	5학년	카자흐스탄	1년	부모님, 여동생
B	남	11살	5학년	러시아	5년	부모님, 누나
C	여	11살	5학년	우즈베키스탄	8년	부모님, 남동생
D	여	10살	4학년	우즈베키스탄	9년	부모님, 남동생, 조부모, 이모
E	남	12살	5학년	키르기스스탄	6년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 할머니
F	여	11살	5학년	우즈베키스탄	5년	부모님, 오빠, 남동생, 할머니, 고양이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 및 광주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자 A>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광주에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광주에 있는 집과 공원이며, 그 이유는 가족이 있어서, 친구들과 노는

27)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s://www.gen.go.kr/opengen/edu_stat/ (검색일: 2024. 01. 17).

28) 이 지원센터는 주로 월곡동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 아동을 위한 한국어 수업, 심리상담, 스포츠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것이 좋아서이다.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손으로 직접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참여자 B>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6살 때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광주에서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으며, 주로 친구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교회에서 고려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광주에서의 생활이 재밌다고 느낀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커서는 광주가 아닌 일자리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 한다. <참여자 C>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다.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장래 희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누나로서는 남동생을 잘 돌보며, 남동생이 한국어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참여자 D>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1살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가족은 부모님, 남동생, 할머니, 이모이며, 가족과 대화할 때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어도 잘 구사한다.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함을 느끼며, 이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애착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E>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12살이어서 본래는 6학년이어야 하지만, 1년이 유예되어 5학년이다. 고려인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이로 인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교회이다. 이곳은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집은 자신의 방이 없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를 희망한다. 취미는 복싱과 바이올린 연주이며, 장래 희망은 복싱선수이다. <참여자 F>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다. 광주에서 부모님, 쌍둥이 오빠, 남동생, 할머니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고양이를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에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여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림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2) 연구절차

①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활동은 참여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진으로 말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으며,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여자 모두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고, 프로그램에 관한 목적과 내용, 참여 방법 및 보상 안내, 사진 촬영에 관한 주제, 연구 윤리 부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진 촬영에 관한 주제는 연구참여자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장소, 사람, 활동 및 사물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사진의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활동에 관한 주제 논의, 공지사항 및 진행 여부 확인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소통방을 개설하였다.

② 집단 및 개별 면담

<사진으로 말해요> 프로그램은 격주 토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참여자가 선정한 사진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한 집단면담이 이루어졌다. 집단면담에서는 PHOTO 질문법(Hussey, 2006)²⁹⁾에 맞춰 참여자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등 접점을 찾았고, 공감하는 등의 소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경험과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갔다.³⁰⁾

29) 'PHOTO' 질문법은 포토보이스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토론허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사진에 대한 시각적 요소에 대한 설명(Picture), 사진에 묘사된 활동, 사건 또는 상황(Happening), 사진을 찍은 이유(Of), 사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Tell), 사진을 통한 사회적 의미와 토론의 기회(Opportunities) 등을 파악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Hussey, W., "Slivers of the journey: the use of Photovoice and storytelling to examine female to male transsexuals' experience of health care access,"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2006, 129-158; Stroud, M. W., "Photovoice as a pedagogical tool: Student engagement in undergraduate introductory chemistry for nonscience majors,"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2014, 43(5), 98-107.

집단면담이 주로 사진을 통해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면, 참여자들의 이러한 일상생활 경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일상생활 경험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은 주로 개인적 특성인 가족 구성원, 장래희망,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의 느낌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 전 회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면담하였다.

③ 작품전시 및 발표회

포토보이스 활동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으로 말해요> 프로그램은 5회 활동이 마무리된 후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5일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G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1부 사진 전시회는 참여자 6명이 제출한 사진 중 10장씩 선정하여 총 60장의 사진을 전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이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2부 작품발표회는 참여자들의 사진에 관한 생각과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주민 및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의 참석자들은 참여자들의 가족, 교회 및 센터 관계자, 고려인 친구 등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NGO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고려인 아동의 교육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결정자인 광산구청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참하였다.

④ 자료분석

<사진으로 말해요> 총 5회의 활동을 통해 사진 157장과 녹음파일 5개, 영상파일 5개, 녹취록 121장을 수집하였으며, Braun &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6단계에 따라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였다.³¹⁾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30) Butschi & Hedderich(2021), *op. cit.*

사진, 녹음파일, 전사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함으로써 자료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에서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패턴, 중요한 단어, 의미 등을 파악하고 코딩을 체계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들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잠재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4단계는 주제 간의 상호관계와 주제 내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5단계는 상위주제와 하위주제를 최종 선정하여 범주화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이름을 붙였다. 상위주제는 고려인 아동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역인 가정·학교·지역사회로 구분하였으며, 하위주제는 영역별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장소·관계·활동 및 사물로 세분화하였다. 6단계는 상위주제와 하위주제에 맞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와 사진을 선정하고 분석내용을 작성하였다. 도출된 주제에 따른 연구분석틀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분석틀

구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의미
장소	나만의 장소, 나만의 활동	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즐거움이 가득한 동네	장소감 형성
관계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의 특별함	친구와 선생님과의 소통	웃음이 피어나는 정다운 만남	다양한 소통방식과 상호 교류
활동/ 사물	목표를 향해 도전	학교 가기 좋은 날	새롭고 신기한 체험	교육자원 획득

⑤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Padgett(2008)이 제시한 방법 중 장기간의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 다원화 전략(triangulation),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peer support group), 연구참여자를 통한 검토(member

31)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006, 3(2), 77-101.

checking)를 활용하였다.³²⁾ 첫째, 본 연구팀의 연구자들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2022년 11월 전부터 참여자들과 교류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자료를 다원화하기 위하여 사진, 집단 및 개별 면담에 관한 녹음파일을 비롯해 전시회 자료집 및 영상자료, 현장 노트, 연구참여자들의 필기 노트, 온라인대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팀은 다년간 고려인 및 이주 아동 관련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인류학·심리학·정치학·지리학·국제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동료집단의 전문성을 통해 융복합적 논의를 하였으며, 조언과 지지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마지막 회기 및 전시회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 및 결과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연구윤리

본 연구는 아동을 연구참여자로 진행하므로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1040198-220831-HR-109-02)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참여자 모집 및 연구수행은 G 교회 산하 고려인 아동 지원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기관 관계자에게 연구 절차 및 연구 윤리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모집된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구목적, 절차, 보상,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 보호, 예상되는 위험, 중도 참여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문 및 동의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

1) 가정생활

고려인 아동의 가정생활은 고려인 아동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구체적

32) Padgett, D. K.,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 2008, (1998).

인 활동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내 방’, ‘화장실’이라는 집 안에서의 특정한 장소를 비롯해, ‘엄마’, ‘동생’, ‘할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가족여행’, ‘여가활동’, ‘취미활동’, ‘생일파티’, ‘새해 맞이’ 등 활동에 관한 사진을 선정하고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의 특별함’, ‘나만의 장소, 나만의 활동’, ‘목표를 향해 도전’ 등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의 특별함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경험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동네 산책하기, 집 근처 포토샵에서 스티커사진 찍기, 엄마와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여수, 대전 등 다른 지역 또는 바닷가, 공원, 아쿠아리움 등 여러 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여행까지 다양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가족과 함께했으므로 참여자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재미없어서 갔어요. 저는 바나나, 엄마, 아빠는 그냥 찍었어요. 동생은 수퍼 히어로, 여동생은 머리띠 했어요. 재밌었어요.... (중략) 냉장고에 붙여놔요. 좋은 생각 나요. 또 가고 싶어요<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크리스마스, 새해, 생일파티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준비하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참여자 C>는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새해맞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주리는 지역의 집에서도 새해맞이 행사를 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화적인 활동이 가정생활에서 영위됨으로써 이들이 지켜야 하는 특별한 가족 행사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우리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해가 엄청난 축제예요.... (중략) 우리도 가족들이랑 모여서 새해를 재미있게 보냈어요. 불꽃놀이도 하고, 소원을 빌고 너무 즐거웠어요. 어린이 샴페인도 샀어요. 선물도 받았어요<참여자 C>.”

아울러, 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아빠, 엄마, 누나, 남동생, 여동생을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도 포함되며,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경험을 통해 참여자가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미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참여자 C>의 이야기를 통해 동생을 대하는 마음과 누나로서의 동생 돌봄의 역할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를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참여자들의 가족관계에 있어 할머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매우 긍정적이었다. 할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출신국 또는 캐나다와 같이 제3국의 이모가 사는 곳으로 곧 떠나 는 할머니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우리 러시아어로 대화해요. (한국어) 다 알아들어요. 수학, 한국어 동생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갔을 때 한국어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참여자 C>.”

“할머니 가시기 마지막 날. 식당에 가고, 놀고.... 3년 만에 할머니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참여자 E>.”

참여자는 가족과 함께한 활동, 각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넘어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집을 인식할 때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집, 특정한 활동을 통한 가족관계를 넘어 ‘가족이 함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집이 있는 이곳인 ‘광주’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성

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엄마, 아빠 광주 사는 거 좋아해요. 이모도 좋아해요.... (중략) 여기 할머니랑 이모 집, 그리고 할아버지 집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할머니랑 이모가 우리 집에 많이 와요. 저랑 동생이랑 놀아요<참여자 D>.”

한편, 참여자들은 출신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친인척과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를 넘어 출신국의 가족관계까지 확장되는 초국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고려인 아동이 거주국뿐만 아니라 출신국에도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할머니 집에 갔어요. 1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동생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중략) 만반이에요.... 한국에서 친구들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친척들 있어서 좋아요<참여자 A>.”



[사진 1] 스티커사진
〈참여자 E〉의 사진



[사진 2] 내동생
〈참여자 C〉의 사진



[사진 3] 카자흐스탄
할머니·할아버지 집
〈참여자 A〉의 사진

② 나만의 장소, 나만의 활동

참여자들은 집 안에서도 ‘내 방’, ‘화장실’, ‘주방’ 등 구체적인 장소에서 만지기, 그리기, 요리하기, 동생과 술래잡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중에서 참여자들은 자기가 오롯이 주인일 수 있으며,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장소인 ‘내 방’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곳의 분위기, 느낌,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참여자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사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선물 줬어요. 좋아요. 혼자 방 써요. 동생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요. 오빠는 할머니.... <참여자 F>.”

<참여자 F>의 사진을 통해 ‘나만의 장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진 속에는 새로 산 책상, 선물 받은 꽃 화분, 반려묘 ‘말스크’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 F>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 새 책상, 꽃 화분 등 나만을 위한 장소로 꾸몄다는 점,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자신을 기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 F>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참여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고려인 아동에게 있어 나만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나만의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의미와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여자 E>를 보면, 생일선물로 받은 사탕 꾸러미를 자신의 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일선물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자신의 방 서랍장에 보관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사탕을 생일에 받았어요. 많이 있고.... 너무 맛있는 사탕이 많이 있어요. 사탕을 제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일 큰 거 누텔라고 작은 거는 출파츄스에요.<참여자 E>.”



[사진 4] 내 방
<참여자 F>의 사진



[사진 5] 생일선물
<참여자 E>의 사진



[사진 6]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
<참여자 A>의 사진

<참여자 A>와 <참여자 C>는 만들기와 그림그리기 등을 자신의 방에서하기를 즐겼으며 완성된 작품을 공유하였다. 특히 <참여자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팔찌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집에서 시간이 날 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했다.

③ 목표를 향해 도전

참여자들은 취미활동이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앞서 참여자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며,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을 시도한다. <참여자 C>는 체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으며, 아직 자신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여 꼭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였다.

“저는 작년 6월부터 체조에 다니게 됐어요. 아직은 다리찢기를 못 하지만, 그런데 체조 다리를 잘해요. 너무 잘해서 다리와 많이 관련이 있는 요소를 해요. 이제 2023년이 됐어요. 올해는 꼭 다리찢기를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C>.”

<참여자 A>는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를 더 잘하기 위해 댄스학원에 다니며 배우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점점 더 어려운 동작을 배워야 해서 힘이 들지만, 그만큼 자신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댄스학원 로고예요. 롯데마트 옆에 있어요. 학원에서 찍었어요. 버스로 친구들 3명과 같이 가요. 지금 블랙핑크 배워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저는 댄스 좋아하니까.... 너무 기뻐요<참여자 A>.”

음악을 좋아하는 <참여자 E>는 6년 전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연주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참여자 E>는 자신이 공연에서 무슨 곡으로 연주를 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 했으며, 자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바이올린 6년, 6년 배웠어요. 공연도 했어요. 그때 <참여자 F>가 사진 보여준 거.... 캐리비안 해적,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사랑의 인사, 아리랑, 작은별.... <참여자 E>.”

한편, 참여자들은 자신의 취미활동이 장래 희망으로 연결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참여자 E>는 아빠가 운영하는 복싱학원에서 복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 희망도 복싱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참여자 C>는 장래 희망이 패션 디자이너이다. 가방과 같은 패션용품 등을 디자인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 희망과도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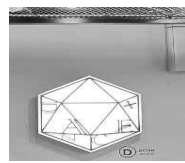
“나의 꿈은 패션 디자인이라서 그래서 제가 가방 디자인을 했어요<참여자 C>.”



[사진 7] 체조 동작
<참여자 C>의 사진



[사진 8] 내가 디자인한 가방
<참여자 C>의 사진



[사진 9] 댄스학원 로고
<참여자 A>의 사진

2) 학교생활

고려인 아동의 학교생활은 고려인 아동 자신과 학교 구성원 간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교실’, ‘화장실’, ‘운동장’, ‘꿀벌동산’ 이라는 학교 안에서의 특정한 장소를 비롯해, ‘담임선생님’, ‘고려인 친구’, ‘한국인 친구’ 등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와 ‘학교 가

는 길, ‘술래잡기’, ‘쓰레기 당번’, ‘좋아하는 과목’ 등 활동에 관한 사진을 선정하고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친구와 선생님과의 소통’, ‘학교 가기 좋은 날’ 등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참여자들은 학교라는 포괄적인 공간에서 경험하기보다는 운동장, 꿀벌동산, 교실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 및 사건 등을 통해 경험한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 꿀벌동산,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더 안정된 느낌이 드는 교실, 좋아하는 체육수업을 하는 운동장 등 참여자들은 저마다 학교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이를 향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누리는 것은 이들이 학교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주 체육할 때. 축구할 때예요. 조금 잘해요. 공격... (중략) 하늘이 예뻐어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막상 가면 괜찮아요. 체육, 음악 그리고 국어 좋아해요<참여자 E>.”

“교실에 아무도 없을 때 좀 무섭고 불편한 느낌이에요. 2학년 때 일찍 와서 교실에 저만 있어서 무서웠던 적 생각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을 때 교실이 더 넓은 것 같아요<참여자 F>.”



[사진 10] 학교운동장에서 바라본 하늘
〈참여자 E〉의 사진



[사진 11] 친구들과 있을 때 더 넓은 교실
〈참여자 F〉의 사진

한편, 참여자들은 정해진 틀과 평범함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놀이로 전환하며,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정해진 방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하여 시소를 타거나, 쓰레기를 버리라는 선생님의 심부름을 40분 동안 친구와 놀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쓰레기봉투에서 음악 CD를 찾는 등 독특한 경험으로 전환하는 참여자들의 경험은 단조롭게 느낄 수 있는 학교생활을 더욱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저와 이 친구는 몸무게가 같아서 어떨 때는 시소를 이렇게 타요. 옛날에는 처음 해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좀 더럽고 추우니까 우리 시소에 앉지 않고 발로 서서 탔어요<참여자 F>.”

“수업할 때 선생님이 저와 친구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40분 걸렸어요. 우리 쓰레기봉투에서 음악 CD를 찾았어요<참여자 E>.”



[사진 12] 다르게 시소타기
〈참여자 F〉의 사진



[사진 13] 쓰레기 버리기
〈참여자 E〉의 사진

② 친구와 선생님과 소통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고려인 친구, 한국인 친구 등과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라는 언어적인 방식의 소통을 넘어 표정과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방식의 소통을 추구하며,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교류하고자 한다. <참여자 F>와 <참여자 C>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인 아들은 선생님의 인자한 표정과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선생님의 태도,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등을 통해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소통이 참여자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착하고, 웃겨요. 얌전하게 차분하게 설명해주세요... 화날 때 진짜 화날 때는 무섭게...(저한테는) 이런 표정 안 했어요<참여자 F>.”

“맨날 혼내요. 몰라요. 그냥 나의 선생님 저 복도에 있어요. 그냥 아무말 안 해요. 그런데 이 반 선생님 ‘빨리 교실에 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표정이(인상 쓴 표정을 지으며)...<참여자 C>.”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은 같은 반 또는 같은 학년의 고려인 친구,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다. 참여자들은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별도로 ‘고려인’과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자신과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친구들을 소개하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거나, 쉬는 시간에 같이 놀이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반 친구일 경우에는 화장실, 교단, 운동장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만나 놀이를 한다.

한편, 참여자들은 한국인 친구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주로 생일 축하와 선물을 주거나, 캐릭터 종이집 만들기과 같이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고려인 또는 한국인과 같이 출신국 또는 이주 배경 여부를 기준으로 친구를 구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주로 자신과 같은 이주 배경을 가진 고려인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통된 관심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는 이러한 구분을 넘어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 친구들이랑 종이집 놀이를 해서 그래서 저도 시나모 종이집을 만들었어요<참여자 C>.”



[사진 14] 담임선생님
〈참여자 F〉의 사진



[사진 15] 친구들과
학교 화장실에서
〈참여자 E〉의 사진



[사진 16] 종이집 만들기
〈참여자 C〉의 사진

③ 학교 가기 좋은 날

참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어려운 과목이 있는 날이어서’, ‘심심해서’ 등의 이유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거나, 단풍나무 길, 꽃길 등의 풍경을 볼 수 있어 가는 길이 좋았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에 들어서기 전 참여자의 기분과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학교에 가고 싶은 날이 요일마다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금요일은 다음날 쉴 수 있어서, 또는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요일에는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날로 생각한다. 이는 고려인 아동의 언어적인 제약,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 이들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18일 금요일이에요. 이날은 학교 가는 거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과목이 재밌으면 좋고, 뭔가 심심하면 재미없어요. 이날은 좋았어요<참여자 F>.”



[사진 17] 학교 앞 횡단보도
〈참여자 F〉의 사진



[사진 18] 학교 가는 길
〈참여자 E〉의 사진

3) 지역사회 생활

고려인 아동의 지역사회 생활은 ‘광주’ 또는 ‘동네’에서 고려인 아동 자신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활동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상점’, ‘G 교회 및 센터’, ‘공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특정한 장소를 비롯해, ‘고려인 친구’, ‘G 교회 및 센터 선생님(관계자)’, ‘한국인 성인(대학생, 연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와 ‘동네 즐기기’, ‘행사 참여하기’, ‘답사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관한 사진을 선정하고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토대로 ‘즐거움이 가득한 동네’, ‘웃음이 피어나는 정다운 만남’, ‘새롭고 신기한 체험’ 등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즐거움이 가득한 동네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동네에 있는 주요 상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을 위한 식당, 상점보다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점, 카페, 문구사 등을 애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을 만한 곳 등을 직접 찾아보고 이용함으로써 동네에서 소비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카페. 할머니가 다음날에 출국하니까 그 전날 같이 갔어요. 재미있다고 해서 갔어요. 처음 가봤어요<참여자 E>.”

“우리 친구들이랑 커피숍에 갔어요. 버블티 마시러 갔는데 버블티가 차가워서 코코아랑 마시멜로랑 마셨어요<참여자 C>.”



[사진 19] 앵무새카페
〈참여자 E〉의 사진



[사진 20] 커피숍 가기
〈참여자 C〉의 사진

아울러,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G 교회 및 센터에 다니며 주말에 자주 만나 이곳에서 함께 놀이를 즐긴다. 특히 <참여자 B>와 <참여자 E>의 이야기에서처럼 함박눈이 내린 날에는 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눈 천사가 되어보는 등 동네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트루샤를 2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눈사람이 눈 대신에 굴로 만들어서 신기했어요. 손이 없지만 좋은 눈사람이에요<참여자 B>.”

“눈이 많이 내려서 제가 교회 갔을 때 천사를 만들었어요. 제 친구와 저를 사진 찍었어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참여자 E>.”



[사진 21] 눈사람 페트루샤
<참여자 B>의 사진



[사진 22] 눈 천사
<참여자 E>의 사진

참여자들은 G 교회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려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였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학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송년의 밤 행사,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행사 등 특별한 행사에도 참여함으로써 컨벤션 센터, 호텔 등과 같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졸업식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프로그램) 다 재밌었어요. 음악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주도도 갔어요. 졸업식 끝나고 다른 행사도 참여했어요<참여자 D>.”

“12월 30일 송년의 밤에 갔던 사진이에요. 행사했던 장소까지 버스로

30분 걸렸어요. 3층으로 올라가서 행사 시작했어요. 공연이 있었고 선물 나눠주는 시간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참여자 B>.”

② 웃음이 피어나는 정다운 만남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G 교회 및 센터 선생님, 그리고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고려인 친구와 교회 및 센터 외 한국인 성인 등을 만난다. 교회 및 센터 선생님은 목사님, 사모님, 사회복지사, 학습지도사 등이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웃는 표정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

“사모님. 저는 전주에 버스로 갔어요. 사모님을 사진 찍었어요. 웃는 표정이 보여요. 마음이 기뻐요... (중략) 전주에 있던 시간이 더 즐거웠어요<참여자 B>.”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고려인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나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공통의 경험을 쌓아간다. 참여자들은 이 친구들과 언제부터 알고 친해졌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하고, 추억을 쌓아가면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즐거운 친구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중략) 이 친구가 웃었어요. 친구의 웃는 표정이 재미있어서 친구의 얼굴이 재미있어요. 너무 많이 웃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가까워서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참여자 B>.”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예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계속 같이 다녔어요. 좋아요<참여자 C>.”

“다른 학교 다녀요. 전화번호 알고, 전화하고, 게임하고, 교회다니고... 주말에 많이 만나요<참여자 E>.”

아울러, 참여자들은 교회 및 센터 선생님 외에도 대학생, 연구자 등과 같은 한국인 성인을 만난다. 그중에서 대학생은 센터와 연계하여 고려인 아동을 위한 한국 역사 및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대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릴 수 있어 즐거워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경복궁 답사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착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에요. 회색 입은 선생님 착해요, 파란색 선생님은 용감하고 재미있어요. 우리랑 같이 갔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도와주셨어요. 전주에 가서 만났어요. 서울에서도 만났어요. 서울 경복궁 갔을 때...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이에요<참여자 C>.”



[사진 23] 사모님
<참여자 B>의 사진



[사진 24] 프로그램 선생님과 친구들
<참여자 C>의 사진

③ 새롭고 신기한 체험

참여자들은 교회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하였으며, 신기한 경험으로 생각하였다. 처음 음악 공연을 관람하게 된 <참여자 F>는 음악가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사인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음악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여자 연주자들에게 사인도 받았어요<참여자 F>.”

또한, 참여자들은 광주 이외에도 제주도, 서울, 전주 등 한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역사적인 건축물을 관람하며,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천연염색을 시도하고, 전통음식을 맛보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체험을 통해 신기함을 경험하였다.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갈 기회가 되었다.

“치마, 치마가 예뻐어요. 그런데 저고리 안 이뻐어요. 저고리 안 이뻐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들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공주 같아요<참여자 C>.”

“무형유산배움터. 스카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 스카프를 만들러 갔어요... (중략) 김정색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파란색 선생님은 보여줬어요. 10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잘 들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천천히 토박 토박<참여자 E>.”



[사진 25] 음악 연주
<참여자 F>의 사진



[사진 26] 한복을 입은 내 모습
<참여자 C>의 사진



[사진 27] 스카프 만들기 체험
<참여자 E>의 사진

4.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고려인 아동의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장소, 관계, 활동 등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 6명을 중심으로 <사진으로 말해요> 활동을 통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람, 활동 및 사물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인 아동의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 경험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특별한 활동까지 개인 및 가족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느꼈다. 이는 더 나아가 고려인 아동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역할 및 의미 등 자아를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소중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갖길 원했다. 개인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주체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자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인 아동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적성과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학교생활에 있어 참여자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동시에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거나 정해진 규칙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경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학교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형성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소통과 공통된 관심사 등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주요 관계가 고려인 친구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크며, 이는 다양한 또래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동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또한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힘들게 느껴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재미있어하는 활동이 있는 요일에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려인 아동이 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점으로 일반 아동보다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들이 좋아하는 과목과 재미있어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을 좀 더 친숙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상점을 활용하거나, 교

회 및 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교회 및 센터는 고려인 아동이 동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교회 및 센터 관계자, 고려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연구자 등과 같은 한국인 성인들과도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웃는 표정, 친절한 태도 등을 통해 정다움을 느끼고 좋은 사이로 기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고려인 아동을 위한 교회 및 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역사 및 문화를 배웠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은 가정·학교·지역사회 맥락에서 장소·관계·활동 등이 상호 교차하여 나타나며, 이들의 성장발달과 사회적응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 아동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안락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내 방’이 아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을 본래의 목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 아동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도서관, 놀이터, 체육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바다, 공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같이 고려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소통방식과 상호 교류를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높이고, 전통과 문화적 요소, 가치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장된 가족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가족 구성원별로 함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 대비 아빠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참여자와 아빠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한국인 친구,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고려인 아동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려인 또는 한국인과 같은 출신국을 넘어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관심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고려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또래 아동, 성인 주민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선주민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려인 아동의 교육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고려인 아동이 자신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과의 여가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및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효한 교육방법론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연구참여자들은 이번 포토보이스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일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도 얻게 되었으며, 참여자 간 집단면담을 통해 공감하는 기술을 습득했다.³³⁾ 지역사회에서는 고려인 아동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요 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려인 아동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획득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장소, 관계, 활동을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³⁴⁾

33) 전시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도 포토보이스 활동이 이주 배경 아동의 흥미를 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한국어 학습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34) 김덕삼·이경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가족과 커뮤니티』 8, 2023, 295-323면.

본 연구는 고려인 아동 당사자의 시각을 통해 일상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들의 성장과 사회적응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사진 촬영 허가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의 특수성, 방학과 같이 새로운 일상을 살펴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 활동 기간의 범위, 지역사회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방학 중의 새로운 활동, 정책적 시사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토보이스 활동 자체에 관한 연구참여자의 평가 및 이들의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지역사회와 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하고, 개인의 인식 및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임을 이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으로서 고려인 아동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선경·최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8권 1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1, 313~345면.
- 강성식,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동포 범위 변경」, 『재외동포신문』 2019년 7월 19일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s://www.gen.go.kr/opengen/edu_stat/ (검색일: 2024. 01. 17).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고려인마을 사람들』, 엔터, 2019.
- 권혜진, 「한국 거주 고려인 아동의 디아스포라 장소 경험과 의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6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101~119면.
- 권혜진, 「고려인 아동의 공간 획득과 장소성 탐색」, 『인문사회21』 제14집 3호, 인문사회21, 2023, 17~28면.
- 김경오·한준영, 「Exploring Physical Activity Promotion Plan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a Socio-ecological Model: A Mixed Method Inquiry」,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715~743면.
- 김경학, 「국내 고려인 아동의 국제 이주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비교문화연구』 제24권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61~103면.
- 김나경·선봉규,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제13권,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8, 23~65면.
- 김덕삼·이경자,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가족과 커뮤니티』 제8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295~323면.
- 김묘경·하진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일상적 삶과 미래의 바람에 관한 포토보이스」, 『한국이민학』 제10권 1호, 한국이민학회, 2023, 47~73면.
- 김상우, 「일상생활의 사회학」의 현황과 전망」, 『문화와 사회』 제1권, 한국문화사회학회, 2006, 91~122면.
- 남부현·김지나,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제4권 1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17, 63~90면.
- 박은혜·심혜선·마담마,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제23권 2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18, 283~313면.

- 법무부a,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 법무부b,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 송아영,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의 사회복지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54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411~452면.
- 유승현,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구방법 및 전략으로서의 포토보이스」,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2권 1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5, 77~87면.
- 이남주·김민,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제10권 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141~170면.
- 이미라,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과 정서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2권 2호,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09, 41~57면.
- 이상지·최서리, 「국내 외국인 아동정책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안: 이분법적 담론과 부모 지위 종속의 한계」,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1권 3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1, 1~37면.
- 이영아·김지연, 「공공공간에서 노숙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17~29면.
- 이지연·그레이스 정,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유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2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85~114면.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이현·곽주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험과 성장: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3권 3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9, 151~177면.
- 임재완·선봉규·박경환·전형권·이장섭·허성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 북코리아, 2013.
- 장원순, 「사회문화교육방법으로서의 ‘일상생활’ 분석」, 『사회과 교육』 제43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167~187면.
- 전경숙,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연구논총』 제19권 1호, 경기연구원, 2017, 441~473면.
- 정종민·김경학·강영신·김수정·선봉규·김나경, 「팬데믹 상황에서의 광주 이주배경 고려인 아동의 정동적 연결성」, 『다문화와 평화』 제16권 2호, 성결대학교

- 다문화평화연구소, 2022, 56~79면.
- 조은희·오성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3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449~516면.
- 최경란·홍지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347~374면.
- 최혜선·한세영,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탐색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6권 3호, 한국보육지원학회, 2020, 79~98면.
- 허원빈·정하은, 「포토보이스를 적용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9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320~355면.
- 홍정민·장은영,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 양상: 충남 A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4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2, 111~138면.
- Braun, V.·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2006, pp.77-101.
- Bronfenbrenner, U.·Morris, P. A.,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 2007.
- Butschi, C.·Hedderich, I., "How to involve young children in a photovoice project. Experiences and results," In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22(1) 2021, January.
- Goodman, A.·Snyder, M.·Wilson, K., "Exploring Indigenous youth perspectives of mobi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A Photovoice approach," *The Canadian Geographer* 62(3), 2018, pp.314-325.
- Guo, K.·Dalli, C., "Belonging as a force of agency: An exploration of immigrant children's everyday life in early childhood settings," *Global Studies of Childhood* 6(3), 2016, pp.254-267.
- Hussey, W., "Slivers of the journey: the use of Photovoice and storytelling to examine female to male transsexuals' experience of health care access,"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2006, pp.129-158.
- Koller, D.·Farley, M., "Examining elements of children's place attachment," *Children's Geographies* 17(4), 2019, pp.491-500.
- Latz, A. O.,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 theory to exhibition, Taylor & Francis, 2017.
- Lögdberg, U.·Nilsson, B., & Kostenius, C., "Young migrants' experiences and conditions for health: A photovoice study," *SAGE Open* 10(2), 2020, 2158244020920665.
- Marcu, S., "Emotions on the move: belonging, sense of place and feelings identities among young Romanian immigrants in Spai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2012, pp.207-223.
- Merçon-Vargas, E. A.·Lima, R. F. F., Rosa, E. M.·Tudge, J., "Processing proximal processes: What Bronfenbrenner meant, what he didn't mean," and what he should have meant,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2(3), 2020, pp.321-334.
- Orellana, M. F., "The work kids do: Mexic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 childr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s and schools in California," *Harvard educational review* 71(3), 2001, pp.366-390.
- Padgett, D, K.,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나남출판, 2008(1998).
- Roman, M.·Roşca, V. I., Cimpoeu, S.·Prada, E. M.·Manafi, I.,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Youth Migration Narratives in a Photovoice. *Societies* 13(9), 2023, pp.198.
- Sekaran, V. C.·Bailey, A.·Kamath, V. G.·Ashok, L.·Kamath, A., "'This is the place where I can be alone, no tension:' Photovoice evidence for adolescent perceptions of their microsystem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2020, 102021.
- Stroud, M. W., "Photovoice as a pedagogical tool: Student engagement in undergraduate introductory chemistry for nonscience majors,"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43(5), 2014, pp.98-107.
- Wang, C.·Burris, M. A.,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1997, pp.369-387.
- Yi, J. H.·Kim, K. H.·Ra, M. Y., "Lived Experiences and Visual Expressions from Immigrant Adolescents in Korea during their Early Adjustment: Using the Photovoice Methodology", 『한국아동복지학』 제45권, 한국아동복지학회, 2014, 103~130면.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9605호).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년 11월 20일 채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0호).

| Abstract |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Meaningfulness of Everyday Life for Koryeoin Children through Photovoice Activities

— A Focus on Home, School, and Community Life —

Kim, Nakyung · Kim, Kyunghak · Kang, Youngshin ·
Kim, Sujeong · Sun, Bongkyu · Jeong, Jongmin

This study, carried out through photovoice activities, explores the everyday experiences of Koryeoin children in their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By investigating the contexts of places,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the research aims to pinpoint implications for the healthy growth and social adaptation of Koryeoin children in Gwangju. Six Koryeoin children residing in the Koryeoin-town area of Gwangsan-gu, Gwangju Metropolitan Cit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peaking through Photos> initiative. They captured and shared images portraying their preferred places, people, activities, and objects. The analysis revealed three key themes for each context. In the context of home life, the identified themes include 'special family moments,' 'my own place and activity,' and 'goal-oriented challenges.' In the context of school life, the themes comprise 'creating remarkable school experiences,' 'interaction with teachers and peer,' and 'a day I feel excited about going to school.' Finally, the themes associated with community life encompass 'a joyous neighborhood,' 'heartwarming gatherings with smiles,' and 'new and exciting exper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the healthy growth and stable adaptation of Koryeoin children include fostering a sense of place across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for identity discovery and overall well-being. Promoting diverse communication methods and mutual interests is suggested to expand and strengthen social relationship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systematic, ongoing attention, and support to acquire and utilize educational resources for Koryeoin children.

Key Words: Koryeoin Children, Everyday Life, Photovoice, Experience and meaningfulness

Unveiling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Mati Choi · Julia Jiwon Shin**

목 차

-
1. Introduction	3. Seasonal Workers' Experiences
2.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Background and Policy Initiatives	and Policy Concerns
	4. Conclusion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key dimensions of health and safety issues affecting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including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training, and legal and policy framewor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nuances of these challenges, it examines some cases that illustrate the experiences of seasonal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study highlights that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the program has brought to the local agricultural sector, there are still an alarming number of health and safety issues that require continuous policy improve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to establish a systematic program. It calls for the assignment of a government agency dedicated to and focused on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to monitor, evaluate and inspect the compliance of key units of the Progra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C2A02089141).

** Mati Choi(1st author), Graduate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Global Diaspora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lia Jiwon Shin(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labor migration, health and safety, seasonal migrant workers, seasonal workers program, agriculture

1. Introduction

The employment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has become an alternative in resolving the labor shortages not only in manufacturing and root industries but also in agricultural areas. The insufficiency in labor has been exacerbated by the population crisis - increasing figures of aging population, ever-decreasing rate of birth, and higher number of deaths than number of births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Cho, 2021, cited in You, 2023: 5).

Although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have already engaged in employment back in 1993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need to utilize a full-scale program of foreign manpower to sustain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introduced in 2004,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ereafter, EPS), which was classified as non-professional or low-skilled labor to respond to the needs of five industries including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ince then, labor migration policies have been constantly evaluated and amended. Although some problems with the absence of legal and policy frameworks concerning migrant workers' social integration and long-term residency are still being pointed out (Lee, 2021: 154), the EPS has been in full oper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By 2023, the annual number of EPS migrant workers are 89,970, of which 10,900 will be allocat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EPS, 2023).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allotment is only for the medium to large-scale commercial farms or agricultural businesses that can accommodate workers year-round.

Hence, farmers who do not qualify to the criteria of the EPS, and who are classified small-medium scale agricultural enterprise face serious labor shortages.

In 2015,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was piloted in Goesan-gun in Chungcheongbuk-d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the responsible agencie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is program, which has been promoted nationally in 2017. This program allows agricultural and fishing businesses to choose to employ workers between the short-employment for 90 days (C-4) and Seasonal Work for five months (E-8) which can be extended to eight months for the qualified workers. As of the first half of 2023, a total of 26,788 foreign seasonal workers were assigned to 124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Ministry of Justice, 2022a)

Seasonal migrant workers form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agricultural workforce, providing the necessary manpower during planting and harvesting seasons. Drawn by the promise of employment, these workers often find themselves in precarious situations, grappling with a host of health and safety risks that extend beyond the ordinary hazard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labor.

This study delves into the multifaceted health and safety issues confronting seasonal migrant workers, shedding light on the challenges they face as they temporarily sojourn and work in pursuit of livelihood. From exposure to harmful pesticides and arduous working conditions to the absence of adequate health care and legal protections, the vulnerabilities of these workers demand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a concerted effort to address the systemic shortcomings that perpetuate their plight.

The paper explores the key dimensions of health and safety issues affecting seas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including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training, and legal and policy frameworks. In order to understand the nuances of these challenges, it looks

into some cases that illustrate the experiences of seasonal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study looks into three cases of the plight of seasonal workers in Jeolla-do. The data was collected from interviews with seasonal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23. In different occasions, the researcher was able to have a direct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with the three groups of seasonal workers. Nevertheless, this study is not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workers' testimonies, but rather an exploratory study that sheds light on the problem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policies.

The paper is divided into two main parts. First, it presents the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of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and other local and municipal programs recruiting seasonal migrant workers. In the second part, it discusses health and safety issues affecting seasonal workers including the experiences of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training program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2.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Background and Policy Initiatives

1) The Introduction of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The hiring of seasonal workers is targe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 sending countries that hav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sending countries are mostly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ambodia, Vietnam, Laos, Philippines, and Sri Lanka. These countries are also the sending countries for the low-skilled labor force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ccordingly, the categorization of levels of skills required to perform the targeted job or

wage has the same principl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erein low-skilled or non-professional workers are hired. (You, 2023: 15)

This is aligned to the dual labor market theory by Piore (1979) wherein advanced economies have a continuous demand for migrant labor due to the native workers' avoidance to unstable, low-wage, unskilled, and 3D (dangerous, demeaning and dirty) jobs. Among native workers, these kinds of jobs are regarded as low status and unattractive since raising salaries at the bottom of the labor scale would also require increase at the higher levels which would result in structural inflation. Hence, migrant workers from low-income countries accept such jobs since what considered low wages in the host country is usually high compared with the salary standard back to their home country. Moreover, migrant workers are temporary workers taking the principle of guest-workers wherein they came to the country to earn money and plan to return to their country when employment contract ends (Arango, 2000: 288)

However, potential migrant workers consider the need to migrate not only because there are pre-existing jobs that need to be filled but because of their rational decision to migrate by making use of their minimal resources such as shared information and social network as their initiative to voluntarily migrate (Arango, 2000: 292). As of 2023, the nationwide minimum wage is 9,620 won which applies in both EPS and seasonal workers program. This per hour rate of labor attracts many potential migrant workers as seasonal workers program does not require worker's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as compared to the EPS. In this sense, though the migran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y use their economic resources and social networks to migrate internationally which contributes to the maximization of human capital (Shin, 201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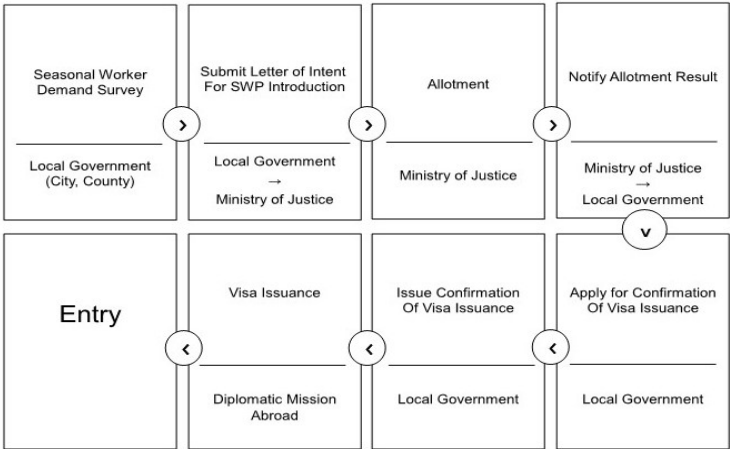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for seasonal workers is not only limited to

the people under the MOU of the sending countries, but the program also allows qualifie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work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s.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temporary nature of the seasonal migrant workers hired through the MOU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sending countries.

The two types of employment visa under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are Short-Term Employment (C-4), wherein persons can work temporarily for profit-making by engaging in activities, including temporary entertainment, advertisement/fashion modeling, lectures/speech, research, or technology transfer and Seasonal Labor (E-8) who are persons the Minister of Justice considers qualified as seasonal workers involved in cultivating, harvesting, and first processing of crops, and first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The role of recruitment agencies and intermediaries have played a vital part in both ends of the migration flow.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sending countries receive clear guidelines about the selection and hiring of workers from the receiving country through the MOU (see <Fig. 1>). Nevertheles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sending countries represent as recruitment agencies motivated to provide cheap overseas workers by facilitating private recruitment or itself becoming a broker (Gibson and Graham, 1986, cited in Goss and Lindquist, 1995: 325). Since the recruitment agencies manage the access for overseas employment, they act as private gatekeepers within the migrant institution. Representatives of recruitment agencies possess discretionary power to select qualified applicants who belong to one of many pools wherein the selection depends upon maintaining interaction with these agents (Goss and Lindquist, 1995: 338). Accordingly, many complaints and concerns have already been raised by seasonal migrant workers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recruitment process and the presence of middleman or brokers within the

labor migration networks. Migrant workers are exposed to the possible exploitation of workers by abusive recruitment agencies and middlemen.



Source: Gangwon-do (2023) (<https://agri.gwd.go.kr/eng/center/swp.do>)

[Fig. 1] The Entry Process for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2) Exploitative nature of temporary migrant labor

Recent studies about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in the country have pointed out the poor labor conditions and more seriously,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rough consultations and actual surveys by support organizations for migrants, it was found that foreign seasonal workers are exposed to long hours of work, poor living conditions, insufficient and unprovided breaks and rest days, low wages, and occupational accidents (Kim, 2020: 21-22). In this sense,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sonal workers can be a ground for exploitation. This kind of labor exploitation must not be taken in isolation rather understand the formation of worker’s vulnerability by looking at the broader context of structural dynamics and practices, labor policies, and migration. For this reason, many scholars

support a combined approach to trafficking as well as to labor exploitation wherein a labor approach is a part (Rijiken and de Lange, 2018: 22-23).

The term ‘labor exploitation’ is an encompassing term that can be situated at the very end of the continuum of decent work, bad labor conditions, and exploitation which includes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Skrivankova, 2010, cited in Rijiken, 2018: 199-200). It was further claimed that decent work can turn into bad labor conditions and bad labor conditions sometimes aggravate into exploitation and posed the question “when do violations of labor law qualify as labor exploitation?” (Rijiken, 2018: 200).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provides indicators for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labor exploitation which can be helpful to objectify exploitation grounds such as low or no salary, excessive working hours, ba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absence of contract (ILO, 2009). Based on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the Trafficking Protocol, Chuang (2014: 3) argues that trafficking comprises of three key elements: (1) an act, such as, recruitment, transportation, (2) means, such as, force, coercion, and (3) an exploitative purpose, such as, forced labor, slavery. Nevertheless, Rijken (2018: 204) concludes that “the question of when bad labor conditions turn into exploitation cannot be answered in general terms.” She, however, identified control (including coercion) over the worker, vulnerability, and consent as key factors. Although coercion is not an essential element for exploitation, exploitation is easily established in situations where coercion has been used, exploitation is more easily established. She also argues that understanding the dovetailing between bad labor and exploitation is a prerequisit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standards and protection mechanisms offered to the victims.

3) Safeguard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The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strengthen human rights protections

for seasonal workers. As of the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November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2022b), it highlighted the efforts of the ministry in promoting the worker's human rights by deploying language communication assistants and creating identifiers to determine and to verify the oc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t also highlighted the abolition of return bond system to prevent activitie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 workers.

Nevertheless, the Ministry of Justice failed to address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workers particularly their poor living conditions and health in a more administrative manner. Looking closely at the EU Seasonal Workers Directive, the European Union (hereafter, EU) seeks to address the need to fill the low-skilled, seasonal, and usually dangerous jobs that are unattractive to residents and citizens of EU member states, while at the same time reducing the chances of economic and social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third countries by granting them the same labor rights as resident seasonal workers. The Directive establishes common rules for the admission of migrant workers for temporary employment in agriculture within the EU. It aims to ensure fair and humane treatment of seasonal workers, protecting their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is Directive, the applying employer is required to provide the migrant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Article 6.1.b.), adequate accommodation (Article 6.1.b.), and sufficient resources in which the migrant do not have to recourse to social assistance (Article 6.3) (Fudge and Herzfeld Olsson, 2014: 452). It target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by the member states, as the conditions set are in line with applicable laws, collective agreements and practices, which promo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 the core of the rights-based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migrants (Fudge and Olsson, 2014: 441).

The Directive has the following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easonal migrant workers. First, it includes provisions to ensure

that seasonal workers are treated equally to EU nationals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is could help to improve overall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standards. Second, it also requires employers to provide relevant training and information to seasonal workers on workplace hazards and safety measures. This can empower workers to protect themselves and reduce the likelihood of accidents. Thirdly, the Directive emphasizes measure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seasonal workers into local communities, which in tur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indirectly on their overall health and safety. Despite these potential benefits, challenges may arise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Enforcement mechanisms,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barriers and the vulnerability of migrant workers can hind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ealth and safety standards.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directive by national authorities are essential. Adequate monitoring mechanisms can ensure that employers comply with health and safety standards, reducing risks for seasonal workers.

3. Seasonal Workers' Experiences and Policy Concerns

1) A Case Study: Seasonal workers' grievances

① Six men in their 20s, escaping from their employer in Wando-gun

This group of men worked for the same employer. They had been working in Wando-gun for more than two months when they decided to escape from their employer's abuse. The researcher was able to meet these workers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of their case as they were endorsed and channeled to the responsible agencies that are the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Office and the Philippine Embassy, Korea.

“There were a number of reasons why we committed such an unlawful act. First, we were physically exhausted and felt unsafe. We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rest and eat. As we were working for a seaweed harvesting farm, we had to start our work at dawn to harvest seaweed from the sea and bring it to the land to be dried, which ended up being a full day’s work without taking any meals.”

On the days when they could eat, they felt relieved and strengthened. However, there were days when they finished work a little early, they were taken to another farm to work, and often they finished late at night, so they had to sleep there and start working on the farm again the next day. As well as not being able to eat regularly, they did not have much time to buy, prepare and cook meals. The only time they had a decent meal was when the employer's wife or sister brought them food, or when they were given uncooked meat or vegetables.

The second reason, and the worst of all, is that they did not receive a salary. One of the respondents said:

“The only reason we came to Korea was to earn money in a decent way, and we had endured a lot of hardship on the farm. We had already experienced difficult jobs in our home country, such as construction work and others, so even though we lost weight here from not eating well, we felt that we could actually endure the hard part of the work, but not getting paid is definitely unacceptable to us. Our employer kept telling us that he would pay us the following week, but as time went by, he did not pay us anything. Our broker also threatened us because we had to pay him, but we told him that we had not been paid yet. The worst thing is that our family back home also needed money, but we could not send them anything. We felt like we were losing our minds. We were physically and mentally exhausted. We felt like we were

going to die there.”

Despite working long hours, they were not paid. They migrated to Korea in the hope of higher wages, but the constant non-payment of wages wore them down. Not being paid, especially when they had to pay back the broker's fees, caused them a great deal of psychological stress. In the end, the only way for them to survive was to 'run away' from the farm.

② Participants in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in Muju-gun

The researcher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to the Ministry of Justice's 'Early Adaptation Program' for seasonal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in Muju-gun. During the last part of the lecture (the question and answer part), some of the participants who had been working as seasonal workers for two months, expressed their concerns, which were as follows.

“We know that our employment contract is being breached by not giving us enough time off. We understand that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that is why we work overtime, but this overtime is not considered paid work time and it is unfair to us.”

“We are not allowed to complain to our broker because he threatens us that if we complain about the work, they will not extend our visa to 8 months or worse we will not be able to be rehired in Korea.”

“Even when we are sick - coughs, colds and sometimes fevers - we have no time to visit the doctor because we have so much work to do and cannot leave the farm.”

“Even if we tell our employer about the problems we face at work through the dispatched interpreters, nothing changes. We just have to put up with all the abuse. We have also noticed that the interpreters always take the side with our employers and try to make us understand them, saying that this is part

of the work culture here in Korea.”

Common problems experienced by this group are long working hours and a lack of breaks. They are aware that working long hours is a breach of their contract, but are unable to raise the issue for fear of not being able to extend their contract. The temporary nature of their employment status exacerbates a situation of unequal power between workers and increases the power differential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leaving the most vulnerable workers feeling less entitled and less able to challenge unfair or abusive treatment.

③ Man who ran away from where he used to work in
Jangheung-gun

The researcher met this worker from the Philippines at a gathering of foreigners in Gwangju. He was trying to make friends with other Filipinos since he was new to the community.

“I decided to run away from my employer because I did not feel safe there. We were very far from the village. When one of my colleagues was injured by falling from a higher structure, he was not taken to hospital, even when he fell on a sharp object. I was scared and felt that my safety was at risk.”

This respondent fled his employer because he was actually frightened when his colleague was injured at work and not treated properly. With lack of knowledge of health and safety rights and how to raise them, including knowledge of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y can be represented, he decided to become undocumented to avoid potential workplace hazards.

These three cases of seasonal workers' experiences may need further verification and may lead to further series of interviews, but these statements

still reflect the unspoken voices of migrant workers. It reveals that seasonal migrant workers ar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are existing health and safety concerns. It is their status as new and temporary workers that may place them at added risk, due to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other workers and with supervisor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ir understanding of risk. Also, with limited health and safety training and their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at is being offered, where proficiency in Korean is limited. This also reflect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and clear policy to promote the principle of equality. At present, the "Seasonal Workers System Operation Guidelines" issu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Justice lack standards and a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ho and Lee 2023; Lee, 2021).

2)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seasonal workers

① Working conditions

Regarding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employers under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work hours shall not exceed 8 hours a day (Article 50), 40 hours a week, excluding hours of break time. Such work hours may be extended up to 12 hours per week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Article 53 Section 1 of the Labor Standard Act). Moreover, an employer shall pay the following amount or more for extended work in addition to the assigned work hours (Article 56 of the Labor Standard Act). Failure to abide this policy results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a fine of not exceeding 20,000,000 won will be imposed (Article 110 Subsection 1 of the Labor Standard Act). This policy related to work hours is generally under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However,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bodies of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some of the measures are not in line with the Labor Relations Act. Foreign seasonal workers are guaranteed at least two days off every 30 days and must be given at least a 30-minute rest break for four-hour workdays and a one-hour rest break (including lunch) for workdays of eight hours or more (Kim, 2020: 36).

From the farmers' point of view, the communication barriers between them and the seasonal workers take up a lot of working time. There were cases where the farmer spent more time explaining the work to several seasonal workers, resulting in the workers' frustration at not performing as well as the farmers expected. Farmers also expressed their fatigue with the repetitive cycle of training newly arrived seasonal workers after the departure of workers with higher skills (Cho and Lee, 2023: 796). This can be another reason as to why employers cannot consistently keep the work hours of the seasonal workers.

Based on the wage regulations i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payment of wages shall be directly made in full to workers in currency at least once per month on a fixed day on a regular basis (Article 43). If this is violated, such employer wi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of not exceeding 30,000,000 won. In this case, a public prosecution against such employer may not be rais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person who has suffered the loss concerned (Article 109 of the Labor Standard Act). It also specified that an employer shall pay migrant workers at least the minimum wage amount or more and shall not lower the previous wage level on the ground of the minimum wage (Article 6 of the Minimum Wage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Since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Labor Relations Act, there is no clear guidelines about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minimum wage compliance, and calculation of overtime pay.

As seen in the first above-mentioned case, the broker of the migrant workers in their home country has a partner here in Korea who collects the payment in Korean won. In the study by Cho and Lee (2023: 797), farmers/employers are aware that one of the reasons for unauthorized departure of seasonal workers from their employer is the financial burden on the worker. Foreign seasonal workers pay for their airfare and other fees (brokerage), but what they earn for three months does not cover all expenses.

② Living conditions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the following facilities and items to seasonal workers applying for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air conditioning, lockable toilets, hot showers, bedding, fire extinguishers and smoke detectors, while plastic houses, containers and converted warehouses are not allowed. Illegal accommodation deductions can also result in immediate relocation (You, 2023: 14). However,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do not properly manage the housing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cluding enforcement. As a result, many workers continue to live in illegal temporary buildings because of this blind spot.

Due to the rising complaints about the seasonal workers' poor living condi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ddressed this issue by asking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also the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joint inspections of workplace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and where reports have been received from time to time. However, in workplace with 4 or more seasonal workers, the inspection of accommodation and working conditions by the relevant authority is mandatory within 30 days of the entry of the migrant workers (Ministry of Justice, 2022b).

③ Health and safety insuranc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 agricultural, forestry (excluding felling), fishing or hunting business that is not a company and that employs fewer than five workers at any one time is not required to take out insurance for its worker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only compulsory for migrant workers who have either the status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or Working Visit (H-2)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does not specify the distinction between C-4 and E-8 seasonal workers in the guidelines for the subscrip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use their autonomy to set policies on health or medical insurance for seasonal workers through MOUs. For example, Gangwon-do signed an MOU with Jubilee Medical Insurance, a civilian medical institution, to provide a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asonal workers. Members are required to pay registration and membership fees in advance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ir stay (see <Table 1>). The benefits of this membership fee are as follows: 1) it covers the reimbursement for medical expenses when visiting partner hospitals; and 2) it covers the reimbursement for pharmacy expenses particularly the prescribed drugs. The province has seven partner hospitals: Wonju (1), Gangneung (2), Donghae (1), Taeback (1), Sokcho (1), and Jeongseon (1).

Furthermore, in March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employers of farming and fisheries who hire foreign seasonal workers are allowed to subscribe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Safety Insurance’ instead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lessen the burde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especially to employers with less than five workers who must subscrib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hire

seasonal workers. Subsidy from the national treasury and local funds will be allotted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Safety Insurance' so the premiums are more than 50% cheaper than gener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inistry of Justice, 2022b; The Korean Legal News, 2023).

<Table 1> Fees for the Medical Insurance of Seasonal Workers in Gangwon-do

	3 months staty (C-4)	5 months stay (E-8)
Registration fee	₩10,000	₩10,000
Monthly membership fee	₩30,000	₩50,000
Total	₩40,000	₩60,000

Source: Gangwon-do (2023) (<https://agri.gwd.go.kr/eng/center/swp.do>)

④ Training and interpretation services

Unlike the migrant workers under the agricultural employment permit system, who are required to attend training programs on Korean language, workplace culture, labor laws and regulations,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t the agricultural sector, training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depends on the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example, in Goesan-gun, Chungcheongbuk-do, seasonal workers receive a three-hour training on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e seasonal worker program, labor law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basic Korean language (Lee, 2021: 17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s press release (Ministry of Justice, 2022b), the implementation of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has been reorganized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seasonal workers and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two to three hour training is to be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arrival of seasonal workers. However, as such training and arrival program are not a mandatory part of the seasonal worker program, it is impleme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municipality.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language communication assistants and the creation of identifiers to help determine the oc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as seen as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easonal migrant workers. The interpreters are normally Korean-speaking migrants, such as marriage migrants or those who have studied abroad as language communication assistants or who have at least level 3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y are to provide assistance in cases of sexual assault and violations of working conditions (Ministry of Justice, 2022b).

However, the study among farmers in Jeollabuk-do found that one interpreter is not enough to solve the farmers' communication problems. In addition, the assigned interpreters, who are married migrants, lack knowledge of work related issues and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Korean. Accordingly, it leads to conflicts between farmers and seasonal workers (Cho and Lee, 2023: 795).

⑤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The Ministry of Justice shall determine the scope of extension and change of period of stay in the following cases:

- 1) if the worker's compensation procedure is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 of stay;
- 2) if the issues of compensation arrears are pending within the period of stay;
- 3) if the work is not completed within the scheduled work period due to subsequent circumstances and an extension is unavoidable; and
- 4) in the ev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assault,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other abuses.

These cases also determine whether a change of status of residence (G-1) is permitted or required (Lee, 2021: 159).

As mentioned earlier, one of the effor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seasonal workers is the creation of ‘Human Rights Indicators’. The questionnaire below is a sample of human rights violation indicator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Table 2> Human Rights Violation Indicators for Seasonal Migrant Workers

	Questions
1	- In the process of being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did you have to pay repatriation costs (visa, medical examination, etc.)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your home country? - How much did you pay?
2	- Even though you paid the municipal officials in your home country, did you pay an additional remittance fee to the middleman? - How much did you pay?
3	- How did you pay to be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 self or relative ☐ bank loan ☐ sending agency ☐ personal broker
4	- Who prepared the documents you submitted, such as your farming and fishing resumé to be selected as a seasonal worker in your home country? ☐ yourself ☐ local government official ☐ agency
5	- Did you have to open a separate bank account in your home country to prevent you from escaping and after arriving in Korea, you need to receive your wages and send them to the designated account? ☐ I signed a separate contract with a person (organization) other than my home municipality.
6	Do you send your paycheck to a designated account in your home country? ☐ I have someone in my country who helps me send money. ☐ I send the money myself.
7	Have you had your bankbook, passport, etc. taken from you when you entered the country? ☐ employer ☐ local custodian ☐ other
8	I did not receive my full wages from my employer in my direct deposit.
9	I worked overtime and did not receive fair wages () times.
10	The accommodation is not properly equipped with toilets, showers, etc. (Other: no separate lock, no hot water, etc.)
11	I was subjected to ☐ sexual violence ☐ sexual harassment ☐ verbal abuse by my employer.
12	I was physically assaulted by my employer.
13	I do not have guaranteed days off.
14	Even on holidays, I am unable to go out due to restricted movement.
15	External communication like correspondence, phone calls, etc. also required permission.
16	What are your challenges and suggestions?

Source: Ministry of Justice (2022b)

The first five question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dicators Questionnaire ask about the procedures that seasonal migrant workers went through during their application period and before entering Korea. It attempts to diagnose human rights violations correctly by identifying illegal recruiters - agents, middlemen or brokers who interfer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e migrant worker's home country.

4. Conclusion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has achieved its purpose of alleviating the shortage of labor in farming and fisheries as proven some agricultural news articles, and in the study of Cho and Lee (2023) that farmers in the Jeollabuk-do were satisfied with the system because they can employ seasonal workers for a stable five-month labor supply at a lower cost compared to employing workers through the private labor market.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brought by the program to the local agricultural industries, there is still an alarming rate of health and safety issues that necessitate continuous policy studies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to establish a systematic program. As of now, the Ministry of Justice is keeping an eye on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who unlawfully abandon their workplace. Restricting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sending countries with high rate of workplace abandonment is considered as a solution. However, punitive measures to prevent them from leaving may not solve the problem, especially if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i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labor and human rights. For example, the shift to rights-based approaches to seasonal workers have shown that the success of temporary workers in Canada depends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ending country and host country, clarity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workers, and temporary migrants' access to health protection (Kim, 2020: 27-30).

Considering the current health and safety problems faced by seasonal workers, it requires further proactive policy measur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assigned to monitor, assess, and inspect the compliance of the main entities of the seasonal workers program. In the case of the EU Seasonal Workers Directive, the European Parliament succeeded in requiring the member states to make sure that employers are complying with the instruments to keep the Directives in place. EU members states must provide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buses and to sanction infringement of this Directive based on Article 24. The Article (24.2) also requires the member states to provide the assigned officials representing the workers' interest to inspect the workplace and the workers' accommodation (Fudge and Olsson, 2014: 464).

In this way, assigned officials can monitor the work hours of the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e amount of work/production and climate factors. This agency will also be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language communication assistants (interpreters) which in turn become trainers for the seasonal workers who need to undergo training about labor and immigration laws, workers' protection and rights, and basic language skil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watch and restrict brokers' or other intermediaries' involvement with the migrant workers' employment.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screening and assessment can be conducted to seasonal workers upon their arrival to determine the involvement of broker in their labor migration. This will also bring the effect of strict screening of workers from the sending countries' end. Qualifications like Korean

language ability and agricultural experiences can be required to minimize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difficulties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agricultural work.

Lastly, the public authority should monitor the insurance subscription of the seasonal workers. Subscription of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ch was replaced by Farmers and Fishermen Safety Insurance, should be mandatory to promote equal treatment entitlements as conducted in the EU Directive.

■ References

- Arango, J., 「Explaining migration: A critical view」,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2(165), 2000, pp.283-288.
- Cho, Won Ji · Seo Yeon, Lee,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Seasonal Worker Program and Policy Implications in Rural Areas in Jeonbuk Provi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4(2), 2023, pp.789-802. [In Korean]
- Cho, Young Tae, 『Population, Future, Coexistence』, Bookstone, 2021. [In Korean]
- Chuang, J. A., 「Exploitation Creep and the Unmaking of Human Trafficking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8, 2014, pp.609-649.
- EPS, <EPS Quaters by year>, 2023.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natNm=kr&tabGb=02> (2023.12.22 search)
- Fudge, J. · Olsson, P. H., 「The EU Seasonal Workers Directive: When Immigration Controls Meet Labour Right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16(4), 2014, pp.439-466.
- Gangwon-do, <Seasonal Worker Program>, 2023, <https://agri.gwd.go.kr/eng/center/swp.do> (2023.12.22 search)
- Gibson, K. · J. Graham, 「Situating Migrants in Theory- The Case of Filipino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Capital and Class』, 3, 1986, pp.131-149.
- Goss, J. · B. Lindquist,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 Structur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XXIX(2), 1995, pp.317-51.
- ILO, <Operational indicator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9,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105023.pdf (2023.12.22 search)
- Kim, Hak-sil,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among Countr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4(2), 2020, pp.21-45. [In Korean]
- Lee, Sung-Soon, 「Status and Tasks of the Seasonal Foreign Worker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2021. 36, pp.151-185 [In Korean]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2023. <https://www.easylaw.go.kr/CSM/SubCcfCmd.laf?csmSeq=1271> (2023.12.22 search)

- Ministry of Justice, <26,788 foreign seasonal workers allocated to 124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 the first half of 2023> 2022a. Press release.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565731/artclView.do> (2023.12.22 search)
-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to strengthen human rights protections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2022b. Press release.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14&fn=temp_1668584696231100 (2023.12.22 search)
- Piore, M. J.,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Rijiken, C., 「When Bad Labour Conditions Become Exploitation」 in Rijiken, C. and T. de Lange (eds). 『Towards a Decent Labour Market for Low Waged Migrant Worker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8, pp.189-206.
- Rijiken, C. · T. de Lange (eds), 『Towards a Decent Labour Market for Low Waged Migrant Worker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8.
- Shin, Julia Jiwon. 「Rethinking the Discourse on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2(4), 2013, pp.1-34. [In Korean]
- Skrivankova, K. 『Between Decent Work and Forced Labour: Examining the Continuum of Exploitation』, 2010, Joseph Rowntree Foundation. <https://www.jrf.org.uk/between-decent-work-and-forced-labour-examining-the-continuum-of-exploitation> (2023.12.22 search)
- The Korean Legal News, <Allowing employers of foreign seasonal workers to purchase Farm and Fish Worker Safety Insurance>, 2023. 3. 27.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110> (2023.12.22. search)
- You, Hee Yeon, 「Region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Korea」, 『KRIHS working paper』, 2023, May. [In Korean]

Ⅰ 국문초록 Ⅰ

계절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마티·신지원**

이 연구는 한국 내 계절이주노동자의 안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환경과 정책 및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계절근로자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취업한 농업 계절이주노동자의 경험사례를 통해 이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생활환경, 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본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 인력부족을 겪는 농업부문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한 체계적인 제도구축이 요구된다.

주제어: 노동이주, 안전보건, 계절이주노동자, 계절근로자프로그램, 농업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9141)

** 최마티(제1저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협동과정 대학원생
신지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

김덕삼·이경자*

목 차

1. 머리말	4.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
2. 연결의 필요와 대상의 확장	5. 나오는 말
3. 도교에서의 연결 사상과 실천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연결의 필요와 연결 대상의 확장”을 먼저 논한다. 인류는 연결 속에 존재하고,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 역시 연결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의 연결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연결할 대상의 확장을 제안한다. 이어서 연결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서 “도교에서의 연결 사상과 실천”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서는 연결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논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연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교에서의 연결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대비,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 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연결, 인간, 인공물, 도교, 도(道), 기(氣), 공동체, 과학기술

* 김덕삼(제1저자), 대전대학교 교수

이경자(제2저자,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하나의 공동체도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성립된다.¹⁾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는 개인의 존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 속에 사회와 공동체는 그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말한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개인들이 그 속에 존재하는 관계와 연결의 총합을 나타낸다.”라는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²⁾

단적으로 말하면, 연결은 사회를 구성하는 실질적 요인이다. 물론 이는 사회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연결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망각하거나 대부분의 사건 속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만 잘 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과 방종을 일삼고, 심지어 다른 존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괴하거나 착취한다. 하지만 사회나 공동체는 연결되어 존재하기에, 중국에는 자신도 피해받을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연결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논하고, 연결에 대한 사상적 검토를 시도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대비까지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연결에 대한 도교의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현대 인류가 직면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결에 대한 고대 중국에서의 사상적 논의는 불가의 연기론(緣起論)에서 정점을 찍고, 도가의 도(道)를 기초로 한 기(氣)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설명에서 현실적 눈높이로 이해가 수월해졌으며, 이를 계승한 도교에서는 종교의 모습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기를 토대로 한 이합집산에서 생(生)과 멸(滅)이 이루어짐을 논한 도가적 설명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리 난해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 물질인 원소의 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1) 공동체의 다양한 존재와 정의 때문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르트무트 로자 외 저, 박노완·한상원 역,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9, 10면.

2)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저, 이상길 역,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와 사유의 지평)』, 그린비, 2015, 60면.

리고 그 원소는 어디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물체의 분리에서 흩어진 것이고, 이것이 다시 합하여지고 조합되어 또 다른 무엇으로만 들어짐을 알 수 있다.³⁾ 보이는 물질에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영역까지 연결되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서는 연결의 필요와 연결 대상의 확장을 먼저 논할 것이다. 인류는 연결로 존재하고,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를 연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하여 현대는 과거와 다르게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의 연결이 절실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결 대상의 확장을 제시한다.⁴⁾ 이어서 도교에서의 이론과 사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논의가 적었다. 연결은 공존과 다르다. 특히 그동안 논의되었던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도 다르다. 인간과 인공물의 ‘공존(共存)’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려해야 할 ‘연결’ 다음의 문제이다. 연결은 존재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공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기초한 인간의 새로운 진화를 제안한다.

2. 연결의 필요와 대상의 확장

서구의 문화는 근대 이후 ‘인간중심주의’를 기초로 발전했다. 이에 맞춰 인

3) 이는 도가만의 생각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에서도 이러한 구도로 연결을 논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원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공기가 응축된 경이롭고 복잡한 덩어리다. 따라서 대기의 성분이 변하면 우리 몸의 성분도 바뀐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커트 스테이지 저, 김학영 역,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반니, 2014, 134면.

4) 본문에서 말하는 인공물(人工物, artifact)은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든 물체를 뜻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기계, AI, 뉴럴링크(Neuralink)에서 말하는 컴퓨터, GMO 식품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거리를 꾸준히 벌려놓으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 우월함으로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한 과도한 사용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차단하며, 인류만의 우월성을 강조했다.⁵⁾ 이는 다음과 같은 성찰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내게는 비인간이라는 용어가 몹시 거슬린다. (중략) 공평하게 하려면 해당 동물이 비인간일 뿐만 아니라 비펭귄, 비하이에나, 기타 등등이기도 하다고 덧붙여야 할 것이라고 여백에 적어 넣는다.⁶⁾

이는 인간이 자연에 난폭하게 저지른 일들에서도 알 수 있다.

낙숫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나올 때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항상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눈은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부풀린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가 물고기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노는 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낙숫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⁷⁾

생각을 확장하면,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협하다.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이 아닌가. 매년 40만 명의 인간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⁸⁾

5)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비인간과의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차별과 억압의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는 마치 제국주의 시대, 제국이 식민지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나, 매투 아놀드(Matthew Arnold) 등의 ‘고급문화적 관점’의 문화관이 다른 문화를 무시한 것과 닮은 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행진은 인류학적 발견과 과학의 진보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김덕삼,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105-109면.

6) 프란스 드 발 저, 이충호 옮김,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세종서적, 2020, 49-50면.

7) 조너선 벨컴 저, 양병찬 역, 『물고기는 알고 있다, 물속에 사는 우리 사촌들의 사생활』, 에이도스, 2017, 316면.

8) 박한선, 『인간의 자리 - 진화인류학자 박한선의 호모 사피엔스 탐사기』, 바다출판사,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인류가 저지른 이기적 행동이 결과의 결과로 연결되어,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편리를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이 엄청난 크기의 플라스틱 섬을 만들었다.⁹⁾ 이렇게 바다를 떠돌던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간의 위 속으로 들어가고, 공장과 자동차의 연기는 미세먼지가 되어 인간의 폐를 오염시킨다. 결국,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에게 그 결과의 결과가 오롯이 작용한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도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 연결되어 있기에, 연결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연결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현대의 인류 공동체는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재난을 경험하며, 재난이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교통문제,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전염병, 이상기후, 핵에너지, 미세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화학물질, 지진, 화산폭발, 소행성과의 충돌, 인공지능의 위협 등, 인류를 위협할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크며, 일상과 가까이 존재한다. 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¹⁰⁾

문제의 원인도 연결 때문이었지만, 문제의 해결도 연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결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개체 자체는 연결이 필요하다. 그 어떤 인간도, 혹은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여도, 인간은 혼자서 존재하지 못한다. 인간은 무수히 많은 연결 속에 존재한다. 인간의 육신은 35톤의 음식과 3만 1,000리터의 수분, 그리고 약 3억 리터의 공기를 평생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이입의 관점에서 보아도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독립된 자아라는 주관적인 환상을 깨고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¹¹⁾ 인간 개체는 연결 속에 존재

2023, 96면.

9)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The Ocean Cleanup, <https://theoceancleanup.com/great-pacific-garbage-patch>(검색일: 2023.08.19.).

10) 김덕삼, 「재난공동체와 영성 교육」, 『한국학연구』, 85, 2023, 31면.

하며 가치를 갖게 된다.

둘째, 인간 개체들이 만든 공동체에는 연결이 필요하다. 인간 개체만이 아니라, 인간 개체가 만든 공동체나 사회에도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처럼 “특별한 건 인간이 아니라 인류”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고유한 정신적 능력을 지녔더라도 야생에 놓인 한 명의 인간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지능이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여 생존은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종들보다 우세해질 수는 없다. 생태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특별한 건 인간이 아니라 인류다.¹²⁾

공동체에서 연결의 역할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인간들이 만든 공동체는 연결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연결에 의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인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반목과 분쟁도, 연결 속에서 생각하며 평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고 티베트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에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내 존재가 고생하고 고통받는 모든 티베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내가 그들을 보거나 안 적이 없지만 우리가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연결은 연민에 대한 우리 이해의 한 부분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이며, 연속선상에서 움직이는 연결 말이다.¹³⁾

이처럼 연결 속에 나만의 독존(獨存)을 생각할 수 없다. 연결되어 있기에, 함께하는 공존(共存)을 지향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 너도 살아야 한다.¹⁴⁾

11) 톰 올리버 저, 권은현 역,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브론스테인, 2022, 284면.

12) 토비 오드 저, 하인해 역, 벼랑세, 인류의 존재 위협과 미래, 사피엔스의 멸망』, 로크 미디어, 2021, 23면.

13) 벨혹스 저, 김동진 역, 『벨 혹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학이시습, 2022, 243면.

14) 김민기의 노래 ‘작은 연못’ 가사나, 몸통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새의 이야기처럼 인류 공동체는 연결 속에 어우러져 함께 존재한다. 인류는 중첩되고 연결된 공동체에 함께

그래서 길게 보며 이타심과 이해의 마음을 요청한다. 인류 앞에 닥친 공동의 문제도 결국 함께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인류가 만든 다양한 협약은 연결 속에 맺어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실천적 행동이다.

이러한 예는 적지 않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맺어진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은 연결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정부간 협의체로 설립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도 너나 할 것 없이 연결 속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을 인류 공동체에게 일깨우며, 실천하고 있다.

셋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연결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이 과거와 다르게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할,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서 언급하겠다.

3. 도교에서의 연결 사상과 실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겠다. 본문에서 다루는 도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도가와 다르다. 요약하자면, 도가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 같은 사상가들을 묶어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무리를 일컫는 용어다. 반면에 도교는 도가의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종교이다.¹⁵⁾ 물론 방향성도 다르다. 이는 도가와 도교의 연결에 대한 실천에서도 나타난다. 도교는 도가와 달리, 연결의 실천에 있어 다소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행했다. 즉, 도교의 방식은 도가의 자연이연(自然而然), 무위자연과 같은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방향으로 확장되어 작동했다.

살고 있다. 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22, 107면.

15) 김덕삼, 『도교의 기원』, 시간의 물레, 2006, 170-196면.

도가에서 말하는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연이연은 스스로 그러하니 그러해서, 일부러 무언가를 억지스럽게 하는 것을 경계한다.¹⁶⁾ 억지스럽게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인위(人爲)다. 인위의 위는 심해질 때 거짓 위(僞)까지 확장되어, 도가에서는 거짓이나 속이는 것을 경계한다.¹⁷⁾ 이에 반하여 스스로 그러하게 두는 것은 무위(無爲)다. 자연 그대로 두어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사상을 지닌 도가는 춘추(春秋)시기의 노자, 전국(戰國)시기의 장자를 거쳤다.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춘추전국,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도파적이거나 관념적 사상으로 오해되기 쉬웠고, 무력해 보였다. 물론 노자의 사상은 한대(漢代) 초, 황로학(黃老學)의 변형된 모습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활용되기도 했다.¹⁹⁾

종교로서의 도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인간의 가능 범위 안에서 연결을 실천했다. 예를 들어, 도가는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에 기

16) 장대년(張岱年)은 완적(阮籍)이 『달생론(達生論)』에서 “천지는 자연에서 태어난다. 天地生於自然”라고 기술한 것에서 ‘자연’이 ‘대자연’을 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中國古典哲學概念範疇要論』, 張岱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81면) 그러나 대연장(戴璉璋)은 『阮籍의 자연觀』 310면에서 완적이 “자연을 지극히 커다란 집합체로 말하지 않았다”고 장대년의 의견에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했다. 즉, 대연장의 주장은 완적의 자연은 대자연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누가 언제부터 자연을 대자연의 의미로 사용했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적어도 선진 이전에는 자연이 자연물이나 자연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전례가 아직 없으므로, 편의상 자연이란 말이 선진 이후부터 자연물과 자연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김덕삼, 『중국 도가사 서설 1』, 경인문화사, 2004, 80-81면)

17) 양백준(楊伯峻)은 고대에 ‘위(爲)’자를 동사로 사용한 경우는, 그 의미가 신축적이어서 문장에 따라 상이한 뜻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孟子譯注』, 楊伯峻, 中華書局香港分局, 1988년, 438면) 반면에 유소감은 『노자』에 사용된 ‘위자의 용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某作爲某’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등이다. 두 번째는, 일반동사로 사용된 ‘위’이다. 『노자』의 ‘위’자는 구체적인 행위동작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위’자가 바로 ‘무위’에서 사용된 ‘위로 보았다. (유소감 저, 김용섭 옮김, 『노자철학-노자의 연대고증과 텍스트분석』, 청계, 2000, 177-179면.)

18) 김덕삼, 『중국 도가사 서설 1』, 서울: 경인문화사, 2004, 72-77면.

19) 김덕삼, 『‘변화’와 ‘장’을 통한 한대 도가 사상의 고찰: 황로학을 중심으로』, 『중국지식 네트워크』, 2019, 232-253면.

초하여 사람의 수명을 하늘에 맡겼다. 반면에 도교에서는 단약(丹藥)과 복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무병장수나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했다. 어쩌면 이는 철학적 성향에 가까운 도가와 종교적 성향에 가까운 도교의 차원에서 오는 차이일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종교적 구호가 철학이나 관념적 설명보다 강하게 다가왔기에, 도교 종단은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며 대중 속에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치며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도교의 연결 사상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논한다.²⁰⁾ 첫째, 연결에 대한 도교의 사상적 기초를 파악하고, 둘째, 이를 도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도교의 연결 사상에 대하여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첫째, 연결 사상에 대한 도교의 사상적 기초를 알아보겠다. 도교는 『노자(老子)』라고 불리는 『도덕경(道德經)』, 『장자(莊子)』라고 불리는 『남화진경(南華真經)』 등 도가 사상서를 수용하여 경전으로 만들었다. 물론 『태평경(太平經)』을 비롯한 중요 경전도 있다. 이들 경전은 도(道)와 기(氣)에 기초하여, 무위(無爲)와 자연(自然)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도교의 사상적 기초에는 도가의 사상이 자리한다. 도교의 연결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도(道)와 기(氣)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자(老子)』 25장의 ‘도법자연(道法自然)’이나,²¹⁾ 42장의 ‘도화생만물(道化生萬物)’도 결국 도와 기에 기초한 연결을 말한다.²²⁾

도가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라면, 기는 그 구체적 작용이다. 기의 이합집산에 따라 세상 만물이 변한다. 기가 합하여지면 무언가 생기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면 무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흩어진 기는 다시 합하여져 어떤 무엇이 된다. 도교의 서적인 『황정내경옥경주(黃庭內景玉經註)』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양오행의 사상을 수용한다. 그래서 오행의 순환에 기대어 연결을 다음처럼 말한다.

20) 이러한 구분은 다음 논문의 구도와 예시를 참고했다. Dugsam Kim·Taesoo Kim·Kyung Ja Lee, 「Discussion and Proposal of Alternatives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 from a Daoist Perspective」, 『Religions』 2024, Volume 15, Issue 2, 142, pp.4-10.

21) 『노자』 25장; “道法自然.”

22) 『노자』 42장;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

오행은 수, 화, 금, 목, 토를 말한다. 서로 받든다.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다시 목을 낳고, 두루 돌아 시작한다; 또한 서로 깎아낸다. 수는 화를 깎아내고, 화는 금을 깎아내며, 금은 목을 깎아내고, 목은 토를 깎아내고, 토는 수를, 수는 화를 깎아내며, 두루 돌아 시작한다. 서로 받드는 도다. 일로 되돌아가니, 수의 수이고, 오행의 도니 이내 만물의 우두머리이다.²³⁾

이는 오행의 순환 및 오행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이 역시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낳고 만드는 것이다. 결국 ‘도’에 근거한다. 오행의 순환을 작은 순환과 큰 순환으로 보면, 또 다른 연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오행의 작은 순환에서 보면, 무언가는 무언가를 낳거나 혹은 멸한다. 상생과 상극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상극의 순환을 큰 순환에서 보면, 결국 무언가가 무언가를 멸하기 위해, 그것이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내가 생활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결국, 연결의 큰 순환에서 보면, 생도 사도, 상생도 상극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불과할 뿐, 연결 속에 존재할 뿐이다.²⁴⁾

또한, 우주의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각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도교의 사상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면 “샘은 땅의 피이다. 돌은 땅의 뼈이다. 흙은 땅의 살이다.”²⁵⁾는 인식이 그렇다. 물론 이는 도교만의 유일한 생각이 아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이다. 생태계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아서 텐슬리(Arthur Tansley)인데, 생태계라는 말에는 바로 연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말에는 살아 있는 생명체들이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적으로 종들은 포식자-희생자, 초식동물-식물, 숙주-기생충과 같은 ‘영양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²⁶⁾

23) “五行謂水，火，金，木，土。相推者，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又生木，周而復始；又相刻法；水刻火，火刻金，金刻木，木刻土，土刻水，水刻火，周而復始；相推之道也。反歸一者，水數也，五行之道，乃物之宗”。梁丘子，『黃庭內景玉經註』[M]，『道藏』第6冊[M]，北京：文物出版社，上海：上海書店，天津古籍出版社，1988，533면.

24) 김덕삼, 「상생관의 비교와 확장 연구 - 강증산과 노장의 상생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90면.

25) “泉者，地之血；石者，地之骨也；良土，地之肉也。”. 王明，『太平經合校』[M]，中華書局，1960，200면.

인간은 이러한 연결 속에 편의를 위해 구분하고, 게다가 우열로 순위를 매겨가며 나누지만, 도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만물을 도에 기초하여 보기에 사물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교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장자』에서는 “도로서 사물을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²⁷⁾고 말한다. 생각은 확장된다. 『노자』2장에서는 서로 반대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은 서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역설한다. 다른 것이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다. 대립과 대결은 공멸만 자초할 뿐이다. 이들이 반대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각기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서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상반상성(相反相成)’이 가능해진다.²⁸⁾ 이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반대하여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도교에서는 ‘연결의 사상’을 실천하였다. 도교는 앞에서 살펴본 연결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하나 됨[천인합일(天人合一), 자연에 순응함(順應自然)]’과 이를 확장한 ‘인간과 자연의 연결[순환과 재생(循環再生), 만물과의 소통(融通萬有)]’을 실천하였다.

도교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 실천하며, 연결의 사상을 확장하였다. 예를 들어, 도교의 사원인 도관(道觀)을 건축할 때, 도법자연(道法自然), 숭상자연(崇尚自然), 청정무위(淸靜無爲)를 따라 자연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도교의 건물을 세웠다. 도교의 인공물과 자연의 환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행했다. 인간이 인공물을 만들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따랐다. 그래서 건축물을 인간의 신체와 연관시켜 생각하였다. 『도장(道藏)』의 『황제택경(黃帝宅經)』을 보면 다음처럼 언급한다.

26) 톰 올리버 저, 권은현 역,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브론스테인, 2022, 128면.

27) 『장자』 추수(秋水): “以道觀之, 物無貴賤.”

28) 『노자』를 비롯한 도가에서의 상생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中國道教』 73, 中國道教協會, 2003, 28-32면; 김덕삼, 「상생관의 비교와 확장 연구 - 강증산과 노장의 상생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집은 모양을 신체로 삼고, 샘물을 혈맥으로 삼으며, 토지를 피부와 살로 삼으며, 초목을 모발로, 사육은 의복으로, 문호를 관대로 삼으니,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일은 순조롭고 길하다.²⁹⁾

이러한 도교의 연결 사상과 실천은 현대 인류가 만든 인공물과 인간의 연결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사례가 된다. 그럼,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생각해 보자.

첫째, 도교의 연결 사상에 의해 인간과 세상 만물은 결국 통합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확대되어 인간이 만든 ‘인공물’도 결국 물질이니, 인간과 인간이 만든 물질도 기의 이합집산(離合集散)처럼 연결되어 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도교에서 자연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인공물을 만들었다. 도교에서의 이러한 실천은 현대사회에도 이어져 현대 인류가 만든 인위적 물질과의 결합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이 만든 물질에도 도교의 연결 사상은 충분히 가치 있게 적용될 수 있다. 도교에서는 이미 인공물에서 연결을 생각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간과 인공물은 통하기예, 인간과 인공물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인공물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진화 혹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다.

4.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이미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³⁰⁾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기존의 관점으로 현존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기계를 포함한 인공물과 인간의 연결을 고민해야 할

29) “宅以形勢爲身體，以泉水爲血脈，以土地爲皮肉，以草木爲毛髮，以舍屋爲衣服，以門戶爲冠帶，若得如斯，是事儼雅，乃爲上吉”，『黃帝宅經』[M]，『道藏』第4冊[M]，文物出版社，上海書店，天津古籍出版社，1988，981면.

30) 에릭 브란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1-384면.

시점이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

에트우드는 지금의 인간 사회는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의 우리는 붕괴하면 모두 함께, 거대하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붕괴하게 된다’고 말한다. (중략) 테크놀로지가 복잡해지고 그런 사회의 외연 확장이 진행될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 고장으로 번지기 쉽고, 연쇄 전복 사태는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재앙의 결과는 총체적 파멸에 가까워진다.³¹⁾

지금 사회에 거론되는 인공지능(人工知能)인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I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은 AI의 초지능을 염려하며 그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I의 빠른 발전과 놀라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해결 방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이는 첫째,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통한 AI에 대한 대비. 둘째, 인간과 AI의 연결을 통한 발전의 모색으로 정리된다. AI의 위협적 발전에 대한 대비, 막을 수 없는 발전의 추세,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이 협동하여 위협을 관리하고, 이용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응도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라는 다윈(Charles Darwin)의 말을 실현하는 연장 선상에 있다. 여기서 바로 인간의 새로운 변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한 인간의 진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이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에서의 논의를 다시 소환한다.³²⁾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31) 이언 모리스 저, 이재경 역, 『가치관의 탄생』, 반니, 2016, 13면.

32) 혹은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생각처럼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관계로 확장할 수 있다. 그녀는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라고 말했다(박신현, 『캐런 바라드』, 컴북스캐프스, 2023, 33면). 그녀에게 만남은 개체보다 앞서며 관계는 주체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에 있다. 포스트휴먼이나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정도까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AI의 발전에 의하면, 정도와 영향력이 과거와 다르다. 인류의 가치와 존재까지 위협당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의 AI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위협하는 인공물이라면, 인간의 신체 더 나아가 생명체 전체의 탄생과 변화를 위협하는 인위적 능력에는 유전자조작(genetic modification)같은 과학기술이 있다. 이는 이미 우리가 먹는 유전자 조작 생물(GMO)에서 나온 GMO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이미 인류의 일상에 많은 부분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수혜를 입는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의 사용도 이러한 기술의 발달 선상에 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A·T·G·C 네 가지로 구성된 DNA 코드로 구성된다. 여기서 DNA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유전질환이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가 크리스퍼를 이용한 치료이다.

2023년 11월 16일에 영국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기관(MHRA)이 낮모양적혈구빈혈증과 베타지중해성빈혈의 치료제인 카스게비를 승인했다.³³⁾ 이것은 인류 최초로 인증받은 유전자 치료제다. DNA는 신의 영역이었다.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기 전까지 DNA와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고, 이를 통제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일이 이미 벌어졌다.

유전자조작 같은 기술이나 AI는 인류에게 위협적이다. 이는 과거 땀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구하던 시대에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구하는 시대로 변

앞선다. 우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오직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생성된다는 말이다. 그녀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얽힘(entanglement)’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김덕삼 장영창, 「인문학적 장이론과 신유물론의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2023, 489면) 하지만 그녀의 주장과 도교의 연결 사상,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계를 허무다는 점에서는 통하지만, 경계를 허무는 접근 방식과 출발점에서 조금씩 다르다.

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032> (검색일: 2023.12.05)

한 지금, 핵융합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과 비슷하다.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땀감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이 위험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핵을 잘 관리하며 이용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AI도, 앞으로 탄생할 인공물도 마찬가지이다. 연결에 기초한 공동의 개발, 관리, 예방, 해결이 요청된다. 이 속에서 새로운 공존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물 역시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공물의 궁극적 단위인 원자도 결국 인간의 원자와 다를 바 없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³⁴⁾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에테르(aether) 혹은 도가에서 말한 장자(莊子)의 기(氣)와 닮은 면이 많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118개의 원소, 그 조합과 닮았다. 결국, 그것이 에테르이거나, 기이거나, 혹은 원소이거나, 최소단위 속에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인간과 인공물의 적극적 연결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대부터 인간은 인간이 만든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교의 연결사상에서도 인간은 인간이 만든 도구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공물을 이용해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이라고 말하면, 다소 낯설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인간은 고대부터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의 연결 속에 살았다. 인간은 46억 년이나 된 지구에서도, 그리고 138억 년이나 된 우주에서도 미약한 존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익히 알고 있듯이 매우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선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³⁵⁾

34) “실로 다단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감안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은 없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의 흐름이 마침내 느려지거나 충분히 오랫동안 정지되면, 한데 모여 우리를 유지하던 덧없는 원자들도 결국 우리 몸에서 흩어져 살던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사람과 문명, 종들, 심지어 행성들과 별들도 결국 궁극의 끝에 다다르면 원자들만 남긴 채 소멸할 수밖에 없다.” 커트 스테이지 저, 김학영 역,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반니, 2014, 299면.

35) 신 줌페이 저, 이수정 역,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을까-인류가 탄생하게 된 12가지 우연』, 비룡소, 2012, 1-216면.

동물과 비교해도 인간은 자기만 아는 영리한 동물이고, AI와 비교하면 조금 멍청한 동물이다.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뇌도, 1000분의 5초의 재설정 이 필요한 뉴런이 중추이기에, 인간의 연산은 1초에 대략 200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한계가 명확하다.³⁶⁾ 물론 인간의 패턴인식은 이러한 연산보다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이조차 언제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 추월당할지 모른다. 인간의 문제다.

이미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간의 물리력을 초월한 인공물인 기계를 경험했다. 지금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진 물리력으로만 산을 깎고 바다를 매우며 길을 만들지 않는다. 인간의 힘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의 연결 속에 유의미한 일들을 곳곳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도구와 인간과의 연결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셋째, 누구나 자기의 인식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습속을 가졌고,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한 적극적 연결의 추구가 요청된다. 현재의 변화가 빠르고 전면적이며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23년에 등장한 GPT-4를 사용하며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 인간 혼자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자연물이거나 인공물이거나 인간은 끊임없이 이들과 연결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나아가 인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간이 만든 기계를 포함한 인공물과의 연결은 불가피하다.

AI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 연결의 대상이 AI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연결의 대상은 확장된다. 그리고 이는 이미 우리

36) 토드 로즈는 다음처럼 말한다(토드 로즈 저,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2023.) “케케묵은 두뇌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씨와 커서가 번쩍거리던 1980년대의 IBM컴퓨터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255면), “우리의 뇌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1초당 11메가바이트에 달할 정도지만, 우리가 정말 ‘보는’것은 고작 1초당 60비트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오직 그 정도의 분량만이 우리의 뇌로 ‘업로드’된다.”(238면) 이를 파리 사람 8명만 보고, 파리의 모든 사람을 보는 경우라고 지적한다.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들이다.

의 일상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금 시대를 이끄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표적으로 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NT(나노기술, Nano Technology), ST(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등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연결을 중심으로 보면,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을 다른 생명과 연결하게 한다. 다른 생명의 장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보기술은 인간 두뇌의 한계를 연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이용한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³⁷⁾ 또한, 인간의 뇌조차 연결, 상호작용 속에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에서는 “비옥한 땅에서 가지를 무수히 뻗는 나무처럼, 뇌에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각적 상호작용이라는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⁸⁾ 나노기술은 보다 정밀하게 인간의 작은 영역에서 연결의 고리를 만들고, 우주항공기술은 보다 넓은 공간 속에서 인간과 우주를 연결한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심지어 고립이나 독존(獨存)도 무엇과 연결된다. 연결은 결국 무엇과 무엇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연결된 그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제안이 가능하겠다. 이제 인류는 기존과 다른 차원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미 2022년에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가 발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있는 뇌과학 스타트업, 코르티컬랩스(Cortical Labs)의 공동창업자인 브렛 케이건(Brett Kagan) 박사는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칼 프리스턴(Karl Friston)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생물학적 신경망을 컴퓨터와 연결해 간단한 게임을 수행하게 하는 데 성공했

37) 대표적인 것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창업한 뉴럴링크(Neuralink)이다. 뉴럴링크가 2023년 5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간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 디지털투데이(<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82>) 2023년 12월 5일 검색.

38) 데이비드 이글먼, 김송욱 역,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생후배선의 비밀』, 알에이치코리아, 2022, 41면.

다.³⁹⁾

생성형 AI의 발전도 위협적이지만,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인 BCI(brain-computer interface)도 위협적으로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본고에서 언급한 인간과 인공물의 한 차원 높은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기술, 인공물 등에는 인간의 취약한 점을 보강할 요소가 많다.⁴⁰⁾ 이들의 무책임한 발전과 나쁜 사용을 인류 공동체의 연결을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인간의 진화, 다른 차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에 대한 도교의 사상과 실천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결의 실천과 요구에 비춰 크게 다르지 않다. 도교는 오래 살고 죽지 않는 것을 꿈꿨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의 연결을 생각했다. 이에 대한 도교적 방법으로는 수련과 단약의 복용 등이 있다. 특히 도교의 단청파(丹鼎派)는 이러한 방식을 추구한다. 여기에 내단(內丹)과 외단(外丹)이 구분된다. 내단에서는 정(精), 기(氣), 신(神)의 수양을 강조했다. 외단에서는 복식에 집중하였다.⁴¹⁾

도교의 연결 사상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은 결국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진화할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장에서 인간의 무병장수,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과거 도교의 단약(丹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지금 인류가 만든 AI를 비롯하여 인공물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여지가 충분하다.

과거 도교의 역사를 보면, 내단의 연장 선상에서 양생학(養生學)과 기공(氣功)이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외단의 연장 선상에서 화학과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고, 단약의 폐해도 컸다. 그러

39) 임창환, 『뉴럴 링크-21세기를 이끄는 거대한 연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동아사이, 2024, 205면.

40) 이를 실현하는 예가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는 뉴럴링크일 것이다.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즉 BCI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AI의 발전에 대비하여 인간의 부족함을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한다.

41) 金德三, 「養生, 現代의解釋與在韓國適用」, 『養壽怡生-東亞道文化養生的多元視野』, 新文豐出版公司, 2022, 61-70면.

나 이를 통해 화약이 발명되고 증의학과 화학이 발전할 수도 있었다.⁴²⁾ 마찬가지로 지금의 과정에서도 폐해와 부작용이 있겠지만 긍정적 발전의 요소도 충분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교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연결 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인위적 도구와 노력을 기울인 사례가 많다. 이는 오늘날 변형되어 적용 가능한 근거를 만든다. 마치 라이트 형제에 의해 인간이 하늘을 나는 새를 추월할 능력을 갖게 된 것처럼,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을 통해 도교의 불로장생을 다른 형태로 실현할 수도 있다.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은 인간과 물질의 연결 선상에 있고, 이는 고대로부터 지속한 인간의 진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인간과 새로운 인공물의 연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연결에 대한 사상적 검토를 도교적 시각에서 조명하며, 현실적 눈높이에 맞춰 ‘연결’의 필요성과 가치를 논하였다. 연결에 대하여 독보적 사상은 불가의 윤회 사상이다. 이는 오래되었고, 널리 퍼졌으며, 깊이가 있으면서, 신앙인들의 삶에서 실천했다.

42) 예를 들면, 갈홍은 『포박자(抱朴子)·금단편(金丹篇)』에서 “단사를 불에 태우면 수은이 되고, 그 변화가 지속되면 또 다시 단사가 된다. 丹砂燒之成水銀 稷變又成丹砂”고 했다. 단사는 주로 황화제이수은(HgS)으로 되어 있고, 이런 단사를 실험관에서 가열하면 그 속에 있던 유황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유황이 되어 수은이 분리된다. 다시 수은과 유황이 결합되면 검은색의 황화제이수은이 된다. 만약 밀폐된 실험관 속에 이것을 넣고 가열하면, 승화되어 적홍색 결정체인 황화제이수은이 생긴다. 단사의 화학적 특징에 대한 갈홍의 개괄적 연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화학사에서도 매우 커다란 가치가 있다. 납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갈홍의 인식 역시 매우 정확했다. 『포박자(抱朴子)·황백편(黃白篇)』을 보면, “납의 성질은 희다. 그것이 붉어지면 단이 된다. 단의 성질은 붉다. 그러나 그것이 희게 되면 납이 된다. 鉛性白也 而赤之以爲丹, 丹性赤也 而白之而爲鉛”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있다(于民雄, 『道教文化概說』, 貴州人民出版社, 1991, 245~246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결에 대한 불가의 사상도 불가만의 것은 아니었다. “윤회 사상을 불교 특유의 것인 양 오해하지만, 그것은 인도에 보편화된 하나의 상식이었을 뿐 결코 붓다의 생각은 아니다. 물론 후세의 불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다.”⁴³⁾ 지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결에 대한 심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인도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나아가 인류 전체에서, 어쩌면 보편적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기 전의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도교 사상에서 ‘연결’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 도교에서의 실천에 근거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인공물과 인간의 연결로 확장하여 논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대사회에서의 연결에 대한 공감대를 강조하며,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진화를 준비하자고 역설하였다. 연결되어 있음은 사실이고, 연결을 통해 미래의 위험도 대비할 수 있으니, 연결을 통해 공존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우리가 간과하거나,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도 연결에 기초하여 대비하고, 나아가 인류와 인공물의 적극적 연결을 통해 인류의 진화를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 나름 일조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결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고,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논할 숙제로 남는다. 즉, 연결에 대한 생각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연결의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식민지 시대에는 제국의 인민에게만 연결이 유의미했고,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연결의 범위가 인간에게만 제한되었다. 이는 확장된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충돌하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도 연결의 범위를 제한시켜 학연, 혈연, 지연으로 묶이며 충돌할 수 있다.⁴⁴⁾

43) 마스터니 후미오 저, 이원섭 역, 『불교개론』, 현암사, 2022, 35면.

44) 공동체를 묶고 가르는 범주들이 있다. 그런데 그 범주에 따른 각각의 공동체가 ‘집단 착각(Collective Illusions)’에 심하게 빠져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무수한 전쟁, 분열, 싸움을 통해 그 폐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무도 원치 않는

‘우리끼리’의 연결은 ‘그들끼리’의 연결과 충돌한다. 그래서 다소 ‘느슨한 공동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공동체가 가진 내부적 결속력과 이에 비례하는 외부에 대한 반발력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러한 연장선 위에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된다고 느낀다. (중략) 모든 도이치는 정의의 범위가 자신이 소속된 ‘도덕적 공동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다고 설명한다.⁴⁵⁾

이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연결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분쟁과 충돌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다. 이는 영원한 희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살핀 도교의 사고는 앞서 지적한 근대 이후 ‘인간 중심적 사고’와 대비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테르를 비롯한 서양의 사상을 미루어보면, ‘연결’이 이들의 문화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양의 사상에서 연결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기에 명확하고 적극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하지만 연결의 범주를 식민지 시대에는 서구 유럽의 백인에 두었고, 근대 이후에는 인류에게만 두었다. 제한된 범주 안에서 연결을 인정하기에, 서구 유럽의 범주나, 인류의 범주에서 ‘연결’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와 자연의 연결을 앞장서서 주장하며, 생태환경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⁴⁶⁾ 하지만 우리끼리의 연결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토드 로즈는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의 범주가 아닌, 한 집단 내부에서의 사회적 거짓말에 주목한다(토드 로즈 저,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2023, 1-419면).

45)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147면.

46) 이러한 측면에서 신유물론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신유물론과 함께 언급되는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메이아수의 사변적 유물론, 제인 베넷의 생기론적 유물론을 비롯하여, 브뤼노 라투르, 도나 해러웨이 같은 인물들도 있다. 기실 ‘인간/사물/자연/문화’는 개별적으로 구분된 영역이 아니다. 상호 간에 물질성이 연속된 것으로

에서, ‘우리’가 지극히 협소한 범주로만 제한될 때, 다른 무엇을 배척하거나 심지어 파괴와 약탈을 일삼아도 된다는 당위성을 얻은 폭력도 자행됐다.⁴⁷⁾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의 범위를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할 수도 없다. 연결을 인정하지만,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 정도와 범위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를 통해,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을 준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연결의 확장과 이에 대한 준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함을 과거의 역사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파악한 것에 본고의 의의를 찾는다.

간주되어야 한다. 항상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사물/자연/문화’는 서로 물질적 영향을 주고받는다(김덕삼 장영창, 「인문학적 장이론과 신유물론의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2023, 485면).

- 47)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겠다. 『데모크라틱 리뷰』의 주필인 존 오 설리번(J. L. O' Sullivan)이 1845년에 “전 인류에 신의 원칙들을 명백히 실현할 운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신으로부터 남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란 논설을 근거로 당위성을 얻은 백인들은 인디언을 무참히 학살했다(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22, 97, 107면).

■ 참고문헌

- 『노자(老子)』, 『장자(莊子)』, 『포박자(抱朴子)』, 『태평경합교(太平經合校)』, 『황정 내경옥경주(黃庭內景玉經註)』, 『황제택경(黃帝宅經)』
- 김덕삼, 『중국 도가사 서설 1』, 경인문화사, 2004.
- _____, 『도교의 기원』, 시간의 물레, 2006.
- _____,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 _____, 「변화와 ‘장’을 통한 한대 도가 사상의 고찰: 황로학을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2019, 232-253면.
- _____, 「상생관의 비교와 확장 연구 - 강중산과 노장의 상생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021, 90면.
- _____,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22.
- _____, 「재난공동체와 여성 교육」, 『한국학연구』, 2023, 31면.
- 김덕삼·장영창, 「인문학적 장이론과 신유물론의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2023, 485, 489면.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 데이비드 이글먼 저, 김승욱 역,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생후배선의 비밀』, 알에이치코리아, 2022.
- 마스터니 후미오 저, 이원섭 역, 『불교개론』, 현암사, 2022.
- 박신현, 『캐런 바라드』, 컴북스캐퍼스, 2023.
- 박한선, 『인간의 자리 - 진화인류학자 박한선의 호모 사피엔스 탐사기』, 바다출판사, 2023.
- 벨혹스 저, 김동진 역, 『벨 혹스, 당신과 나의 공동체』, 학이시습, 2022.
- 신 줘페이 저, 이수정 역,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을까-인류가 탄생하게 된 12가지 우연』, 비룡소, 2012.
- 에릭 브린올프스·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 유소갑 저, 김용섭 옮김, 『노자철학-노자의 연대고증과 텍스트분석』, 청계, 2000.
- 이언 모리스 저, 이재경 역, 『가치관의 탄생』, 반니, 2016.
- 임창환, 『뉴럴 링크 - 21세기를 이끄는 거대한 연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동아사이, 2024.
- 조너선 벨컴 저, 양병찬 역, 『물고기는 알고 있다, 물속에 사는 우리 사촌들의 사생

활』, 에이도스, 2017.

커트 스테이지 저, 김학영 역,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반니, 2014.

피에르 부르디외·로의 바캉 저, 이상길 역,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
유의 지평)』, 그린비, 2015.

프랑스 드 발 저, 이충호 옮김,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세종서적, 2020,

토드 로즈 저, 노정태 역, 『집단착각』, 21세기북스, 2023.

토비 오드 저, 하인해 역, 『벼랑세, 인류의 존재 위협과 미래, 사피엔스의 멸망』, 로크
미디어, 2021.

툼 올리버 저, 권은현 역,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브론스테인, 2022.

하르트무트 로자 외 저, 곽노완·한상원 역,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9.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中國道教』 73, 中國道教協會, 2003, 28-32면.

——, 「養生, 現代的解釋與在韓國適用」, 『養壽怡生-東亞道文化養生的多元視
野』,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2022, 61-70면.

于民雄, 『道教文化概說』, 貴州人民出版社, 1991.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香港分局, 1988.

Dugsam Kim·Taesoo Kim·Kyung Ja Lee, 「Discussion and Proposal of Alternatives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 from a Daoist Perspective」, 『Religions』
2024, Volume 15, Issue 2, 142, pp.4-10.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032>. 2023년 12월 05일 검색.

디지털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82>.
2023년 12월 5일 검색.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The Ocean Cleanup,

<https://theoceancleanup.com/great-pacific-garbage-patch>. 2023년 8월 19일 검색.

| Abstract |

A Review and Suggestions for Connecting Humans and Artifacts in Community

- With reference to Taoist theory and practice -

Kim, Dugsam · Lee, Kyungja

This article explores connection in community, especially human-machine connection, from a Tao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text first discusses the need for connec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objects of connection. It emphasizes that humanity exists in connection and that the problems facing humanity must be solved through connection. It also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connection with human-made artifacts in modern society, unlike in the past, and proposes an expansion of the objects to be connected. Next, as a theoretical basis for connection, it identifies the idea of connection in Taoism and the practice of connection in Taoism, and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human-machine connection in them.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human-machine connectivity and the direction it should take.

These discussions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nnection within a community. In addition, by attempting to review Taoist ideas about connection, we will also discuss the contrast of problems faced by humanity in relation to connection, and in particular, we hop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ake an active and proactive approach to the human-machine connection faced by modern humanity.

Key Words: Connection, Human, Artifacts, Taoism, Tao, Qi, Community, Technology

| 현장 & Issue |

마을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 국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황민호 *

연말이 되면 마을마다 대동회를 한다. 이장 선거를 하는 마을이 있고 안 하는 마을이 있다. 이장 선거를 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면에도 변두리 작은 마을은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고르기 바쁘고, 면 소재지 중심마을은 서로 이장하려고 해서 박 터진다. 마을의 헤게모니는 생각보다 복잡다단하다. 이해 관계가 시시때때로 충돌되고 갈등의 양금이 사라지지 않고 침잠되어 있어 언제든 부엌에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집성촌과 각성바지, 토박이와 이주민, 여러 갈래로 헤게모니가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장이 결정된다. 결정된 이장은 마을의 외치와 내치를 모두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다. 수당은 별개로 치더라도 각종 마을사업 이권과 추천 등 여러 가지가 공유되지 못하고 특정 편향되어 일정 패거리에 집중되면 마을은 파국의 길로 성큼성큼 다가간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패가 갈려 어지러운 공존과 어색한 평화 아래 치열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서로 이말, 저말 하느라 맘이 다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평안하게 살려는 맘 모두들 한결같은데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데, 마을안은 시끌벅적하다. 속도 모르고 어설픈게 다가갔다가는, 엉성하게 대충 그까이끼 하며 접근했다가는 그 삼엄한 분위기에 짝 소리도 못하고 퇴각하기 일쑤다. 겉껍질을 벗겨 보면 마을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속 시끄러운 일만 수두룩하다. 이게 보면 해묵은 갈등이라 감정은 끝간데없이 얹혀있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먼 행정은 눈을 질끈 감기

* 옥천신문 대표

일쑤이고, 중재자나 조정자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삶의 지옥이 되는 것이다.大門 열고 나가면 얼굴 마주보는 사이인데 어색하고 불편함을 넘어서 꼴도 보기 싫은 관계라면 어떠하겠는가.

마을 일이란 것이 묘하게도 마을 담장을 또 넘어서는 안 된다. 불문율처럼 남의 마을 이야기를 두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공론화되지 못한다. 자체적으로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건강한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한 마을은 주구장창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내용증명이 수차례 오갈 뿐이다. 법원 판단으로 희비가 갈라지면서 마을은 그 자체로 아사리판이 된다. 싸움은 창 바깥에서 구경하지 좋을지는 몰라도 한테 섞이게 되면 그 블랙홀로 같이 끼어들어갈까봐 행정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안 끼려고 하는 사이 완충지대 없는 갈등들은 서로의 살을 갉아먹고 커지는 것이다.

이런 마을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어떤 마을들은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면서 시설 인프라도 구축되고 마을 주민들끼리 어울렁더울렁 잘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밥도 같이 먹고, 자주 모여 서로를 챙겨주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오뉴월에도 찬바람이 뽕뽕불고 경로당이 자물쇠로 잠근 채로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렵다. 마을 너머, 갈등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마을 전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다.

마을내 갈등도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 해소하는 법

민간갈등은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은 차치하고서라고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정서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기까지 할 수 있다. 마을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다. 그럼 갈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완충지대에서 풀어내고 회복할 수는 없는 걸까. 이미 옥천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데 행정에서 이를 만든 사례가 없진 않다. 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부터 민간갈등 조정을 위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국 최초로 센터 운영예산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평택YMCA거 위탁받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인을 교육한다. 분쟁 조정인은 민원을 접수받고 갈등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분쟁조정인 육성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과정 이후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갈등조정을 위한 법률상식, 사례분석,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런 역량을 갖춰가면 공동체파괴를 막을 수 있다. 평택은 이미 매해 100명 넘는 분쟁조정인을 배출하고 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상근직원은 2명, 비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도 일부 지원한다. 1년에 2억2천700여 만원으로 사회적비용을 확 줄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도 2015년부터 민간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분쟁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민 화해지원인들은 5개 자치구 50여개 소통방에서 활동하며 개인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2015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5년간 층간소음, 생활누수, 반려견 소음과 같은 1천918건의 주민갈등을 접수받고 1천601건을 해결했다. 조정률은 83.5%나 된다. 광주광역시가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3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2021년 4월23일자 평택시의회 이영배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는 자못 인상적이다. 인터뷰에서 이영배 의원은 “평택시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콜센터는 행정절차나 법적절차를 안내해 줄 뿐이다. 갈등은 곧잘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 이게 다 사회적 비용아니겠나. 비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공방까지 가고 난 이웃이 어떻게 나중에 웃으면서 볼 수 있을까. 그 전에 화해하고 소통해야 그 다음 공동체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웃분쟁 조정도 지자체의 몫이라는데 공감했다기보다는 당장 공무원이 접수받은 민원의 양이 엄청 났다. 이 조례를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평택시민이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조례는 행안부 전국지방의회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완충공간을 만들고, 조정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의 감정소모를 줄여주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풀다보면 감정이 다치는 일도 줄어들고, 다시 이웃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민원행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마을안에 개인간의 갈등은 가족간의 갈등, 지인과의 갈등, 씨족사회와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 피

로도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 공동체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공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인을 양성하는 것은 사실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개인과 커뮤니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다. 개인 간의 관계가 원활하고 서로 합이 맞아야 의견이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존중해줘야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

마을 뿐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의 마을 말 하는 게 힘들 듯이, 남의 집안살이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도 금기시된다. 답장너머 참견하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붙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 안에서 약자들은 그래서 더 힘들다. 부모라고, 조부모라고 그 명칭에서 반드시 ‘선’과 ‘애’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혹은 노인들이 물리적 학대 말고도 정서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심심찮게 듣고 보게 된다. 하지만, 듣고 말뿐 남의 가정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불륜과 이혼, 그리고 가정폭력과 폭언, 방임의 사례는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결국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 자체가 지난하다. 눈에 보이는 폭력이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될텐데, 방임과 정서적 학대 사이 어딘가에 걸쳐져 있으면 뭐라 말하기 딱히 힘들 정도로 그냥 그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을의 신화, 가족의 신화를 벗겨버릴 필요가 있다. 그 민낯의 현장과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해야 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구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마을은, 가족은, 공동체와 공공성을 뿌리채 썩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일 수 있다. 마을과 가족이 파스하고 인정 넘친다는 환상, 지역과 시골은 무언가 공동체가 살아있을 것 같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한다. 방임하고 팔짱끼는 사이에 마을과 가정은 그 자체로 썩어가고 있고 그 사이에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장이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내 일 아니라고 방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의 영

역이 아니라며 팔짱끼는 관료들까지 그들은 가학적이고,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껏 당해왔던 것처럼 그것을 체화하는 것이 이 지독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가족과 마을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금기를 깨부수고 어떻게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적인 가족의 영역까지도 어떻게 다양한 루트로 공적개입을 시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불평등이 이후의 삶을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충효 사상에서, 맹목적으로 주입되었던 충효 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짐 지워지고 힘들게 삶을 영위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칭송하고 인간 승리로 포장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회와 국가는 한치 앞도 진보하지 못했다. 이는 가족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되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복지)과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제 기본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가족 선언문을 발표한 스웨덴의 정치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민당이 집권한 1936년부터 86년까지 이 50년을 사민당이 국민의 집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6년부터 82년까지 6년을 제외한 44년간 집권한 사민당의 총리는 한손과 에를란데르, 그리고 팔메 뿐이었다. 10년을 집권한 한손, 23년을 집권한 에를란데르, 다시 11년을 집권한 팔메는 그 기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스웨덴을 가장 완벽한 복지시스템과 민주주의체제로 만들었다.

스웨덴 국민의집, 미래의 가족 선언문을 살펴보자

‘인민의 집’, ‘국민의 가정’은 스웨덴 사민당과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에를란데르는 전임자인 페르 알빈 한손이 제창한 ‘국민의 집’을 스웨덴의 복지모델로 완성했다. 1928년 사민당의 당수였던 한손은 의회연설을 통해 처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이란

공동체, 그리고 함께함을 뜻합니다. 훌륭한 가정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대우하거나 천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홀대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가정에는 평등, 사려, 협력, 도움이 존재합니다. 가정은 가족의 울타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시민을 품는 커다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갈라놓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없습니다'

1972년 올로프 말메 총리와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 선언문의 제목은 '미래의 가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낡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벗어나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자녀로부터 노부모를, 부모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자! 사회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평등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 삶의 한단계 도약을 이루어내자!'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되므로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오인과 아이들은 복지를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가족 간의 전통적인 의존관계를 해체하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한 것이다. 스웨덴은 보통 만 18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면 월 140만원(이중 2/3는 학자금 대출이나 최장 25년 동안 0.16%이자율로 갚으면 된다)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대학은 무상교육이니 온전히 자기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기에 가족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탄탄하다. 팔메가 노력한 것은 그저 일상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평등한 지원이다.

팔메는 제도의 수혜자가 성별에 관계없는 개인이 되도록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가족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던 기존 제도가 개인을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갖고 태어난 여러 가지 한계를 제도를 통해 약화시켜 자유롭게 독립적인 개인이 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결국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함양군의 사례도 중요하다

올해 7월17일부터 경남 함양군은 매월 13-15세는 5만원을, 16-18세에는 매월 10만원을 꿈드림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바우처 카드 포인트는 매월 지급되며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문구점, 이 미용점, 취미 및 예체능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서도 매달 용돈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함양군의 사례는 작지만 부모님의 손과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불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부모든 누구든 예측되지 않는 삶은 중요하다. 독립적인 개개인들이 느슨한 공동체로 서로 연대하고 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혼과 가족의 정상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성애 결혼과 출산 가족만이 정상가족의 범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제도적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가령, 덴마크는 자녀의 수를 파악하는 데만 총 37개 형태로 나눠 집계한다. 가령 미혼모와 아이가 사는 가족, 재혼부부와 모계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등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가짓수만 37개다. 여기에 추가로 이성혼, 동성혼, 합의 관계, 동거관계, 등록된 동반자 관계, 싱글 등 6가지 가족형태까지 구별하면 수백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덴마크는 이 모든 유형의 가족을 동등한 가족으로 홍보하고 품었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480일)을 준다. 결혼이 아니어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집안의 금쪽이와 낯짝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몰리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드림스타트나 그룹홈, 아동보호전문요원이나 교육복지사를 통해 이를 늘리면서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지역사회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 물리적,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출하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완충지대와 공간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발굴하고, 끊어진 아동보호체계의 틈을 메우고,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아동보호저담요원제도가 도입이 되

었지만, 기초지자체 229곳 중 73곳이 전담요원이 단 한명이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다. 혈연만이 가족이라는 굳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같이 어울리는 친구도 동반자도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가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개인과 가족, 마을과 지역사회, 지자체와 국가는 관계와 체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보충성의 논리로 서로를 채워줘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란,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실행 주체인 소 단위에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통제하는 개념이 아닌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더 이상 가족과 마을의 문제를 너네 가족의 문제, 너네 마을의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시선의 폭력은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 가족이 힘들면, 마을이 갈등에 치이면 모든 공동체가 위협할 수 있다. 어떻게 필요한 공적개입을 하고, 필요한 기본 바탕을 만들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서평 |

낸시 프레이저,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 복합위기를 넘어 횡단적 연대를 재구축하기 -

한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금융 경제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돌봄 결핍까지 비-경제적 현상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위기의 시대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물려받은 위기 이론은 경제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경제적 영역을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측면과 분리하고 특권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에 없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의 중심에는 자연, 사회적 재생산, 박탈, 공적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자리하며, 이는 민족·인종·종족, 성, 계급 등 다양한 축의 불평등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다층적 위기의 원인을 낸시 프레이저는 ‘식인 자본주의’라 명명한다.

책의 부제이기도 한 ‘식인’의 은유는 강렬하다. 프레이저는 이 은유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시스템 내부의 ‘비경제적’ 주변 영역과 맺는 관계, 즉 자본주의 경제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빨아먹는 현실을 지적한다. 보통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 시장 교환, 임금 노동, 이윤을 위한 생산에 바탕을 둔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프레이저에 의하면 이러한 정의는 너무 협소하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이윤주도 경제가 그 작동에 필요한 ‘경제의 외적 기둥’들을 포식하도록 복돋는 사회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지칭하며, 경제의 한 유형만이 아니라 사회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제도화된 사회질서’이자 사회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주의는 ‘우로보스’, 즉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제 꼬리를 먹으며 자멸하는 뱀과 같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사회·정치·자연의 토대를 먹어 치우느라 여념이 없다. 이처럼 포괄적인 지형도 그리기를 통해 프레이저는 우리의 자본주의관을 확장하고, 현 국면의 모든 억압과 모순과 갈등을 단일한 틀 안에 모은다. 이 틀에서 구조적 불의는 계급 착취만이 아니라 젠더 지배, 인종적·제국주의적 억압, 비생물·자연에 대한 수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인 자본주의의 마수 안에서 광범위하면서 서로 복잡하게 상호결합된 사회적 투쟁 또한 자라난다. 프레이저의 비전 속에서 다양한 사회 운동, 정당, 노동조합, 그 밖의 집합적 투쟁은 조율되고 충분히 포괄적인 생태·사회적 변혁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피어난다.

이를 위해 프레이저는 먼저 우리의 자본주의관을 확장하고(1장), 착취와 수탈의 얽힘을 관찰하며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임을 밝히며(2장),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의 중심부에 있음을 주장한다(3장). 또한 생태위기는 우리 시대의 수탈, 돌봄, 정치와 얽혀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자본주의에 맞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살피고(4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다른 위기들과의 총체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5장). 마지막으로 프레이저는 ‘사회주의’가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넘어 사회적 재생산, 공적 권력, 비인간 자연, 수탈된 부의 문제를 포괄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사회 질서로서 재인식되고 재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6장).

먼저 프레이저는 자본주의 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그러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배경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노력과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배경에는 매우 폭력적인 박탈과 수탈이 있음을 밝힌다. 기존의 협소한 자본주의관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프레이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인식의 전환이다.

첫째, 생산에서 사회적 재생산으로 나아가는 인식의 전환이다. 사회적 재생산이란 인간존재와 사회적 유대를 생산하고 지탱하는 상호작용, 필수재 공급, 돌봄 제공 등을 뜻한다. 돌봄, 감정노동, 주체화 등 다양하게 불리는 이 활동은 자본주의에 복무하는 인간 주체들을 형성한다. 즉 사회적 재생산은 다음 세대를 낳고 사회화하는 일, 공동체 구축, 사회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가

치 지평과 정서의 형성, 공동의미의 생산과 재생산을 돕는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다수가 시장 바깥에서, 즉 가정과 지역 사회, 학교,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일군의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며, 그 대다수가 비-임금 노동형태를 취한다.

상품 생산과 분리된 사회적 재생산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젠더화되어 왔기에 가시화되지 못했다. 사회 재생산 활동은 유급 일자의 존재와 잉여가치의 축적 및 자본주의 작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생산 노동은 사적 가정 영역으로 유폐되어 여성이 주로 담당함으로써 그 사회적 중요성이 평가절하되어왔다. 생산과 재생산의 분할은 자본주의의 여러 국면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며 변화해왔는데, 20세기에는 사회적 재생산의 몇몇 측면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로 바뀌어 탈사유화되면서도 상품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서비스를 다시금 사유화, 상품화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인식 전환은 생태사회주의에 담겨있다. 자연은 자본을 위한 자원이 되지만, 그 가치는 전제됨과 동시에 부인된다. 자연은 아무런 수선이나 보충 없이 무상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자연은 무한히 회복할 수 있다는 무신경한 믿음이 전제된다. 이로 인해 인간과 비인간 자연 사이의 구별이 강화된다. 인간은 사회·문화적이며 역사적·영적 존재라 여겨지는 반면, 비인간 자연은 그저 주어진 물역사적 물질이라 여겨진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면은 더 많은 자연을 침해하며 제 살 깎아먹기를 자행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탄소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을 사고파는 등 환경주의가 시장화되고 있음도 강하게 비판한다.

세 번째 인식 전환은 자본주의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조건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나온다. 프레이저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구성적 규범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적 권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목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 내용을 실행하게 하는 것, 분쟁을 심판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자본의 생계 수단이라 할 화폐 공급을 지속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 시스템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 이 공적 권력은 영토 국가 안에 고정되어 작동했으며 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분할과 마주한다. 즉 정치(polity)와 경제의 분할이다. 이 둘이 분할하면서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 경제적 강제와 정치적 강제가 제도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가령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봉신으로 이루어진 단일제도가 노동, 토지, 군사력 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는 각기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또한 여기에는 또 다른 구조적 분할이 숨겨져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와 국제 사이의 베스트팔렌적 분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자국주의적 분할이 그것이다. 이들 분할은 점점 더 지구화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영토 국가들이 국제시스템으로 조직된 정치세계 사이의 분할에 의거한다. 신자유주의는 이 정치적 역량을 위기에 빠뜨리는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인식의 전환에서 원시축적은 자본축적의 역사적 전제 조건이면서 근대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는 특징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즉 현재에도 종속된 이들, 소수자화된 이들의 부가 지속적으로 강제 탈취 당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착취와 수탈은 지위 위계와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는데, 임금계약을 통해 구성된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자격과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따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인종적) 타자는 부자유하고, 종속되어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방치된 신세가 됨을 지적한다. 이는 취약한 존재를 구성하는 정치질서(식민 본국과 주변부 민중에 대한 정복과 약탈의 역사를 포함하는)와 연결된다.

이 노동자-시민 대 타자의 분할은 인종적이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연동되어 있다. 프레이저는 작금의 다층적 위기 — 정치 위기, 생태 위기, 사회 재생산의 위기 — 는 주변부와 중심부 모두에서 벌어지는 인종화된 수탈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경제·생태·사회·정치 위기는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적인 억압과 긴밀히 얽혀있으며, 이러한 억압과 결합해 점증하는 적대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노동자와 인종화된 타자 사이의 분할은 앞서 살펴본 생

산과 재생산, 사회와 자연, 정치와 경제의 분할만큼이나 자본주의 사회에 구성적이고 구조적 토대 노릇을 한다.

프레이저는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본주의의 뚜렷한 경제적 특징이 비경제적 배경 조건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르크스적 관점을 비판적 이론작업의 다른 해방적 흐름들 — 페미니즘, 생태주의, 정치이론, 반제국주의, 반인종주의 — 과 연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비경제적 배경조건을 논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살피기 위함이다. 자본주의는 ‘경제 그 이상의 것’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도화된 사회질서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정치·자연·주변부가 자본주의 외부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와 대립한다는 낭만적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폭자는 돌봄, 자연, 직접행동, 커머닝, 공동체주의 등이 본질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것인 양 다루기도 한다. 그 결과 그 실천이 자본주의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프레이저는 사회·정치·자연·주변부는 경제와 동시에 발생하고 경제와 공생관계를 맺으며 발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무신경하게 자본주의의 외부라 상상되는 바에 호소하는 정치 프로젝트는 대개는 자본주의적 고정관념을 되살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우리는 이항 대립을 전제로 한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화된 사회질서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게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자본주의의 비경제적 영역은 자본주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배경 조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비경제적 영역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며, 특정한 환경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이러한 영역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화합하며 서로를 구성해왔고 이러한 공생관계가 각 영역에 자취를 남긴다. 이와 같은 프레이저의 주장은 비판적 이론과 정치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는 프레이저의 전작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책세상, 202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위 책의

제목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사용한 것으로,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에 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는 말에서 따왔다. 프레이저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피면서 신자유주의가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정치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작금의 상황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로 진단한다. 낡은 사회질서는 무너져 내리지만 아직 새로운 세계는 도래하지 않은 상황. 이 책이 위기를 진단하고 그 병증을 열거하는 것에 그쳤다면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에서는 현재의 사회·경제·정치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대안적인 정치 프로젝트의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프레이저는 확장된 자본주의관에 대항하는 확장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시하며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배경조건과 생산 사이의 관계를 변혁할 것을 주문한다. 생산과 재생산, 사회와 자연, 경제와 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상상을 통해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를 최우선을 생각했던 관념을 뒤집어 자연·돌봄·주변부·소수자와의 연대와 젠더·인종·계급의 교차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부분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 정치에 관한 것이다. 프레이저는 미국의 엘리트 중산층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남자 동결의 인기가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기다렸다가 40대, 50대, 아니 60대에 아이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강력한 에너지, 생산적 시기를 회사에 바치세요”라고 꼬집는다. 삶에서 소중한 돌봄과 상호의존의 가치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러나 돌봄과 재생산 활동이 없다면 노동자도, 노동력도, 이윤도, 잉여 자본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 돌봄을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사유하며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여러 운동이 진행 중인 지금 같은 때에 자본주의가 돌봄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를 하찮게 여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돌봄을 폭식하며 위기를 가속화시

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 책은 곁에 두기에 든든한 동반자로 보인다.

■ 참고문헌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성준 옮김,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책세상, 2021.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마. 투고자는 동일 호수에 논문을 2편 이상 투고할 수 없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1월 31일, 7월 31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11월 30일, 5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 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17)	중(16~14)	하(13~10)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17)	중(16~14)	하(13~10)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17)	중(16~14)	하(13~10)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17)	중(16~14)	하(13~10)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점	게재불가
2점	수정 후 재심
3-5점	수정 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 다. 게재자는 3회 연속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회 연속 심사 결과 ‘게재/수정 후 게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게재가’ 논문을 다음 호 게재로 이월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 나.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부칙】

-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 수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

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

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껄적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04. 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김청우(부경대), 김형주(전남대) 박미선(전남대), 신선혜(호남대), 이현재(서울시립대), 정미선(전남대), 최대희(전남대), 한우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전영선(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박상철(전남대), 백승주(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성원(전남대), 김성훈(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 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가족과 커뮤니티』 수록 목록

『가족과 커뮤니티』 1집 (2020. 3.)

창간호 발간사

정미라 | 『가족과 커뮤니티』를 창간하며

일반논문

류명옥 | 시어머니와 며느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 형성과 ‘길들이기’의 의미

Adam F. Braun | “Everyone Deserves a Family”: The Triple Bind of Family in Ari Aster’s Horror

이순구 | 소론 구성에 보이는 조선 가족관계의 특성

김소영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韓)·중(中) 서화가들의 교류와 오세창(吳世昌)의 전각(篆刻)

박주희 |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나타난 교육적 세계관

안용주 | 기혼남녀의 성만족 관련변인 연구

서평

강의혁 | 자본으로 구획화된 도시에서 윤리적 공간의 창출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가족과 커뮤니티』 2집 (2020. 9)

일반논문

권영희 | 여주인공의 가족 갈등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의 충(忠)과 그 의미 - <정을선전>을 중심으로 -

전설련 |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진건화 | <오후강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가족 구성 욕망과 실천의 의미

류재한 | 모파상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 비정상성’에 관한 고찰: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김종수 |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가계와 예학세계

서평

류도향 | 연대하는 신체들의 커뮤니티 - 위태로운 삶의 정치적, 윤리적, 생태적 가능성에 대하여 -

『가족과 커뮤니티』 3집 (2021. 3.)

일반논문

- 정지아 | 『고계정실기(古溪亭實記)』를 통해 살펴본 효자 정려의 의미
한익승 | 조선후기 필기집에 수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과 서술 방식
- 『골동록(汨董錄)』을 중심으로 -
최은주 | 19세기 향촌 지식인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과 그 의미
- 『김병항일록』을 중심으로 -
박일우 | 재만조선인문학에 나타난 가족 해체 양상 연구
- 1930년대 일제의 아편정책과 매매혼 서사를 중심으로 -
김종수 | 조선후기 역병(疫病) 감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대응 양상

서평

- 엄태식 | 이념과 사랑으로 읽은 17세기 장편소설
-

『가족과 커뮤니티』 4집 (2021. 9.)

특별기고

- 이정옥 |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일반논문

- 김소연 |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에
김종구 | 경당 장흥효의 가족에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미라·홍은실 |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서평

- 김기성 |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

『가족과 커뮤니티』 5집 (2022. 3.)

일반논문

류명옥 | 설화에 나타난 경쟁-공감의 구조와 가족 서사의 확장성

구태운 |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에 나타나는 노현자(老賢者)의 역할과 의미

노연숙 | 공동체의 허상과 사랑의 이상: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사랑의 시대(The Commune)> (2016)에 대하여

김종수 |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효제(孝悌) 철학

서평

박선아 | 기꺼이 고통의 장소들 속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6집 (2022. 9.)

일반논문

윤정안 |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한양하 |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성민경 |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이재숙 |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신호식 |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박건우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실증 분석

문창배·최영진 |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평

윤수진 |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7집 (2023. 3.)

특별기고

김미경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성평등정책의 과제

일반논문

황명환 | 성호 이익 한시에 나타난 친족 교류의 양상 연구

김종수 | 청풍승평계(淸風昇平契)의 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

이원석 | 북송대의 입양 습속에 대한 구양수의 견해

- 그의 복의(濮議)를 중심으로 -

위민호·류도향 | 커뮤니티를 통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이론의 현재성 -

박건우 |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

홍성호 | 가족의 분거와 삶에 대한 만족

문창배·최영진 | 일반계고등학교생의 가정경제 정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 매개효과

현장 & Issue

장화선 | 광합성 광주를 꿈꾸며

서평

추주희 | ‘가족’을 폐기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가족과 커뮤니티』 8집 (2023. 7.)

기획특집: 한국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현주 | 한국 고대의 ‘가(家)’의 기원: 신라의 골(骨)과 족(族)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정란 | 고려시대 여성사의 연구성과와 가족·친족제

박미선 | 조선 시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2022년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홍양희 | ‘가족의 시대’에서 ‘포스트-가족’의 시대로: 한국 근대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반논문

진서금 | 『신설서유기도상(新說西遊記圖像)』에 나타난 유가적 관점에 관한
고찰

정천구 | <사복불언>에 나타난 모자(母子)의 수행과 성불

최희영 | 20세기 초 하와이 한인 가족과 커뮤니티 양상: 『두 이민의
꿈(The Dreams of Two Yi-min)』 분석을 중심으로

양소영 | 김윤성과 정한모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어느 조산사의 구술사: 체험과 경험의 이야기

김덕삼·이경자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와 학교의 역할 탐구

서평

정미선 | 가족의 약속으로부터 돌봄을 구하기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저서 목록

1. 연구총서

-
- 박미선 외, [연구총서1] 가족주의와 가족의 경계들, 한국문화사, 2020. 2. 29.
- 추주희·나영정 외, [국가전략총서1] 가족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류도향·추주희 외, [국가전략총서2]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고광이·허진원, [국가전략총서3]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29.
- Elsa Dolin 외, [연구총서2] 가족의 재의미화 커뮤니티의 도전, 한국문화사, 2021.
1. 30.
- Brett Nielson 외, [연구총서3] 역동하는 관계와 가족커뮤니티, 한국문화사, 2023. 1.
27.
- 한의승 외, [국가전략총서4] 가족커뮤니티 윤리와 가족실천, 전남대학교출판문화
원, 2024. 1. 31.
- Uma Krishnan 외, [연구총서4], 가족커뮤니티와 다성적주체론, 한국문화사, 2024.
2. 23.
-

2. 번역총서

-
- 박성원 지음, 양순자·조우진·정영수 옮김, [번역총서2] 돈효록: 조선 선비의 효경
집대성, 한국문화사, 2019. 5. 31.
- Tony Blackshaw 지음, 강의혁 외 옮김, [번역총서1]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
국문화사, 2021. 1. 30.
- Lodger Pries 지음, 최대화·장영숙 옮김, [번역총서3] 초국화: 경계를 넘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23. 2. 28.
- Avishai Margalit 지음,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번역총서4] 기억의 윤리, 한국
문화사, 2023. 6. 19.
- 岡野八代 지음, 이수진·박경희 옮김, [번역총서5] 가족 — 새로운 「친밀권」을 찾아
서, 한국문화사, 2023. 9. 27.
-

3. 시민문화총서

강의혁 외, [시민문화총서1] 안과 밖의 경계 가족과 공동체의 풍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 28.

정미라 외, [시민문화총서2] 가족인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드림미디어, 2021. 1. 29.

류도향 외, [시민문화총서4]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 인문학과 종교의 대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김석봉 외, [시민문화총서3]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2. 28.

4. 인문지표총서

류도향 외, [인문지표총서1]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가까운 사이,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8.

가족과 커뮤니티 (제9집) FAMILY AND COMMUNITY

발 행 일: 2024년 1월 31일

발 행 인: 정미라

발 행 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nuinmun.org/>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 062-530-5218

E-mail : familycommunity@naver.com

인 쇄 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연 락 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062-530-0571~5

팩 스: 062-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p.co.kr>

E-mail : cnup0571@hanmail.net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